

# 성경 공과

제2권

가정 예배 (For Home Worship)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다

상응 해석으로 합리적 이해를 돕는 책

아니타 돌 지음 / 배제형 편역

도서 출판 벽옥



상응 해석으로 합리적 이해를 돕는

# 성경 공과

제2권

For Home Worship



아니타 에스. 돌 지음  
배제형 편저

도서 출판 벽옥

# BIBLE STUDY NOTES

MEMORIAL EDITION

By Anita S. Dole

Edited By Wm. R. Woofenden

AMERICAN NEW CHURCH  
SUNDAY SCHOOL ASSOCIATION

## 이 책에 대하여....

이 책은 성경의 깊은 뜻을 전문가의 도움 없이 자신 스스로 이해하고 예배를 인도 해가는 분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영문판인 Anita S. Dole여사의 Bible Study Notes는 기념 출판용인지라 성경의 순서에 따라 6권의 책으로 편집되고 있으나 한국어판은 저자의 취지 그대로 매주 1회 4년을 성경 공부의 한 주기가 되도록 4권으로 재편집하였는데, 다시 각 권에는 6반(수준)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제2권 가정 예배를 위해, home worship 만을 모아 가지고 재편집한 것입니다.

이 책, 가정 예배 (Home Worship)편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회 예배에 참석못하거나, 또는 가정 예배의 중요성을 감지한 부모들을 위한 설교 자료이므로 이 자료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와 필요시 찬송 까지 곁들이면 가정에서도 주님을 향한 성심어린 예배를 훌륭히 꾸려가리라 확신합니다.

성서는 구절이나 문맥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세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중 기초인 글자의미 “예수의 겉옷”을 통해 전달되므로 성서를 읽는다면 누구나 알 수 있고 지상의 모든 교과가 자기들에게 적합하도록 찢어 다시 꿰매 수도 있는 성서 지식입니다.(요한복음 19장 23-24절) 그러나 영적 의미는 “예수의 속옷”입니다. 이 옷은 “위에서 아래까지 혼술 없이 통으로 짠 것”으로 인간의 거듭남을 위한 지식을 알려 줍니다. 가장 깊은 의미인 천적 의미는 주님 자신에 관한 사항들, 특히 주님께서 신성화 하신 과정의 설명입니다.

이 책에서 다루지 않는 성서, 즉 율기, 잠언...바울 서신 등등은 여러분 스스로의 이해의 범주에 있어 선견자의 도움이나 여느 누구에 의한 별도의 강론이 필요 없는바 각자 열심을 내어 읽어 숙지하기 바랍니다.

이 책이 공동 번역 성서를 사용하는 이유는, 읽기가 더 수월한 것같이 여겨졌기 때문에서입니다. 그러나 상응적인 해석과 이해를 위해 개역 성경 또는 영문 성경을 사용할 때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의역이 심할 경우 상응에 의한 해석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

다.

[www.baysidechurch.org](http://www.baysidechurch.org) 사이트를 방문하면 성서의 합리적 이해를 위한 더 많은 자료를 발견 할 수 있습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마태복음 13장 46절

## 차례

이 책에 대하여...

1. 창조(첫 4일)	창세기 1장1-19절	9
2. 아담의 일을 거들 짝	창세기 2장 8-25절	14
3. 홍수가 빠지다	창세기 8장	19
4. 아브람과 롯	창세기 13장 1-13절, 14장 1-16절	24
5.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다	창세기 22장 1-14절	29
6. 야곱의 꿈	창세기 28장	35
7. 감옥에 갇힌 요셉	창세기 39; 40장	39
8. 불붙은 떨기나무	출애굽기 3장	45
9. 마라와 엘림	출애굽기 15장	51
10. 퀘	출애굽기 25장 1-12절	56
11. 열 두 스파이	민수기 13; 14장	61
12. 여호수아를 부르심	여호수아 1장	69
13. 아이 성의 포획	여호수아 7; 8장	74
14. 판관 기드온	판관기 6; 7장	82
15. 주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다	사무엘상 3장	90
16. 사울의 성급함	사무엘상 13장	94
17. 다윗과 골리앗	사무엘상 17장	100
18. 솔로몬의 영화	열왕기상 9:10장	108
19. 호렙 산에서의 엘리야	열왕기상 19장	115
20. 히즈기야 왕과 이사야	열왕기하 20장	121
21. 시편에 관하여(2)	시편 19편	126
22. 대 예언서에 관하여(2)	예레미야 1장	131
23. 에제키엘의 환상	에제키엘 1장	135
24. 소 예언서에 관하여	요엘 4장 9-20절(개역 성경 3: 9-21)	140
25. 요나와 큰 물고기	요나 1, 2장	144
26. 주님의 세례	마가복음 1장	149

27. 새 포도주	마가복음 2장	155
28. 열 두 사도	마가복음 3장	161
29. 비유로 가르치신 주님	마가복음 4장	167
30. 기적을 베푸신 주님	마가복음 5장	172
31.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마가복음 6장	178
32. 어린이를 축복하신 주님	마가복음 10장	185
33.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	마가복음 11장	192
34. 성 만찬	마가복음 14장	198
35. 십자가에 못박히신 주님	마가복음 15장	206
36. 부활하신 예수	마가복음 16장	212
37. 옥좌를 본 요한의 환상	요한 계시록 4장	217
38. 봉인된 책	요한 계시록 5장	222
39. 심판과 거룩한 성	요한 계시록 20장 1-15절, 21장 1-7절	227
40. 새 교회 날	요한계시록 22장 13-21절	232



# 1

## 창조 (첫 4일)

### 머리말

창조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있어서 염두 해야 할 사항은 창조 이야기가 성서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모든 성서의 반석이 된다는 것이다. 즉, 만물의 시작으로서의 주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심이다. 이는 영적 이해와 진정한 선한 생활에 필수 사항이다. 성경 공부는 우리가 진실로 주님을 섬길 수 있기 위해서와 주님과 우리를 위한 그분의 목적을 배우기 위함이다. 이 배움을 위한 유일하며 확실한 근원은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알 수 있도록 주신 그분의 말씀이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 더 나아가 우리에게 더 깊은 이해를 열어 주시는 말씀을 공부해 가는 것이다. 우리는 제 2권을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 공부의 기초인 책은 주님의 책이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는 것을 다짐해야 한다. 본문은 창조의 첫 4일 동안에 관한 것이나, 7일간의 이모저모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한다.

### 성 서 본 문: 창세기 1장 1-19절

1장: 1. 한 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어 내셨다. 2. 땅은 아직 모양을 갖추지 않고 아무 것도 생기지 않았는데, 어둠이 깊은 물 위에 뒤덮여 있었고 그 물 위에 하느님의 기운이 휘돌고 있었다. 3. 하느님께서 “빛이 생겨라!” 하시자 빛이 생겨났다. 4. 그 빛이 하느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느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5. 빛을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 이렇게 첫날이 밤, 낮 하루가 지났다. 6. 하느님께서 “물 한가운데 창공이 생겨 물과 물 사이가 갈라져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7.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창공을 만들어 창공 아래 있는 물과 창공 위에 있는 물을 갈라

놓으셨다. 8. 하느님께서 그 창공을 하늘이라 부르셨다. 이렇게 이튿날도 밤, 낮 하루가 지났다. 9. 하느님께서 “하늘 아래 있는 물이 한 곳으로 모여, 마른 땅이 드러나거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10. 하느님께서 마른 땅을 물이라, 물이 모인 곳을 바다라 부르셨다. 하느님께서 보시기 참 좋았다.

11. 하느님께서 “땅에서 푸른 움이 돋아 나거라! 땅 위에 낱알을 내는 풀과 씨 있는 온갖 과일나무가 돋아 나거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12. 이리하여 땅에는 푸른 움이 돋아났다. 낱알을 내는 온갖 풀과 씨 있는 온갖 과일나무가 돋아났다. 하느님께서 보시기 참 좋았다. 13. 이렇게 사흘날도 밤, 낮 하루가 지났다.

14. 하느님께서 “하늘 창공에 빛나는 것들이 생겨 밤과 낮을 갈라놓고 절기와 나날과 해를 나타내는 표가 되어라! 15. 또 하늘 창공에서 땅을 환히 비추어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16. 하느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두 큰 빛 가운데서 더 큰 빛은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작은 빛은 밤을 다스리게 하셨다. 또 별들도 만드셨다.

17. 하느님께서 이 빛나는 것들을 하늘 창공에 걸어 놓고 땅을 비추게 하셨다.

18. 이리하여 밝음과 어둠을 갈라놓으시고 낮과 밤을 다스리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보시기 참 좋았다. 19. 이렇게 나흘날도 밤, 낮 하루가 지났다.

### 교리 요약 (Doctrinal Points)

- \* 우리는 주님이 만물의 창조자시라는 것과 그분의 이름 「Jehovah,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분, I am”이라는 뜻을 첫 째로 알아야 한다.
- \* 말씀 전체는 상응(correspondence)의 언어로 쓰인 비유이다.
- \* 믿음이란 어떤 것을 진정으로 받아들임이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것을 잘 이해하게 되면 더 많은 믿음을 갖게 된다.
- \* 선한 행실로 인도하지 못한 진리는 열매 없는 나무와 같다.

### 해설

창세기란 (Genesis) “시작(beginning)”이라는 뜻이다. 성서의 첫말은 “한 처음에

하느님께서서...”이다. 이는 우리가 동물이 아닌 진정한 인간으로 존재하기 위해 알아야 할 첫 번째 사항이다. 동물은 육체적 사항을 넘는 것은 아무 것도 알 수 없으나 인간은 하느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동물과 인간의 진정한 차이점이다.

우리는 언뜻 생각해 보아도 하느님은 인간 스스로도 파악할 수 있는 것, 즉 자연계의 것을 알려 주시게 하기 위해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심을 알 수 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한 것은 그분 자신과 우리의 영혼(soul)에 관한 것이다. 이는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것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성서의 첫 장은 많은 사람에게 논쟁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그것은 진실로 인간 영혼의 창조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이 이야기는 경이로운 비유이며 상징적 이야기로서, 인간이 상징적 언어로 말할 당시에 쓰인 고대 말씀(Ancient Word)으로부터 취해진 것이다, 그 이유는 고대 사람들이 그들 주위의 세상 속의 모든 것을 인간 영혼과 하느님 안에 있는 어떤 것에 대한 표현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을 통틀어 그분은 우리들에게 위와 같은 언어로 말씀하고 계신다. 따라서 이를 공부하면,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려는 말씀을 보다 더 이해하게 된다. 성서는 야곱의 사다리와 같아서, 성서의 발은 지상 위에 닿아 있고 그 끝은 하느님에게까지 도달되고 있다. 그리하여 하느님의 생각들은 성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내려와지고, 우리의 생각들은 성서를 통하여 그분에게까지 올라간다. 이 올라감은 바로 사다리에 있는 천사들이다. 이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 28장 10-22절을 통해 알 수 있다. 남녀노소에 관계없이 누구나 성서에 주어진 글자대로의 이야기들을 우선적으로 잘 알아두어야 한다. 그 이유는 성서 안에서 하느님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참고 문헌: 스웨덴북의 저술에서(From the Writings of Swedenborg)**

**천국의 신비(Arcana Coelestia 제 22항):** “저녁과 아침이 의미하는 것에 관해 살펴보자. 저녁이란 먼저 있어지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이는 저녁은 그들의 상태, 즉 거짓에 속해 있거나 믿음이 없는 상태에 속하기 때문이다. 반면 아침은 저녁에 이어 일어나는 상태 즉 빛의 지식들, 진리의 지식들 혹은 믿음의 지식들에 관한 상태이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저녁은 인간 고유에 속한 모든 것을 의미하고 아침은

주님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의미한다. 이는 다윗을 통해 말해진 “야훼께서 나에게 영감을 주시어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바위 되시는 이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을 정의로 다스리는 자, 하느님 두려운 줄 알고 왕 노릇 할 자, 그는 아침에 터져 오는 햇빛, 구름이 걷힌 아침의 해 같아, 이슬을 머금은 푸성귀가 땅에서 이 빛을 받아 자란다.”라는 구절을 통해 알 수 있다. (사무엘 하 23:2-4) 믿음이 없는 때가 저녁이며 믿음이 있는 때가 아침이다. 따라서 주님이 세상에 오심은 아침이라 불리고, 그분이 오시기 바로 직전은 믿음이 없는 때로 저녁이라고 불린다. 이와 같이 아침은 성서에서 주님이 오시는 각각의 때를 나타내는데 사용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그것은 새 창조의 표현에도 사용되고 있다.”

**천국의 신비**(Arcana Coelestia 제 29항의 1); “ ‘땅’ 또는 인간이 주님으로부터 천적인 씨들을 받도록 준비되어 선과 진리인 어떤 것을 산출해내도록 준비되었을 때 주님은 어떤 부드러운 것이 생겨나도록 해 주신다. 이것이 ‘푸른 움’이라고 불린다. 그 다음 좀 더 유용한 것, 즉 씨를 맺는 것이 ‘날알을 내는 풀’이라고 일컬어진다. 좀 더 나아가 과일이 되는 선한 것들은 ‘씨 있는 과일 나무’로 일컬어진다. 거둬나고 있는 사람은 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처음에 행하는 선 혹은 그가 말하는 진리의 출처가 주님으로부터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으로부터라고 상상한다. 이렇게 상상하는 수준에서는 믿음의 생명을 가지지 못하지만, 그는 후에 믿음으로부터 생명을 가질 수 있다. 그 이유는 단지 그가 믿음의 생명을 담은 그릇을 준비하는 상태에 있어서 선과 진리가 주님으로부터 비롯됨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상태는 움직이지 않는 것(풀, 나무)으로 표현되고, 믿음 속에 생명이 있는 것은 움직이는 것으로 표현된다.”

**진정한 기독교 종교** (True Christian Religion 제 73-2항): “인간들에게 명해진 질서의 법칙들에 따르면 사람은 스스로를 위해 말씀으로부터 진리를 습득해야하며 자연적 차원에서 그것을 숙고하되 능력이 되는 한도 내에서 합리적으로 반출하여 스스로를 위한 자연적 차원의 믿음을 얻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하느님 측면에서 질서의 법칙은 그분이 스스로 인간에게 접근하셔서 그분의 신성한 빛을 가진 진리로 채워져 인간의 자연적 믿음인 지식이나 신념 안에 신성한 본질로 채우시는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는 구원받는 믿음이 생겨날 수 없다”

## 질문 정리

- 1) 누가 세상을 만들었는가?
- 2) 하느님에 대해 어떤 책이 말해 주는가?
- 3) 빛은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는가?
- 4) 주님은 우리를 위해 어떤 특별한 빛을 만드셨는가?
- 5) 성서는 며칠 동안에 세상이 창조되었다고 하는가?
- 6) 일곱째 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 7) 우리 영혼의 측면에서 하늘과 땅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8) 빛은 무엇과 상응되는가?
- 9) 창조 이야기는 실제로 무엇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 10) 주님은 왜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셨는가?
- 11) 영적으로 안식일에 쉰다는 것은 무엇인가?

## 질문의 답

- 1) 하느님
- 2) 성서
- 3) 우리로 보게 해줌
- 4) 해, 달, 별들
- 5) 6일
- 6) 하느님이 쉬셨다
- 7) 보다 높은 본성과 보다 낮은 본성
- 8) 진리
- 9) 하느님이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발달시키시는가에 대해서
- 10) 인류로부터 천국을 이루시기 위해
- 11) 거듭남 또는 인격의 완성

# 2

# 아담의 일을 도울 짝

## 머리말

본문은 글자적인 면에서는 아주 짧지만 그 이야기는 놀랄만하다. 따라서 본문을 여러 번 읽는데 긴 시간이 소요되지 않으므로, 미리 반복해서 읽은 후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 용이할 것이다. 이는 본문을 읽어 가다보면 여러 가지 의문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본과의 짧은 지면에서 예상되는 질문 모두를 다룰 수는 없으나 많은 의문은 본과를 공부하는데 있어 흥미를 더해 갈 것이다.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신 다음...”의 짧은 구절에는 어느 누구도 글자에서 발견하지 못하는 깊게 감추어진 의미가 들어 있다. 단어 “갈빗대”에는 주님 자신과 그분의 나라에 관한 가장 깊은 내용이 담겨 있고 이로부터 말씀의 모든 생명이 오고 있음을 염두 해 두고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자.

## 성 서 본 문: 창세기 2장 8-25절

2장: 8. 야훼 하느님께서 동쪽에 있는 에덴이라는 곳에 동산을 마련하시고 당신께서 빚어 만드신 사람을 그리로 데려다가 살게 하셨다. 9. 야훼 하느님께서 보기 좋고 맛있는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그 땅에서 돌아나게 하셨다. 또 그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돌아나게 하셨다.

10. 에덴에서 강 하나가 흘러 나와 그 동산을 적신 다음 네 줄기로 갈라졌다.

11. 첫째 강줄기의 이름은 비손이라 하는데, 은과 금이 나는 하월라 땅을 돌아 흐르고 있었다. 12. 그 땅은 좋은 금뿐 아니라 브돌라라는 향료와 홍옥수 같은 보석이 나는 곳이었다.

13. 둘째 강줄기의 이름은 기혼이라 하는데, 구스 온 땅을 돌아 흐르고 있었다. 14. 세째 강줄기의 이름은 티그리스라 하는데, 아시리아 동쪽으로 흐르고 있었고, 네째 강줄기의 이름은 유프라테스라고 하였다.

15. 야훼 하느님께서 아담을 데려다가 에덴에 있는 이 동산을 돌보게 하시며

16. 이렇게 이르셨다. “이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는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따 먹어라.  
 17.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은 따 먹지 말아라. 그것을 따 먹는  
 날, 너는 반드시 죽는다.” 18. 야훼 하느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의 일을 거들 짝을 만들어 주리라”하시고, 19.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하나하나  
 진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아담에게 데려다 주시고는 그가 무슨 이름을 붙이는가  
 보고 계셨다. 아담이 동물 하나하나에게 붙여 준 것이 그대로 그 동물의 이름이  
 되었다. 20. 이렇게 아담은 집짐승과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이름을 붙여 주었지만  
 그 가운데는 그의 일을 거들 짝이 보이지 않았다. 21. 그래서 야훼 하느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다음, 아담의 갈빗대를 하나 뽑고 그 자리를 살로 메우시고는  
 22.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신 다음, 아담에게 데려 오시자 23. 아담은 이렇게 외쳤  
 다. “드디어 나타났구나! 내 뼈에서 나온 뼈요, 내 살에서 나온 살이로구나. 지아비에게  
 서 나왔으니 지어미라고 부르리라!” 24. 이리하여 남자는 아버이를 떠나 아내와  
 어울려 한 몸이 되게 되었다. 25. 아담 내외는 알몸이면서도 서로 부끄러운 줄을  
 몰랐다.

### 교리 요점

- \* 모든 진정한 생명은 주님으로부터만 온다.
- \*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성서의 부분일지라도 주님께서 스웨덴복음 통해 밝혀주  
 신 증거들로 모두 이해된다.
- \* 태고 교회에서는 진리가 하늘로부터 직접 인간에게 주어질 수 있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심정이 선했기 때문이다.
- \* 결혼은 영원이다. 진정한 결혼은 인간이 도달해야 할 가장 높은 상태이다. 그러나  
 이 상태는 남편과 아내가 함께 주님을 섬기려고 노력할 때만이 가능하며 더불어  
 서로가 자신보다 상대방의 행복을 더 소원함으로써 이루어진다.

### 해설

아담의 갈빗대로부터 이브를 창조하는 이야기는 성경을 사랑하는 많은 이들을 당황하게 할 뿐 아니라 초보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로 지목된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깊은 교훈을 내포한 상징적 이야기이다. 부모들은 자기의 자녀들이 갓난아기로부터 독립된 삶을 원하는 나이까지 성장하는 과정을 본다. 이 과정은 자연적 발달 과정으로, 어떠한 부모도 자기 자녀가 영원히 갓난아기로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 인류 역시 이와 같은 변화를 겪는다. 태초에 그들은 갓난아기가 어머니에 전적으로 의존하듯이 주님께 의존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인류학적 혹은 고고학적 학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야만적인 삶과는 질적으로 다름을 알아야 한다. 그들은 조화를 이루며 평화롭게 살았고 모든 것을 위해 주님을 찾았다. 이것이 지상 위에 발달된 첫 교회의 상태이며, 이 교회를 태고 교회(Most Ancient Church)라 부른다. 이것은 신화속의 황금시대이며, 성경에서는 에덴의 동산이라는 상징적 언어로 기술되고 있다. 에덴은 “기쁨”이라는 뜻이다.

인류는 갓난아기가 성장해가듯 자라나야만 했다. 남녀는 그들 자신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독립된 인간 존재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즉, 그들은 자의식을 갖기 시작했다. 자의식에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다. “애 너는 자의식이 너무 강해...”라는 표현을 떠올려 보자. 이는 “너는 자신을 조금도 포기하려 들지 않아.” 혹은 “네 입장을 고수하는 것도 좋지만 남의 신발(입장)로 바꿔 신고서 생각해 봐.”라는 내용도 내포한다. 이는 이기심의 형체이기 때문에 어떤 충고의 말도 그 사람의 귓전에 머물기가 힘들다는 말이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개개인이 다 중요함을 인식해야 한다. 즉, 각 개인은 서로 식별되지 않는 특별한 능력, 세상을 채울 특별한 장소 그리고 세상에서 수행하게 될 특별한 씬씀이를 갖는다는 것이다. 이기적인 개인과 이타적인 개인의 차이점은 갈빗대가 아담의 몸속에 있었을 때는 거의 생명이 없지만 주님이 그것을 뽑아 내셔서 그분의 생명을 불어넣으신 후에 갖는 뼈의 차이와 같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그들의 최고 행복은 주님을 섬김과 이웃을 도움으로써 얻게 됨을 가르쳐야 한다.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최고의 원인은 이기심을 옹립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본문의 실제적인 교훈이다. 우리는 단어 아담(Adam)이란 인류라는 뜻을 지닌 히브리어임을 알아야 한다. 이 단어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느님의 모습대로 사람을 지어내시되...”에서의 사람과 같은 단어이다. 하지만 번역 상에서 사람 또는 본문에서는 아담으로



되어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스웨덴북의 저술에서

천국의 신비 제 154항: “악과 거짓 중 인간의 것(man's own)에서 비롯되지 않았을 가능성은 하나도 없다. 인간의 것은 그 자체로 악이므로, 인간은 곧 악과 거짓이 된다. 이는 영들의 세계에서 환히 보여 진 사실에서 나에게 명확해졌다. 그들은 아주 모양 없이 흉하게 되어 있어 그 흉측한 어떤 모양을 글로 적는다는 것은 불가능할지 모른다. 단지 나의 것(own)이라는 본성에 따라 차이만 있을 뿐이다. 그래서 나의 것 속의 것들이 보여 지게 되면 너무나 떨릴 뿐이다. 따라서 누구나 악마로부터 달아나고 싶어 하듯 나의 것에게서 달아나고 싶은 바램만 있게 된다. 그러나 주님에 의해 생기가 불어넣어진 인간의 것에 대한 것들은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나타난다. 즉, 그것들은 주님의 천적인 것들이 적용되는 양상에 따라 다양하게 아름다워진다. 선행(charity)이 부여되어온 이들 또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생기가 있는 이들은 아주 아름다운 용모를 갖춘 소년 소녀들로 나타난다. 그들은 별거벗은 유아같이 순진한 이들로서 가슴 주위는 꽃다발로 장식하고, 그들 머리에 씌워진 왕관은 다이아몬드와 같은 광채를 발하며 살아 움직인다. 그리고 그들은 아주 깊숙한 곳에서 오는 행복의 지각을 갖고 있다”

### 질문 정리

- 1) 우리는 어떤 책을 공부하고 있는가?
- 2) 이 책은 누가 썼는가?
- 3) 성경의 첫 장은 무엇에 관한 것인가?
- 4) 창세기란 어떤 의미인가?
- 5) 첫 사람의 보금자리로서 어떤 아름다운 곳이 주어졌는가?
- 6) 에덴의 동산은 무엇으로 적시어졌는가?
- 7) 주님은 그들을 위해 그곳에 무엇을 설비해 주셨는가?

- 8) 동산에서 어떤 두 나무가 특별히 언급되는가?
- 9) 본문에서는 첫 사람이 특별히 뭐라고 불리는가?
- 10) 아담은 가지지 않아야 할 어떤 것을 원했는가?
- 11) 주님은 아담에게 동물과 새들에 관해 무엇을 해보라고 하셨는가?
- 12) 아담이 잠들자 주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 13) 신화에서는 에덴의 동산을 뭐라고 하는가?
- 14) 스웨덴북은 에덴의 동산을 어떻게 부르는가?
- 15) 사람이 “홀로” 있음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16) 갈빗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 17) 갈빗대로 여자를 지음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18) 진정한 결혼의 기초는 무엇인가?

#### 질문의 답

- 1) 성서 2) 하느님 3) 창조 4) 시작 5) 에덴 6) 강
- 7) 과일 나무, 씨 있는 식물 8) 생명, 지식 9) 아담 10)아내
- 11)동물과 새에게 이름을 붙임 12)갈빗대를 취하시어 여인을 만듦
- 13)황금시대 14)태고 교회
- 15)하느님께 가까이 있음 16)자아, 자신
- 17)하느님에 의해 아름답게 만들어짐 18)둘 다 함께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바램

## 3

# 홍수가 빠지다

## 머리말

본과를 공부하기 위해 본문인 8장과 더불어 5 - 7장을 읽어두면 홍수에 대한 배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태고 교회와 고대 교회 그리고 천적인 본성과 영적인 본성에 대한 비교가 많이 언급될 것인데, 본과를 통해 친숙하지 않는 용어들에 익숙해지는 기회를 갖기 바란다. 용어들에 대한 간단한 실례로서 유아와 어린이의 차이점을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될 것이다.

## 성 서 본 문: 창세기 8장

8장: 1. 하느님께서 노아와, 배에 있던 모든 들짐승과 짐짐승들의 생각이 나서서 바람을 일으키시니, 물이 빠기 시작하였다. 2. 땅 밑 큰 물줄기와 하늘 구멍이 막혀 하늘에서 내리던 비가 멎었다. 3. 그리하여 땅에서 물이 줄어들기 시작한 지 백 오십 일이 되던 날인 4. 칠월 십 칠일에 배는 마침내 아라랏산 등마루에 머물렀다. 5. 물은 시월이 오기까지 계속 줄어서 마침내 시월 초하루에 산봉우리가 드러났다. 6. 사십 일 뒤에 노아는 자기가 만든 배의 창을 열고 7. 까마귀 한 마리를 내보내었다. 그 까마귀는 땅에서 물이 다 마를 때까지 이리저리 날아 다녔다. 8. 노아가 다시 지면에서 물이 얼마나 빠졌는지 알아보려고 비둘기 한 마리를 내보내었다. 9. 그 비둘기는 발을 붙이고 앉을 곳을 찾지 못하고 그냥 돌아 왔다. 물이 아직 온 땅에 뒤덮여 있었던 것이다. 노아는 손을 내밀어 비둘기를 배 안으로 받아 들였다. 10. 노아는 이레를 더 기다리다가 그 비둘기를 다시 배에서 내보내었다. 11. 비둘기는 저녁때가 되어 되돌아 왔는데 부리에 금방 탄 올리브 이파리를 물고 있었다. 그제야 노아는 물이 줄었다는 것을 알았다. 12. 노아는 다시 이레를 더 기다려 비둘기를 내어 보냈다. 비둘기가 이번에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13. 노아가 육 백 한 살이 되던 해 정월 초하루, 물이 다 빠져 땅은 말라 있었다. 노아가 배 뚜껑을 열고 내다보니,

과연 지면은 말라 있었다. 14. 이월 이십 칠일, 땅이 다 마르자, 15. 하느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16. “너는 아내와 아들과 며느리들을 데리고 배에서 나오너라. 17. 새나 짐승이나 땅에서 기어 다니는 길짐승까지, 너와 함께 있던 모든 동물을 데리고 나와 땅위에서 떼 지어 살며 새끼를 많이 낳아 땅위에 두루 번져나게 하여라.” 18. 노아는 아내와 아들과 며느리들을 데리고 배에서 나왔다. 19. 들짐승과 짐승과 새와 땅위를 기어 다니는 길짐승들도 그 종류별로 모두 배에서 따라 나왔다. 20. 노아는 야훼 앞에 제단을 쌓고 모든 정한 들짐승과 정한 새 가운데서 번제물을 골라 그 제단 위에 바쳤다. 21. 야훼께서 그 향긋한 냄새를 맡으시고 속으로 다짐하셨다. “사람은 어려서부터 악한 마음을 품게 마련,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으리라. 다시는 전처럼 모든 짐승을 없애 버리지 않으리라. 땅이 있는 한 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밤과 낮이 쉬지 않고 오리라.”

### 교리 요점

- \* 하나의 교회가 그 교회에 주어진 진리에서 벗어나면, 주님은 언제나 새로운 형태로 진리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준비해 두신다.
- \* 고대 말씀은 우리의 성경 이전에 있었는데, 그것은 고대 교회의 가르침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 \* 인간의 의지가 전적으로 타락되자, 주님은 양심의 발달을 통하여 인간의 이해성 안에 하나의 새로움이 형성될 수 있도록 인간의 의지와 이해성을 분리시키셨다.
- \* 우리는 주님이 의를 행함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기 전에 의를 행하는 습관을 형성해 두어야 한다.

### 해설

여러분은 자녀들이 여러 인간과 동물 그리고 많은 식량이 겨우 450피트 길이, 75 피트 넓이 그리고 45피트 높이인 배 안으로 들어 갈 수 있었을까하고 의아해 하거나 여러분 역시 그것을 가늠해보고 의아해 했을지도 모른다. 또한 40일 동안 내린

비가 과연 산꼭대기까지 덮는 것이 가능 했을까하는 의문을 가졌을지도 모른다. 고대 말씀에서 취해진 성경 이야기 부분은 모두 상징적 언어로 쓰였기 때문에 글자적인 이야기로 그 깊은 뜻을 파악할 수 없다.

우리는 때로 어떤 이가 심각한 시험을 겪고 있을 때, “그 시험에 버티어 내기란 그에게는 너무나 역부족이었을 거야. 그러니 싹 쏠려 내려갈 수밖에.”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처럼 우리는 종종 인생의 어느 부분을 폭풍우에 빗대서 말한다. 태고 교회의 사람들은 그들의 독립성을 언제나 이타적인 방법으로만 사용하지는 않았다. 오늘날의 우리 역시 그들과 마찬가지로이다. 자녀 교육을 예로 들자면,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하게 내버려 두는 것은 그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 혹은 그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교만하고 이기적인 습관을 키워 타인을 해치고 결국에는 스스로를 해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한다. 초기 사람들의 후손들은 그들의 독립성을 더욱 이기적으로 사용하는 시험을 산출해 가고 있어서 그 경향성은 대대로 상속되어 졌다. 결국 그들은 이기심이라는 괴물로 전락하고 말았다. 뱀 그리고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이러한 하강을 잘 묘사한다. 제 4장과 5장에 기록되어 있는 족보들은 각 개인의 출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태고 교회 사람들의 단계적 계보를 뜻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이기적인 바램과 거짓된 생각은 점점 커져서 마치 홍수로 “싹 쏠어”지듯이 쏠려버린 것이다. 그러나 그들 중에는 선해지고자 노력했던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노아라는 상징적인 이야기로 기술되고 있다. 노아가 방주를 짓듯이 그들은 주님의 명령에 따라 그들의 삶을 지어왔기 때문에 그들은 악과 거짓이라는 홍수를 잘 넘기게 되었다. 마태복음 7장 24-27절을 읽어 보자. 우리가 잘못된 줄 알면서도 하고 싶은 욕망에 유혹될 때 우리의 유일한 안전은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분의 계명에 꼭 달라붙어 있음으로만 가능하다. 우리는 이러할 때 매우 힘들어 하고 삶을 팍팍 하게 여기며 자신이 왜 교회에 참석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을지도 모른다. 이는 마치 노아가 방주의 문을 닫고 홍수위에 떠서 이리 저리로 떠다니는 광경과 같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옳으므로 꾸준히 시험을 인내하다 보면 더 이상 그것이 우리를 괴롭힐 수 없는 때가 오게 된다. 그리하여 우리는 더 충만 되고 더 자유로운 삶으로 한 단계 건너뛰게 된다. 이것이 바로 본문에서 주는 교훈이다. 이야기의 세부 사항에는 더 많은 의미들이 담겨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공부해 나가길 바란다.

### 참고 문헌 -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천국의 신비 제 927항: “태고 교회의 사람들은 의지와 이해성이 하나의 마음으로 형성되었다는 것과 그렇게 구성된 사람에게 사랑이 그의 의지 부분 안에 이식되고 믿음이 그의 마음의 지적 부분을 채우도록 되었음을 보여 주셨다. 그리고 이로부터 그들의 후손들에게 의지와 이해성이 하나가 되는 조건이 상속되었다. 그러나 자아 사랑과 이에 따른 발광적인 탐욕은 그들의 의지 부분(과거 주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향한 선행이 자리 잡았던 부분)을 차지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그들의 의지 부분 또는 의지 전체가 타락해 버릴 뿐만 아니라 그들의 지적 부분 즉 이해성도 완전히 뒤집어지고 말았다. 이리하여 마지막 후손들은 탐욕 안에 든 거짓에 침식되어 ‘느빌림’이 되었고, 이로 인해 그들의 본성이 탐욕과 거짓 자체가 되어 그들은 회복될 수 없게 되었다. 그 이유는 마음의 두 부분(심정과 지성 혹은 의지와 이해성)이 모두 망가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상황 또한 예견하셨으므로 인간의 개량을 위한 설비를 인간 속에 장치해 두셨다. 그 장치란 마음속의 두 번째인 지적 부분을 통해서 재구성되고 거듭 나도록 하는 방법이었다. 지적 부분 안에 양심이라는 새 의지가 심어지도록 하신 것이며, 주님은 양심을 통하여 사랑(선행)으로부터의 선과 믿음으로부터의 진리가 역사 되도록 하셨다. 이러한 주님의 신성한 자비 속에서 인간은 회복되어진 것이다.”

### 질문 정리

- 1) 인간이 창조된 후 그들은 어디에 놓여 졌는가?
- 2) 왜 그들은 만족치 못했는가?
- 3) 주님은 그들의 새로운 필요에 어떻게 대처해 주셨는가?
- 4) 인간은 왜 아름다운 에덴의 동산에서 항상 살 수 없었는가?
- 5) 그들은 왜 그들 자신의 길로 갈 때 계속 나빠지기만 했는가?

- 6) 결국 그들의 마지막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 7) 누가 구원되었는가?
- 8) 그는 어떻게 구원되었는가?
- 9) 비는 며칠 동안 쏟아졌는가?
- 10) 비가 그쳤을 때 노아가 연 창문은 어디에 있었는가?
- 11) 물이 얼마나 빠졌는지 알기 위해 어떤 새 두 마리를 날려 보냈는가?
- 12) 까마귀는 무엇을 했는가?
- 13) 노아는 비둘기를 몇 번 내보냈는가?
- 14) 첫 번째에는 무엇이 발생했는가?
- 15) 비둘기는 두 번째로 무엇을 가지고 왔는가?
- 16) 세 번째에는 어떠한가?
- 17) 방주 밖으로 나온 노아의 첫 일은 무엇이었는가?
- 18) 주님은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 19) 홍수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 20) 까마귀와 비둘기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 21) 올리브 잎은 무엇에 상응되는가?
- 22) 주님은 고대 교회의 시작에서 인간의 구조 속에 어떤 변화가 있게 하셨는가?
- 23) 노아로 기술되는 문명화를 설화에서는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 24) 스웨덴북은 이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 질문의 답

- 1) 에덴 2) 독립하기를 원했다
- 3) 이기심을 구조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 4) 불순종했기 때문
- 5) 나쁜 행위는 또 다른 나쁜 행위를 이끌어내기 때문이다.
- 6) 자신들의 악으로 인해 파괴되었다. 7) 노아 8) 방주 9) 40일
- 10) 방주 꼭대기 11) 까마귀, 비둘기 12)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다.

- 13) 세 번 14) 되돌아 왔다 15) 올리브 잎 16) 되돌아오지 않았다.  
 17) 제단을 쌓았다. 18) 더 이상 홍수가 없게 하리라. 19) 거짓 사상들  
 20) 거짓 생각과 진정한 생각 21) 주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에 대한 지식  
 22) 지각 대신 양심을 설치하심 23) 은 시대 24) 고대 교회

## 4

# 아브람과 롯

### 머리말

본문 외에 11, 12, 18 그리고 19장에 걸쳐 롯의 이야기 전체가 연결된다. 아브람과 롯의 가나안으로의 여행경로를 살펴보면 내용을 기억하는데 용이할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정확한 지역은 불확실하다. 현재의 위치로는 사해 부근으로 추측되며, 성경 시대상으로는 요르단 평야에 위치한 것으로 추정된다.

### 성 서 본 문: 창세기 13장 1-13절, 14장1-16절

13장: 1. 아브람은 모든 재물을 거두어 가지고 아내와 함께 이집트에서 나와 네겝으로 올라갔다. 롯도 함께 올라갔다. 2. 아브람은 가축과 은과 금을 많이 가진 큰 부자가 되었다. 3. 아브람은 네겝에서 베델 쪽으로 옮겨가다가 전에 천막을 쳤던 베델과 아이 사이에 이르렀다. 4. 그 곳은 지난날 아브람이 제단을 쌓고 야훼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던 곳이었다. 5. 아브람을 따라다니는 롯도 양떼와 소 떼를 비롯하여 천막도 여러 개 가지고 있었다. 6. 그 지방은 그들이 함께 살 만한 곳이 못되었다. 그래서 아브람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 싸움이 잦았다. 그 때는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이 그 땅에 살고 있던 때였다. 아브람이 롯에게 말하였다. “너와 나는 한 골육이 아니냐? 네 목자들과 내 목자들이 서로 다투어서야 되겠느냐? 9. 네 앞에 얼마든지 땅이 있으니, 따로 나가서 살림을 차려라. 네가 왼쪽을 차지하면 나는 오른쪽을 가지겠고, 네가 오른쪽을 원하면 나는 왼쪽을 택하겠다.”

10. 롯이 멀리 요르단 분지를 다 둘러보니, 소알에 이르기까지 마치 야훼의 동산같이, 이집트의 땅같이 물이 넉넉하였다. 그것은 야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의 모습이었다. 11. 롯은 요르단 분지를 다 차지하기로 하고 그리고 옮겨갔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서로 헤어졌다. 12.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살았고, 롯은 요르단 분지에 있는 여러 도시에서 살다가 마침내 소돔으로 천막을 옮겼다. 13. 그런데 소돔 사람들은 야훼께 못할 짓만 하는 아주 못된 사람들이었다.

14장: 1. 시날 왕 아브라벨, 엘라살 왕 아룩, 엘람 왕 그돌라오멜, 고임 왕 티드알의 시대였다. 2. 이 왕들은 소돔 왕 베라, 고모라 왕 비르사, 아드마 왕 시납, 스보인 왕 세메벨, 벨라 왕 곧 소알 왕과 싸움을 벌였다. 3. 이들 다섯 왕은 동맹을 맺고 시뫼 골짜기에 집결하였다. 시뫼 골짜기는 지금 잔물호수가 있는 곳이다.

4. 이들은 십이 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십삼 년 되던 해에 반란을 일으켰던 것이다. 5. 십사 년째 되던 해에 그돌라오멜은 동맹을 맺은 왕들과 함께 출동하여 아스드롯카르나임에서 르바족을 치고, 함에서 수스족을 치고 사웨키라다임에서 엠족을 치고 6. 세일산에서 호리족을 치고, 광야 근처 엘바란까지 쳐내려 왔다. 7. 그들은 거기에서 발을 돌려 재판 샘터가 있는 카테스로 쳐들어 가 아말렉족의 온 땅과 하사순 다말에 살고 있는 아모리족도 쳐 무찔렀다. 8. 그러자 소돔 왕, 고모라 왕, 아드마 왕, 스보임 왕, 벨라 왕 곧 소알 왕이 출동하여 시뫼 골짜기에 진을 치고 그들과 싸움을 벌였다. 9. 그들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 고임 왕 티드알, 시날 왕 아브라벨, 엘라살 왕 아룩과 어울리니, 네 왕이 다섯 왕과 맞붙은 것이다.

10. 그런데 시뫼 골짜기에는 역칭 수령이 많았는데,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은 도망치다가 거기에 빠졌고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쳤다. 11.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 왕들이 가지고 있던 재물과 양식을 모두 빼앗고, 12. 소돔에 살고 있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끌고 가면서 그의 재물도 빼앗았다. 13. 한 사람이 도망쳐 나와서 히브리인 아브람에게 이 일을 알렸다. 아브람은 그 때 아모리인 마므레의 상수리나무가 무성한 곳에 살고

있었다. 마르레는 에스골과 아넬과 동기간으로서, 이들은 아브람과 계약을 맺은 사이였다. 14. 아브람은 자기 골육이 끌려갔다는 소식을 듣고 집에서 길러 낸 사병 삼백 십 팔명을 소집하여 단까지 쫓아갔다. 15. 아브람과 그의 부하들은 여러 패로 나뉘어 밤을 틈타 그들을 기습, 다마스쿠스 북쪽에 있는 호바까지 추격해 가면서 16. 모든 것을 되찾았다.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부녀자들과 그 밖의 모든 사람들을 되찾아냈다.

### 교리 요점

- \* 주님은 우리가 시험되어질 때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우리에게 경고해 주신다.
- \* 창세기 12장부터의 말씀은 진정한 역사이면서 비유이다.
- \* 우리의 생각이 천국적 원리에 기초하는지 아니면 세상적 원리에 기초하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 \* 주님께 기꺼이 순종해 가는 삶은 천국으로 인도된다.

### 해설

아브람, 후에 아브라함으로 주님께 의해 개명된 사람은 유대 교회의 기초자로 쓰이기 위해 선택된 자다. 태고 교회가 멸해진 뒤 남은 소수의 선한 사람 사이에 일으켜진 교회, 즉 노아의 이야기로 기술된 이들이 고대 교회라 불려진다. 창세기 10장과 11장에서 알 수 있듯이 그 교회도 수많은 세대가 계속되어 오면서 종국적으로 부패되었다. 그들은 태고 교회인 같이 멸해지지는 않았으나 그들은 서로가 맞지 않아 결국 지상의 여러 곳으로 흩어졌다. 이것은 바벨탑이라는 상징적인 이야기로 묘사되고 있다. 이 사람들 사이에 우상이 발생한 것이다. 기록이 있는 역사가 이 시기에서 시작되고 사람들이 이기적이며 호전적이며 우상 숭배자였음이 발견된다. 그러나 이런 부류의 사람들 중에도 통상적인 부류보다 선한 소수의 무리가 잔존했다. 그들 역시 우상 숭배자들이었고 진정한 예배에 관한 모든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았으나, 하느님을 믿으며 그들 자신의 바램 보다는 그분께 순종하기를 더 원했다. 이러한 사람이 바로

아브람이다.

아브람은 자기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의 땅으로 가도록 주님의 부름을 받았다. 가나안 땅은 거룩한 땅이라고 불려진다. 그는 그분의 부름에 순종하여 그의 가족과 고아가 된 롯을 데리고 길을 떠났다. 우리들 중 어떤 이가 자연적이며 이기적인 삶에서 천국적인 삶의 상태로 진보하는 도중에 하차 해 버리는 상황과 같이 그의 일행 중 일부는 여행 도중에 포기해 버렸다. 그러나 롯은 아브람과 함께 계속 여행했다. 제 12장의 이야기를 읽어 보자. 본문은 그들이 거룩한 땅을 본격적으로 삼고자 정착하는 곳으로부터 시작된다. 아브람과 롯은 다투지 않았지만 그들의 목자들이 다투었다. 아브람은 그들이 정착하기를 위한 지역의 선택 우선권을 롯에게 주었다. 롯이 선택한 지역은 요르단 평지의 낮은 계곡이었다. 그 이유는 그곳이 살기 쉽고 만족스럽게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선택은 그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었다. 이와 달리, 아브람이 번영했음을 알기 위해 제 15장도 읽어 보자.

매일매일 지나가는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이다. 우리에게 쉬워 보이는 길이 위험한 경우도 있고, 힘들고 어려워 보이는 길이 좋은 결과를 낳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우리는 결과를 모르는 상태에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종종 당장 쉽게 보이거나 이득이 보장된 것 같은 길을 선택하여 손해를 보거나 위험에 처하기도 한다. 바른 선택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우리가 선택한 것에 책임을 지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의 선택이 어려움이나 고난을 초래하더라도 이겨내면 결국에는 주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은 “내리막길을 타는 사람”의 의미를 알고 있을 것이다. 부모들은 쉬운 길이 꼭 올바른 길이 아니라는 것, 강하게 되기 위해서는 닦쳐오는 어려운 일들을 사려깊이 해결해야 한다는 것 더불어 그것은 정신적인 면과 영적인 면 그리고 육체적인 면까지도 응용됨을 자녀들에게 주입해 주어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천국의 신비** 제 1547항: “롯은 감각적인 것을 상징한다. 이것은 외적 인간과 감각적인 것에 속하는 쾌락도 의미하는데, 이는 가장 바깥쪽에 속하는 것들이다. 이것은

어린 시절에 인간을 현혹하지 못하지만 선으로부터 인간을 떼어놓는다. 인간이 탐욕에 근원하는 쾌락에 집착해 버리는 정도에 따라 그는 사랑과 선행인 천적인 것들로부터 멀어지게 된다. 그 이유는 쾌락 속에는 천적인 사랑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 자아와 세상 사랑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그렇다하더라도 천적인 것과 완전히 일치하는 쾌락들도 있다. 이것은 외적 형태에서 거의 흡사하게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탐욕에서 근원된 쾌락은 억제되고 치워내져야 한다. 그 이유는 그것들이 천국적인 것들 앞에서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롯이 스스로 아브람으로부터 분리되는 모습이 바로 이러한 쾌락들이다”

### 질문 정리

- 1) 본문의 두 사람의 이름은 무엇인가?
- 2) 그들은 어느 지역 출신인가?
- 3) 왜 그들은 우르를 떠났는가?
- 4)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서서 머물렀던 곳에서 무엇을 했는가?
- 5) 그는 어떤 나라에 갔다 와서 다시 정착하게 되었는가?
- 6) 그들은 이집트에서 어떻게 되어 돌아왔는가?
- 7) 그들이 되돌아 왔을 때 처음 간 곳은 어디인가?
- 8) 아브람과 롯 사이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가?
- 9) 아브람은 롯에게 무엇을 제의했는가?
- 10) 롯이 어떤 곳을 선택했는가?
- 11) 왜 롯은 그 지역을 선택했는가?
- 12) 롯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어떠한 위험이 그곳에 있었는가?
- 13) 롯에게 어떤 곤란이 닥쳤는가?
- 14) 누가 그를 구했는가?
- 15) 우리 삶의 측면에서 보면, 롯의 선택은 무엇을 그려주는가?
- 16)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의미는 무엇인가?
- 17) 감각적인 모든 쾌락은 전부 피해야만 하는가?

18) 어떤 쾌락이 순진하여 즐겨도 된다고 할 수 있는가?

#### 질문의 답

- 1) 아브람과 롯 2) 갈대아 우르 3) 주님이 떠나라고 했기 때문이다.
- 4) 제단을 쌓았다. 5) 이집트 6) 부자가 되어 돌아왔다.
- 7) 베델 8) 목자들이 다투었다. 9) 지역의 선택 10) 평야
- 11) 좋은 목초지가 있기 때문에 12) 소돔 13) 전쟁의 포로가 되었다.
- 14) 아브람 15) 당장 쾌락을 주는 것을 다 해보려는 상태
- 16) 이기심, 세상적인 생각 17) 그렇지 않지만 적당한 상관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 18) 해를 주지 않는 쾌락과 영적인 삶의 목적에 조화를 이루는 쾌락

## 5

#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다

### 머리말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이 가나안 땅을 상속받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다. 우리는 약속과 더불어 아브람과 사라가 아들 낳기를 얼마나 고대했을까를 짐작할 수 있다. 또한 노령에 얻은 아들 이사악에 대한 그들의 기대가 얼마나 컸을까도 상상할 수 있다.

### 성서본문: 창세기 22장 1-14절

22장: 1. 이런 일들이 있는 뒤에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아브라함

야!”하고 부르셨다. “어서 말씀하십시오.”하고 아브라함이 대답하자 2. 하느님께서 이렇게 분부하셨다. “사랑하는 네 외아들 이사악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거기에서 내가 일러주는 산에 올라가 그를 번제물로 나에게 바쳐라.” 3.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엮고 두 종과 아들 이사악을 데리고 제물을 사를 장작을 쪼개 가지고 하느님께서 일러주신 곳으로 서둘러 떠났다. 4. 길을 떠난 지 사흘 만에 아브라함은 그 산이 멀리 바라보이는 곳에 다다랐다. 5.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 머물러 있거라. 나는 이 아이를 데리고 저리로 가서 예배드리고 오겠다.”하고 나서 6. 번제물을 사를 장작을 아들 이사악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씨와 깔을 챙겨 들었다. 그리고 둘이서 길을 떠나려고 하는데, 7. 이사악이 아버지 아브라함을 불렀다. “아버지!” “얘야! 내가 듣고 있다.” “아버지! 불씨도 있고 장작도 있는데, 번제물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8. “얘야! 번제물로 드릴 어린 양은 하느님께서 손수 마련하신단다.” 말을 마치고 두 사람은 함께 길을 떠나, 9. 하느님께서 일러 주신 곳에 이르렀다.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장작을 엮어 놓은 다음 아들 이사악을 묶어 제단 장작더미 위에 올려놓았다. 10. 아브라함이 손에 칼을 잡고 아들을 막 찌르려고 할 때, 11. 야훼의 천사가 하늘에서 큰 소리로 불렀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어서 말씀하십시오.” 아브라함이 대답하자 야훼의 천사가 이렇게 말하였다. 12.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머리털 하나라도 상하지 말라. 나는 네가 얼마나 나를 공경하는지 알았다. 너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마저도 서슴지 않고 나에게 바쳤다.” 13.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듣고 고개를 들어 보니 뿔이 덩불에 걸려 허우적거리는 수양 한 마리가 눈에 띄었다. 아브라함은 곧 가서 그 수양을 잡아 아들 대신 번제물로 드렸다. 14. 아브라함은 그 곳을 야훼이레라고 이름 붙였다. 그래서 오늘도 사람들은 “야훼께서 이 산에서 마련해 주신다.”고 말한다.

### 교리 요약

\* 주님은 결코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신다. 시험은 우리속의 이기적인 바램으로 비롯된다. 주님은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오게 되는 시험을 단지 허용하실 뿐이다.

- \* 말씀은 선뿐만 아니라 악에도 연결 가능한 형상(形狀)적인 언어로 쓰여 있다.
- \* 주님에 대한 우리의 첫 믿음은 종종 많은 거짓 사상과 혼합된다.
- \* 우리가 말씀에서 계명들을 본대로 순종하여 시험에 맞선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의를 행할 힘을 주신다.

## 해설

주님은 구십 세의 사라와 백세인 아브라함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들을 갖는 기적을 베풀었다. 그들은 아들의 이름을 이사악이라 했는데, 그 이름의 의미는 “웃음”이다. (창세기 17:15-19, 21:3,6 참조) 이사악이 부모의 깊은 사랑을 받았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사악이 소년이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에 이상한 착상이 떠올랐다. 아브라함은 그 착상이 하느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느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라고 말해진다. 우리는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고난이 주님에 의해 “보내진” 것이라고 단정하는 경향이 있다. 사실 고난들은 타인 속에 있는 악이나 자기 속에 있는 악의 결과들이다. 주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고난들로부터 필요한 교훈을 배울 필요가 있어 우리를 돕고자 그 고난을 허용하신 것들 외에 그분은 모든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신다. 아브라함의 출생지의 사람들과 그가 살던 가나안 땅 주위의 사람들은 동물을 제물로 드리고, 더 잘해 보려면 어린아이까지도 제물로 드려서 비위를 맞춰야 하는 “시기심이 많은” 하느님을 믿어왔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마음에도 그 사상이 있었음은 어쩌면 당연할 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는 주님에 대한 완전한 헌신을 보여드리기 위해 그가 가장 아끼는 소유물인 이사악을 제물로 드려야겠다는 생각으로 구체성을 갖게 된 것이다. 본문의 교훈은 아브라함의 여행과 마지막 순간에 주님이 어떻게 멈추게 해 주셨는가에 대한 줄거리에 담겨 있다. 제 12절을 읽어보면, 주님께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을 죽이려는 찰나에까지 가도록 허용하셨던 이유를 알 수 있다.

스웨덴북의 저서는 부패된 고대 교회인들의 제물에 대한 생각은 너무 밀착되어 있어서 주님이 그들과 그들 교회를 위해 해주실 수 있었던 최선의 것은 인간을 제물로 하는 대신 동물을 제물로 바치도록 가르쳐 주시는 것이었다고 설명한다. 이것은

구약 성서의 글자가 헌납되는 새나 동물들에 관한 법들로 가득한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성서 속의 새나 동물들이 헌납되는데 대한 각종 세부 사항들은 그것이 각각 영적인 것들을 상징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제물”이란 단어가 지닌 의미는 뭔가를 죽이는 것도 아니며 뭔가를 포기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거룩하게 만듦”이다. 내가 가진 귀한 것을 바친다함은 내가 가진 귀한 것을 거룩해지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도 설명할 수 있다. 한마디로,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동안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면서 산다면 우리는 말씀에서 명령된 제물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제물을 바치고자 여행했던 모리아산도 알아두면 매우 흥미로울 것이다. 그 산은 아주 오랜 뒤에 예루살렘 성의 한 부분이 된 언덕이며,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곳임을 기억해 두기 바란다.

#### 참고 문헌 -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천국의 신비 제 2768항」: “하느님이 시험하셨다고 기록된 구절의 글자상 의미를 보면 시험이나 기타 많은 것들이 하느님의 뜻이 된다. 그러나 그 말씀의 속뜻을 살펴보면 하느님은 어느 누구도 시험하지 않는다. 주님은 시험받는 시기에 가능하면 또는 시험에서 벗어남이 해를 주지 않으면 오히려 시험에서 벗어나도록 도우신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시험 중에 빠진 이를 선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골몰하신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어떠한 조건에서도 시험이라는 방법을 결코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비록 성경에서 그분이 시험을 허용하고 계신다고 직접적인 말로 기록되어 있다하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쓰는 허용이라는 단어의 수준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다시 말해서, 하느님이 허용하심으로 해서 그분이 시험을 유발시키는데 동조하셨을 것이라는 착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시험이 허용된 당사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인간은 그 이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주님의 허용을 납득해낼 재간이 없다. 그러나 시험을 야기하는 것은 언제나 인간 속의 악이며 그 악이 시험 속으로 이끈다. 시험의 원인은 하느님 안에 하나도 없다. 간단한 예로, 판사의 실형을 받은 사람은 감옥에서 고통 받지만 그것의 원인은 벌 받을 만한 죄를 범한 그 사람 속의 악이지 판사가 아님과 같다. 신성한 질서는 선의 법칙이며 그것에 근거한 것이 진리의 법칙이다.



이 질서로부터 스스로를 분리시키는 사람은 신성한 질서에 반하는 악과 거짓의 법칙에 자신을 던짐으로 인해 처벌과 고통을 받는 것이다.”

### 질문 정리

- 1) 아브람의 아내는 누구인가?
- 2) 그들의 유일한 아들의 이름은 무엇인가?
- 3) 그들의 아들이 태어날 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몇 살이었는가?
- 4) 아브라함은 무엇을 하도록 시험되었는가?
- 5) 그는 왜 아들을 제물로 바쳐야겠다고 생각했는가?
- 6) 주님은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하도록 내버려 두셨는가?
- 7) 아브라함은 제물을 바치기 위해 어디로 갔는가?
- 8) 모리아산에는 오랜 후에 무엇이 일어났는가?
- 9) 아브라함의 여행은 며칠이 걸렸는가?
- 10) 아브라함과 이사악 외에 누가 여행을 함께 했는가?
- 11) 그들은 무엇을 가지고 떠났는가?
- 12) 산에 오른 사람은 누구였는가?
- 13) 이사악은 아버지에게 무엇을 물었는가?
- 14) 아브라함은 뭐라고 대답했는가?
- 15) 주님은 아브라함의 행동을 어느 시험에서 멈추게 했는가?
- 16) 주님은 그를 어떻게 멈추게 했는가?
- 17) 아브라함은 이사악 대신 무엇을 제물로 발견했는가?
- 18) 시험은 정말 주님으로부터 오는가?
- 19) 주님은 왜 우리가 시험받는 것을 허용하시는가?
- 20) 이사악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 21) 오늘날 사람들에게는 이사악을 제물로 바치라는 시험이 어떻게 나타나 보여지는가?
- 22) 이사악 대신 수양을 제물로 대체시켜 주님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질문의 답

- 1) 사래 2) 이사악 3) 아브라함은 백세였고 사라는 구십 세였다.
- 4) 이사악을 제물로 바치라고 5) 하나님이 자신의 가장 소중한 소유물을 포기하도록 원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 6) 자기 믿음을 테스트하도록(확증하도록) 배려해 주심
- 7) 모리아산 8) 성전 9) 3일 10) 두 종 11) 나귀, 장작, 불, 칼
- 12) 이사악, 아브라함 13) “어린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 14) “하느님께서 손수 마련하신다.”
- 15) 그가 칼을 잡고 막 찌르려는 순간에 16) 천사 17) 수양
- 18) 아니다 19) 우리의 인격을 강건하게 해 주시기 위해서
- 20) 영적 이성 21) 종교에 관해 추론하는 것을 억제하라는듯...
- 22) 종교에 관한 추론을 지속적으로 하되, 주님의 진리의 인도함에 선하고 유용한 것에 관한 우리의 사상을 종속되게 해야 함을 의미한다.

## 6

# 야곱의 꿈

## 머리말

세 가지 요점을 연결하여 본과를 진행하면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즉, 1) 야곱과 이사악 그리고 아브라함의 관계, 2) 하란 지역 그리고 3) 베델 지역이다.

## 성 서 본 문: 창세기 28장

28장: 1. 이사악은 야곱을 불러 들여 복을 빌어 주며 단단히 일렀다. “너는 아에 가나안 여자에게 장가들지 말아라. 2. 너는 바딤아람의 브두엘 외할아버지 댁으로 가거라. 거기에서 라반 아저씨의 딸 하나를 아내로 삼아라. 3.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어 네 후손이 불어나 아주 번성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래서 너는 여러 민족의 집단으로 발전할 것이다. 4.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너와 네 후손에게도 주시어 네가 지금 자리잡고 사는 이 땅을,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 차지하게 되기를 빈다.” 5. 그리고 이사악은 야곱을 떠나 보냈다. 야곱은 바딤아람으로 아람 사람 브두엘의 아들 라반을 찾아 길을 떠났다. 라반은 야곱과 에사오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버니였다. 6. 에사오는 아버지 이사악이 야곱에게 복을 빌어 주고 바딤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에서 장가들게 하였다는 것과 그에게 복을 빌어 주면서 가나안 여자에게는 장가들지 말라고 엄명했다는 것을 알았다. 7. 또 야곱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바딤아람으로 떠났다는 것도 알았다. 8. 에사오는 아버지 이사악이 가나안 여자를 달갑게 여기지 않는 것을 보고 9. 이미 장가를 들었으면서도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한테 가서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웃의 누이인 마할랏에게 또 장가를 들었다. 10.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을 향하여 가다가 11. 한곳에 이르러 밤을 지내게 되었다. 해는 이미 서산으로 넘어 간 뒤였다. 그는 그 곳에서 돌을 하나 주워 베개 삼고 그 자리에 누워 잠을 자다가 12. 꿈을 꾸었다. 그는 꿈에 땅에서 하늘에

땅은 층계가 있고 그 층계를 하느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보고 있었는데, 13. 야훼께서 그의 옆에 나타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다. “나는 야훼,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느님이요, 네 아버지 이사악의 하느님이다. 나는 네가 지금 누워 있는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 14. 네 후손은 땅의 티끌만큼 불어나서 동서남북으로 널리 퍼질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종족이 너와 네 후손의 덕을 입을 것이다. 15.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 주다가 기어이 이리로 다시 데려 오리라.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어 줄 때까지 나는 네 곁을 떠나지 않으리라.” 16. 야곱은 잠에서 깨어나 “참말 야훼께서 여기 계셨는데도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하며 17. 두려움에 사로잡혀 외쳤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여기가 바로 하느님의 집이요, 하늘문 이로우나.” 18. 야곱은 아침 일찍 일어나 베고 자던 돌을 세워 석상을 삼고 그 꼭대기에 기름을 붓고는 20. 그곳을 베델이라 불렀다. 그 마을의 본 이름은 루즈였다. 20. 그리고 야곱은 이렇게 서원하였다. “만일 제가 이 길을 가는 동안 하느님께서 저와 함께 하여 주시고 저를 지켜 주셔서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마련해 주시고, 21. 무사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만 하여 주신다면, 저는 야훼님을 제 하느님으로 모시고, 22. 제가 세운 이 석상을 하느님의 집으로 삼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저에게 무엇을 주시든지 그 십분의 일을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 교리 요점

- \*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고 계신다.
- \* 말씀은 주님과 인간을 연결시켜 주는 고리와 같다
- \* 우리는 말씀의 글자 속에 있는 진리로부터 믿음을 발견한다.
- \* 「기름 부음」이란 진리를 사랑함으로써 진리를 확인하는 행동을 상징한다.

### 해설

본문의 아름다운 이야기는 모두에게 친숙하리라 생각된다. 우리는 청년 야곱이

형에 대한 실수와 형의 분노로 인해 떨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해 하며 홀로 긴 여행을 출발하는 모습을 그려볼 수 있다. 또한 그의 마음이 얼마나 착잡했는지도 짐작할 수 있다. 우리 역시 이러한 것을 경험하는데, 이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또는 어떻게 되어 갈지에 대한 약간의 확증만 갖고 새로운 일을 출발하는 것과 흡사하다.

성경에는 잠자는 것, 즉 꿈과 관련된 이야기가 꽤 많다. 스웨덴북은 우리가 깊이 잠들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깊이 잠들어 있을 때는 이 세상에 속한 것 또는 자신의 출세나 욕망에 관한 모든 것으로부터 잠시나마 벗어나 주님이 우리에게 좀 더 가까이 접근하실 수 있으셔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실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사실 우리의 영혼은 육체가 잠드는 것보다 더 깊이 잠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유아나 어린 아기들은 아주 많은 수면시간을 필요로 한다. 그 이유는 각 개체의 삶을 도와줄 신뢰와 순진한 심정상태를 유아 속에 저장하시려는 주님의 의도 때문이다.

야곱은 그의 전 삶을 통해 주님을 섬기겠다는 약속과 더불어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은 굉장한 꿈을 꾸게 되었다. 야곱의 꿈은 우리가 고난과 역경에 처할 때 희망과 용기를 우리의 삶에 불어넣어 주는 상황을 그려준다. 우리에게 있어서 성경은 “야곱의 사다리”이다. 사다리의 발은 지상에 있으며, 그 발은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이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있다. 그리고 그 꼭대기에는 주님이 계신다.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천사들이란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생각이 올라가는 것을 뜻하며, 내려오는 천사들이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지는 그분의 진리를 뜻한다.

#### 참고 문헌 -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성경에 관한 교리 제 78항(Doctrine of the Holy Scripture)」: “주님이 인간과 더불어 존재하시며 인간과 결합하시는 것은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이며 말씀 안에서 인간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주님은 말씀이시므로 신성한 진리 자체이기도 하시다. 따라서 주님이 인간과 함께 하심과 동시에 인간과 결합하는 것은 인간이 말씀을 이해하는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그 이유는 인간은 이해의 정도에 따라 진리를 갖고 그 진리로부터 믿음이 형성되어 사랑과 그로부터

파생된 생명도 갖기 때문이다. 주님은 인간이 말씀을 읽을 때 그들과 함께 하신다. 그러나 주님이 인간과 결합되시는 것은 인간이 읽은 말씀으로부터 진리를 터득할 때만 가능하게 된다. 주님이 인간과 결합된 정도에 비례해 교회가 그 인간 안에 있게 된다. 교회는 인간 속에 있다. 인간 밖에 있는 교회란 인간 각자 속에 교회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진 교회일 뿐이다. 이에 대한 이해는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하느님 나라가 언제 오겠느냐고 바리사이파 인들이 주님께 물었을 때 대답하신 말씀을 참고하면 도움이 된다. 즉, ‘하느님 나라는 바로 너희 속에 있다’는 구절에서 ‘하느님의 나라’는 주님을 뜻하며 그분으로부터 교회도 있게 된다는 것이다.”

### 질문 정리

- 1) 이사악과 리브가의 쌍둥이 아들은 누구인가?
- 2) 왜 야곱은 고향을 떠나야 했는가?
- 3) 그는 어디로 갔는가?
- 4) 그가 가는 도중 하룻밤을 지낸 곳은 어디인가?
- 5) 여러분은 본문 외에 어느 부분에서 베델이라는 단어를 접했는가?
- 6) 야곱은 무엇을 베개로 사용했는가?
- 7) 그는 꿈에서 무엇을 보았는가?
- 8) 사다리의 꼭대기에는 누가 있었는가?
- 9) 누가 사다리를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었는가?
- 10) 천사란 무슨 뜻인가?
- 11) 주님은 야곱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 12) 야곱은 잠에서 깨어나 무엇을 했는가?
- 13) 왜 그곳을 베델이라고 불렀는가?
- 14) 꿈은 야곱에게 무엇을 해주었는가?
- 15) 우리가 가진 야곱의 사다리이란 무엇인가?
- 16) 우리의 사다리에서 오르락내리락하는 천사들이란 무엇인가?
- 17) 야곱이 베개로 사용한 돌은 무엇을 뜻하는가?

18) 야곱이 베개로 사용한 돌로 석상을 세운 의미는 무엇인가?

질문의 답

- 1) 에사오와 야곱 2) 아내를 구하고 형을 피하기 위해서 3) 하란 4) 베델  
5) 아브람의 이야기 6) 돌 7) 사다리 8) 주님 9) 천사들 10) 특사, 전달자  
11) 내가 누워있는 이곳을 너의 것이 되게 하리라 12) 석상을 세웠다 13) 16-19절을  
읽어 보자 14) 야곱에게 용기를 주었다 15) 말씀 16) 생각들 17) 각자에게  
기초가 되는 진리들  
18) 자기에게 기초가 된 진리를 삶의 원칙으로 드높임

## 7

### 감옥에 갇힌 요셉

#### 머리말

앞서 공부했던 내용을 기억해 보면 본과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지난 공부 중에서 기억되어야 할 중요한 요점은 야곱이 하란에서 몇 년 동안 체류했는지, 그가 하란에서 낳은 아들은 몇 명이었는지, 요셉은 라헬의 아들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요셉의 형들이 그를 미워했음 등이다. 또한 4반과 5반에서 배웠던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의 시리즈가 갖는 의미와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와 연관된 이집트의 의미도 재고되어야 한다. 성경을 읽어 왔던 사람들은 요셉의 이야기에 친숙할 것이다. 요셉의 이야기는 상당히 길지만 흥미롭다. 본과를 공부하기에 앞서 요셉의 전체 이야기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 성 서 본 문: 창세기 39, 40장

39장: 1. 요셉은 이집트로 끌려 내려갔다. 그를 끌고 내려 온 이스마엘 사람에게서 파라오의 한 신하인 경호 대장 이집트 사람 보디발이 그를 샀다. 2. 그러나 요셉은 야훼께서 돌보아 주셨으므로 앞길이 열려 이집트 사람 주인집의 한 식구처럼 되었다. 3. 주인은 야훼께서 그를 돌보아 주시는 것을 알았다. 그의 손이 닿는 것은 무엇이든지 야훼께서 잘 되게 해 주셨던 것이다. 4. 그는 요셉이 눈에 들어 심복으로 삼고 집안 일의 관리인으로 세워 그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 5. 온갖 일과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자 야훼께서는 요셉을 보아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야훼의 축복은 집과 밭뿐 아니라 그에게 있는 모든 것 위에 내렸다. 6. 이렇듯이 그는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요셉의 손에 내맡겼다. 그리고 그가 있는 한 자신이 먹는 음식을 빼놓고는 아무 것에도 마음을 쓰지 않았다. 그런데 요셉은 아주 깨끗하고 잘 생긴 사나이여서 7. 얼마쯤 시간이 흐르자 주인의 아내가 눈짓을 하며 자기 침실로 가자고 꾀는 것이었다. 8. 그는 주인의 아내에게 그럴 수 없다고 사정했다. “보시다시피 주인께서는 제가 있는 한, 집안 일에 통 마음을 쓰시지 않습니다. 당신께 있는 것을 모두 제 손에 맡겨 주셨습니다. 9. 이 집안에선 제가 그분보다 실권이 더 있습니다. 마님만은 당신의 아내이기 때문에 범접할 수 없지만 그 밖의 일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짓을 제가 어떻게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느님께 죄가 됩니다.” 10. 그러나 그는 날이면 날마다 요셉에게 수작을 걸어 왔다. 요셉은 말을 듣지 않고 그와 함께 침실에 들지도 않았다. 11. 하루는 그가 일을 보러 집안으로 들어갔는데 마침 집 안에 사람이라곤 아무도 없었다. 12. 그는 요셉의 옷을 붙잡고 침실로 같이 가자고 꾀었다. 그러나 요셉은 옷을 그의 손에 잡힌 채 뿌리치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13. 요셉이 옷을 자기 손에 내버려 둔 채 밖으로 뛰쳐나가는 것을 보고 14. 그는 집안사람들을 부르며 고함을 쳤다. “이것 좀 봐라. 주인께서 우리를 웃음거리고 만들려고 저 히브리 녀석을 데려 왔구나. 그 놈이 나에게 달려들어 강간하려고 했어. 그래서 나는 고함을 질렀지! 15. 그랬더니 그놈은 내가 고함지르는 소리를 듣고 옷을 버려 둔 채 뛰쳐나갔다.” 16. 그리고는 그 옷을 곁에 챙겨 놓고 주인을 기다리다가 그가 집에 돌아오자 17.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었다. “당신이 데려



온 그 히브리 종 녀석 말이에요. 글썄 그 놈이 내 방에 들어 와 나를 농락하려 하지 않겠어요? 18. 그래서 내가 고향을 질렀더니 이렇게 옷을 버려 둔 채 밖으로 뛰쳐나갔답니다.” 19. 그리고는 “당신의 종 녀석이 나에게 이 따위 짓을 했던 말이에요.”하고 말하는 것이었다. 이 말을 듣는 주인은 화가 치밀어 올랐다. 20. 그래서 요셉의 주인은 그를 잡아 감옥에 넣었다. 그곳은 왕의 죄수들을 가두어 두는 곳이었다. 그러나 그가 감옥에 있을 때에도 21. 야훼께서는 요셉을 돌보시었다. 그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쏟으시고 은총을 베푸시어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해 주셨다.

22. 그리하여 간수장은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을 요셉의 손에 맡겨 무슨 일이고 마음대로 하게 하였다. 23. 간수장은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겨 놓고는 일절 간섭을 하지 않았다. 야훼께서 그를 돌보시어 그가 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잘 되게 해주셨던 것이다.

40장: 1. 이런 일이 있는 지 얼마 되지 않아 이집트 왕에게 술잔을 드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이 상전인 이집트 왕에게 무슨 잘못을 저지른 일이 생겼다. 2. 파라오는 술잔을 드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 두 사람에게 화가 나서 3. 경호 대장 집에 있는 감옥에 집어넣었다. 그 곳은 바로 요셉이 갇혀 있는 곳이었다. 4. 경호 대장은 요셉을 지명하여 그 시종들의 시중을 들게 하였다. 그들이 감옥에 들어 온지 여러 날이 지났다. 5. 이집트 왕에게 술잔을 드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은 어느 날 밤, 감옥에 갇힌 몸으로 같이 꿈을 꾸었는데 두 꿈은 뜻이 너무나 달랐다. 6. 아침에 요셉이 그들에게 가 보니 그들은 크게 근심하고 있었다. 7. 요셉은 자기 주인 집 감옥에 함께 갇혀 있는 그들 파라오의 관리들에게 물었다. “오늘은 안색이 좋지들 못하시는군요. 왜 그러십니까?” 8. 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아무도 풀어 줄 사람이 없소.” 요셉은 “꿈을 푸는 것은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고 말하면서 자기에게 이야기해 달라고 청하였다. 9. 술잔을 드리는 시종장이 요셉에게 자기의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내가 꿈에 보니까, 내 앞에 포도나무 한 그루가 있었소. 10. 그 포도나무에는 가지가 셋이 뻗어 있었는데 싹이 나자마자 꽃들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더군. 11. 내 손에는 파라오의 잔이 들려 있었소. 나는 포도를 따서 그 잔에다 짜 넣고는 그 잔을 파라오의 손에 받쳐 드렸도요.” 12. “그 풀이는 이렇습니다.”하며 요셉은

그에게 말해 주었다. “가지 셋은 사흘을 말하는 것입니다. 13. 앞으로 사흘이 되면 파라오께서는 당신을 불러내어 복직시킬 것입니다. 당신은 전날 술잔을 받들어 올리던 관습대로 파라오의 손에 그의 잔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14. 그러니 제발 당신이 잘 되시는 날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나에게 친절을 좀 베풀어 주셔야 하겠습니다. 파라오에게 내 이야기를 하여 이 집에게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15. 나는 억울하게 히브리 사람들의 땅에서 유괴되어 온 사람입니다. 나는 여기서도 이런 구덩이에 들어 올만한 일을 한 일이 없습니다.” 16. 그 풀이가 좋은 것을 본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도 요셉에게 이야기를 했다. “나도 꿈을 꾸었는데 흰 과자를 담은 바구니 셋을 내가 머리에 얹고 있었소. 17. 제일 윗 바구니엔 파라오에게 드릴 온갖 구운 음식들이 담겨져 있었소. 그런데 새들이 내 머리에 이고 있는 그 바구니 속에서 그것들을 먹고 있더군.” 18. “그 풀이는 이렇습니다.”하며 요셉이 말해 주었다. “바구니 셋은 사흘을 말하는 것입니다. 19. 앞으로 사흘이 되면 파라오는 당신을 불러내어 나무에 매달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의 고기를 새들이 쪼아 먹게 될 것입니다.” 20.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그 날은 파라오의 생일이어서 왕은 신하들을 다 모아 놓고 잔치를 베풀었다. 술잔을 드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은 신하들이 모인 자리에 불려 나왔다. 21. 그런데 술잔을 드리는 시종장은 술잔을 드리는 자리에 복직되어 파라오의 손에 잔을 올리게 되었으나, 22.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은 매달려 죽었다. 이렇게 그들은 요셉이 해몽해 준 대로 되었다. 23. 그러나 술잔을 드리는 시종장은 요셉을 까마득하게 잊어 버렸다.

### 교리 요점

- \* 우리가 영적 애정을 갖고 있는지조차 모르더라도 주님은 우리의 영적 애정을 보호하며 강건케 해 주신다.
- \* 요셉의 이야기는 주님의 생애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지니며,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밀접한 관계를 파악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 \* 진리는 선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
- \* 주님께 순종함은 말씀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 해설

많은 사람들이 요셉에 대한 본문의 내용에 매우 친숙할 것이다. 요셉은 극도의 어려운 시련에 직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실과 올바름을 마음에 간직한 사람의 예다. 그래서 본과의 공부는 연령에 관계없이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찾아서 도움을 청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면 그분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그러나 우리의 잘못된 행동이 있게 될 때에는 피할 수 없는 결과가 항상 뒤따른다. 요셉은 어려움을 경험해야 했지만 그의 형들은 그를 나쁘게 처리한 것에 대한 죄의식으로 인해서 그 보다 훨씬 나쁜 상태에 처해 있었다. 창세기 41장부터 끝까지 이어지는 요셉의 이야기를 읽어 보면, 요셉은 그의 특질로 인해서 모든 권한을 지닌 위치에 있게 된다. 반면, 그의 형들은 예상치 않은 환경의 변화에 무서워한다. 42장을 보면, 요셉의 형들과 요셉의 차이점을 알 수 있다.

요셉은 우리 각 개인의 생명이 되는 어떤 것을 표현한다. 즉,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위 환경에 관계없이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의로운 것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우리들 깊은 곳의 소리이다. 우리는 때로 그 소리에 침묵하고 그 결과가 성공적이라고 판단한다. 이러한 것이 바로 요셉과 그의 형들의 차이점이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그들을 용서하고 잘 보살피 주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것을 확실히 알 때까지 결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었다. 우리가 요셉과 같이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면 그분은 언제나 우리를 돌봐 주신다.

## 참고 문헌 -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천국의 신비 제 5149항 (Arcana Coelestia n.5149)」: “거짓은 두 개의 근원으로부터 비롯되는데, 하나는 교리로부터이고 다른 하나는 악으로부터이다. 교리로부터의 거짓은 선을 소모시키지 않는다. 그 이유는 인간이 교리의 거짓 속에 있다하더라도 선은 지닐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세상의 각종 교리 속에 있는 사람 혹은 이방인까지도 구원이 가능하다. 악 자체는 선에 반대되나 그것 자체가 선을 소모시키

지는 않는다. 그러나 악은 거짓을 수단으로 하여 선을 소모시킨다. 그 이유는 거짓은 선에 속해있는 진리를 공격하며, 진리는 마치 선을 에워싼 벽과 같기 때문이다. 그 벽은 거짓을 수단으로 습격되며 그것이 강행될 때 선의 파괴가 있게 된다.”

### 질문 정리

- 1) 요셉의 형들은 왜 요셉을 미워했는가?
- 2) 요셉은 이스마엘 상인에 의해 어디로 끌려갔는가?
- 3) 요셉은 어떻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가?
- 4) 그와 더불어 감옥에는 누가 있었는가?
- 5) 요셉은 두 시종장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 6) 술잔을 올렸던 시종장의 꿈은 무엇인가?
- 7) 빵을 구워 올렸던 시종장의 꿈은 무엇인가?
- 8) 두 시종장의 신변에는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 9)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은 요셉을 기억했는가?
- 10) 우리 삶에서의 요셉은 무엇인가?
- 11) 우리는 때로 “이집트의 감옥에 요셉을 가두는”데, 그때는 언제인가?
- 12) 요셉이 꿈을 해석할 수 있었음은 무엇을 뜻하는가?
- 13) 주님은 왜 요셉을 항상 보살펴 주셨는가?

### 질문의 답

- 1) 아버지가 요셉을 제일 귀여워했고 요셉의 꿈 때문이었다. 2) 이집트
- 3) 보디발 아내의 거짓말 4) 파라오의 두 시종장 5) 꿈을 해석해 주었다. 6) 잔에 포도주를 붓는 모습 7) 구멍 있는 세 바구니에 빵을 담아 머리에 이고 있었는데 새들이 빵을 먹어치운 모습 8)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은 복직되고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은 목이 매달려 죽었다. 9) 기억 못함 10) 선해지려는 마음(바람) 11) 우리가 이기적인 욕구를 갖게 되어 선해지고자 했던 마음을 잊으려고 할 때 12)

우리의 경험을 이해함 13) 의를 행하고자 원했기 때문이다.

## 8

# 불붙은 떨기나무

### 머리말

앞서 공부했던 내용과 본 과를 연관 지어 본다. 즉, 야곱과 그의 가족이 흉년을 피해 이집트로 내려가 한동안 요셉의 보호를 받았던 것과 이집트에서의 편안한 삶으로 인해서 그들이 돌아 가야함을 망각해 버리는 시험을 겪게 된 것을 본 과의 내용과 연결 지어 본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주님이 주신 선택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옳은 길, 즉 선택해야 할 길 대신에 편한 길을 택했던 것이다. 또한 롯에게 살아갈 땅을 선택하도록 하는 대목도 예로 든다. 쉽게 보이는 것이 항상 옳지 않다는 것과 옳은 것에 항상 고생이 뒤따르지 않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 성 서 본 문: 출애굽기 3장

3장: 1. 모세는 미디안 사제인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다. 그가 양떼를 이끌고 광야를 지나 하느님의 산 호렘으로 갔더니 2. 야훼의 천사가 떨기 가운데서 이는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났다. 떨기에서 불꽃이 이는데도 떨기가 타지 않는 것을 본 3. 모세가 “저 떨기가 어째서 타지 않을까? 이 놀라운 광경을 가서 보아야겠다.” 하며 4. 그것을 보러 오는 것을 야훼께서 보시고 떨기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하고 하느님께서 부르셨다. 그가 대답하였다. “예, 말씀하십시오.” 5. 하느님께서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시고는 6.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네 선조들의 하느님이다. 아브라함

의 하느님, 이사악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 모세는 하느님 뵈기가 무서워 얼굴을 가렸다. 7. 야훼께서 계속 말씀하셨다. “나는 내 백성이 이집트에서 고생하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억압을 받으며 괴로와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나는 잘 알고 있다. 8. 나 이제 내려가서 그들을 이집트인들의 손아귀에서 빼내어 그 땅에서 이끌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답고 넓은 땅, 가나안족과 헷족과 아모리족과 브리즈족과 히위족과 여부스족이 사는 땅으로 데려 가고자 한다. 9.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의 아우성 소리가 들려온다. 또한 이집트인들이 그들을 못살게 구는 모습도 보인다. 10. 내가 이제 너를 파라오에게 보낼 터이니 너는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건져 내어라.” 11. 모세가 하느님께 아뢰었다. “제가 무엇인데 감히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건져 내겠습니까?” 12. 하느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네 힘이 되어 주겠다. 이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증거가 되리라. 너는 나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낸 다음 이 산에서 하느님을 예배하리라.” 13. 모세가 하느님께 아뢰었다. “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너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하면 그들이 ‘그 하느님의 이름이 무엇이나?’하고 물을 터인데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14.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곧 나다” 하고 대답하시고, 이어서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분은 나다 - 라고 하시는 그분이다’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라.” 15. 그리고 하느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일러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선조들의 하느님 야훼시다.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사악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 이것이 영원히 나의 이름이 되리라. 대대로 이 이름을 불러 나를 기리게 되리라. 어서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너희 조상들의 하느님 곧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사악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야훼께서 나에게 나타나 이르셨다’고 하며 이렇게 전하여라. ‘나는 너희들을 찾아 와서 너희가 이집트에서 겪고 있는 일을 똑똑히 보았다. 17. 그리고 너희를 이집트의 억압에서 끌어내어 가나안족, 헷족, 아모리족, 브리즈족, 히위족, 여부스족이 사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 가기로 작정하였다.’ 16. 이렇게 말하면 그들은 네 말을 들을 것이다. 너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데리고 이집트 왕에게 가서 ‘히브리인의 하느님 야훼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으니 우리는

광야로 사흘 길을 걸어 가 우리 하느님 아훼께 제사를 드려야 하겠소.’ 하고 말하여라. 19. 그러나 이집트 왕은 단단히 몰아세우지 않는 한 너희를 내보내지 않을 줄 나는 안다. 20. 그러므로 내가 손수 온갖 놀라운 일로 이집트를 칠 것이다. 그런 일이 있는 뒤에야 그는 너희를 떠나보낼 것이다. 21. 내가 이 백성을 얼마나 아끼는지 이집트인들에게 보여 주리라. 따라서 너희가 그 곳을 떠날 때 빈손으로 나오지는 아니할 것이다. 22. 부인들은 저마다 이웃 여인과 자기 집에 사는 여인에게서 은붙이와 금붙이와 옷을 얻어 낼 것이고 너희는 그것으로 아들과 딸들을 치장하리라. 이렇게 너희는 이집트를 털리라.”

### 교리 요점

- \* 주님만이 “스스로 계신 분(I am)”이라고 말할 수 있다.
- \* 진리에 관한 지식은 악용될 수 있는데, 상응에 관한 지식이 이집트인들에 의해서 마술로 변한 사실이 그 예다.
- \* 주님은 적절한 때가 되면 그분을 위해 해야 할 특별한 일들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 각자를 부르신다.

### 해설

모세의 이야기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친숙하다. 어떤 이들은 삶의 어떤 부수적인 수준에서만 모세의 일생을 생각하거나 주일학교 정도의 기초 지식에 불과한 나일 강가의 갈대 숲 속 왕골 상자 안에 모세가 넣어졌던 것만을 연상하곤 한다. 주님께서 모세를 건져내시는 것은 아름다운 장면이지만, 이는 대 과업을 수행하는 모세의 측면에서 보면 극히 작은 시작일 뿐이다. 우리는 어린 시절 연극 등에서 접한 아기 모세의 이야기를 인상 깊게 기억한다. 하지만 그것의 인상 깊은 장면은 모세가 했던 큰 업무에 대한 기초로서 가르쳐져야 할 것 같다.

이스라엘(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로 있던 시기에 7년동안 흉년을 피하기 위해 이집트로 내려갔다. 그들은 그곳에서의 풍요롭고 살기 쉬운

방법들에 만족해 그들의 고향으로 되돌아가야 하는 일은 까맣게 잊어 버렸다. 이러한 도중에 이집트에서의 곤경이 시작되어 결국 그들은 노예화되어 버렸다. 우리 역시 만사가 잘 되면 세상의 좋은 것을 즐기는데 빠져 우리의 본연의 임무인 주님을 위해 해야 함을 잊어버리기도 한다. 심지어 우리는 주님 자체를 까맣게 잊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거룩한 땅은 천국 또는 천국적 인격을 표현하며, 그 땅은 우리 각자의 진정한 고향(장소)이다. 우리의 모든 직업은 주님과 이웃을 섬기는 생활을 위한 우리의 기회이다. 우리는 이러한 각도로 생각할 때 직업이 돈이나 명예 때문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유용해야 된다고 여기게 된다. 즉, 우리의 업무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일하면서 행복을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불행하다는 것은 자신만을 채우려고 하는 생각으로부터 오는 것이며, 그 충족감은 결코 채워질 수 없다. 그러다 보면 자신의 일이 힘들고 대가가 적다고 여기게 되어 타인이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해주기를 바라게 된다. 이것이 바로 노예 상태이며, 이스라엘 자손들이 정작 그들이 살도록 예정된 진정한 고향은 잊은 채 이집트에 폭 빠져들면서 노예화된 상황과 유사하다.

우리는 자칫 자신이 갖지 못한 것을 가진 다른 사람을 보고 그가 얼마나 행복할까 하고 생각하기 쉽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부유한 사람들은 진정으로 행복할까? 진실로 행복한 사람이란 자신에 몰두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소유하려고 하는 의지만 있게 되면 우리는 진실로 행복한 자가 되는 것이 가능하다. 불붙은 떨기나무 안에서 모세를 주님이 부르시는 것이 바로 본 반의 교훈이다. 우리는 귀를 기울이면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스웨덴불에 의하면 부름이란 자신만을 위하는 것으로부터 이타적이며 천국적인 삶인 거룩한 땅을 향하여 자신의 생각과 삶의 방향을 정하라는 주님의 명령이라고도 한다.

#### 참고 문헌 - 스웨덴불의 저서에서

「선행에 관한 교리 제 158항(Charity, n.158)」: “인간이 일터에서 자신의 일에 애정을 갖고 기쁨을 얻으면서 신실하고 올바르게 일 해가면, 이는 사회적 측면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측면에서도 선용의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용도에 있기 위해서는 주님을 찾으며 악을 죄로 알고 끊어야만 한다. 그 이유는 주님을 찾고 악을 죄로 알고 끊는 것이 선행에 관한 첫째 항목이기 때문이다. 선행의 둘째 항목은 선을 행하는 것이다. 사람이 선용의 차원에 있다함은 그 사람이 날마다 선을 행한다는 것이다. 설령 그가 일하지 않고 있다하더라도 행할 것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행위는 없지만 선행에 대한 생각을 하는 자체가 그 사람 안에 선에 대한 애착이 있다는 증거이며, 이러한 애착은 궁극적으로 행위를 통해서 자기가 생각했던 바가 선용되기를 바란다. 이리하여 그 사람은 선용의 차원에서 항구적으로 있게 되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해의 첫날에서 마지막 날까지 그리고 삶의 시작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있게 된다. 그렇지 않고는 인간은 선행을 받는 수용체가 될 수 없다.”

### 질문 정리

- 1) 모세는 어디서 양육되었는가?
- 2) 그는 이집트에서 몇 년간 살았는가?
- 3) 그는 왜 이집트에서 도망해야 했는가?
- 4) 그는 어디로 피신했는가?
- 5) 미디안이란 누구인가?
- 6) 모세는 미디안 땅에서 몇 년간 머물렀는가?
- 7) 주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그는 어떤 산 근처에 있었는가?
- 8) 그는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 9) 주님은 어떻게 그를 불렀는가?
- 10) 주님은 모세에게 그가 무엇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가?
- 11) 모세는 그 큰 임무를 열심히 수행하고 싶었는가?
- 12) 주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13) 주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날 때에 유대인들이 그들에게 무엇을 달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가?
- 14) 이집트란 무엇을 표현하는가?

- 15)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오래 머물러 노예로 전락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 16) 미디안 땅은 좋은 의미에서 무엇을 표현하는가?
- 17) 모세가 미디안 땅에서 40년간 머물렀음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 18) 불붙은 떨기나무는 무엇을 그리고 있는가?
- 19) 모세는 무엇을 표현하는가?
- 20) 우리는 본문의 모세와 같은 행동을 어느 때에 하게 되는가?

#### 질문의 답

- 1) 이집트의 궁전 2) 40년(사도행전 7:23참조) 3) 이집트인을 죽였기 때문
- 4) 미디안 땅 5) 아브라함과 게투라의 아들 6) 40년 7) 호렘(시나이)
- 8) 양떼를 돌보고 있었다. 9) 불붙은 떨기 10)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꺼내도록 인도함 11) No 12) 내가 네 힘이 되어주겠다. 13) 은불이와 금불이 그리고 옷 등 14) 지식을 획득하는 상태 15) 지식은 주님을 섬기는데 사용되어야 하는데 그 지식 자체를 숭배함 16) 단순한 믿음 17) 시험이 충만해진 상태 18) 우리의 기억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심 19) 신성한 법 20) 주님을 섬기기 시작하는 것조차 부끄러워하거나 핑계를 만드는 때

## 9

# 마라와 엘림

## 머리말

모세가 미디안에서 이집트로 되돌아오는 줄거리와 홍해를 건너는 출애굽 사건을 간단히 정리하면서 시작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기적들을 목격했으므로, 그들이 다시 불순종했거나 의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실제로는 광야생활 중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실망과 불평을 모세에게 한다. 이러한 광야생활 중의 실망과 불평은 구원이라는 멀고 험한 길을 가는 사람들의 심리상태를 표현한다. 스웨덴복에 따르면, 광야생활은 특별히 우리가 영적 시험에 든 상태를 상징한다고 한다. 즉, 구원에 더 가까이 이르기 위한 영적인 시험에 들게 되면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은 힘들고 험난함을 느껴서 우리의 마음에 실망과 불평이 쌓이게 되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삶의 기복”에 아주 친숙하다. “삶의 기복”은 우리의 세상적인 환경의 변화뿐만 아니라 영적 삶의 기복에도 적용된다. 본과는 “ups”으로 출발하나 “down”이 금방 뒤따른다. 그리고 또 다른 “ups”으로 끝난다. 이를 염두 해 두면 본과의 공부에 용이할 것이다.

## 성서본문: 출애굽기 15장

15장: 1. 그제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다음과 같은 노래를 불러 야훼를 찬양하였다. “나는 야훼를 찬양하련다. 그지없이 높으신 분. 기마와 기병을 바다에 처넣으셨다. 2. 야훼는 힘 있게 나를 불드시어 나를 살려 주셨다. 내 하느님이시니 어찌 찬양하지 않으랴. 3. 야훼는 용사, 그 이름 야훼이시다. 4. 파라오의 병거와 군대를 바다에 처넣으시니 빼어난 장교들이 홍해바다에 빠지더라. 5. 깊은 바다가 덮치니, 깊은 물속에 돌처럼 잠기더라. 6. 야훼여, 당신의 오른손이 힘차 영광스럽습니다. 야훼여, 당신의 오른손이 원수를 짓부셨습니다. 7. 무서운 힘으로 당신은 적수를 꺾으셨습니다. 불타는 분노로 당신은 원수를 검불처럼 살라 버리셨습니다. 8. 당신의

세찬 콧김에 바닷물이 쌓였고 물결은 독처럼 일어섰으며 바다 속 깊은 데서 물이 영젖습니다. 9. 원수는 장담하였습니다. ‘내가 그들을 따라 잡아 약탈하고 내 욕망을 채우리라. 칼을 뽑아 들고 이 손으로 쳐부수리라.’ 10. 그러나 당신께서 바람을 일으키시자 바다가 그들을 덮어 버렸습니다. 모두들 거센 물결 속에 납덩이처럼 잠겼습니다. 11. 야훼여, 신들 중에 당신 같은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당신처럼 거룩하며 영광스럽겠습니까? 당신께서 해내신 놀라운 일에 모두들 두려워 떨며 찬양을 드립니다. 12. 당신께서 오른팔을 뻗으시니 땅이 그들을 삼켰습니다. 13. 당신께서 손수 건지신 이 백성 아, 당신은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고, 힘 있는 손으로 그들을 당신의 성소로 인도해 주십니다. 14. 이 소식을 듣고 만방이 술렁거립니다. 불레셋 주민은 겁에 질리고, 15. 에돔의 두목들은 놀라고, 모압의 권력가들은 떨며, 가나안 주민들은 모두들 기가 죽었습니다. 16. 덮쳐 오는 두려움에 서로 잡혔습니다. 야훼여, 당신의 백성이 지나가기까지 당신께서 불러내신 백성이 지나가기까지 모두들 당신의 억센 팔을 보고 돌처럼 말문이 막혔습니다. 17. 당신께서는 그들을 데려다가 당신의 산 위에 심으십니다. 야훼여, 이곳이 바로 당신께서 계시려고 마련하신 곳, 주여, 당신께서 손수 지으신 성소가 아닙니까? 18. 야훼만이 영원히 다스리실 왕이시여라. 19. 파라오의 말들은 결국 기병을 태운 병거를 끌고 바다 속에 잠겨 버렸다. 야훼께서는 그들 위에 바닷물을 덮으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고 건넜다. 20. 아론의 누이요, 여예언자인 미리암이 소구를 들고 나서자, 여자들이 모두 소구를 들고 나와 그를 따르며 춤을 추었다. 21. 미리암이 노래를 메겼다. “야훼를 찬양하여라. 그지없이 높으신 분, 기마와 기병을 바다에 처넣으셨다.” 22.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거느리고 홍해바다에서 수르광야로 진을 옮겼다. 그들은 사흘 동안 가면서도 물을 만나지 못하다가 23. 마라에 다다랐으나 그 곳 물은 써서 마실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 고장을 마라라고 불렀다. 24. 백성들은 모세에게, 무엇을 마시라는 말이냐고 하면서 투덜거렸다. 25.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자, 야훼께서 나무 한 그루를 보여 주셨다.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 단 물이 되었다. 야훼께서는 바로 여기에서 그들이 지켜야 할 규칙을 주시고 그들을 시험해 보셨다. 26. 그리고 말씀하셨다. “너 이스라엘이 너희 하느님 야훼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그가 보기에 바르게 살며 그 명령을 귀에 담아 모든 규칙을 지키면, 이집트인들에게 내렸던 어떤

병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아니하리라. 나는 아훼, 너희를 치료하는 의사이다.” 27. 그들은 샘이 열두 개 있고 종려나무가 일흔 그루 서 있는 엘림에 이르러 거기 물가에 진을 쳤다.

### 교리 요약

- \* 우리가 주님을 한 마음으로 따른다면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다.
- \*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란 주님의 사랑이 부분적으로 감추어져 있을지라도 이글거리고 있는 말씀의 글자를 표현한다.
- \* 인생 중에 겪게 되는 모든 어려움은 우리의 영적 강함을 증진시키는 기회이다.
- \* 선한 일을 해보고자 하는 순수한 바램, 즉 선의지는 우리에게 영적성장의 고진감래를 느끼게 해준다.

### 해설

우리는 지금까지 이집트에서의 열 가지 재앙, 과일절 축제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이야기를 공부했다. 본 반은 홍해에서 파라오의 군대로부터 구원된 기적적인 사건 후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는 승리의 노래로 시작된다.

여러분은 어떤 사건으로 인해 누군가로부터 구조된 후 그것에 대해 감사해 하며 잊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거나 혹은 그 일을 빨리 잊었던 경험이 있는가? 대부분의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쉽게 잊어버린다. 그러고는 다른 시련이 따라붙을 때 예전보다 더욱 두려워하며 반항적인 자세를 취한다. 이러한 것이 구약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이스라엘 후손들의 근본적인 문제점이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유대인들이 많은 기적들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쪽으로 쉽사리 돌아섰던 것에 대해서 의아해 한다. 그러나 그들의 모습 역시 우리와 같지 않을까?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놀랄만한 일을 해주셨을 때 그분의 선한 백성이 되겠다고 다짐한다. 하지만 타인들의 길과 세상의 좋은 것들에 대한 욕구는 우리를 주님의 길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 한동안 선한 생활, 즉 주님의 길을 선택한 생활은 어렵고

메마른 듯 느껴진다. 이는 곧 이스라엘 후손들이 여행한 광야로 그들이 그곳에서 삼 일 동안 마실 물을 발견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물은 진리를 상징하며, “지식에 목말라 있다”라는 표현은 혼하다. 주님은 우리가 진리에 목말라 할 때 언제든지 그것을 주신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진리를 듣게 될 때에도 즐거워하지 않는다. 주님과 이웃을 섬기려는 마음속의 바람은 진리를 달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 이것이 본 반의 첫 부분에 해당된다.

두 번째 부분은 엘림에 있는 오아시스에 대한 아름다운 정경이다. 즉, “열두 개의 샘과 일흔 그루의 종려나무가 있는” 엘림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비록 우리가 영적시험의 긴 여정에서 피곤해지고 용기를 잃어 실망과 좌절에 빠지더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보여 주시며 우리의 영혼에 안식을 허락하셔서 기대치 않은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한다. 내일의 전진과 다시 시작될 긴 여행의 준비를 위해 이러한 순간을 맛보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다.

#### 참고 문헌 -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천국의 신비 제 8356항 (Arcana Coelestia. n.8356)」: “진리에 감동되는 것은 진리가 선에 근거를 가질 때이다. 그 이유는 선과 진리는 결혼처럼 결합되어 있어서 배우자가 상대방인 배우자를 사랑하듯이 서로 사랑하기 때문이다. 말씀에서는 선과 진리의 결합이 ‘결혼’으로 비유되고 있다. 또한 결합으로부터 태어나는 선과 진리는 ‘아들과 딸’로 표현되고 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기쁨의 근원은 선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는 경험으로부터 확실해진다. 삶을 선하게 꾸려 가는 자, 즉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은 믿음 속에 있는 진리 또한 사랑한다. 인간에게 선이 흘러들거나 인간이 선을 받고 있는 한 그 사람은 진리로 인해 기뻐하기 마련이다.”

#### 질문 정리

- 1)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를 떠나기 전 어떤 축제를 가졌는가?
- 2) 그들은 여행하는 동안 무엇에 의해 인도되었는가?
- 3) 홍해는 어떻게 되었는가?
- 4) 그들은 홍해를 건넌 후 주님의 은총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 5) 모세와 아론의 누이는 누구인가?
- 6) 미리암이 사용한 악기는 무엇인가?
- 7) 백성들은 물을 발견하기 전 며칠간 광야를 여행했는가?
- 8) 그들이 물을 발견했을 때 물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 9) 쓴 물이 발견된 지역은 어디인가?
- 10) 그들의 다음 번 여행지는 어디였는가?
- 11) 그들은 그곳에서 무엇을 발견했는가?
- 12) 이집트로부터 빠져 나온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 13)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 14) 쓴 물과 쓴 물을 달게 만든 나무란 무슨 뜻인가?
- 15) 열 두 개의 샘과 일흔 그루의 종려나무란 무슨 뜻인가?
- 16) 광야 여행은 무엇을 그리는가?

#### 질문의 답

- 1) 과일절 2) 구름 기둥, 불기둥 3) 물이 갈라짐 4) 노래를 불렀다
- 5) 미리암 6) 소구 7) 3일 8) 물이 쓴맛 이었다.
- 9) 마라 10) 엘림 11) 열 두 개의 샘, 일흔 그루의 종려나무
- 12) 세상의 노예에서 빠져나와 진정한 영적 상태를 추구함
- 13) 말씀에 담은 글자 14) 진리는 우리의 자연적인 경향성에 반대되어 있다, 선한 삶을 살고자 하는 순수한 바람 15)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진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진리를 앎으로부터 오게 되는 선 16) 재구성 또는 재형성

## 10

# 궤

## 머리말

본과에 앞서 몇 가지 사건들을 간략히 살펴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그 사건들이 시나이 산에서 주어지는 일련의 법률과 각종 지침을 이스라엘 민족이 기꺼이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켰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두 가지 사건을 명시해야 한다. 하나는 그들이 여행 초기 석 달째에 시나이 산에 도착했고 11개월 동안 머물면서 일종의 정부 형태를 갖추었음과 그 형태가 그들의 역사를 총망라하여 지속되며 오늘날의 일부 유대인들에게도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성막과 성막 안의 가구들을 만들기 위한 재료들이 백성들의 자유로운 헌납으로 되어졌음과 그 재료들이 구해진 곳도 상기해야 할 것이다(출애굽기 12:35-36). 일부 성서학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성막이 출애굽기에 묘사된 것처럼 정교한 작품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회의적이다. 그 이유는 유목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는데 요구되어진 모든 재료들을 소유했을 가능성이 낮고 유랑 민족의 특성상 복잡한 법률 체계를 갖지 못했을 것이라고 추측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거의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살았고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는 이집트의 왕가에서 훈육되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고고학적 사료만을 바탕으로 성서를 해석하려는 학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이해하는 것은 힘든 일이다.

## 성 서 본 문: 출애굽기 25장 1-22절

25장: 1.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2.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 나에게 선물을 가져오라고 하여라. 누구든지 마음에 우러나서 가져오는 선물이면 받아 놓아라. 3. 너희가 받아 들 선물은 이런 것들이다. 금, 은, 구리, 4. 자줏빛 양털, 붉은 보랏빛 양털, 진홍색 양털, 고운 모시실, 염소털, 5. 분홍색 수양 가죽, 돌고래 가죽, 아카시아나무, 6. 등잔기름, 향유, 가루향에 넣는 향료 7. 에봇과 가슴받이에 박을 홍옥수를



포함한 여러 가지 보석들이다. 8. 내가 이 백성들 가운데서 살고자 하니 그들에게 내가 있을 성소를 지으라고 하여라. 9. 내가 너에게 보여 주는 설계대로 성소를 짓고 거기에서 쓸 기구들도 내가 보여 주는 도본에 따라 만들어라. 10. 그들은 아카시아나무로 께를 만들어야 한다. 길이는 이 척 반, 나비는 일 척 반, 높이는 일 척 반으로 하여라. 11. 순금판을 께 안팎에 대고 둘레에는 금테를 둘러라. 12. 금고리 네 개를 만들어 네 귀퉁이 밑에 붙이는데, 한 쪽에 고리 두 개, 다른 한 쪽에도 고리 두 개를 붙여라. 13. 또 아카시아나무로 채를 만들어 금을 입혀라. 14. 이 채를 께 양쪽에 붙은 고리에 끼워 께를 들게 하고 15. 채는 고리에 꿰어 놓은 채 그대로 두어라 16.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을 께 속에 넣어라. 17. 너는 순금으로 속죄판을 만들어라. 길이는 이 척 반, 나비는 일 척 반으로 하여라. 18. 속죄판은 마치로 두드려 늘여서 거룩 돌이 양쪽에 자리잡게 만드는데 19. 거룩 하나는 이쪽에, 또 한 거룩은 맞은쪽에 자리 잡게 만들어라. 그 두 거룩은 속죄판 양쪽을 늘여서 만든다. 20. 거룩들은 날개를 위로 퍼서 속죄판을 덮고 속죄판 쪽으로 얼굴을 맞대게 하여라. 21. 그 속죄판은 께 위에 얹고, 께 속에는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을 넣어라. 22. 내가 거기에서 너를 만나, 속죄판 위 곧 증거께 위에 있는 두 거룩 사이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너에게 명할 모든 일들을 일러 주리라.

### 교리 요점

- \*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의 중심에 주님을 예배함이 있어야 한다.
- \* 시나이 산에서 주어진 법의 영적 의미를 공부하면, 말씀을 담은 글자의 세부 사항조차도 우리를 위하여 실용적이며 중요한 것임을 알게 된다.
- \* 성막의 설계는 천국적 인격을 위한 청사진이다.
- \* 계명들은 심정에 새겨져야 하며 지성에 새겨져서는 안 된다.

### 해설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여행 첫 두 달 동안 가졌던 경이로운 경험들을 공부했다.

그들은 그러한 경험을 통하여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과 그들이 수행해야 할 여정을 특별한 것으로서 주님의 보호와 섭리가 있어야 함을 깨닫기 시작해야 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하나의 국가로 만드신 것은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이 모든 사람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즉 각 개인의 수준과 깊이에 맞게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위한 섭리였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문자 그대로와 그들의 변역에만 집착했다. 따라서 주님은 벌에 대한 두려움과 보상에 대한 희망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말씀 속에 기록되어지길 원하신 모든 상세한 법들을 준수하게 하실 수 있었고, 모든 정교한 예식들을 수행하도록 그들을 인도하실 수 있었다. 그들이 가진 법의 글자대로 주님의 법들이 그들의 국가를 위해 있게 되어 그 국가는 종교적인 법률이 통치하는 바, “신권 정치”가 된 것이다. 또한 그들에게 주어진 각각의 지침은 외향적으로는 우리 삶에 더 이상 필요치 않으나 내향적으로는 우리 각 개인의 영적 삶에 적용되는 내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특히, 십계명은 다른 법들과 달라 글자적인 의미조차도 결코 시대착오가 없으며 그 안에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주님은 우리의 영혼이 선한 생활을 통해서 선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때마다 이러한 말씀의 깊은 의미를 그 깊이와 수준에 맞도록 열어 주신다.

주님은 그들이 시나이 산 밑 평야에 진을 치고 있는 동안 그들의 국가에 법을 주셨다. 모세는 법을 받기 위해 산으로 불러졌다. 계명들 외에 중요한 것은 성막의 건축, 가구 그리고 성막을 관리하기 위한 지시 사항이다. 성막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가구는 궤이다. 궤 안에는 십계명이 보존되어지도록 새겨진 두 돌판이 있다. 우리는 성경에서 계명들이 우리의 심정안에 새겨져야 한다는 것을 수차례 접한다. 이것은 우리가 계명들을 성심껏 지켜 가면 계명을 지키는 것을 사랑하는 순간까지 이르게 됨을 의미한다. 계명을 지키는 것을 사랑하는 심정 상태가 바로 천국이다. 만약 모든 사람들이 십계명을 잘 지켜서 서로를 해치지 않는 세상이 온다면, 그것은 아마 천국에 가까울 것이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그러한 세상이 지상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우리는 항상 우리 각자가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영을 갖고 느끼며 생각하고 행동하며 노력함으로써만이 지상에 천국이 오도록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 이는 매주 예배 때마다 암송되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중에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라는 구절의 의미이기도 하다.

### 참고 문헌 -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천국의 신비 제 9509항 (Arcana Coelestia. n.9509)」: “ ‘거룩 둘이 (양쪽에 자리잡게) 만드는데’ 란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선이 아니고는 주님께 나아올 자가 없으며 또 나아오도록 허락되지도 않는다는 의미이다. 그 이유는 거룩이 뜻하는 것도 사랑의 선이 아니면 주님께 접근되지 않도록 하는 섭리와 안전장치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거룩의 의미 때문에 궤 위에 있는 속죄관 위에 놓인 것이며 거룩은 단단한 금 (마치로 두들긴 금)으로 만들어져 있다. 사랑의 선을 통하지 않으면 주님께 접근 못하는 이유는 사랑은 영적 결합이기 때문, 그리고 모든 선은 사랑 속에 존재한다. 주님께 대한 사랑으로부터의 선을 가진 이들은 천국에서 그분에게 나아오게 된다. 그 이유는 그들이 그분과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부터의 선 안에 있는 이들의 경우도 이와 같다.”

### 질문 정리

- 1) 주님은 산꼭대기로부터 모든 백성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 2) 주님은 이밖에 무엇을 모세에게 말씀하셨는가?
- 3) 백성들의 예배 장소를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 4) 그곳의 가장 깊은 방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 5) 그 안의 가구는 무엇인가?
- 6) 궤는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 7) 궤의 꼭대기는 무엇으로 덮여 있는가?
- 8) 궤 안에는 무엇이 놓여 있는가?
- 9) 주님은 궤를 어떻게 사용하시겠다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는가?
- 10) 궤는 무엇을 표현하는가?
- 11) “속죄관”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 12) 거룩은 무엇을 그리는가?
- 13) 왜 궤가 천국을 표현하는가?

#### 질문의 답

- 1) 십계명 2) 여러 가지 작은 법들 3) 성막
- 4) 지성소 5) 언약궤 6) 아카시아 나무 ( 또는 싯딤 목재, shittim wood)
- 7) 덮개 8) 두 돌판(계명들)
- 9) 백성에게 말하시는 데에 사용
- 10) 우리의 내적 존재, 주님은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 11) 악으로부터 우리를 깨끗케 함
- 12) 신성한 섭리의 보호
- 13) 천국은 우리의 심정 안에 존재해야 하기 때문

# 열 두 스파이

## 머리말

본과를 공부하기 전에 출애굽기 31장 1-7절을 읽어본다. 이는 모든 것이 주님의 지시에 따라 만들어졌다는 것인데, 특히 이스라엘 진영의 중앙에 성막이 세워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출애굽기 40장 33-38절을 읽어본다. 그 후 레위기서의 일반 목차를 훑어보고 민수기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유를 기억한다. 이 후 민수기 10장 33-36절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의 여행이 시작되는 초기와 초기 단계에서부터 즉각적인 불행이 일어나고 아론과 미리암의 반역적 행위를 알 수 있다. 이러한 모든 것은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를 보여준다.

## 성 서 본 문: 민수기 13장, 14장

13장: 1.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2.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줄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사람들을 보내어라.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수령들을 보내어라.” 3. 모세는 야훼의 분부대로 바란 광야에 사람을 보내었다. 그들은 모두 이스라엘 백성의 수령들이었다. 4. 이름은 아래와 같다. 르우벤 지파 대표는 자구르의 아들 삼무아, 5. 시므온 지파 대표는 호리의 아들 사밧, 6. 유다 지파 대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 7. 이싸갈 지파 대표는 요셉의 아들 아갈, 8. 에브라임 지파 대표는 눈의 아들 호세아, 9. 베냐민 지파 대표는 라부의 아들 발티, 10. 즈불론 지파 대표는 소디의 아들 가띠엘, 11. 요셉 지파와 므나쎄 지파 대표는 수시의 아들 가띠, 12. 단 지파 대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 13. 아셀 지파 대표는 미가엘의 아들 스들, 14. 납달리 지파 대표는 읍시의 아들 나흐비, 15. 가드 지파 대표는 마기의 아들 그우엘. 16.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보낸 사람들의 이름은 위와 같다. 눈의 아들 호세아의 이름을 여호수아라고 고쳐 준 것은 모세였다. 17. 모세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그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일렀다. “저 네겝 지방에 들어 가 보고 산악지대에도 올라 가 보아라. 18.

그 곳이 어떤 곳인지 살펴보아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19.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들이 사는 도시들은 어떤지, 천막에서 사는지, 견고한 성 안에서 사는지, 20. 땅은 기름진지 메마른지, 숲이 우거졌는지 아닌지 살펴보고 오너라. 대담하게 행동하여라. 그리고 그 곳에서 나는 과일을 따오너라.” 그때는 마침 이른 포도철이었다. 21. 그들은 썬 광야에서 하맛 어귀에 있는 르홉에 이르기까지 샅샅이 살펴려고 그 땅으로 들어 갔다. 22. 그들은 네겟으로 올라 가 헤브론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아나킴의 후손인 아하만, 세새, 탈매족들이 살고 있었다. 헤브론은 이집트의 소안보다 칠년 먼저 세워진 도시다. 23. 그들은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포도 한 송이를 꺾어서 막대기에 꿰어 둘러메고 왔다. 석류와 무화과도 따 왔다. 24.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서 포도 송이를 따 왔다고 해서 그 곳 이름을 에스골 골짜기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25.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는 데 사십 일이 걸렸다. 26. 그들은 바란 광야 카데스에 있는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의 온 회중에게로 돌아 왔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에 그 땅의 과일을 보여주며 보고하였다. 27. 그들은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당신께서 우리를 보내신 땅에 가 보았더니,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었습니다. 이것이 그 지방의 과일입니다. 28.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키가 장대 같습니다. 그리고 성곽 도시들은 정말 굉장합니다. 더구나 우리는 거기에서 아나킴의 후손도 보았습니다. 29. 네겟 지방에는 아말렉 사람들이 살고 있고, 헷족과 여부스족과 아모리족은 산악지대에 살고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바닷가와 요르단강을 끼고 살고 있습니다.” 30. 갈렙이 모세 앞으로 슬렁대며 모여드는 백성을 진정시키면서 외쳤다.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점령합시다. 점령할 수 있습니다.” 31. 그러나 그와 함께 올라가지 못한다고 하면서 32. 자기들이 가서 정탐한 고장은 사람이 살지 못할 곳이라는 소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퍼뜨렸다. “우리가 정탐하고 온 땅에 들어 가 살려다가는 도리어 잡혀 먹힐 것이다. 거기에는 키가 장대 같은 사람들이 있더라. 33.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지만 그 사람들 보기에 그랬을 것이다.”

14장: 1. 이 말을 듣고 온 회중은 떠들썩하게 아우성을 쳤다. 그 날 밤새도록 통곡하며  
2. 온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아니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도 더 좋았겠다. 3. 야훼는 어찌자고 우리를 이리로 데려내다가 칼에 맞아 죽게 하는가? 아내와 어린것들이 적에게 붙잡혀 가게 하는가? 이집트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겠다!” 4. 이렇게 수선을 피우며 그들은 지도자를 하나 뽑아 세우고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서로 의논하였다. 5. 모세와 아론은 온 이스라엘 백성의 회중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6. 그러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사람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옷을 찢으며, 6. 온 이스라엘 백성의 회중을 향하여 외쳤다. “우리가 돌아다니며 정탐하고 온 땅은 기막히게 좋은 땅이오 8. 우리가 야훼의 마음에 들기만 하면, 우리는 그 땅으로 들어 가 차지할 수 있을 것이요. 그 땅은 정녕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오. 그들은 이미 우리의 밥이오. 그들을 덮어 주던 그들은 이미 지나가 버렸소. 야훼께서 우리의 편이시니, 두려워하지 맙시다.” 10. 온 회중이 그들을 막 돌로 치려고 하는데, 야훼의 영광이 만남의 장막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났다. 11.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 백성은 언제까지 나를 멸시할 것이냐? 그렇게도 내 힘을 나타내 보였는데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는구나. 12. 나 이제 열병을 내려 이 백성을 없애 버리고 이들보다 훨씬 큰 민족을 너에게서 일으키리라.” 13. 모세가 야훼께 호소하였다. “하느님께서 몸소 힘을 내시어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셨다는 말을 모든 이집트인이 다 들었습니다. 14. 야훼께서 이 백성 가운데 계시다는 소식이 여기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널리 퍼졌습니다. 야훼께서는 눈에 보이게 나타나 시어 이 백성을 구름으로 덮어 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앞길을 인도해 주시었습니다. 15. 그런데 이 백성을 모조리 없애 버리시면, 하느님의 이야기를 들어 아는 민족들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16. ‘야훼는 맹세만 하였을 뿐, 백성을 그리로 데려 갈 힘이 없어서 광야에서 멸종시켰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17. 아닙니다. 주여, 이제 주님의 크신 힘을 약속하셨던 대로 나타내 주십시오. 18. ‘야훼께서는 좀처럼 화를 내지 않으시고 끝없이 사랑하시며 미쁘시어, 짐짓 거역하고 반항한 죄도 용서하신다. 어떤 죄든지 그냥 넘기시지는 않지만 선조의 죄를 그 후손 삼, 사대에게만 물으신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19. 하느님의 사랑은 그지없으시어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여기까지 이끌어 오시는 동안 참아 주시었습니다. 이번에도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20. 야훼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네 말대로 용서해

준다. 21. 그러나 내가 살아 있는 한, 이 야훼의 영광이 온 땅을 채우고 있는 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있다. 22. 나의 영광을 보고도, 내가 이집트와 광야에서 나타낸 힘을 보고도 이렇게 거듭거듭 나를 시험하고 나의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은 그 누구도 23. 내가 저희 선조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땅을 보지 못하리라. 이토록 나를 업신여기는 자는 결코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24. 그러나 그의 종 갈렙은 그 마음이 남과 달라 나의 뜻을 따라 할 일을 다 하였다. 그러므로 나는 그로 하여금 가서 보고 온 땅으로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고, 그의 후손이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해 주리라. 25. 아말렉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이 저 골짜기에 살고 있다. 그러니 너희는 내일 발길을 돌려 홍해바다 쪽 광야로 떠나거라.”

26.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셨다. 27. “이 못된 회중은 언제까지 나에게 투덜거릴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투덜거리는 불평소리를 나는 들었다. 28. 너희는 이 백성에게 나 야훼의 말이라 하고 이렇게 일러라. ‘너희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다 들었다. 내가 살아 있는 한,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 29. 바로 이 광야에 너희의 시체가 즐비하게 덩굴 것이다. 너희 가운데 스무 살이 넘어 병적부에 오른 자로서 나에게 불평한 자는 그 누구도 30. 내가 정착시켜 주겠다고 손들어 맹세한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이 들어가리라. 31. 또한 너희가, 포로가 되어 끌려가면 어쩌나 하고 걱정하던 너희 어린 아이들은 너희가 거부한 땅으로 내가 데리고 들어가리라. 그 땅은 그들의 차지가 되리라. 32. 그러나 너희들은 죽어 시체가 되어 이 광야에 쓰러지고 말리라. 33. 그리고 너희의 자식들은 너희의 배신죄를 짊어지고 너희의 시체가 썩어 없어질 때까지 사십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어야 한다. 34. 너희가 사십 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였으니, 그 하루를 한 해로 쳐서 사십 년 동안 너희는 너희의 죄의 짐을 져야 한다. 그제야 나를 배반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너희는 알게 되리라.’ 35. 나 야훼가 말한다. 한 무리가 되어 나를 거역한 이 교약한 자들을, 내가 반드시 이렇게 다루고야 말리라. 이 광야에서 하나도 남지 않고 모두 죽으리라.”

36.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보냈던 사람들은 돌아 와서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그 고장은 사람 살 곳이 못 된다고 선동하여 모세를 원망하게 하였다. 37. 이렇게 그 고장을 악평한 자들은 야훼께 벌을 받아 염병으로 죽었다. 38.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자들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뿐이었다. 39. 모세가 야훼께 들은 대로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 주자, 그들은 대성통곡하였다. 40. 이튿날 아침 그들은 일찍 일어나 산꼭대기를 향해 치달으며 외쳤다. “어서 쳐올라 가자. 우리가 올라가지 않았다고 야훼께서 꾸중하시는데, 이려고만 있을 터이냐?” 41. 그러나 모세는 한사코 말했다. “왜들 이러느냐? 야훼의 명령을 무시하고 무슨 일이 되겠느냐? 42. 올라 갈 생각을 말아라. 야훼께서는 이미 너희를 떠나셨다. 너희끼리 쳐올라 갔다가는 43. 거기에서 적에게 패하리라. 아말렉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이 너희에게 달려들어 칼로 무찌를 것이다. 너희는 야훼를 배반하여 야훼의 눈 밖에 나고 말았다.” 44. 그들은 말을 듣지 않고 산꼭대기를 향하여 치달았다. 그러나 야훼의 계약궤도 모세도 진을 떠나지 않았다. 45. 그 산에서 살던 아말렉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이 달려 내려 와 호르마까지 쫓아오며 그들을 무찔렀다.

### 교리 요점

- \* 주님은 우리가 싸울 수 없는 시험은 보류해 주신다.
- \* 구약 성서에서 언급된 거인들이란 태고 교회에서 잔류된 악들이다.
- \* 우리의 가장 큰 적은 유전적으로 이어져 온 우리의 심정 속에 있는 이기심과 세속적인 욕심이라는 거인들이다.

### 해설

이스라엘 후손들은 시나이로 도착하기 전까지 그들이 성장했던 고향을 떠난 유목민에 불과해 그들이 직면한 괴이하고 거친 생활에 적응하기 힘들었으며, 모세 외에는 그들에게 해야 할 일을 말해주는 사람도 없었고 구름 기둥과 불기둥을 따르지 않고는 어디로 가는 지조차도 모르는 실정이었다. 그들은 11개월 동안 시나이 산 밑 평지에 머무르면서 국가 형태로 조직화되기 시작했으며 그들을 규율할 법, 즉 십계명뿐만 아니라 예배에 대한 것과 장소와 각 지파가 어떻게 행군하고 야영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들의 사소한 문제들의 재판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구비되었다. 이러한 모든

사항들은 우리의 질서적인 삶의 형성을 그려준다. 우리가 성서를 이해하게 되면, 각각의 법들이 우리의 영적 삶에 응용됨을 알게 된다. 주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를 제외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다. 그들에게 줄 수 없었던 하나란 의를 행함을 사랑하는 것이었다. 이는 우리 또한 같지 않은가? 우리 모두는 삶에 있어서 마땅히 행해야 할 것들을 알기 위한 수단으로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이미 갖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각자 주님께 순종하는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해야 한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출발한지 삼일도 되지 않아서 주어진 음식을 불평하고 이집트로 되돌아가는 것이 낫겠다고 모세에게 불평 했다. 그 후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거룩한 땅이 보이는 곳에 이르렀다. 그곳은 그들의 선조가 소유했었으며 주님께 의해 약속된 땅이다. 흔히 천국은 약속된 땅이라고 부른다. 우리는 각각 그곳을 소유할 것임을 잘 안다. 우리는 그곳으로 가는 길을 꾸준히 가고 있는가? 이스라엘 족들은 그곳을 정탐하기 위해서 각 지파 별로 한 사람씩 총 12명의 스파이를 보내어 그 땅에 관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주님이 분부하셨다. 이는 우리가 천국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고 확인해보려고 노력하는 것과 같다. 그곳에 관한 보고는 언제나 그 땅은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라고 한다. 주님은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서 천국의 열매를 조금씩 맛 볼 수 있도록 허락하고 계신다. 그러나 우리에게서 나쁜 습관인 우리의 심정 속에 틀어박힌 이기심이라는 거인들, 그리고 가야 할 우리의 길에 바위처럼 서있는 견고한 성벽인 그릇된 사고방식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나는 정말로 선택될 수 없어. 그 일은 내겐 너무나 벅차.” 혹은 “내 생활에 여유가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할거야.”라며 단정한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우리 안의 모든 약함 혹은 두려운 감정과 사고방식이 사라질 때까지 광야를 배회해야만 한다. 우리는 정말 노력하려고 하면 주님이 도와주실 것이라는 것을 까마득하게 잊고 있다. 본받을 통해서 어린이와 어른 모두는 이 교훈을 이해하게 된다. 이 교훈은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에게도 해당된다.

#### 참고 문헌 -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천국의 신비 제 1717항」: “시험과의 싸움 없이도 외적인 인간이 올바른 질서 안으로

환원될 수 있다고 상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그 이유는 시험의 수단은 악과 거짓을 분산시켜 버리고 그곳에 선과 진리를 도입시키면서 외적인 인간 속에 있는 것들을 순종하는 데로 환원시켜 외적인 인간 속의 것들이 내적인 인간 또는 합리적인 인간을 섬길 수 있도록 하고 내적인 인간을 통하여 주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이다. 이러한 역사가 시험으로 인해 이뤄진다는 사실은 시험을 통해 거듭난 사람 외에는 알 도리가 없다. 거듭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는 넓은 의미로도 설명할 수 없다. 그 이유는 과정이 언제 그리고 어떻게 라는 것을 인간이 알기도 전에 이뤄지기 때문이다. 이는 과정이 주님의 신성한 역사이기 때문이다.

「천국의 신비 제 1740항」: “악과 거짓은 시험 속에서의 싸움에 의해 정복되며, 선과 진리가 대신 옷 입혀지듯 된다는 것은 악과 거짓이 먼저 흠어짐을 전제로 해서 오게 된다. 이처럼 악과 거짓이 흠어지고 선과 진리가 그 자리를 대신 메우게 될 때 선과 진리는 더욱 확증되어 강건해진다. 그 이유는 악과 거짓이 악령에 의해 흥분되기 때문이다. 악과 거짓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인간은 어떤 것이 악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다. 따라서 그것들은 활성화 되어져야만 우리에게 뚜렷이 보인다. 그리고 시험으로 인한 싸움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악과 거짓은 더욱 명백해지는데, 이는 우리로 하여금 악과 거짓에 혐오를 느끼게 될 때까지 계속된다.”

### 질문 정리

- 1) 시나이 산을 떠난 뒤 그들이 도착한 거룩한 땅 경계선 지역의 이름은 무엇인가?
- 2) 백성들은 누구를 파견했는가?
- 3) 스파이들은 거룩한 땅에서 무엇을 가지고 되돌아 왔는가?
- 4) 그들은 그 땅에 관해 어떤 보고를 했는가?
- 5) 열 스파이들의 결론적 충고는 무엇인가?
- 6) 어떤 두 스파이가 주님이 그들을 도울 수 있다고 백성들을 상기시켰는가?
- 7) 백성들은 어떤 충고를 선택했는가?

- 8) 선택한 충고에 따른 벌은 무엇인가?
- 9) 누가 거룩한 땅에 들어가도록 허용되었는가?
- 10) 나쁜 충고를 준 열 스파이에게 무슨 변이 일어났는가?
- 11) 얼마나 더 오랫동안 백성들은 광야를 배회해야 했는가?
- 12) 거룩한 땅은 무엇을 그리는가?
- 13) 스파이들의 이야기의 의미는 무엇인가?

#### 질문의 답

- 1) 카데스 2) 열 두 스파이 3) 포도, 석류, 무화과 4) 젓과 꿀이 흐르는 땅
- 5) 그곳 주민들은 너무 강해서 우리는 해볼 수 없다. 6) 갈렙, 여호수아 7) 열 스파이의 충고 8) 40년간의 배회 생활 9) 20세 이하인 자, 갈렙, 여호수아
- 10) 재앙이 덮쳐 죽었다 11) 대략 38년 12) 천국 또는 거듭난 삶 13) 천국으로 가는 삶의 길이 정말 행복하고 가치 있는지 거듭 확인하고 싶어 하는 우리 속의 욕구

## 12

# 여호수아를 부르심

## 머리말

본과의 내용은 스토리로 다루기보다는 토의 형식의 진행이 바람직할지 모른다. 우선 지금까지 여호수아가 담당해왔던 역할을 상기하면서 성경 스토리를 간략히 재고한다. 이에 따른 전체적 윤곽은 성경 공부의 중요한 기본이 될 것이다.

## 성서본문: 여호수아 1장

1장: 1.야훼의 종 모세가 죽은 다음이었다. 야훼께서 눈의 아들이자 모세의 부관인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2. “내 종 모세가 죽었다. 그러니 너는 이제 이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떠나 이 요르단 강을 건너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땅으로 들어가거라. 3. 너희 발바닥이 닿기만 하면 어디든지 그 곳을 모세에게 약속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4. 이 광야에서 시작하여 레바논을 거쳐 큰 강 유프라테스에 이르고 거기에서 헷족의 땅을 거쳐 해지는 쪽 대해에 이르기까지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다. 5. 네 평생에 아무도 네 앞길을 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의 곁을 떠나지 않았던 것처럼 네 곁을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6. 힘을 내고 용기를 가져라. 내가 이 백성의 선조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땅을 차지하여 이 백성에게 나누어 줄 사람은 바로 너다. 7. 용기백배, 있는 힘을 다 내어라. 그래서 내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법을 한 눈 팔지 말고 성심껏 지켜라. 그리하면 네가 하는 모든 일이 뜻대로 되리라. 8. 이 책에 있는 법이 네 입에서 떠나지 않게 밤낮으로 되새기며 거기에 적혀 있는 것을 어김없이 성심껏 실천하여야 한다. 그렇게만 하면 네 앞길이 열려 모든 일이 뜻대로 되리라. 9. 너는 내 명령을 듣지 않았느냐? 힘을 내고 용기를 가져라. 무서워 떨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느님 야훼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10.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전군의 장교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11. “진지 가운데로 돌아다니며 전군에게 이렇게 일러 주어라. ‘양식을 준비하여라. 사흘만 있으면 너희는

이 요르단강을 건너게 된다.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너희의 것으로 주시는 땅을 차지하러 들어 간다.” 12. 그리고 여호수아는 르우벤 사람들과 가드 사람들과 므나쎄 반쪽 지파에게 일렀다. 13. “너희는 야훼의 종 모세가 한 말, 곧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여기 이 땅을 너희에게 정착지로 주신다던 말을 기억하여라. 14. 너희의 아내들과 어린것들과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르단강 건너편에 있는 땅에 머물러 있게 하여라. 그러나 너희 군인들은 부대를 편성, 앞서 건너 가 동족들과 함께 싸워라. 15. 너희 동족이 너희처럼 정착지를 얻게 될 때까지 함께 싸워 주어라. 그들도 너희와 마찬가지로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주시는 땅을 차지하여야 한다. 그제야 너희는 너희의 차지가 된 땅, 곧 야훼의 종 모세에게서 너희가 받은 요르단강 건너편 해돋는 쪽에 있는 땅으로 올 수 있을 것이다.” 16. 그러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장군께서 우리에게 무슨 명령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겠습니다. 어디로 보내시든지 그리로 가겠습니다. 17. 우리는 모세가 하신 말씀은 무슨 말씀이든지 다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장군께서 하시는 말씀도 들겠습니다. 다만 장군의 하느님 야훼께서, 모세의 곁을 떠나시지 않으셨던 것처럼, 장군의 곁을 떠나시지 않으시기를 빌 뿐입니다. 18. 장군의 지시를 거스르고 명령을 듣지 않는 자가 있으면 누구든지 죽여야 합니다. 다만 힘을 내시고 용기를 가지십시오.”

### 교리 요점

- \* 주님은 이 세상의 만물을 우리가 즐기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의 첫 번째 순위에 두어서는 안 됨도 말씀하신다. 그분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 \* 재구성과 중생은 다르다.
- \* 최선의 용기란 시험 중에 “NO”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이다.

### 해설

본문의 내용은 어린이들에게 꽤 흥미로울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요르단 강

저쪽 편에 진을 쳤다. 그곳은 사해 바다의 북쪽 끝에서 과히 멀지 않은 곳으로 예리고 성 반대편이다. 그들은 그들 조상의 땅을 강 건너에서 바라보고 있었고 그곳에 들어가 기 위해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다. 그곳은 주님이 그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이다. 모세가 죽은 후 전쟁 때마다 그들을 이끌었던 여호수아가 모세의 지휘권을 이양 받았다. 그들은 여호수아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신임했다. 38년 전 여호수아의 충고를 거절했었던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었다. 여호수아의 임무란 “힘을 내고 용기를 가져라”인데, 이는 우리 모두가 익혀야 할 대목이다. 왜냐하면 이 임무는 우리의 전 생애 가운데 거듭 필요하기 때문이다. 의의 길은 언제나 쉽지 않으며 의를 행하는 데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 이 사항은 부모들이 교회와 협력하여 청소년들의 머릿속에 강하게 인상되도록 해야 할 교훈이다. 청소년들은 친구들이 나쁜 짓을 하자고 할 때 시험에 들기가 쉽다. 그 이유는 친구들의 제의를 거절하면 놀림을 받거나 따돌림을 받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이 나쁜 일을 행하기보다 놀림감이 되는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많은 용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용기는 사실 어른들에게도 필요한 것이다. 어린이들은 자신이 용감하다고 느끼기를 좋아한다. 좋은 의도를 가진 용감함은 진정한 것으로 하나의 미덕으로 볼 수 있다.

여호수아의 임무 중 우리가 기억해야 할 다른 하나는 모세의 법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는 그 법을 밤낮으로 되새겼다. 이는 주님이 여호수아를 도우며 그에게 성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다. 주님은 우리가 성공할 수 있도록 돕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법에 어긋날 때는 그분은 우리를 도우실 수 없다. 왜냐하면 그분의 법만이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법이기 때문이다. 그분은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신다. 이는 특별히 어린이들이 이해해 두어야 할 내용이다. 주님은 우리가 행하는 것보다 더 멀리 내다보고 계신다. 또한 우리가 행하려고 계획한 것들의 마지막 결과도 보고 계신다.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만든다고 여겨졌던 일들이 결국에는 반대의 결과를 가져오는 일도 흔하다. 우리는 유전적으로 이기적인 상태이므로 주님의 법칙은 우리에게 상당히 힘든 것처럼 여겨진다. 그러나 주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은 그것을 어김으로 인해 오는 고통보다 훨씬 더 쉬울 것이다. 주님은 세상에 계셨을 때 “내 멍에를 지고 나에게 배워라.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셨다(마태복음 11:29-30).

## 참고 문헌 -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진정한 기독교」 42항: “사랑과 지혜에는 세 등차가 있다는 것, 이로 인해 삶에도 세 등차가 있다는 것 그리고 인간의 마음은 이러한 등차에 일치하는 영역으로 형성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가장 높은 영역에 있는 삶은 가장 높은 등차에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영역은 좀 더 낮은 등차에 있게 되며 가장 바깥쪽 영역은 가장 낮은 등차에 속하게 된다. 이 영역들은 인간 안에서 연속적으로 열려있다. 가장 낮은 등차의 삶이 있는 곳인 가장 바깥쪽 영역은 유아기로부터 어린 시절까지에 해당되며, 이는 지식을 수단으로 이뤄진다. 보다 확대된 등차의 삶인 두 번째 영역은 어린 시절부터 젊은 시절까지이며, 이 영역의 삶은 지식으로부터 온 생각을 수단으로 이뤄진다. 그리고 가장 높은 등차인 가장 높은 영역은 젊은 시절부터 성년기까지와 그 이후의 삶인데, 이는 도덕적이며 영적인 진리에 대한 지각을 수단으로 이뤄진다.

### 질문 정리

- 1) 열두 명의 스파이들은 거룩한 땅에서 무엇을 가지고 돌아 왔는가?
- 2) 그들이 그곳에 관해 보고한 것 중 좋은 것은 무엇인가?
- 3) 그들이 보고한 내용 중 나쁜 것은 무엇인가?
- 4) 보고 결과를 토대로 열 명의 스파이들은 무엇을 충고했는가?
- 5) 나머지 두 스파이는 무엇을 충고했는가?
- 6) 주님을 신뢰한 두 스파이의 이름은 무엇인가?
- 7) 백성들은 어떤 충고를 선택했는가?
- 8) 선택의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 9) 백성들은 몇 년 동안 광야를 배회했는가?
- 10) 그들이 거룩한 땅에 진입하기 전 마지막 야영지는 어디였는가?
- 11) 모세가 죽은 후 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는가?
- 12) 여러분은 전 과정에서 여호수아에 관한 것 중 어떤 것을 기억하는가?



- 13) 주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임무는 무엇인가?
- 14) 어떤 지파가 요르단 강 동쪽에 터전을 잡았는가?
- 15) 그 지파들이 정착하기 전 먼저 처리한 일은 무엇인가?
- 16) 거룩한 땅에 들어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17) 모세와 여호수아는 상응 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가?
- 18) 재구성과 거듭남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 질문의 답

- 1) 열매들 2) 그 땅은 기름지고 아름답다.
- 3) 그 땅에는 튼튼한 성벽을 가진 성들이 있고 거인들이 산다.
- 4)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할 수 없다.” 5)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다.”
- 6) 갈렙, 여호수아 7) 열 명의 스파이의 충고
- 8) 38년 이상을 광야에서 살아야 했다. 9) 40여년 10) 모압 평야
- 11) 여호수아 12) 좋은 충고를 한 스파이, 또는 군대 사령관
- 13) “힘을 내고 용기를 가져라” 14) 르우벤, 가드, 므나쎄 반쪽 지파
- 15) 다른 지파가 정복하는 것을 먼저 도왔다. 16) 거듭남의 시작 17) 모세: 법에 순종, 여호수아: 진리를 가지고 싸워나감 18) 재구성: 일상생활을 질서 있게 놓는 것, 거듭남: 주님께에서 새 의지를 얻는 것

# 아이성의 포획

## 머리말

먼저 2-6장을 읽고 간략히 재고한 후 본과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6장의 내용에서 강조되는 것은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승리를 안겨줌으로써 주님의 권능을 보여주신 사실이다. 이 승리는 주님의 능력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서 자신이 우월하여 획득된 승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됨을 경고하신 것이기도 하다. 예리고성을 점령하여 폐허가 되도록 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필두로 본과를 시작해 본다.

## 성 서 본 문: 여호수아 7장, 8장

7장: 1.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부정한 것을 없애라는 명을 어겨 죄를 짓는 일이 생겼다. 유다 지파 가운데 제라의 중손이자 잡디의 손자이며 가르미의 아들인 아간이 부정한 것을 가졌던 것이다. 이 일 때문에 야훼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몹시 노하셨다. 2. 여호수아는 예리고에서 베델 동편 아이로 사람을 보내면서 “올라 가 그 땅을 정탐하고 오너라.”하고 명령하였다. 그들은 올라 가 아이를 정탐하고 3. 여호수아에게 돌아 와 보고하였다. “전군이 다 올라 갈 것까지는 없습니다. 이 삼천 명만 올라가도 아이는 넉넉히 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많지 않더이다. 군대를 총출동시켜 고생 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4. 그리하여 군대 약 삼천 명이 그리로 쳐 올라갔다가, 도리어 아이의 주민들에게 쫓기게 되었다. 5. 그들은 성문에서 스바림까지, 또 거기에서 비탈길을 따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추격해 오면서 삼십 육 명이나 죽었다. 백성은 크게 낙담하였다. 6.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옷을 찢고 머리에 먼지를 쓴 채 저물 때까지 야훼의 궤 앞에 엎드려 있었다. 7. 여호수아가 울부짖었다. “나의 주 야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하여금 요르단강을 건너게 하시고는 이제 아모리 사람들 손에 붙이시어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차라리 요르단강 건너편에서 살게 해 주셨더라면 좋았겠습니다. 8. 나의 주여, 소인이 아뢰는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러나 이스라엘이 원수에게 등을 보인 이 마당에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9. 가나안 사람들뿐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이 소식을 들으면 우리를  
 포위하고 공격할 것입니다. 그리 되면 우리는 이름을 이을 자도 없이 세상에서 끊어질  
 것입니다. 주여, 어떻게 당신의 위대하신 이름을 살리시렵니까?” 10. 야훼께서 야호수  
 아에게 대답하셨다. “일어나거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11. 이스라엘은  
 죄를 지었다. 내가 분부한 지시를 어기고 부정한 것을 가졌다. 그리고 그것을 훔쳐다가  
 자기 행낭에 숨겨 두었다. 12. 그리하여 저희들이 스스로 부정한 것이 되었다. 이스라  
 엘군이 원수들과 맞설 수 없게 된 것은, 원수들에게 등을 보이게 된 것은 그 때문이다.  
 너희 가운데서 그 부정한 것을 치워 버려라. 그렇지 아니하면 다시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13. 너는 일어나 이 백성을 깨끗하게 하여라.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께서 내일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라더라고 전하며 이렇게 일러  
 라.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부정한 것이 있다. 그 부정한 것을 치울 때까지 너희는  
 원수들과 맞설 수 없으리라.’ 14. 너희는 아침에 지파별로 나오너라. 그 가운데서  
 내가 잡아내는 지파가 갈래별로 나오고 또 그 가운데서 잡아내는 갈래가 가문별로  
 나오고 또 그 가운데서 잡아내는 갈래에 속한 가문의 장정이 차례로 나오너라. 15.  
 부정한 것을 가지고 있다가 잡힌 자는 그 식구와 함께 화형을 당하리라. 그가 나  
 야훼의 지시를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못할 짓을 했기 때문이다.” 16.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지파별로 나오게 하였다. 그 가운데서 유다 지파가  
 잡혔다. 17. 유다 지파를 갈래별로 나서게 하였더니 제라 갈래가 잡혔고, 제라 갈래를  
 가문별로 나서게 했더니 잡디 가문이 잡혔다. 18. 다시 여호수아가 잡디 가문의 장정을  
 차례로 나서게 했더니 유다 지파 제라의 중손이요 잡디의 손자며 가르미의 아들인  
 아간이 잡혔다.  
 19.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물었다. “아들아,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의 위엄을 알아  
 모시고 그에게 자백하여라. 무슨 일을 했든지 숨기지 말고 말하여라.” 20.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제가 정녕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께 죄를 지은 사람입니  
 다. 제가 한 일은 이러합니다. 21. 제가 전리품 중에서 시날에서 난 좋은 외투 한  
 벌과 은 이백 세겔과 오십 세겔 나가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는 그만 욕심이 나서  
 가졌습니다. 그것들은 제 천막 땅 속에다 은을 밑에 깔고 묻어 두었습니다.”

19. 여호수아는 심부름꾼을 보냈다. 그들이 그의 천막으로 달려 가 보니, 과연 외투가 묻혀 있고 그 밑에 은이 깔려 있는 것이었다. 23. 그들은 그것을 모두 천막에서 꺼내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져다가 야훼 앞에 놓았다. 24. 여호수아는 제라의 아들 아간을 끌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를 거두어 아골 골짜기로 올라 갔다. 그의 아들딸을 비롯하여 소, 나귀, 양, 그의 천막과 그에게 딸린 모든 것을 가지고 올라가는데 온 이스라엘이 그를 따라 나섰다. 25. 여호수아가 말하였다. “어찌다가 내가 우리에게 이런 참혹한 일을 당하게 했느냐? 너도 오늘 야훼께 참혹한 일을 당하리라.” 이 말이 떨어지자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무더기로 만들었다. 또 그의 일족을 불사르기도 하고 돌로 쳐 죽이기도 하였다. 26. 그들이 그 위에 쌓아 올린 큰 돌무더기는 오늘까지 남아 있다. 그제야 야훼의 극렬한 분노가 걷혔다. 이런 사연이 있어서 그곳 이름을 오늘날에도 아골 골짜기라 부르는 것이다.

8장: 1.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셨다.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말라. 전군을 거느리고 떠나 아이로 쳐 올라가거라. 보아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성읍과 영토를 네 손에 붙인다. 2. 네가 예리고와 그 왕을 해치웠듯이 아이와 그 왕도 해치울 터인데 전리품과 가축은 차지해도 좋다. 그 성 뒤쪽에 복병을 배치하여라.” 3. 여호수아는 전군에게 아이로 쳐 올라 갈 준비를 갖추게 한 다음 날썬 용사 삼만 명을 뽑아 밤을 타 보내면서 4. 지시하였다. “잘 들어라. 너희는 저 성 뒤로 돌아가 성에서 너무 멀지 않은 곳에 매복하고 대기하여라. 5. 나는 나의 부대를 거느리고 저 성으로 다가가리라. 그들이 먼저처럼 우리를 맞아 싸우러 나오면, 우리는 쫓기는 체하겠다. 6. 그들은 우리가 먼저처럼 도망을 친다고 생각하고 우리를 뒤 쫓아 나올 것이다. 우리가 그들을 성에서 멀리 피어내거든, 7. 너희는 매복하고 있던 데서 일어나 저 성을 점령하여라.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저 성을 너희의 손에 붙이시리라. 8. 성을 점령하는 길로 불을 질러라. 야훼의 말씀이니 꼭 그대로 해야 한다. 내 명령이다.” 9. 여호수아는 그들을 떠나보냈다. 그들은 아이와 베델 사이, 아이 서편에 이르러 매복하였다. 한편 여호수아는 부대원들 틈에 끼어 그 밤을 지내고 10. 이튿날 일찍 일어나 부대원을 점호한 다음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부대를 거느리고 아이로 쳐 올라갔다. 11. 그를 쫓는 부대원 전원이 올라 가 성 정면을 향하여 다가갔다. 그들은

아이와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아이 북쪽에 진을 쳤다. 12. 그는 오천 명쯤 뽑아다가 성 서쪽 아이와 베델 사이에 매복시켰다. 13. 이렇게 전군은 성 북쪽에 진을 치고 성 서쪽에는 기습부대를 배치하였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밤을 골짜기에서 지냈다. 14. 아이 왕은 이것을 보고 아침 일찍이 서둘러 자기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맞아 싸우러 아라바 맞은편 비탈로 나왔다. 그러나 그는 성 뒤쪽에 자기를 치려고 복병이 숨어 있는 것을 몰랐다. 15.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군과 함께 쫓기는 체 광야 쪽으로 도망쳤다. 16. 성에 있던 전 부대가 그들을 따라 잡으라고 고함을 지르며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다. 그들은 여호수아의 유인을 받아 성에서 멀리 끌려 나오고 말았다. 17. 아이에는 한 명도 남지 않고 이스라엘을 쫓아 나왔던 것이다. 그들은 저희의 성을 비워 두고 성문을 열어 둔 채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다. 18.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네 손에 든 창을 아이 쪽으로 내뺐어라. 이제 내가 저 성을 네 손에 붙인다.” 여호수아는 손에 든 창을 성 쪽으로 내뺐었다. 19. 그가 팔을 내뺐자마자 복병들이 번개처럼 일어나 성으로 쳐들어 가 점령하였다. 그리고는 곧 그 성에 불을 놓았다. 20. 아이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니 성에서는 연기가 하늘로 치솟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들은 어느 쪽으로도 도망칠 길이 없었다. 광야 쪽으로 도망치는 체하던 부대가 돌아 서서 추격하던 자들에게 도로 달려들었던 것이다. 21. 성에서 연기가 치솟는 것을 보고 성이 이미 복병에게 점령된 줄 안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은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무찔렀다. 22. 성에 들어갔던 사람들도 짓쳐 나왔다. 아이 사람들은 독 안에 든 쥐가 되어 한 사람도 살아 도망치지 못하고 맞아 죽었다. 23. 아이 왕은 사로잡혀 여호수아에게 끌려 왔고 24. 광야 벌판에서 이스라엘을 쫓던 아이 주민은 그 광야 벌판에서 다 죽었다. 그들이 한 사람 남김없이 칼날에 쓰러지자 온 이스라엘은 아이로 돌아 가 그 백성을 도륙하였다. 25. 그 날 쓰러진 아이 사람은 남녀 합해서 모두 만 이천이나 되었다. 26. 여호수아는 아이 주민을 전멸시키기까지 창을 내뺐었던 팔을 거두지 않았다. 27. 그 성에 있던 기축과 전리품은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지시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차지하였다. 28. 여호수아는 아이를 불 질러 영원한 폐허로 만들었다. 그래서 오늘까지 그 곳은 돌무더기로 남아 있는 것이다. 29. 그는 아이 왕의 시체를 저녁때까지 나무에 달아 두었다.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 해질 무렵에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끌어내려 성문 어귀에 내던지고

그 위에 큰 돌무더기를 쌓아 올렸다. 그것이 오늘까지 그대로 있다. 30. 그 후 여호수아는 에발산 위에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께 바치는 제단을 쌓았다. 31. 그는 야훼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한 대로 하였다. 그들은 모세의 법전에 기록된 대로 쇠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생돌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다가 야훼께 번제물을 올리고 친교제물을 잡아 바쳤다. 32. 그리고 여호수아는 모세가 써 둔 모세의 법사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 돌들에 새겼다. 33. 그리고 나서 온 이스라엘은 장로들과 장교들과 법관들 그리고 외국인 본토인 구별없이 모두가 야훼의 계약궤를 멘 레위인 사제들 앞에서 법궤를 향하여 양쪽으로 갈라섰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빌어 주기 위하여 야훼의 종 모세가 처음 지시했던 대로 받은 그리짐산 앞쪽에, 받은 에발산 앞쪽에 섰던 것이다. 34. 그 뒤 여호수아는 법의 축복 조항과 저주 조항을 법전에 기록된 대로 낭독하였다. 35. 여호수아는 여자와 아이들 또 그들 가운데 끼어 사는 실향민들까지 참석한 이스라엘 대회에서 모세에게 지시받은 말을 한 마디도 빠지 않고 낭독하였다.

### 교리 요점

- \* 주님은 이세상의 좋은 것들을 우리가 즐기기를 원하시지만 그것을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에 놓지 않도록 경고하신다. 그분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세상을 창조하셨다.
- \*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으로부터 진리를 꾸준히 배우지 않고도 스스로 알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 \* 우리는 진리에 의거하여 체계적으로 우리 속의 동기들을 점검해야 한다.

### 해설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후손들이 거룩한 땅에 들어가 처음 공격한 성인 예리고성의 함락에 대해서 알고 있다. 백성들은 사제들이 증거궤를 메고 성 주위를 돌 때 그들과 함께 행군했고, 일곱째 날에는 성을 공격함 없이도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준 이유는 승리하게 해주신 분이 주님이심과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면 언제나 성공적 결과만이 있게 된다는 사실에 확신할 수 있도록 하신 그분의 배려 때문이다.

아이(Ai)성의 포획에 관한 이야기는 그리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아이성은 예리고성의 정복 다음에 있는 두 번째 성이다. 성의 정복이란 점에서는 예리고 성과 비슷하나 다른 요점을 갖고 가르치시기 위해 성경 안에 주어지 있는 것이다. 이 공과의 요점은 불순종하면 실패뿐이라는 것과 주님께 전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필요성 그리고 우리가 즐기고 싶은 죄들을 우리 속에 붙잡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 모두가 가진 시험이다. 우리는 우리의 결함을 명확히 보고 그것이 우리의 성공의 길 앞에 가로막아 버티고 있음도 인식해야 한다. 그런 다음 우리는 결점들을 제거해 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우리가 했던 일 중 잘못됐다고 하시며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시는 이유를 쉽게 알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했던 일 중 스스로 보기에 “꽤 좋다”고 여겨지는 것들은 버려야 함을 인정하며 공식적으로는 포기했다고 말할지라도 은밀히 그것들을 즐기는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은 아간이 예리고성에 있는 금지된 부정한 것을 슬쩍 감춰 두는 것과 같다.

흔히 사람들은 아간만이 범죄자였는데 아간의 가족까지 벌을 받아야 했던 이유를 알지 못한다. 우리는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분명히 순진한 사람들인데 악한 누군가와 연관되어 그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시는 대목을 볼 수 있다. 또한 당시의 사람들은 잔인했는데, 이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사악을 번제물로 바치려했던 것에서 엿볼 수 있다. 즉, 주님의 진리가 사람의 생각 속에서 어떤 형태로 옷을 입게 되는지 상상해 볼 수 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범죄자의 가족까지는 사형을 내리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 다른 방법으로 위와 같은 잔인함을 발휘하기도 한다. 주님은 성경에서 인간에게 줄 교훈들을 예증하시기 위해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것을 사용하셨다. 가족이란 어떤 바램 또는 애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것과 그에 상응되는 생각들의 모든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악한 바램 즉 누군가를 해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될 때 그 마음(바램)에서 생겨나는 모든 생각과 감정은 나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속의 바램이 악해서 그것을 제거해야겠다고 인식할 때 우리는 악한 바램에서 근거되는 모든 생각과 느낌마저도 없애 버려야 한다. 이것은 본문에서

야간의 가족으로 상징되고 있다. 말씀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을 그린다. 말씀 안에 있는 모든 전쟁, 전투 혹은 죽이는 것 등은 우리 내에 있는 적들과 우리가 가질 모든 투쟁들을 그리는 것이다. 우리는 여호수아가 처음 그랬던 것같이 우리의 실패를 주님의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 “집안 식구가 바로 자기 원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의미가 바로 위의 내용이다(마태복음 10:36).

### 참고 문헌 -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천국의 신비 제 8391항 (Arcana Coelestia. n.8391)」: “믿음으로 생활해 가는 이는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간다. 그 이유는 그 사람이 자기 속에 든 악을 꼼꼼이 생각하고 인정하며 그것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주님께 간곡히 도움을 청하기 때문이다.”

「천국의 신비 제 8394항 (Arcana Coelestia. n.8394)」: “사람이 자신을 검토하고 자기 죄를 인정하여 회개한 후라면, 그는 죽을 때까지 선한 상태에 꾸준히 머물러야 한다. 만약 그가 예전의 악한 삶으로 퇴조해 과거의 삶에 합세한다면, 그는 신성을 모독하게 되는 것이다. 그 이유는 그가 악과 선을 접합시켜 그의 상태는 전보다 더 나빠지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12:43-45절을 참조하라)

### 질문 정리

- 1) 이스라엘이 정복한 첫 성의 이름은 무엇인가?
- 2) 그 성을 정복하는데 주님이 어떻게 도울 것이라고 하셨는가?
- 3) 이스라엘은 예리고성의 부정한 것들에 관해 어떻게 하라고 명령 받았는가?
- 4) 그들이 공격한 두 번째 성의 이름은 무엇인가?
- 5) 여호수아는 처음에 그 성을 어떻게 공격했는가?
- 6) 공격해 들어간 군대가 도망했을 때 여호수아는 무엇을 했는가?
- 7) 주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8) 그들은 범죄자를 어떻게 색출했는가?



- 9) 범피자는 누구였는가?
- 10) 그는 무엇을 착복했는가?
- 11) 어떤 별이 그에게 내려졌는가?
- 12) 여호수아는 두 번째 아이성의 공격에 얼마의 군대를 사용했는가?
- 13) 그는 군대의 일부를 어떻게 배치했는가?
- 14) 아이성의 전리품은 어떻게 하라고 명령되었는가?
- 15) 그들은 세겜에서 무엇을 했는가?
- 16) 아간의 죄는 무엇을 그리는가?
- 17) 아간의 죄가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 18) 군인들을 매복시킴이란 어떤 의미인가?

#### 질문의 답

- 1) 예리고 2) 성벽을 무너뜨려 주겠다. 3) 자신을 위해 착복하지 말라.
- 4) 아이 5) 작은 군대를 파견했다. 6) 얼굴을 땅에 대고 옷을 찢으며 하느님께 실패한 탓을 돌렸다.
- 7) 누군가가 죄를 범했다. 8) 예비뽑기 9) 아간 10) 외투, 금, 은 11) 돌로 치고 불을 질렀다. 12) 전 군대를 동원했다. 13) 일부 군대를 매복시킴 14) 백성들이 가져도 좋다. 15) 제단을 쌓고 법을 새기고 읽었다. 16) 자신의 과오 중 어떤 것은 괜찮다는 느낌 17) 곤경에 처할 때 하느님이나 타인에게 그 탓을 돌리지 말라 18) 영적인 것들에 대한 우리의 지식으로부터 비축해둔 힘을 사용함

## 14

# 판관 기드온

## 머리말

우선 판관 시대의 요지인 판관기 17장 6절을 읽고 공부하도록 하자. 주님으로부터 옳은 것에 대한 지식을 찾는 것과 자신에게서 찾아보려는 것의 차이점을 설명한다. 열조시대(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와 여호수아, 판관시대 그리고 이후에 오는 제왕 시대의 차이점을 확실히 구분하도록 한다. 판관들이란 지방적이며 일시적인 지도자들이다.

## 성 서 본 문: 판관기 6, 7장

6장: 1.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야훼의 눈에 거슬리는 일을 하자, 야훼께서는 그들을 칠 년 동안 미디안족의 손에 붙이셨다. 2. 그래서 이스라엘은 미디안족에게 억눌려 살게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미디안 사람들을 피하려고 산 속에 굴을 파야 했고 동굴과 험준한 지형을 이용해야 했다. 3. 이스라엘 사람들이 씨를 뿌릴 때만 되면 미디안 사람들은 아말렉 사람과 동방의 백성을 이끌고 올라 와  
4. 진을 치고 이스라엘을 쳐서 가자 어귀에 이르기까지 온 땅의 농사를 망쳐 놓곤 하였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고 살 것을 하나도 남겨 두지 않았고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 나귀 한 마리도 남겨 두지 않았다. 5. 그들은 가축 떼를 몰고 천막을 떠먼 채 메뚜기떼처럼 몰려 왔다. 사람이고 낙타고 이루 다 셀 수 없이 몰려들어 와 온 땅을 망쳐 버렸다. 6. 이리하여 미디안은 이스라엘을 극도로 황폐하게 만들었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은 또 야훼께 울부짖었다. 7.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 사람들의 횡포를 견디다 못해 야훼께 부르짖자, 8. 야훼께서는 한 예언자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시어 당신의 말씀을 전하게 하였다.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였다. 종살이하던 집에서 너희를 구출해 내었다. 9. 이집트인들의 손아귀에서, 너희를 못살게 굴던 모든 사람의 손아귀에서

너희를 건져 내었다. 그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10. 그리고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느님 야훼요 아모리인들의 땅에서 산다고 해서 그들의 신들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끝내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11. 야훼의 천사가 아비에셀의 후손 요아스의 성 오브라에 있는 상수리나무 밑에 와서 앉았다.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밀 이삭을 포도주 틀에서 떨고 있었는데, 12. 야훼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일렀다. “힘센 장사야, 야훼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13. 기드온이 반문하였다.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야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왜 우리가 지금 이 모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를 이집트에서 올라오게 하실 때 야훼께서 온갖 기적을 행하셨다는 말을 우리는 선조들에게서 들었습니다마는 그 기적들이 지금 다 어디로 갔습니까? 지금은 야훼께서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붙이시지 않으셨습니까?” 14. 그러자 야훼께서 그를 돌이켜 보시며 말씀하셨다.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러 가거라. 내가 친히 너를 보낸다.”

15. 기드온이 말하였다.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아시는 대로 우리 문중의 부대는 므나쎄 지파에서도 가장 약합니다. 또 저는 제 집안에서도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16.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미디안을 한 사람 해치우듯 쳐부수리라.” 17. 기드온이 말하였다. “정말로 제가 눈에 드셨거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당신이라는 표를 보여 주십시오. 18. 제가 다녀 오겠습니다. 그 때까지 여기를 떠나지 말고 계십시오. 예물을 내다 드리겠습니다.” 그가 대답하였다. “네가 돌아 올 때까지 이 자리에 있겠다.” 19. 이 말을 듣고 기드온은 물러가 새끼 염소 한 마리를 잡아 요리하고 가루 한 에바로 누룩 넣지 않은 떡을 만들었다. 그리고 고기를 바구니에 담고 국물은 그릇에 담아 상수리나무 아래에 있는 그에게 가져갔다. 그가 오는 것을 보고 20. 야훼의 천사가 그에게 일렀다. “고기하고 누룩 넣지 않은 떡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물은 그 위에 부어라.” 기드온이 그대로 하자, 21. 야훼의 천사는 손에 든 지팡이를 뻗쳐 그 끝을 고기와 누룩 넣지 않은 떡에 대었다. 그러자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누룩 넣지 않은 떡을 살라 버렸다. 야훼의 천사는 그의 눈앞에서 사라졌다.

22. 그제야 기드온은 그가 야훼의 천사라는 것을 알고 말하였다. “오, 주님 야훼여, 제가 주님의 천사를 대면해 뵈었군요!” 23. 야훼께서 “안심하여라. 너는 죽지 않을 테니 두려워 말라”고 하셨다. 24. 그리하여 기드온은 거기에서 야훼께 제단을 쌓아 바치고는 그 제단을 “안심시켜 주시는 야훼”라 이름 지어 불렀다. 그 제단은 이날까지도 아비에셀의 성 오브라에 서 있다. 25. 그 날 밤, 야훼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네 아버지의 일곱 살 된 살진 소를 끌고, 네 부하 열 사람을 데리고 가서 네 아버지의 바알 제단을 허물고 곁에 있는 아세라를 찍어라. 26. 그리고 이 산성 꼭대기에 너의 하느님 야훼께 바칠 제단을 차곡차곡 쌓아라. 그리고 그 살진 소를 잡고 찍어 낸 아세라 목상을 태워 번제를 드려라.” 27. 기드온은 부하 열 사람을 데리고 야훼께서 시키신 대로 하였다. 그러나 집안 사람들과 성읍 사람들이 두려워 낮에 하지 못하고 밤에 해치웠다. 28. 다음날 아침 일찍 성읍 사람들이 일어나 보니, 어이없게도 바알의 제단은 헐려 있었고 곁에 서 있던 아세라상은 찍혀 있었으며 새로 선 제단 위에는 살진 소가 번제로 타오르고 있었다. 29. 그들은 누가 이런 짓을 했느냐고 서로 부산을 떨며 조사하고 캐어 본 결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한 일임을 알아냈다. 30.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요아스를 닦달하였다. “당신 아들을 내놓으시오. 죽여 버려야겠소. 바알의 제단을 헐고 곁에 서 있던 아세라상을 찍어 냈는데 어찌 그냥 뒀겠소?” 31. 요아스는 둘러 선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답변하였다. “당신들이 바알을 역성하겠다는 거요? 당신들이 바알을 도울 수라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요? 바알을 역성하는 사람은 해뜨기 전에 죽을 테니 그리 아시오. 만일 바알이 신이라면,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을 헐었으니 친히 나서서 기드온을 칠 것이 아니요?” 32. 그 날 기드온은 여룹바알이란 이름을 얻었다. 바알의 제단을 헐었기 때문에 바알이 그와 맞설 것이라 해서 그렇게 부른 것이다. 33. 마침 미디안 사람들은 아말렉 사람과 동방의 백성들을 다 모아 가지고 강을 건너 이즈르엘 평지에 진을 치고 있었는데, 34. 야훼의 영이 기드온을 사로잡았다. 그러자 기드온은 빨나팔을 불어 아비에셀 일족에게 따라 나서라고 하였다. 35. 그는 또 전령들을 므나쎄 온 지파에 보내어 므나쎄 지파도 따라 나서라고 불러내었다. 아셀 지파와 즈불룬 지파와 납달리 지파에도 전령들을 보내니 그들도 올라 와서 기드온과 합세하였다. 36. 기드온이 하느님께 아뢰었다. “이미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제 손으로 구하시는 것이 하느님의 뜻이라면, 이렇게 해 주십시오.

37. 보십시오. 제가 타작마당에 양털 한 뭉치를 이렇게 퍼 놓습니다. 만일 이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내리고 땅바닥은 말라 있으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제 손으로 구하시려는 줄로 알겠습니다.” 38. 정말 그대로 되었다. 기드온이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양털 뭉치를 짜 보니 한 대접 가득 물이 나왔다. 39. 기드온은 다시 하나님께 아뢰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노하지 마십시오. 양털 뭉치로 꼭 한 번만 더 시험하게 해 주십시오. 이번엔 양털만 말라 있고 사방의 땅바닥은 이슬로 젖게 해 주십시오.”

40. 그 날 밤 하나님께서 그대로 해 주셨다. 양털은 말라 있었고 사방의 땅바닥은 온통 이슬로 젖어 있었다.

7장: 1. 여룹바알이라고도 하는 기드온과 그가 거느리는 온 군대는 일찍 일어나 엔하롯에 진을 쳤다. 미디안은 거기에서 북편으로 모레 언덕 아래 평지에 진을 치고 있었다. 2. 야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셨다. “네가 거느린 군대가 수가 너무 많다. 이대로는 내가 너희의 손에 미디안을 붙이지 않겠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를 아는 체도 않고 제 힘으로 승전했다고 으스스할 테니 말이다. 3. 그러니 이제 너는 지금이라도 무서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고 이 군인들에게 일러라.” 기드온이 지체 않고 그들을 떠나가게 하니 이만 이천 명이 돌아가고 만 명이 남았다. 4. 야훼께서 다시 기드온에게 이르셨다. “군인이 아직도 많다. 모두 물가로 데리고 내려가거라.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추리겠다. 너와 함께 나갈 사람이라고 내가 일러 주는 사람만 너와 행동을 같이하게 하여라. 그러나 너와 함께 나갈 사람이 못 된다고 일러주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와 행동을 같이할 수 없다.” 5. 기드온이 군인들을 데리고 물가로 내려가니, 야훼께서 이렇게 일러 주시는 것이었다. “개처럼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한쪽에 세우고 무릎을 꿇고 물을 마구 들이켜는 자들은 다른 편에 세워라.” 6. 그러자 혀로 핥는 자의 수는 삼백 명밖에 안 되었고 나머지 군인들은 모두 무릎을 꿇고 물을 들이켰다. 7. 야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셨다. “나는 물을 핥아 먹은 삼백 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리라. 나 이제 미디안을 네 손에 붙였다. 나머지 군인들은 모두 제 고장으로 돌려보내라.” 8. 기드온은 군인들이 가지고 있던 단지와 빨나팔을 거두어 들고는 삼백 명만 남겨 두고 나머지 이스라엘 군대를 모두 자기 집으로 돌려보냈다. 미디안군은 그

아래 평지에 진을 치고 있었다. 9. 그 날 밤 야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셨다. “일어나 적의 진지로 내려가거라. 내가 적진을 네 손에 붙였다. 10. 그러나 만일 내려가기가 무섭거든 먼저 네 부하 부라를 데리고 내려가거라. 11. 그리고 그들이 지껄이는 것을 들어 보아라. 너는 그 말을 듣고 용기를 얻어 진으로 쳐내려 갈 수 있을 것이다.” 그가 부하 부라를 데리고 적진으로 접근해 가보니, 12.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모든 동방의 백성들이 떼뚜기떼처럼 거기 평지를 덮고 있었고 낙타는 바닷가의 모래처럼 수없이 많았다. 13. 기드온이 다다라 보니, 마침 한 병사가 친구에게 꿈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우리 미디안 진으로 굴러들어 오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것이 우리 천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뒤엎자 천막은 쓰러지고 말았네.” 14. 친구가 대꾸하였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일세. 하느님께서 미디안과 이 모든 진을 그의 손에 붙이셨군.” 15. 이렇게 꿈 이야기와 그 해몽하는 말을 듣고 기드온은 야훼께 경배하고 이스라엘 진으로 돌아 와 일렀다. “일어나거라. 야훼께서 미디안 진을 너희 손에 붙이셨다.” 16. 기드온은 삼백 명을 세 부대로 나누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빨나팔 하나와 햇불이 든 빈 단지 하나씩을 주고는 17. 이렇게 일렀다. “너희는 나를 보고 있다가 내가 하는 대로 하여라. 내가 적진에 접근해 가서 하는 대로 따라 하여라. 18. 내가 거느린 부대가 나와 함께 나팔을 불면 너희도 적진을 둘러싸고 있다가 나팔을 불며 ‘야훼 만세! 기드온 만세! 하고 외쳐라.’” 19. 기드온이 자기 부대 일백 명을 거느리고 적진에 다다른 것은 한밤중 보초가 막 교대하고 나서였다. 그들은 나팔을 불며 손에 든 단지를 깨었다. 20. 세 부대가 모두 나팔을 불며 단지를 깨고 왼손에는 햇불을 들고 오른손으로는 나팔을 불며, “야훼 만세! 기드온 만세!”하고 외쳤다. 21. 그러면서 적진을 둘러싼 채 서서 움직이지 않았다. 적군은 온통 갈광질광 아우성치며 도망치기 시작하였다. 22. 삼백 명 군대가 나팔을 불어 대고 있는 동안 야훼께서는 적으로 하여금 저희끼리 마구 칼로 찢러 죽이게 하셨다. 그리하여 스투라 쪽으로 도망치던 적군은 벳시타에 이르렀고 더러는 타빳 건너편 아벨므홀라 냇가에 이르렀다. 23. 납달리 지파와 아셀 지파와 온 므나세 지파에서 불러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디안을 추격하는데, 24. 기드온은 에브라임 온 산악지대에 전갈을 보냈다. “내려 와 미디안을 막아라.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에 이르기까지의 요르단강 나루들을 점령하여라.”

이 소집령을 받고 에브라임 사람은 모두 몰려 나와 벳바라에 이르기까지의 요르단강 나루들을 점령하였다. 25. 그리고 미디안의 두 추장 오렙과 즈엡을 사로잡았다.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즈엡은 즈엡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계속 미디안을 추격하였다. 오렙과 즈엡의 머리는 요르단강을 건너 기드온에게 전해졌다.

### 교리 요약

- \* 스웨덴북에 따르면, 기독교인들이 흔히 말하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상태는 사실 영적으로 아주 높은 상태로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달하지 못한다고 한다.
- \* 겸손과 용기는 악과 싸우기 위한 필수요건이다.

### 해설

기드온은 판관 중 한 명이다. 판관들의 시대란 여호수아가 가나안땅을 정복하고 각 지파에서 제비뽑아 그 땅을 분할한 때로부터 제왕들의 시대 전까지이다. 판관들은 전 국토를 지배한 통치자는 아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적들을 소탕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곳곳에 필요할 때마다 내세운 지도자들이다. 기드온 시대 때의 적이란 미디안족이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수확하기 전 작물을 훔치거나 메뚜기 떼처럼 작물을 황폐하게 만들어 버렸다. 기드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부터 주님의 진리를 배우며 그분에게 순종할 때만이 그 힘이 움을 가르치시려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땅을 정복한 후에도 주님을 신뢰하며 그들의 적들을 점검했다라면 그들은 계속 행복하며 번성했을 것이다. 판관시대 때 겪은 그들의 고통은 걱정 없이 사는 삶 속에 수반되는 큰 시험, 즉 자기 만족에 취해 있었을 때 겪게 된 결과였다. 그 시험은 주님을 잊어버리는 것이다. 의를 행하는데 필요한 지식이 자신에게 충분하다고 여기며 더 이상 말씀을 배우거나 읽지 않아도 된다고 자부할 때 시련이 뒤따르게 된다.

## 참고 문헌 -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요한계시록 설명 제 455-9항 (Apocalypse Explained, n.455-9)」: “여기에서 ‘미디안’이란 진리에 관심이 없는 이들을 뜻한다. 그 이유는 그들이 단지 자연적이며 외적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미디안족들은 ‘개처럼 혀로 손에 있는 물을 핥은’자들에 의해 소멸된 것이다. 개처럼 물을 먹은 자들이란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비록 자연적인 수준이지만 강한 욕구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개’는 식욕과 욕구 그리고 열망을 의미한다. ‘물’은 진리들을 뜻하며, ‘혀로 물을 핥아 먹음’이란 욕구를 갖고 열심히 추구하는 모습이다. 이런 상태를 갖춘 이들에 의해 미디안들은 소멸되고 말았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러한 의미들을 심어 두시기 위해서 이러한 방식으로 전투하도록 명령하셨다.”

「천국의 신비 제 8815 (Arcana Coelestia, n.8815)」: “천국을 통과하는 신성한 진리는 기드온의 삼백 명 군사들이 미디안족과 아말렉족 그리고 동방의 백성들의 진영 주위에서 불어 댄 나팔로 표현된다 (판관기 7장). 나팔이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져온 이유는 나팔들은 천국을 통과하는 신성이 진리 안에 있음을 표현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진리는 선을 완전하게 해주고 악은 파괴한다. 선을 완전하게 한다고 말하는 이유는 선한 이들은 진리 안에 있는 신성한 선을 받고 악한 자는 진리 속의 신성한 선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기드온의 삼백 명의 군사가 나팔을 불어댄 적의 진영인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의 백성’은 악 가운데 있는 자들과 악에서 파생된 거짓 속에 있는 이들을 의미하고 있다.”

## 질문 정리

- 1) 본문은 성경의 무슨 책인가?
- 2) 판관이란 누구인가?
- 3) 지도자적 측면에서 모세와 여호수아 그리고 판관들의 다른 점은 무엇인가?
- 4) 판관시대 때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 5) 본문에서의 판관은 누구인가?



- 6) 그는 어느 지파 출신인가?
- 7) 어떤 적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는가?
- 8) 기드온이 주님께 부름 받을 때 그의 태도는 어떠했는가?
- 9) 그는 주님에게 어떤 확증을 요구했는가?
- 10) 그는 어떤 지파로부터 군대를 소집했는가?
- 11) 주님은 왜 군대의 수를 축소하셨는가?
- 12) 처음 돌려보낸 사람의 마음은 어떠했는가?
- 13) 두 번째 테스트는 무엇이었는가?
- 14) 결국 군대의 숫자는 몇 명이었는가?
- 15) 그들은 무기 대신 무엇을 가졌는가?
- 16) 공격 작전은 어떠했는가?
- 17) 공격의 결과는 어떠했는가?
- 18) 판관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 19) 기드온 이야기에서 가르치는 중요한 교훈은 무엇인가?

#### 질문의 답

- 1) 판관기(사사기) 2) 일시적이며 지방적인 지도자들 3) 판관은 전 백성을 이끄는 큰 지도자는 아니었다. 4) 하느님을 잊어버린 것 5) 기드온 6) 므나쎄 7) 미디안, 아말렉 8) 스스로 겸손했다 9) 양털뭉치와 이슬 10) 아셀, 즈불룬, 납달리, 므나쎄 11) 하느님이 승리를 안겨 주었음을 알게 해 주시려고 12) 두려움이 있었다. 13) 물을 마시는 태도로 14) 삼백 명 15) 횃불, 단지, 나팔 16) 적을 포진하고, 단지를 깨고 고함을 지름 17) 혼란에 빠지게 해서 승리함 18) 특수한 곤경에 빠질 때 필요한 특수적인 진리들 19) 신앙을 조롱하는 논쟁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신뢰하며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그분께 올바른 것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 15

## 주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다

### 머리말

본과를 통해 주님에 대한 정규적인 예배를 갖지 않고도 스스로를 규율하며 인도할 수 있고 그분께 순종할 수 있다는 생각이 오류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엘리의 아들들의 죄를 보면, 예배 자체가 이기심과 자기 충족 그리고 불순종으로 연속되어 타락해 감을 볼 수 있다.

### 성 서 본 문: 사무엘상 3장

3장: 1. 소년 사무엘은 엘리 밑에서 야훼를 섬기고 있었다. 그 때는 야훼께서 말씀도 자주 들려주시지 않았고 계시를 보여 주시는 일도 드물었다. 2. 엘리는 이미 눈이 어두워 앞을 잘 보지 못했다. 하루는 그가 자기의 자리에 누워 있고 3. 사무엘은 하느님의 궤가 있는 야훼의 성전에서 자고 있었는데, 하느님의 등불이 꺼지기 전에 4. 야훼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다. 사무엘은 “예”하고 대답하면서 5. 엘리에게 뛰어가 “부르셨습니까?” 하고 물었다. “나는 너를 부른 일이 없다. 가서 자거라.” 엘리의 이 말을 듣고 사무엘은 돌아 와 자리에 누웠는데 6. 야훼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셨다.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하고 물으니, 엘리는 “사무엘아, 나는 너를 부른 일이 없다. 가서 자거라”하고 대답하였다. 7. 야훼께서 말씀으로 나타나신 적이 없으셨고 사무엘은 아직 야훼를 알지 못했던 것이다. 8. 야훼께서 세 번째로 사무엘을 부르셨다.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하고 물었다. 그제야 엘리는 야훼께서 소년 사무엘을 부르시는 줄 알아차리고 9. 사무엘에게 “가서 누워 있어라. 그리고 다시 부르는 소리가 나거든, 이렇게 대답하여라. ‘야훼여,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고 있습니다.’”하고 일러 주었다. 사무엘은 돌아 와 자기 자리에

누워 있었다. 10. 그러자 야훼께서 거기에 나타나 서시어 아까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이 “야훼여,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고 있습니다.”하고 대답하자 11.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들어라. 내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무슨 일을 할 터인데, 듣는 사람마다 가슴이 내려앉으리라.

12. 그 날이 오면, 내가 엘리와 그 집안을 두고 말한 일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어지리라. 13. 너에게 알려 주거니와, 나는 엘리의 가문을 심판하여 끝내 벌하고야 말겠다. 그것은 제 자식들이 하느님을 모독하는 것을 알면서도 바로잡지 못했기 때문이다.

14. 그러므로 나는 엘리의 집안을 두고, 제물이나 예물을 소홀히 다룬 그 죄는 영영 용서해주지 않으리라고 맹세하였다.” 15. 사무엘은 아침까지 누워 있다가 야훼의

성전 문들을 열었으나, 감히 밤에 보고 들은 것을 엘리에게 고하지 못하였다. 16. 그러는데 엘리가 “애, 사무엘아!”하고 불렀다. 사무엘이 “예!”하고 대답하자. 17.

엘리가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나에게 숨기지 말고 말해 다오. 너에게 하신 말씀을 한 마디라도 숨긴다면, 하느님께서는 너에게도 나에게 내리시는 벌 못지 않은 큰 벌을 내리실 것이다”하고 다그쳤다. 18. 그래서 사무엘은 숨김없이 다 털어 놓았다. 그 말을 듣고 엘리는 중얼거렸다. “야훼께서 하시는 일, 어련하시랴!”

19. 사무엘이 자라는 동안 야훼께서 그와 함께 계시어, 그가 한 말은 모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셨다. 20. 그리하여 단에서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야훼께서 세우신 예언자로 받들게 되었다. 21. 야훼께서는 실로에서 당신을 거듭 나타내 보이셨다. 야훼께서는 그 곳에서 사무엘에게 나타내 보이셨던 것이다.

### 교리 요약

- \* “아껴두심 혹은 나머지”에 관한 교리: 우리의 아주 어린 시절 주님께서 우리 속에 해 놓으신 일들을 말한다.
- \* 말씀의 글자를 담고 있는 기억적인 지식은 우리의 필수요건 중 하나이다.
- \* 룯기서는 내적인 뜻은 없다.

### 해설

어린 사무엘에 관한 아름다운 이야기는 성경 중에서 널리 알려진 이야기 중 하나이다. 아이를 갖고 싶어 한 어머니의 간절한 소망은 주님이 아들을 주시면 그분 앞에 바치겠다고 약속하기에 이르렀다. 그녀는 간절한 소원이 이뤄져 아기가 태어나자 아기의 이름을 “하느님께서 들어 주셨다”라는 의미인 사무엘이라 지었다. 또한 그녀는 아기가 젖을 떼자 약속대로 성막을 섬기도록 제사장 엘리에게 데려갔다. 그녀의 신실한 믿음의 보상으로 하느님께서 그녀에게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허락하셨다.

여러분은 어린 사무엘의 이야기에만 흥미를 느껴 사건이 발생하게 된 어두운 시대적 배경은 간과하는 경향이 흔하므로 그 배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엘리는 아주 선량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의 두 아들은 성막 예배를 관리하는 지침을 무시하고 그들이 맡은 막중한 임무를 그들의 사리사욕을 위해 이용했다. 엘리는 그 사실을 알고 그들을 질책했지만, 그의 권위는 두 아들의 악행을 멈추게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어린 사무엘을 통하여 제사장의 직분이 엘리의 가문에서 거두어질 것이라고 엘리에게 예언되었다.

이 부분에는 우리를 위한 깊은 교훈이 담겨 있다. 오늘날 우리는 흔히 주님을 섬기는 것보다 자신의 영예를 우선시 하는 성직자, 자신의 사업을 위해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 사회적으로 존경받기 위해 교회의 직분을 가지려는 사람 또는 사회단체 중에서 교회가 그런대로 믿을 만하여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을 보게 된다. 교회내의 위와 같은 사람들의 성경 지식은 어린 사무엘 시대의 상황처럼 성경으로부터 사람들을 떼어내게 하는 역작용을 일으킨다. 그러나 우리가 진실로 주님을 믿고 따른다면 비록 타인의 잘못된 생각이나 행동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친다 하더라도 일부분에 불과해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을 잘 섬기며 바른 습관을 갖도록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다.

우리의 자녀들은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와 있기 때문에 진정한 소유권은 그분께 있다. 그들은 먼저 주님의 자녀이다. 우리는 한동안 자녀들을 사랑하고 보호 관리하며 그들이 주님을 스스로 배울 수 있는 나이가 되면 그분께 돌려 드려야 한다. 부모들은 자녀들의 마음이 열려있는 어린 시절동안 주님의 소리를 들을 기회가 많음을 알아야 한다. 또한 부모들은 사무엘이 했던 것같이 자녀들이 “주여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참고 문헌 -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요한계시록 설명」 제 14항: “ ‘듣는 것’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인데, 이는 천적인 천사들은 들은 것을 그들의 삶에 들여놓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항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으므로 간략히 설명하고자 한다. 인간에게는 뭔가를 받아들이는 수단으로 두 가지의 감각 기관이 부여되어 있다. 이로 인해 인간은 합리성이 형성되고 재구성된다. 두 가지의 감각기관이란 청각과 시각이다. 또한 다른 감각들도 각기 다른 용도를 위해서 있다. 시각을 통해 들어오는 것들은 인간의 이해성 안으로 들어와 이해성을 계발해 준다. 그 이유는 천국의 빛이 세상의 빛에 상응되듯이 이해성은 시각과 상응되기 때문이다. 반면, 청각을 통해 들어오는 것은 이해성과 의지 모두에 들어온다. 이리하여 듣는 것은 시각과 순종을 의미하게 된다. 그 결과 누구에게 듣는다, 누구에게 귀를 기울인다, 경청한다 그리고 신경 써서 귀를 기울인다는 표현은 비슷한 의미를 지닌다. 누구에게 듣는 것은 시각을, 귀를 기울임 또는 경청함은 순종을 의미한다. 그리고 신경을 곤두세워 귀를 기울임은 시각과 순종을 의미한다. 이들 표현들은 인간의 영들이 있는 곳, 영계로부터 인간의 언어로 흘러 들어와 있는 것이다.”

## 질문 정리

- 1) 마지막 판관은 누구인가?
- 2) 사무엘 당시의 마지막 대 사제는 누구였는가?
- 3) 사무엘은 왜 성막으로 데려와졌는가?
- 4) 그는 그곳에서 무엇을 했는가?
- 5) 엘리의 아들들이 저지른 잘못은 무엇인가?
- 6) 엘리는 왜 아들들의 잘못을 막지 못했는가?
- 7) 주님이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 그는 어디에 있었는가?
- 8) 주님이 부르시자 그는 처음에 어떤 생각을 했는가?
- 9) 주님이 부르신다는 것을 사무엘이 알기 전 주님은 몇 번 그를 부르셨는가?

- 10) 주님은 엘리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사무엘에게 주었는가?
- 11) 본문 이 후 백성들은 사무엘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 12) 사무엘을 세 번씩 부르신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 질문의 답

- 1) 사무엘 2) 엘리 3) 어머니가 주님에게 서약했기 때문
- 4) 엘리를 섬겼다 5) 주님께 드릴 예물을 착복했기 때문
- 6) 너무나 나약했다 7) 성막에서 잠자고 있었다.
- 8) 엘리가 부른 것으로 생각했다 9) 세 번
- 10) 엘리의 아들들이 사제직을 잃게 될 것이다. 11) 예언자
- 12) 주님은 세 평면, 즉 생활면과 지적면 그리고 의지면에서 우리를 부르신다.

## 16

### 사울의 성급함

#### 머리말

사무엘의 인격과 직무는 판관 시대와 제왕 시대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한다. 판관 시대와 제왕 시대의 차이점에 대한 의미를 살펴본다. 사무엘과 사울의 직책의 차이점과 사무엘이 사울의 통치 기간 동안 계속 사울 위에 군림하면서도 다윗이 백성들의 신망을 얻는 기간까지 실제로 존재 했었던 이유를 이해하도록 한다. 또한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이유, 그 요구에 대한 사무엘의 반응 그리고 그 요구가 어떤 면에서는 주님과 사무엘을 거절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 이유도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모든 것은 우리에게 꼭 중요한 요소인 선택의 자유에

근원하고 있다.

### 성 서 본 문: 사무엘상 13장

13장: 1... 2. 사울은 이스라엘에서 삼천 명을 뽑아 그 가운데서 이천 명은 자기가 몫소 거느려 므마스라와 베델 산악지대에 주둔하고, 천 명은 요나단에게 맡겨 베냐민 지방 게바에 주둔시켰다. 나머지 군대는 모두 집으로 돌려보냈다. 3. 요나단은 기브아에 있는 불레셋 수비대를 쳤다. 그리하여 불레셋 사람들 사이에 히브리인들이 반기를 들었다는 소문이 퍼졌다. 한편 사울은 나팔을 불어 방방곡곡에 소집령을 내렸다. 4. 이스라엘 온 국민은 사울이 불레셋 수비대를 쳐서 불레셋 사람들의 원한을 사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 길갈로 모여 와 사울과 합세하였다. 5. 불레셋군도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다. 그들은 병거가 삼천, 기마가 육천이나 되었고 보병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셀 수 없이 많았다. 그들은 베다웬 동편 므마스라에 올라 가 거기에 진을 쳤다. 6. 이스라엘군은 전세가 불리한 것을 보고 저마다 굴이나 바위틈이나 구덩이나 웅덩이를 찾아 몸을 숨겼고, 7. 더러는 요르단 여울을 건너 가드와 길르앗 지방으로 달아났다. 사울은 길갈에 남아 있었는데 그를 따르는 군대는 모두 떨고 있었다. 8. 사울은 사무엘을 만나려고 칠 일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은 길갈에 나타나지 않았다. 군인들은 하나 둘 사울 곁을 떠나기 시작하였다. 9. 사울은 기다리다 못하여 번제물과 친교제물을 가져오라고 하여 번제를 드렸다. 10. 사울이 번제를 막 드리고 나자 사무엘이 왔다. 사울이 마중 나가 인사하자 사무엘은 11.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요?”하며 꾸짖었다. 사울이 대답하였다. “군인들은 하나 둘 도망치고 선생님은 정하신 때에 오지 않으시는데다가 불레셋군은 므마스라에 집결해 있어 12. 야훼의 노여움을 풀어드리기도 전에 불레셋군이 길갈로 쳐내려 올 것 같아서 부득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13. 사무엘이 다시 사울을 꾸짖었다. “그대는 어리석은 짓을 하였소. 어찌하여 그대의 하느님 야훼께서 내리신 분부를 지키지 않았소! 지키기만 했더라면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그대의 왕조를 길이길이 세워 주실 터인데, 14. 이제 그대의 대는 더 이어 가지 못할 것이요. 그대가 야훼의 분부를 지키지 않았으니, 야훼께서는 당신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다시 찾아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수령으로 세우실 것이요.”

15. 그리고 나서 사무엘은 일어나 길갈을 등지고 산 쪽으로 올라 가 버렸다. 사울은 나머지 군대를 이끌고 길갈에서 적군 쪽으로 이동하였다. 사울이 베냐민 지방 게바로 올라 가 병력을 점검하여 보니 육백 명밖에 되지 않았다.

16.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거느린 군대는 베냐민 지방 게바에서, 믹마스에 진을 친 블레셋군과 대진하였다. 17. 블레셋 진영에서는 기습부대가 셋으로 나뉘어 출동하였다. 한 부대는 수알 지방 오브라 쪽으로 향하고 18. 다른 한 부대는 벳호론 쪽으로, 나머지 한 부대는 스보임 골짜기를 굽어보고 광야가 바라보이는 지역으로 향하였다.

19.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대장장이가 한 명도 없었다. 블레셋이 히브리인들에게 칼이나 창 같은 것을 만들지 못하게 했던 것이다. 20.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습이나 곡괭이나 도끼나 낫을 버리려면 블레셋 사람이 사는 데로 내려 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21. 보습이나 곡괭이를 버리는 값은 삼분의 이 세겔이었고 도끼를 버리고 낫을 가는 값은 십분의 일 세겔이었다. 22. 그래서 그 전쟁이 터졌을 때 사울과 요나단을 따르는 무리에게는 칼도 창도 없었다. 무기를 가진 사람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뿐이었다. 23. 블레셋군의 전초부대는 믹마스로 건너가는 길목까지 나와 있었다.

### 교리 요점

\* 자아 대신 주님을 신뢰하는 것은 영적 발전을 위한 기본자세이다.

### 해설

본과는 이스라엘의 첫 왕에 대한 것이다. 우리 속의 왕이란 새로운 종류의 지도자상을 말한다. 최초의 지도자는 열조들, 즉 아브라함과 이사악 그리고 야곱이다. 유대족은 실제로는 한 가족이었으나 가족이 불어나서 몇 개의 방계적인 친족을 형성했다. 그러나 당시 그들은 함께 모여 살았고 가장 나이 많은 남자를 그 가족의 우두머리로 인정하고 있었다. 이 후 지도자가 없는 이집트의 시대가 뒤따르고 있다. 그들은 처음에 거기서 보호되었으나 나중에는 노예가 되었다. 그 뒤 모세가 들어 세워져 그들은



이집트 밖으로 인도되었고 광야를 거쳐 그들의 안내자인 주님으로부터 율법과 계명을 시나이산에서 받게 되었다. 모세는 그들이 거룩한 땅의 경계에 도착할 때 죽었고, 그 시점에서 군대의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명령을 이어받아 백성들을 이끌어 거룩한 땅을 정복하게 되었다. 그 뒤 판관들의 시대, 즉 지방적인 지도자들의 시리즈가 있게 되었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개별적인 적들을 쳐부수기 위해 판관들을 들어 쓰셨다. 그 때는 판관기 17장 6절에서와 같이 “사람마다 제멋대로 하던 시기”로 조직화 되지 못한 시대이기도 했다.

사무엘은 마지막 판관이었다. 그는 전 국토의 백성이 모두 공인한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 이유는 그가 예언자로서 백성들을 판결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오랫동안 예언자를 갖지 못했다. 사무엘은 군대의 지휘자가 아니었다. 그래서 백성들은 군대를 모집하여 그들의 적과 싸워줄 왕을 원했다. 첫 왕이 뽑혀진 후에도 사무엘은 그의 권한을 잃지 않았다. 그는 전 일생동안 백성들에게 주님의 대변자 역할을 했다. 주님은 사무엘에게 첫 왕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왕도 기름 붓도록 하셨다. 사울은 첫 왕이었다. 백성들은 그들의 키가 사울의 어깨에도 이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매우 기뻐했다. 그들은 사울을 내세우면 적들이 놀랄 것이라고 느꼈던 것이다. 그는 많은 젊은이들 혹은 건장한 사람들처럼 슬기롭기보다는 정력적이었다. 그는 암몬족에 대항한 첫 전투에서 승리하자 자신을 과대평가했다. 그래서 그는 그 땅의 실제의 통치자가 되어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게 될 때 이미 내려진 분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의 도움을 기다리지 않았다. 사무엘은 전투를 위해서 오도록 되어 있었고 번제를 드리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사울은 매우 성급하여 자기 손으로 번제를 드렸다. 그 뒤 그는 사무엘에게 군대들이 겁에 질리고 뿔뿔이 흩어져 떠나가는 상황이어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고 변명했다. 대부분의 우리는 “주님의 분부를 받드는” 일을 하지 않았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주님의 방법이 최선의 방법임을 알고는 있다. 그러나 어떤 고난이 우리를 압박해오면 우리는 주님 대신 자아를 더 신뢰한다. 사무엘은 사울의 왕조가 더 이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사울에게 엄히 말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보다 더 슬기로운 지도자를 가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인내와 신뢰를 배워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요한계시록 설명」 제 700-20항: “불레셋 사람들이란 종교의 모든 것을 지식안에 처박아 둠으로 사랑과 선행을 중시 않는 이들, 생활 속의 선을 경시하는 이들을 표현하고 의미했다. 오늘날 믿음이 교회와 구원의 필수 요소인 선행과 분리되어 있는 이들, 그리하여 믿음 만을 주창하는 이들과 같다. 그래서 이들을 두고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라고 부르는 이유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할례 받지 않았다는 것은 영적인 사랑이 결여되어 있다는 말이며 선함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불레셋이 땅을 차지한 때는 이스라엘 후손들이 자기들의 행함 속에 주님의 규정이나 가르침을 결여시켰을 때에 있게 되고, 이스라엘 후손들이 주님의 분부대로 자기들 삶 속에서 준수해 가고 있을 때는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주님의 가르침과 규정에 따라 산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생활의 선이요 사랑의 선이었다.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후손들은 불레셋 사람에게 정복당해 있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여호와를 예배함에서 떠나 잡신들을 예배했기 때문인데 특히 사무엘상 7장 3절을 보면 아스다롯을 예배했던 것을 사무엘이 꼬집어 말한 데서도 알 수 있다.”

### 질문 정리

- 1) 백성들이 왜 왕을 세워달라고 했습니까?
- 2) 그들의 첫 왕으로 주님은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 3) 주님이 사울을 선택하셨음을 백성들은 어떻게 알았습니까?
- 4) 왜 백성들은 사울이 왕이 되는데 기뻐했습니까?
- 5) 사울이 처음 정복한 적은 어떤 적입니까?
- 6) 그 다음 어떤 적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까?
- 7) 이 당시 불레셋과 이스라엘은 어떤 관계에 있었습니까?
- 8) 무엇이 불레셋을 성나게 만들었습니까?
- 9) 어떤 방식으로 불레셋은 이스라엘이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막으려 했습니까?
- 10) 사울의 군대는 어디에 집결했습니까?

- 11) 사무엘은 사울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 12) 사울은 어떤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 13) 그는 사무엘에게 어떤 변명을 늘어놓았습니까?
- 14) 사무엘은 사울에게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 15) 왕은 무엇에 상응됩니까?
- 16) 특별히 사울 왕은 무엇에 상응됩니까?
- 17) 불레셋족은 무엇에 상응됩니까?
- 18) 사울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 질문의 답

- 1) 전쟁을 이끌 지도자 때문에 2) 사울 3) 제비를 던져서 4) 키가 크고 강건했기 때문에 5) 암몬족 6) 불레셋족 7) 불레셋의 군사가 더 막강했다 8) 요나단의 공격 9) 이스라엘에게 대장장이 직업을 허용치 않음으로 10) 길갈 11) 칠일 동안 사무엘을 기다려라 12) 자기 스스로 제물을 바쳤다 13) “군인들은 하나둘 도망치고 선생님은 정하신 때에 오지 않으므로...”
- 14) “...이제 그대의 대는 더 이어가지 못할 것이오...” 15) 신성한 진리가 우리를 통치함
- 16) 진리를 자연적인 수준에서 이해함 17) 믿음만을 강조 18) 성급함, 믿음의 결핍

# 17

## 다윗과 골리앗

### 머리말

말씀은 세 왕들의 역사를 통해 많은 사건들을 보여주고 있으나 네 개의 과에서만 각 왕들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각 왕의 통치에 따라 있게 된 사건에 중심을 두기보다는 각 왕들의 관계적 측면을 염두 해야 할 것이다. 세 왕들은 성인이 되어서 거듭나는 세 단계 혹은 세 가지 측면에서 진리가 다뤄지는 상황을 제시한다. 따라서 사울은 눈으로 보이는 진리 또는 눈으로 보이는 대로 적용하려는 상황을 뜻한다. 따라서 이러한 진리(사울)는 성급하고 피상적이며 불완전한 판단으로 되기 마련이다. 사울의 실패는 성급하게 일을 치르고자 하는 욕구와 자신의 판단이 주님의 것과 부합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분의 명령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 어겨버리는데서 근원한다. 다윗은 사울처럼 진리를 표현하지만 보다 깊은 면을 보는 것, 즉 동기를 살펴며 자신의 필연적인 약점을 인식하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 주님을 자기의 인도자로 삼아 그분께 절실히 도움을 간구하는 면을 지닌다. 솔로몬도 다윗과 사울처럼 진리를 표현한다. 그러나 솔로몬의 진리는 우리의 심정 속에 새겨질 때까지 끊임없이 실천한 후에 얻어진 것이므로 사울과 다윗이 표현하는 진리와 무게를 달리한다. 세 왕들의 관계적 측면을 염두하고 각 과의 사건을 살펴보면 무엇이 중요한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 성 서 본 문: 사무엘상 17장

17장: 1. 블레셋은 전쟁을 일으키려고 군대를 소집하여 유다 소고에 집결했다가 소고와 아제카 사이에 있는 에베스담뎀에 진을 쳤다. 2. 사울은 이스라엘군을 집결시켜 느티나무 골짜기에 진을 치고 블레셋에 맞서 전열을 갖추었다. 3. 블레셋과 이스라

엘이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이쪽 저쪽 산 위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4. 불레셋 진영에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 하나가 싸움을 걸어 왔다. 그는 갓 출신으로서 장신이었다. 5. 머리에는 놋투구를 썼고 비늘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의 무게는 놋 오천 세겔이나 나갔으며, 6. 정강이에는 놋으로 만든 정강이받이를 찼고 어깨에는 놋으로 만든 창을 메고 있었다. 7. 그 창대는 베틀 용두머리만큼 굽었고 창날은 쇠로 되어 있었는데 그 무게는 육백 세겔이 넘었다. 방패당변을 앞에 세우고 8. 나서서 그는 이스라엘 진영을 향하여 고함을 질렀다. “전열을 갖추어 가지고 나오면 어찌겠다는 말이나? 너희 사울의 즐거어들아, 이 불레셋 장수와 맞서 싸울 자를 골라 이리로 내려 보내라. 9. 만약 그자가 나한테 이겨서 나를 쳐 죽이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될 터이나, 내가 이겨서 그자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겨야 한다.” 10. 그리고 나서 그 불레셋 장수는 다시 소리쳤다. “내가 오늘 이렇게 너희 이스라엘 진영에 욱을 퍼붓는데도, 나와 결판을 낼 사람을 내보내지 못하겠느냐?” 11. 사울과 이스라엘 전군은 이 불레셋 장수의 말을 듣고 너무나 겁에 질려 떨고만 있었다. 12. 그 때 유다 베들레헴에 이새라는 에브라임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 다윗이라는 아들이 있었다. 아들 팔 형제를 둔 이새는 사울이 왕노릇할 무렵에 이미 나이가 많았다. 13. 이새의 아들 중에서 위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전장에 나가 있었다. 전장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맏아들 엘리압, 둘째 아비나답, 셋째 삼마였다. 14. 다윗은 막내였다. 세 형들은 사울을 따라 갔고 15. 다윗은 사울에게 갔다가 다시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치고 있었다. 16. 그런데 불레셋 장수가 아침저녁으로 나서서 싸움을 걸어 온 지가 사십 일이나 되었다. 17. 이새가 아들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켰다. “네 형들에게 이 볍은 밀한 말과 빵 열 덩어리를 가져다 주어라. 진지로 뛰어 가서 형들에게 주어라. 18. 이 치즈 열 개는 그 곳 사령관에게 갖다 드리고, 형들의 안부를 물어 형들이 잘 있다면 그 표를 받아 가지고 오너라.” 19. 다윗의 형들은 사울이 거느린 이스라엘군에 끼어 느티나무 골짜기에서 불레셋군과 싸우고 있었다. 20. 이튿날 아침 다윗은 일찍 일어나 양떼를 양지기에 맡기고 아버지 이새가 일러 준 대로 채비를 갖추어 길을 떠났다. 그가 진지에 다다랐을 때 마침 이스라엘군은 대열을 지어 합성을 올리고 있었다. 21. 이스라엘과 불레셋은 서로 전열을 지어 마주 보고 있었다. 22. 다윗은 가지고 온 보따리를 보급 장교에게 맡기고 대열로 달려 가 형들에게

문안하였다. 23. 그가 형들과 말을 나누고 있을 때 골리앗이라고 하는 갓 출신 불레셋 장수가 불레셋 대열에서 나와 전과 같은 말로 싸움을 걸어 왔다. 다윗도 그 말을 들었다. 24. 이스라엘 전군은 그를 보자 그만 겁에 질려 도망을 쳤다. 25. “자네도 저걸 보았겠지. 또 나타나 이스라엘에게 욕지거리를 퍼붓고 있네. 우리 왕께서는 저자를 죽이는 사람에게 후한 상을 내리실 뿐만 아니라 부마로 삼고 그 집안 식구들에게는 모든 징발을 면제해 주신다더군.” 이스라엘 군인들이 귀땀해 주는 말을 듣고, 26. 다윗이 옆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다. “저 불레셋 사람을 죽여 우리의 치욕을 씻어 주는 사람은 어떻게 해 준 다구요? 저 불레셋의 오랑캐 녀석이 도대체 누구기에 살아 계시는 하느님께서 거느리시는 이 군대에게 욕지거리를 하는 겁니까?” 27. 군인들은 골리앗을 죽이면 이리이러하게 해 준다고 같은 말을 일러 주었다. 28. 다윗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큰 형 엘리압이 엿듣고 화를 내며 소리쳤다. “네가 무엇을 하겠다고 여기 내려 왔느냐? 들판에 있는 몇 마리 안 되는 양새끼는 누구한테 맡겼지? 이 건방진 못된 녀석, 네가 싸움 구경하러 온 걸 모를 줄 아느냐?” 29. 다윗은 “그저 물어 본 것뿐인데 내가 지금 무엇을 했다고 그러십니까?” 하고는 30. 형을 떠나 다른 사람한테 가서 같은 말을 물어 보았다. 대답은 전과 같았다. 31. 다윗이 한 말이 퍼져서 사울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그래서 사울이 그를 불러들이자 32.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저자 때문에 상심하지 마십시오. 소인이 나가 저 불레셋 놈과 싸우겠습니다.” 33. 그러자 사울은 다윗을 말리며 말했다. “네가 나가 저 불레셋 놈과 싸우다니, 어렵도 없는 일이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싸움으로 몸을 달린해 온 자인데, 너는 아직 나이 어린 소년이 아니냐?” 34. 그러나 다윗은 굽히지 않았다. “소인은 아버지의 양을 쳐 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나타나 양새끼를 한 마리라도 물어 가면 35. 소인은 한사코 되쫓아 가서 그놈을 쳐 그 아가리에서 양새끼를 빼내곤 했습니다. 그놈이 돌아 서서 덤벼들면 턱수염을 휘어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36. 소인은 이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습니다. 저 불레셋의 오랑캐놈도 그렇게 해치우겠습니다. 살아 계시는 하느님께서 거느리시는 이 군대에게 욕지거리를 퍼붓는 자를 어찌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37. 계속해서 말하였다. “사자와 곰으로부터 소인을 살려 내신 야훼께서 저 불레셋 놈에게서도 소인을 살려 내실 것입니다.” 그제야 사울이 다윗에게 허락을 내렸다. “그러면 나가거라. 야훼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를 빈다.”

38. 사울은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힌 다음, 머리에는 놋투구를 씌워주고 몸에는 갑옷을 입혔다. 39. 그리고 자기 칼을 다윗의 군복에 채워 주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런 것을 입어 본 일이 없었으므로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에게 “이런 것은 입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하고는 그것을 모두 벗어 버렸다. 40. 그리고 다윗은 자기의 막대기를 집어 들고 개울가에서 자갈 다섯 개를 골라 목동 주머니에 넣은 다음 돌팔매 끈을 가지고 그 불레셋 장수 쪽으로 걸어갔다. 41. 불레셋 장수도 방패당번을 앞세우고 한 걸음 한 걸음 다윗에게 다가 왔다. 42. 불레셋 장수는 다윗을 건너다보고 불이 붉은 잘생긴 어린 아이라는 것을 알고는 우습게 여겨, 43. “막대기는 왜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개란 말이냐?”하고는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며 다윗을 저주하였다. 44. 그리고 불레셋 장수는 다윗에게 올리메었다. “어서 나오너라. 네 살점을 하늘의 새와 들짐승의 밥으로 만들어 주마.” 45. 그러나 다윗은 불레셋 장수에게 이렇게 응수하였다. “네가 칼을 차고 창과 표창을 잡고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을 믿고 나왔다. 네가 옥지거리를 퍼붓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느님의 이름을 믿고 나왔다. 46. 오늘 야훼께서 너를 내 손아귀에 넣어 주셨다. 나야말로 네놈을 쳐서 목을 떨어뜨리고 네 시체와 불레셋 전군의 시체를 하늘의 새와 들짐승의 밥으로 만들어 주리라. 그리하여 이스라엘이 모시는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천하에 알리리라. 47. 여기 모인 모든 사람은 이제 야훼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써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리라. 야훼께서 몸소 싸우시어 네놈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48. 불레셋 장수가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자, 다윗은 재빨리 대열에서 벗어나 뛰쳐나가다가 49. 주머니에서 돌 하나를 꺼내어 팔매질을 하여 그 불레셋 장수의 이마를 맞혔다. 돌이 이마에 박히자 그는 땅바닥에 쓰러졌다. 50. 이리하여 다윗은 칼도 없이 팔매들 하나로 불레셋 장수를 누르고 쳐 죽였다. 51. 다윗은 달려가서 그 불레셋 장수를 밟고 서서 그의 갈집에서 칼을 빼어 목을 잘랐다. 불레셋군은 저희 장수가 죽는 것을 보고 도망치기 시작하였다. 52. 이스라엘과 유다 군대는 때를 놓치지 않고 함성을 지르며 불레셋군을 추격하여 갓을 지나 에크론 성문에까지 이르렀다. 그리하여 사이라임에서 갓과 에크론에 이르는 길에는 불레셋군의 시체가 덩굴게 되었다.

53. 이스라엘군은 추격을 마치고 돌아 와서 불레셋 진영을 약탈하였다. 54. 다윗은 그 불레셋 장수의 목을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그의 무기는 자기의 천막에 간직하였다. 55. 사울은 다윗이 그 불레셋 장수와 대결하러 나가는 것을 보고 사령관 이브넬에게 “아브넬 사령관, 저기 저 소년은 누구의 아들이요?”하고 물었다. “황공하오나, 소인은 아는 바 없습니다.” 아브넬이 이렇게 대답하자, 56. 왕은 아브넬에게 “그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지 알아 보시오”하고 일렀다. 57. 다윗이 그 불레셋 장수를 죽이고 돌아오는데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했다. 그의 손에는 불레셋 장수의 목이 들려 있었다. 58. 사울이 “젊은이는 누구의 아들이냐?”하고 묻자 다윗이 “저는 베들레헬에 사는 임금님의 종인 이새의 아들입니다”하고 대답하였다.

### 교리 요점

- \* 진정한 추론은 반드시 영적 원리 위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
- \* 우리의 자만심은 영적 인생길을 가로막고 서 있는 거인이다.

### 해설

대부분의 어린이들은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좋아한다. 특히 소년들은 자신이 다윗이 되는 상상을 즐긴다. 그들이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눕혔던 것을 다윗의 건강한 신체나 강한 무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도와주실 것이라는 굳건한 신뢰와 그분이 다윗에게 제공한 무기를 들고 대결장에서 맞섰기 때문이라는 것을 실감한다면 그들의 상상은 정말 좋은 일에 해당될 것이다.

부모들 역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에 아주 친숙하며 자녀들에게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 한다. 그러나 부모들은 그들의 이야기가 단지 소년 소녀만을 위해 기록된 말씀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의 영혼은 주님의 힘과 악의 힘이 대결하는 전쟁터요 대결장이다. 불레셋은 우리들 안에 있으며, 우리 속의 불레셋이란 자신에게만 만족하려는 시험이다. 보다 나은 것을 행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배우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한 노력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판단하는 일, 즉 우리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며 주님께 순종함을 과소평가 하는 태도가 우리 속의 불레셋에 해당된다. 불레셋의 대장 거인 골리앗이란 우리의 자만심을 뜻하며, 그가 가진 무기와 갑옷이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길 좋아하여 그것을 은근히 두둔하고 변호하려는 논쟁들을 뜻한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속에 골리앗뿐만 아니라 다윗도 있음을 알고 계신다. 다윗은 아버지의 양떼를 보호하며 길러진 지혜와 강함을 겸비한 소년 목자였고, 주님께 순종하면 그분이 승리를 주실 것임을 신실하게 믿고 있었다. 이러한 다윗이 상징하는 진리 또한 우리 속에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어린 시절을 통하여 주님과 계명들에 관한 얼마간의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의를 행함으로 얻게 되는 강건함도 어느 정도 경험하고 있다. 또한 우리는 다윗이 소유한 무기들도 갖고 있다. 그의 무기는 개울가에서 얻은 다섯 개의 자갈(매끈매끈한 돌)과 그 돌을 던질 돌팔매 끈이었다. 개울(시냇가)은 하느님의 말씀에 해당되며, 돌은 우리가 하느님의 진리를 테스트한 후 믿게 된 말씀 안에 있는 간단한 사항들이다. 돌팔매란 말씀 속의 진리를 삶에 응용하고 우리 속의 악에 대항하여 그것들을 어떻게 포진시켜야 하는지 보여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뜻한다.

주님은 이 이야기들의 이해를 위해 우리에게 실례를 직접 보여주신다. 주님은 광야에서 악마에게 시험 당하셨을 때 악마와 논쟁하지 않으셨다(마태복음 4:1-11). 그분은 세 개의 인용문을 말씀으로부터 사용하셨다. 세 개의 인용문이란 “개울가에서 얻은 세 개의 매끈매끈한 돌”이다. 각각의 인용문은 다윗의 돌이 골리앗의 앞이마에 명중했듯이 개별적으로 시험을 강타했다. 설사 우리의 결점이 골리앗같이 장대하고 엄청나서 정복이 불가능해 보인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인 것처럼 우리의 결점들을 극복할 수 있다. 우리가 자아대신 주님을 신뢰하고 있다면,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진리를 습득하여 용기를 내어 그 지식을 우리의 생활에 사용해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요한계시록 설명』 제 781-12항: “양떼로부터 양 새끼를 물어간 사자나 꿈을 강타할

수 있는 힘이 다윗에게 주어졌다. 그 이유는 다윗이 주님의 교회 속에 있는 이들을 혼욕시킨 신성한 진리라는 면에서 주님을 표현하기 때문이다. 사자는 영적으로 신성한 진리가 내는 힘을 표현하나, 본문에서와 같이 신성한 진리에 반대되는 지옥적인 거짓이 내는 힘도 표현한다. 반면, 꿈은 자연적으로 신성한 진리가 내는 힘을 의미하며 신성한 진리에 반대되는 거짓이 내는 힘을 뜻하기도 한다. 양떼란 주님의 교회 속에 있는 이들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표현되기 때문에 사자와 꿈을 때려 부수도록 다윗에게 주어진 힘은 지옥의 악에서 오는 거짓들로부터 교회 속에 계신 주님 자신을 신성한 진리로 방어하시는 그분의 힘을 뜻한다. 골리앗은 블레셋 족이었고, 그들은 할례 받지 않은 자들로 불렸다. 골리앗이란 선이 결여된 진리를 가진 자들을 뜻한다. 선이 결여된 진리들이란 왜곡된 진리들로 거짓 자체라고 할 수 있다.”

「요한계시록 설명」 제 817-6항: “이스라엘 후손들이 블레셋 족에 대항한 모든 전쟁들은 우리속의 영적 사람과 자연적인 사람의 전투를 표현하거나 또는 선과 결합된 진리와 선이 결여된 진리 곧 그 자체로 보아 진리가 아닌 거짓과의 전투를 표현한다. 왜냐하면 선에서 떨어져 나간 진리는 진리에 관한 사상이 왜곡되어져 진리를 계발시킬 영적 실재가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경우가 선행에서 분리된 신앙을 가진 이들인데, 그들의 신앙 속에는 진리가 없다. 진리는 말씀을 말하는 말 자체에만 있을 뿐이다. 그래서 그들이 진리를 말하자마자 진리로부터 신성은 즉시 그들에게서 소멸되고 만다. 그 이유는 자연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이들이 모여 이룬 교회가 그들의 종교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것은 성경에서 가나안 땅에 사는 블레셋족과 기타 민족들이 완전히 정복되지 않았던 것으로 기술된다. 이로 인해 그들 사이에는 많은 전투가 있게 된다. 말씀 속에 있는 모든 역사적인 사항들은 교회 속에 있는 것들을 표현한다. 가나안 땅 내의 모든 국가들은 신앙으로 거짓을, 즉 사랑으로 악들을 확장하려는 이교도적인 것을 표현한다. 그러나 이스라엘 후손들은 신앙으로 진리를, 즉 사랑으로 선들을 가진 교회를 표현한다.”

## 질문 정리

1) 다윗은 어디에 살았는가?

- 2) 그의 직업은 무엇이었는가?
- 3) 사울의 군대와 블레셋 군대는 어디에서 대치했는가?
- 4) 블레셋 장수는 누구인가?
- 5) 골리앗의 용모는 어떠했는가?
- 6) 그는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도전했는가?
- 7) 다윗은 왜 군인이 집결한 싸움터에 오게 되었는가?
- 8) 그는 사울에게 무엇을 제안했는가?
- 9) 왜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는가?
- 10) 왜 다윗은 사울의 무장을 사용하지 않았는가?
- 11) 다윗의 무기는 무엇인가?
- 12) 그는 골리앗을 어떻게 쓰러지게 했는가?
- 13) 다윗은 무엇으로 골리앗의 머리를 잘랐는가?
- 14) 블레셋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 15) 골리앗은 무엇을 대표하는가?
- 16) 개울가에서 주운 자갈은 무엇을 뜻하는가?

#### 질문의 답

- 1) 베들레헴 2) 목자 3) 엘라 골짜기(느티나무 골짜기) 4) 골리앗 5) 키가 9피트였고 무거운 무장을 했다 6) 블레셋 장수와 싸울 자를 이리로 내려 보내라
- 7) 전투하는 형들에게 음식을 가져가기 위해 8) “소인이 나가 저 블레셋 놈과 싸우겠습니다.” 9) 하느님을 신뢰했다 10) 그의 무장을 입어 본 적이 없었으므로
- 11) 돌팔매 끈, 다섯 개의 자갈 12) 돌팔매질을 하여 쓰러트렸다 13) 골리앗의 칼
- 14) 자신은 더 우수한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남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함
- 15) 자만심, 교만함
- 16) 자신이 사용해보아서 효력이 입증된 말씀으로부터의 진리.

# 18

## 솔로몬의 영화

### 머리말

솔로몬의 영화는 다윗의 승리로 이어진 것으로 평화로운 상태가 없이는 있을 수 없었다. 따라서 다윗의 통치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해 간다.

### 성 서 본 문: 열왕기상 9장, 10장

9장: 1. 솔로몬이 계획했던 대로 야훼의 전과 왕궁과 그 밖의 다른 모든 건물을 완공한 다음이었다. 2. 야훼께서 기브온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솔로몬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어 3.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네가 나에게 한 간절한 기도를 모두 들었다. 네가 세운 이 전을 성별하여 영원히 나의 것으로 삼으리니 장차 내 눈과 내 마음을 영원히 그 곳에 두리라. 4. 네가 네 아비 다윗처럼 충성스런 마음으로 내 앞에서 바르게 살고 내가 일러 준 모든 계명을 지켜 나가며 내 법과 의식을 따르면 5. 나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너의 왕좌를 영원히 지켜 주리라. 내가 네 아비 다윗에게 이미 약속한 대로 너의 자손이 끊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좌에 앉게 하리라. 6. 만일 너나 너의 자손이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등을 돌리거나 내가 너에게 일러 준 명령과 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받들어 섬기거나 예배하면

7. 나는 내가 준 땅에서 이스라엘을 끊을 것이고, 성별하여 나의 것으로 삼은 이 전을 내 앞에서 버릴 것이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여러 나라들 사이에서 한갓 속담거리와 웃음거리가 되고 말리라. 8. 그리고 이 전은 돌무더기가 되어 지나가는 사람마다 놀라고 쉬쉬하며 이렇게 물을 것이다. ‘어찌하여 야훼께서 이 땅과 이 전을 이처럼 황폐하게 하셨을까?’ 9. 그러면 누군가가 대답하리라. ‘자기네 조상을 에집트에서 구출해 내신 자기네 조상의 하느님 야훼를 저버리고 다른 신에게 흘러서 그를 예배하

고 섬겼기 때문이지. 그래서 야훼께서는 이 온갖 재앙을 그들 위에 내리셨다네.”

10. 솔로몬이 야훼의 전과 왕궁, 이 두 건물을 건축하는 데는 이십여 년이 걸렸다.

11. 띠로왕 히람은 솔로몬이 요청한 대로 송백나무와 전나무 재목과 금을 보내 왔다. 솔로몬은 갈릴리 지방의 성읍 이십 개를 히람왕에게 떼어 주었다. 12. 히람은 띠로로부터 와서 솔로몬이 내어 준 성읍을 보았으나 마음에 차지 않았다. 13.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고 전해진다. “나의 형제여, 당신이 나에게 준 성읍들이 이게 뭐니까?” 그래서 이날까지 이 지방은 가불의 땅이라 불리고 있다. 14. 히람은 금 백 이십 달란트를 솔로몬왕에게 보냈다. 15. 솔로몬왕은 야훼의 전과 자신이 살 궁전과 밀로궁을 짓고 그리고 예루살렘성을 쌓고 하술, 므기또, 게젤을 증축하기 위하여 강제노역을 시켰는데 그 기록은 다음과 같다. 16. 이집트의 왕 파라오는 게젤을 쳐들어가 빼앗았을 때 성읍에 불을 지르고 그 곳에 살던 가나안 사람들을 살해하였다. 파라오왕은 그의 딸인 공주를 솔로몬에게 시집보내면서 이 게젤성을 결혼선물로 주었는데 17. 솔로몬이 이 게젤성을 재건하였던 것이다. 솔로몬은 벳호론 남부를 재건하였다. 18. 또 광야에 바알랏과 다말을 다시 세웠다. 19. 또한 솔로몬은 왕실 양곡을 저장해 두는 성과 병거대와 군마를 위한 성들을 세웠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과 레바논을 비롯하여 그의 전 영토 안에 그가 계획했던 모든 것을 세웠다.

20.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즈 사람, 히위 사람, 그리고 여부스 사람들 중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있었는데, 21.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일 수 없었으므로 그 땅에 남겨 두었던 사람들의 후손이다. 솔로몬은 그들을 강제노역에 동원시켰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날까지도 노예로 남아 있다. 22. 그러나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는 한 사람도 강제노역에 동원시키지 않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군인, 친위대, 지휘관, 대장, 병거대와 기마대의 지휘관 일을 해야 했기 때문이다. 23. 솔로몬이 일으킨 모든 공사에 동원된 책임자만 오백 오십 명이나 있었다. 24. 솔로몬은 파라오의 딸을 위하여 따로 궁을 세운 후 그를 다윗성에서 데리고 올라 와 그 궁에 살게 하였다. 솔로몬이 밀로궁을 건축한 것은 그 때였다. 25. 솔로몬은 그가 야훼께 지어 바친 제단 위에서 번제와 친교제를 일 년에 세 차례 드렸고 야훼 앞에서 분향제도 올렸다. 이리하여 솔로몬은 성전 공사를 모두 마쳤다. 26. 솔로몬왕은 또 에돔 땅의 홍해바닷가, 엘랏 근방에 있는 에시온게벨에다 상선대를 창설하였다.

27. 히람은 자기 수하에 있던 노련한 선원들을 보내어 그 상선대에서 솔로몬의 선원들과 함께 일하게 하였다. 28. 그 상선들은 오빌 지방으로 가서 금 사백 이십 달란트를 실어 와 솔로몬에게 바쳤다.

10장: 1. 세바라는 곳에 여왕이 있었는데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는 그를 시험해 보려고 아주 어려운 문제를 준비하여 방문 온 일이 있었다. 2. 여왕은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왔을 뿐 아니라 각종 향료와 엄청나게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싣고 왔다. 여왕은 솔로몬왕을 만나자 미리 생각하였던 문제들을 모두 물어 보았다. 3. 솔로몬은 여왕의 질문을 하나도 막히지 않고 다 대답해 주었다. 4. 세바의 여왕은 솔로몬이 모든 지혜를 갖추고 있는 것을 알고 또 그가 세워 놓은 전을 보고는 넋을 잃을 정도로 감탄하였다. 5. 세바의 여왕은 왕의 식탁의 음식, 조신들의 배석, 제복을 입은 시종들의 도열, 술을 따르는 시종들, 또 왕이 야훼의 전에서 드리는 번제를 보고서 찬탄해 마지않으며 6. 왕에게 말하였다. “당신과 당신의 지혜에 대한 소문은 내가 이미 우리나라에서 듣고 있었습니다만 과연 사실이군요. 7. 이렇게 와서 내 눈으로 직접 보기 전까지는 그 이야기가 하나도 믿어지지 않았습니 다. 그러나 내가 들은 이야기는 이제 보니 사실의 절반도 못 되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지혜와 번영은 내가 들던 소문보다 훨씬 더 뛰어나십니다. 8. 당신을 모시는 부인들이야말로 행복한 여인들입니다. 언제나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로운 말씀을 듣는 신하들이야말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9. 당신으로 인하여 기뻐하시어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좌에 앉히신 당신의 하느님 야훼께 찬미를 올립니다. 야훼께서는 이스라엘을 영원히 사랑하셔서 당신을 왕으로 삼아 법과 정의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10. 여왕은 금 백 이십 달란트와 많은 향료와 보석을 솔로몬왕에게 선물하였다. 솔로몬왕은 세바의 여왕에게 선물받은 것만큼 많은 향료는 두 번 다시 받아 보지 못하였다. 11. 오빌 지방에서 금을 실어 오던 히람의 상선대는 이번에는 굉장히 많은 오동나무와 보석을 운반해 왔다. 12. 왕은 이 오동나무로 야훼의 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노래에 맞추어 뜯을 수금과 거문고를 만들기도 하였다. 오동나무가 이렇게 들어 온 것은 처음이자 마지막 일이었다. 13. 솔로몬왕은 세바의 여왕에게 관례에 의한 답례물 이외에도 여왕이 요청한 것을 모두 주었다. 여왕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자기

나라로 돌아왔다. 14. 일 년간 솔로몬이 수입한 금은 육백 육십 육 달란트나 되었다. 15. 관세 수입금과 외국과의 무역에서 벌어들인 이익금과 아라비아 여러 왕과 국내의 지방장관들에게서 들어오는 것을 제외하고 그렇게 되었다. 16. 솔로몬왕은 금을 입힌 대형 방패를 이백 개 만들었는데 방패 하나에 금 육백 세겔이 들었다. 17. 또 금을 입힌 소형 방패를 삼백 개 만들었는데 방패 하나에 금이 삼미나 들었다. 왕은 이 방패들을 레바논 수풀궁에 보관하였다. 18. 왕은 또 상아로 대형 옥좌를 만들고 순금을 입혔다. 19. 그 옥좌에는 계단이 여섯 개 있었고 옥좌 뒤에는 송아지의 머리가 붙어 있었으며 옥좌 양편에는 팔걸이가 있었고 양팔걸이 옆에는 사자 두 마리가 세워져 있었다. 20. 여섯 계단 양쪽에는 사자가 세워져 있었는데 한 쪽에 여섯 마리씩, 모두 열두 마리가 서 있었다. 이와 같은 옥좌는 일찍이 어느 나라에서도 만들지 못한 것이었다. 21. 솔로몬왕의 술잔은 모두 금으로 만들었고 레바논의 수풀궁에 있는 모든 집기도 순금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은으로 만든 것은 하나도 없었다. 솔로몬 시대에는 은을 귀금속으로 생각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22. 또 왕은 다르셋 상선대를 조직하여 히람 상선대와 함께 해상무역에 종사토록 하였다. 다르셋 상선대로 금, 은, 상아, 원숭이, 공작새 등을 해외에서 한 번 실어 오는데 삼 년이 걸렸다. 23. 솔로몬왕은 땅 위의 어느 왕도 따를 수 없을 만큼 부유하고 지혜로웠다. 24. 그리하여 하느님께 받은 솔로몬의 지혜로운 생각을 듣고자 하여 세계 각처에서 사람들이 솔로몬 왕을 찾아 왔다.

25. 찾아오는 자마다 빈손으로 오지 않고 은집기, 금집기, 옷, 갑옷, 향료, 말, 노새 등을 예물로 가져왔는데 찾는 자가 매년 그치지 않았다. 26. 솔로몬이 병거와 말을 사 모으다 보니 병거가 천 사백 대, 군마는 만 이천 마리가 되었다. 그는 이 병력의 일부는 병거주둔성에 배치하고 일부는 왕이 있는 예루살렘에 배치하였다. 27. 예루살렘에서는 은이 마치 돌맹이처럼 흔하게 되었고 송백은 야산지대의 돌무화과나무만큼이나 많아졌다. 이것은 모두 왕의 덕분이었다. 28. 솔로몬은 왕실 소속 무역상들을 시켜 길리기와 큐에로부터 말을 수입하였다. 29. 병거와 말은 이집트에서 수입했는데 가격은 병거 한 대에 은 육백 세겔, 말 한 마리에 은 백 오십 세겔이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왕실 소속 무역상들을 통하여 헷 왕들과 시리아 왕들에게 병거와 말을 수출하였다.

## 교리 요약

- \* 우리는 시험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선하게 될 수 없으며, 시험은 진리로서만 정복될 수 있다.

## 가정 예배

본문은 솔로몬에 관한 내용이다. 그는 전 국토를 다스린 마지막 왕이었고, 서열로는 삼대였다. 또한 그는 세 왕 중에서 가장 위대하기도 했다. 우리는 사울과 다윗 그리고 솔로몬이라는 이름에 먼저 친숙해져야 한다. 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과 비슷하게 신, 구약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인물들이다.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으로 이어지는 열조 시대와 사울과 다윗 그리고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제왕 시대는 우리의 인생에서 어린 시절로부터 젊은 시절까지와 성숙된 어른 시절이 각기 갖는 정점이라고 할 수 있다. 유대인의 역사는 아브라함에서 시작하여 솔로몬으로 이어졌다. 우리의 삶은 아름답고 순진하며 신뢰심이 많은 유아 상태에서 출발된다. 만일 우리가 슬기롭게 선택 해간다면, 우리는 솔로몬으로 그려지는 평화롭고 영화로운 상태인 최고점에 이르게 된다.

솔로몬의 통치는 천적 인격 혹은 거듭난 인격에 대한 그림이다. 솔로몬의 이름 역시 평화라는 의미이다. 우리는 주위에서 현명하고 슬기로운 연장자를 만나기도 하는데, 그 사람은 다른 이들로부터 존경 받는다. 또한 많은 이들이 그에게 조언을 구하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거나 슬기로운 판단을 기다리기도 한다. 이와 같은 사람의 인격은 하루 밤사이에는 이뤄지지 않는다. 그의 인격은 주님의 뜻을 찾아 배우고 그대로 행해보려고 한 노력이 일생을 통하여 점철되면서 이뤄진 결과이다. “나도 나이 들면 저 사람처럼 되어야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사울과 다윗은 전투하는 왕이었다. 그들이 싸워 이긴 전투가 바로 솔로몬의 영화로운 통치를 가능하게 했다.

솔로몬의 통치란 계속되었던 전투로 인한 승리를 즐기는 것이다. 솔로몬에게는



갖가지 진귀한 보물들이 바쳐졌다. 그 땅에 남은 소수의 적들도 종살이가 내는 세금을 바쳤다. 모든 국내의 백성들은 각기 신분에 따라 솔로몬을 섬겼다. 본문에 등장하는 세바 여왕처럼 주변 나라의 여러 왕이나 여왕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 내왕했다. 또한 솔로몬 시대에 신령과 진정한 하느님의 집인 성전이 예루살렘에 건축되었다. 이는 모든 인간의 삶의 진정한 목적인 천국적인 인격에 대한 그림이다.

### 참고 문헌 -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요한계시록 설명」 제 514-7항: “솔로몬의 상선(商船)단에 대한 것과 여호사밧의 통치하에서 그 상선(商船)단이 조난당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그러나 이 속에는 영적 의미뿐만 아니라 이사야 23장 1,2,14절과 이사야 60장 9절의 예언들도 포함되어 있다. ‘상선대가 에돔땅의 홍해 바닷가, 엘랏 근방에 있는 에시온 게벨에 창설되었다’는 말씀은 자연적인 수준의 인간 속에 있는 지식들을 의미한다. 그 이유는 자연적인 수준의 지식은 당연히 소유될 수 있고 배가 세상적인 재물을 실어 나르듯이 자연적인 사람의 지식도 영적 부를 실어 나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되는 까닭은 에시온 게벨이 있었던 ‘홍해 바닷가나 에돔 땅’이 가나안 땅 경계선 중에서 가장 외곽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가나안땅의 경계에서 가장 외곽지역’은 교회속의 가장 바깥 부분을 의미한다. 바깥 부분이란 선과 진리에 관한 것을 함유한 지식들을 뜻한다. 열왕기상 10장 22절의 ‘금과 은’은 내적인 교회 속에 있는 선과 진리들을 의미한다. ‘상아, 원숭이, 공작새’란 외적인 교회 속에 있는 선과 진리를 의미한다. 여기서 지식들 이라고 언급되는 것은 고대인들이 가졌던 지식과 같은 의미이다. 그것은 상응, 표현, 유입 그리고 천국과 지옥에 관한 것들로 교회속의 선과 진리들을 포함하여 매우 유용하다. ‘히람’이란 선과 진리에 관한 지식을 가지나 교회가 없는 나라들을 의미한다. ‘여호사밧왕 하의 상선이 조난당했다’함은 선과 진리의 측면에서 교회가 황폐해짐을 의미한다.”

### 질문 정리

- 1) 다윗의 통치는 몇 년간 지속되었는가?
- 2) 다윗 후의 왕은 누구인가?
- 3) 솔로몬이란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 4) 솔로몬은 주님에게 무엇을 간청했는가?
- 5) 주님은 그가 간청한 것과 더불어 무엇을 주셨는가?
- 6) 솔로몬은 다윗에게 금해진 어떤 일을 실행했는가?
- 7) 그밖에 솔로몬은 무엇을 지었는가?
- 8) 누가 솔로몬에게 송백나무와 숙련공을 공급해 주었는가?
- 9) 솔로몬은 히람에게 무엇을 주었는가?
- 10) 솔로몬의 첫 아내는 누구인가?
- 11) 솔로몬은 이스라엘 족들이 결코 가지지 못했던 무엇을 창설했는가?
- 12) 어떤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했는가? 왜 그녀는 그를 방문했는가?
- 13) 그녀는 솔로몬과 대담한 후 어떤 말을 했는가?
- 14) 솔로몬의 옥좌에서 기억나는 것은 무엇인가?
- 15) 본문에는 왜 금에 관한 언급이 많은가?
- 16) 왕으로서의 솔로몬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 질문의 답

- 1) 40년 2) 솔로몬 3) 평화 4) 지혜 5) 부와 영예 6) 성전 건축
- 7) 자신과 아내를 위한 성 8) 히람 9) 20개의 성읍 10) 파라오의 딸
- 11) 상선(商船)단 12) 세바, 어려운 질문을 하기 위해서 13) 들은 것보다 더 슬기롭다
- 14) 여섯 계단, 열 두 사자, 금을 입힌 상아
- 15) 금은 지혜로부터 비롯되는 사랑을 상징하기 때문 16) 충분히 거둬낸 사람

# 19

## 호렙 산에서의 엘리야

### 머리말

솔로몬 왕국이 분열된 이유와 이스라엘 왕국의 본성을 이해하도록 한다.

### 성 서 본 문: 열왕기상 19장

19장: 1. 아합은 엘리야가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떻게 예언자들을 칼로 쳐 죽였는지를 낱낱이 이세벨에게 말해 주었다. 2.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전갈을 보내었다. “네가 예언자들을 죽였으니 이번에는 내가 너를 내일 이맘때까지 반드시 죽이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천벌 아니라 그 이상이라도 내가 받으리라.” 3. 엘리야는 두려워 떨며 목숨을 구하여 급히 도망쳤다. 그는 유다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 곳에 시종을 남겨 두고 4. 자기는 하룻길을 더 여행하여 거친 들로 나갔다. 싸리나무 덩굴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아래 앉은 그는 죽여 달라고 기도하였다. “오, 야훼여, 이제 다 끝났습니다. 저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선조들보다 나을 것 없는 못난 놈입니다.” 5. 그리고 나서 엘리야는 싸리나무 덩굴 아래 그대로 누워 잠들었다. 그 때 하늘의 천사가 나타나 흔들며 깨우면서 “일어나서 먹어라”고 말하였다. 6. 엘리야가 깨어 보니 머리맡에, 불에 달군 돌에 구워 낸 과자와 물 한 병이 놓여 있었다. 그는 음식을 먹고 또 물도 마셨다. 그리고는 다시 누워 잠이 들었다. 7. 야훼의 천사가 다시 와서 그를 흔들며 깨우면서 “갈 길이 고될 터이니 일어나서 먹어라”하고 말하였다. 8. 엘리야는 일어나서 먹고 마셨다. 그는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 사십 일을 밤낮으로 걸어 하느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9. 그가 거기 한 동굴에 이르러 그 속에서 그 날 밤을 지내는데 갑자기 야훼의 말씀이 들려 왔다. “엘리야야, 네가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10.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과 맺은 계약을 저버리는

것을 보고 만군의 하느님 야훼를 생각하여 가슴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당신의 제단을 헐었을 뿐 아니라 당신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이제 예언자  
 라고는 저 하나 남았는데 그들이 저마져 죽이려고 찾고 있습니다.” 11. 다시 음성이  
 들려 왔다. “앞으로 나가서 야훼 앞에 있는 산 위에 있거라.” 그리고 야훼께서 지나가시  
 는데 크고 강한 바람 한 줄기가 일어 산을 뒤흔들고 야훼 앞에 있는 바위를 산산조각  
 내었다. 그러나 야훼께서는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 바람이 지나간 다음에 지진이  
 일어났다. 그러나 야훼께서는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다. 12. 지진 다음에 불이  
 일어났다. 그러나 야훼께서는 불길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다. 불길이 지나간 다음  
 조용하고 여린 소리가 들려 왔다. 13. 엘리야는 목소리를 듣고 겔옷자락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동굴 어귀로 나와 섰다. 그러나 그에게 한 소리가 들려 왔다. “엘리야야,  
 네가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14.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  
 들이 당신과 맺은 계약을 저버리는 것을 보고 만군의 하느님 야훼를 생각하여 가슴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당신의 제단을 헐었을 뿐 아니라 당신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이제 예언자라고는 저 하나 남았는데 그들이 저마져 죽이려고  
 찾고 있습니다.” 15. 야훼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다마스쿠스 광야로 해서 돌아가거  
 라. 다마스쿠스성에 들어가거든 하자엘을 기름 부어 시리아의 왕으로 세우고 16.  
 남시의 아들 예후를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아벨므홀라 출신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기름 부어 네 뒤를 이을 예언자로 세워라. 17. 하자엘의 칼을  
 피하여 살아난 자는 예후에게 죽을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여 살아난 자는 엘리사에  
 게 죽으리라. 18.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입 맞추지도 않았던 칠천 명을 남겨 두리라.” 19. 엘리야는 그 곳을 떠나 길을 가다가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났다. 그는 황소 열 두 쌍에 거리를 지워 밭을 갈고 있었는데  
 자신은 열두 켤 거리를 부리고 있었다. 엘리야가 그 옆을 지나가면서 자기의 겔옷을  
 그에게 걸쳐 주었다. 20. 그러자 엘리사는 소를 그냥 두고 엘리야에게 달려왔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였다. “부모님께 작별 인사를 한 후에 당신을 따라 가겠습니다.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러자 엘리야가 말하였다. “어서 가 보게. 내가 어찌 작별인사를  
 금하겠는가?” 21. 엘리사는 엘리야를 떠나 집으로 돌아가서 황소 두 마리를 잡고  
 쟁기를 부수어 그 고기를 구워 사람들을 대접하였다. 그리고 나서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 나서 그의 제자가 되었다.

### 교리 요약

\* 주님은 우리가 아무리 잘못되어 간다하더라도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다.

### 해설

솔로몬의 영화로운 통치와는 달리 본문의 배경은 아주 어둡다. 다시 말하면, 높은 정점에 도달한 우리의 상태가 그리 오래 지속되지 못함을 의미한다. 성공은 위험을 초래케 하여 새로운 시험들이 나타나게 된다. 우리는 인생이 끝나는 순간까지 우리의 자연적인 이기심이 불러일으키는 미묘한 공격에 대항하여 수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경외 받고 사랑받는 사람들도 시험을 가지고 있어 그들의 이기적이며 거짓된 것을 너그럽게 봐주어야 할 때가 흔하다. 제 10장에서는 솔로몬의 보물들이 기술되고, 제 11장의 첫 절에서는 “그러나 왕 솔로몬은 많은 외국 여인들을 사랑하였다”라고 시작된다. 외국 여인이란 주님과 이웃을 섬기기 위해 헌신하는 삶에 속하지 않는 바램들을 표현한다. 만약 우리가 솔로몬이 외국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던 것처럼 외국여인들이 상징하는 세상적이고 이기적인 바램들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게 되면, 솔로몬이 결국 우상 숭배에 빠져 주님께 죄를 지은 것처럼 우리의 마음 역시 주님의 것이 아닌 세상의 것을 더욱 중요시 하는 죄를 짓게 된다. 이리하여 우리 본성의 지적 측면을 표현하는 솔로몬 왕국내의 북쪽 지파들은 솔로몬의 아들에 반기를 들어 분리된 왕국을 세웠다. 이스라엘이라 불리게 된 이 왕국은 우상을 숭배했고, 그들의 역사는 반란과 폭동의 역사가 되었다. 그들의 왕들은 점점 약해졌고, 주님은 그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인 아합의 통치 때에 예언자 엘리야를 보내 백성들에게 경각심을 주며 충고하도록 했다. 제 18장에서는 3년간의 가뭄과 기근이 계속된 후 가르멜산에서의 굉장한 대결이 기술된다. 아합왕과 백성들은 주님의 권능을 확신케 되었다. 그러나 이세벨이라는 아합의 악독한 아내는

대결에 대해 듣고 분노하여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다.

성경에서 예언자는 언제나 하느님의 말씀을 표현한다.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를 말하며 받아들이도록 강하게 부촉일 때, 우리 안의 모든 이기적인 것은 이세벨 처럼 강하게 맞서 일어나서 진리를 깔아뭉개려고 발버둥 친다. 계명이 주어진 시나이 산인 호렙산으로 엘리야가 피신하는 광경은 우리속의 이기적인 것들이 강하게 맞서려고 봉기할 때 스스로 풀이 죽어 실망하는 상태를 그려준다. 이와 더불어 우리가 계속 전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아주 부드럽고 슬기롭게 우리를 살려내시며 용기를 불려 일으켜 주는 모습을 보여 준다. 주님은 강한 바람과 지진 그리고 불 가운데 계시지 않으며, 불길이 지나간 후 조용하고 여린 음성 가운데 계신다.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보내지 않으신다. 고난은 우리 안에 있는 악의 결과이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가 잘 되도록 배려하신다. 그러나 주님은 때로 우리가 고난에 처하도록 허용하신다. 그 이유는 이러한 고난이 우리가 주님께로 다가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시험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고난을 잘 극복하게 되면, 우리는 그로 인해 아주 작고 여린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담고 있으면 영적 성장의 길이 열리게 된다.

#### 참고 문헌 -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요한계시록 설명」 제 159항: “교회가 전복되는 것은 자아 사랑과 세상 사랑에서 비롯되는데, 이세벨은 이런 두 사랑으로부터 비롯되는 기쁨을 의미한다. 모든 사람은 그가 사랑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리고 그의 삶에 있는 모든 기쁨은 그가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비롯된다. 그 이유는 그가 사랑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은 모두 기쁘게 느끼고, 사랑하는 것을 배척하는 것은 불쾌한 것으로 느끼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아사랑과 세상사랑 속에 있는 이들, 즉 두 가지 사랑으로 지배되는 이들은 다른 기쁨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들의 생명 역시 지옥의 생명 밖에 없다. 게다가 이러한 사랑들 또는 이런 사랑이 갖는 삶의 기쁨은 항구적이어서 그들의 모든 생각들을 세상 또는 자아로 돌려놓는다. 이와 달리 인간이 하느님을 무엇보다 먼저 사랑하며 이웃을 자신의 몸같이 사랑하게 되면, 주님은 인간의 마음에 있는 내용물 또는 생각

이나 의도를 그분 쪽으로 돌려놓아 주신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것으로부터 생각이나 의도들을 떼어내 돌려놓으신다는 것이다. 이리하여 인간의 마음속에 든 내용물들은 들려 진다. 들림은 인간이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이뤄진다. 이로부터 인간의 영, 즉 자신을 담고 있던 껍데기인 육체를 벗고 난 후에 인간은 스스로가 사랑했던 것이 되어 버리게 된다. 그 이유는 그가 사랑했던 것들이 삶의 기쁨이 되고 그 자체가 그의 삶이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 질문 정리

- 1) 솔로몬이 건립한 세 건축물은 무엇인가?
- 2) 솔로몬이 죽은 뒤 왕국은 어떻게 되었는가?
- 3) 솔로몬이 어떤 잘못으로 인해 왕국이 분열되었는가?
- 4) 분열된 두 왕국은 각각 무엇이라고 불리었는가?
- 5) 분열된 왕국은 각각 무엇을 그려주는가?
- 6) 이스라엘에 어떤 승패가 어디에 세워졌는가?
- 7) 본문에서 이스라엘 왕국의 왕은 누구인가?
- 8) 그 왕의 아내는 누구인가?
- 9) 본문에서 주님의 예언자는 누구인가?
- 10) 이세벨은 왜 엘리야를 죽이려 했는가?
- 11) 엘리야가 도망갔을 때 처음 간 곳은 어디인가?
- 12) 주님은 광야에서 어떻게 엘리야에게 용기를 주셨는가?
- 13) 그 다음 엘리야는 어디로 갔는가?
- 14) 호렙산의 또 다른 이름과 그곳에서 있었던 중요한 사건은 무엇인가?
- 15) 엘리야가 동굴에 있을 때에 무엇이 발생했는가?
- 16) 주님은 바람이나 지진 그리고 불 가운데 계셨는가?
- 17) 이러한 징조 뒤에 무엇이 뒤따랐는가?
- 18) 주님은 엘리야에게 어떤 말씀으로 용기를 주셨는가?
- 19) 주님은 엘리야에게 무엇을 하라고 지시하셨는가?

- 20) 엘리야가 엘리사를 발견할 때 그는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가?  
 21) 주님이 조용하고 여린 목소리로 말씀하신다 함은 무엇을 그리는가?

#### 질문의 답

- 1) 성전과 두 궁전 2) 왕국이 갈라졌다 3) 우상숭배, 무거운 세금  
 4) 이스라엘, 유다 5) 인간의 마음이 심정과 지성으로 구성된 모습  
 6)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상을 세워 숭배했다 7) 아합 8) 이세벨 9) 엘리야  
 10) 그가 바알 예언자들을 살해했다 11) 브엘세바  
 12) 천사들이 그에게 음식과 물을 주었다  
 13) 호렙 14) 시나이산, 십계명 15) 주님이 말씀하시고 징조를 보여 주셨다  
 16) 아니다 17) 조용하고 여린 소리 18) 주님께 신실한 자가 칠천 명이나 있다  
 19) 새 왕들을 기름 붓고 후계자를 세워라  
 20) 황소 열 두 쌍에 겨리를 지워 밭을 갈고 있었다.  
 21) 시험 후 조용한 명상 시간에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때를 그린다.



# 히즈키야 왕과 이사야

## 머리말

본문을 통해 유다왕국의 특수한 성격을 알아본다. 먼저 엘리야와 엘리사에 대한 내용과 이스라엘 왕국이 아시리아에 포로가 되는 신세를 떠올리면서 공부한다. 이스라엘 왕국의 모든 왕은 사악했다. 반면, 유다왕국은 히즈키야왕처럼 선한 왕들이 있었으므로 오랫동안 왕국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는 장수하는 히즈키야왕의 이야기로 그려진다.

## 성 서 본 문: 열왕기하 20장

20장: 1. 그 무렵 히즈키야가 몹시 앓아 거의 죽게 되었다. 아모쓰의 아들 예언자 이사야가 왕에게 와서 말하였다. “이것은 야훼의 말씀이요. ‘너의 왕실에 마지막 유시를 내려 기강을 바로 잡아라. 너는 곧 죽게 될 것이며 다시 회복하지 못하리라.’” 2. 히즈키야는 벽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고 야훼께 기도하였다. 3. “오, 야훼여, 제가 항상 당신 앞에서 참되게 살았으며, 충성스럽게 당신을 섬겼고, 당신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하였음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히즈키야는 매우 슬프게 울었다. 4. 이사야가 성의 안뜰을 떠나기 전에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내렸다. 5.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왕 히즈키야에게 일러 주어라. ‘너의 선조 다윗의 하느님 야훼가 하는 말이다. 네 기도를 내가 들었고 네 눈물을 내가 보았다. 내가 너의 병을 낫게 해 주리라. 삼 일만에 너는 야훼의 전에 올라가게 되리라. 6. 내가 너의 수명을 십오 년 더 연장시켜 주리라.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시리아 왕에게서 건져 주고 나 자신과 나의 종 다윗을 보아서 이 성을 보호하리라.’” 7. 이 말을 전한 다음 이사야는 무화과로 만든 교약을 가져오라고 하였다. 사람들이 무화과로 만든 교약을 가져다 종기에 붙이자 히즈키야왕의 병이 나았다. 8. 히즈키야는 자기가 다시 회복되어서 삼 일만에

야훼의 전에 올라가게 되리라는 무슨 증거라도 야훼께서 주셨는지 이사야에게 물었다. 9. 이사야가 대답하였다. “여기에 야훼께서 당신의 약속을 그대로 이루시리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림자를 열 칸 앞으로 나가게 할까요? 열 칸 뒤로 물러나게 할까요?” 10. 히즈키야가 대답하였다. “그림자를 열 칸 앞으로 나가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고, 열 칸 뒤로 물러나게 해 주시오.” 11. 예언자 이사야가 야훼를 불러 찾았다. 그리고는 그림자를 아하즈의 계단 아래로부터 시작하여 열 칸 뒤로 물러나게 하였다. 12. 그 무렵 바빌론의 왕 발라단의 아들 므로닥발라단이 히즈키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사절단을 보내어 편지와 예물을 전하였다. 13. 히즈키야는 그 사절단을 환대하고 자기의 보물창고 안에 있는 금, 은, 향료, 향유, 병기, 기타 모든 귀중품을 보여 주었다. 히즈키야는 그의 왕궁과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남김없이 보여 주었다. 14. 예언자 이사야가 히즈키야왕에게 와서 물었다.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으며 어디에서 온 사람들입니까?” 히즈키야가 대답하였다. “그들은 먼 나라 바빌론에서 온 사람들이오.” 15. 그러나 이사야가 다시 물었다.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히즈키야가 대답하였다. “그들은 나의 궁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았소. 또 나의 보물창고 안에 있는 귀중품들을 그들은 모두 보았소.” 16. 이 말을 듣고 이사야가 히즈키야에게 말하였다. “야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17.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왕궁에 있는 모든 것, 네 선조들이 오늘날까지 고이 간직하였던 모든 것이 바빌론으로 옮기우고 하나도 남지 않게 될 그 날이 다가오고 있다. 18. 너에게서 태어날 너의 친아들들 중 더러는 바빌론 왕궁으로 끌려가 내시가 되리라.’” 19. 히즈키야가 대답하였다. “그대가 전한 야훼의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이오.” 그리고 자기의 목숨이 붙어 있는 동안은 평화와 안전이 계속되리라고 혼자 생각하였다. 20. 히즈키야의 나머지 사적과 업적, 저수지를 파고 물길을 터서 성안으로 물을 끌어 들인 일에 관하여는 유다 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21. 히즈키야는 잠이 들어 그의 선조들 곁에 안장되었다. 그의 아들 므나쎄가 왕위를 계승하였다.

### 교리 요점

\* 신약 성서에서 사마리아인들이란 이스라엘 왕국의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 끌려

간 후 그곳에 정착하여 산 외국인들의 후손이다. 이는 우리가 올바른 생각을 포기하고 그릇된 사고로 점령되어 그릇된 사고가 오래 지속되는 양상을 그려준다.

- \* 우리의 지성이 세상적인 추론에 포로가 되면 우리의 선한 의도 역시 오래 지속될 수 없다.
- \* 외향적인 선한 일 안에는 선행이 존재하지 않는다.

### 해설

본문은 분단된 왕국 중 남쪽 부분인 유다왕국의 선왕이었던 히즈키야에 대한 것이다. 히즈키야는 백성들로 하여금 주님을 예배하도록 열심히 노력했다. 그는 어느 왕보다도 많은 개혁을 단행했으며, 그로 인해 많은 곤경에 처하기도 했다.

이스라엘 왕국의 북쪽 지역은 솔로몬의 계보에 반기를 들었다. 이후 유다와 이스라엘은 동일한 선조와 관습을 가지면서도 으르렁거리는 사이가 되었다. 유다의 히즈키야 왕 통치 초기 이스라엘 왕국은 아시리아에 의해 정복되어 백성들은 모두 동쪽 땅으로 끌려가 되돌아오지 못했다. 아시리아왕은 그들이 끌려간 후 빈 영토에 동쪽으로부터 사람들을 이주시켜 정착하게 했다. 그들의 후손들이 바로 복음서에 등장하는 사마리아인들이다. 우리는 유대인들이 오백 년이 지난 후에도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했었음을 신약 성서를 통해 알 수 있다. 아시리아가 이스라엘 영토를 차지하자 히즈키야왕은 북쪽의 방어벽을 잃은 셈이 되었다.

아시리아는 유다왕국 역시 정복하려고 했다. 그러나 주님은 기적으로 유다를 구해 주셨는데, 이는 제 18장에서 기술되고 있다. 그 후 히즈키야는 병을 앓아 거의 죽게 되었다. 주님에 대한 그의 기도와 예언자 이사야를 통한 주님의 응답은 아주 단순한 이야기이다. 히즈키야는 15년이나 생명이 연장되었다. 선왕의 생명이 연장됨에 따라 유다왕국의 생명도 지속된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악들을 인식하고 개혁하려고 노력할 때마다 우리의 영적 생명의 생존도 연장되는 것이다. 즉, 영적 진보를 위한 새로운 기회를 자주 갖게 됨으로서 우리의 영적 생명도 연장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림자를 열 칸 뒤로 물러나게 한 징조 역시 영적인 진보에 대한 것을 말해준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께서 어떻게 지구의 자전을 거꾸로 하셨을까하고 의아해 하는 것은 말씀의 뜻을 글자 그대로만 이해하는 것이다. 그림자가 없어지는 때 영적인 빛이 주어진다. 우리의 지상적인 삶 주위를 맴도는 듯 보이는 수많은 그림자들은 우리가 진정한 빛과 도움을 주님께 구할 때 사라져 버린다.

### 참고 문헌 -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계시록 설명 제 706-16항」: “이 징조는 히즈키야왕에게 주님이 그와 예루살렘을 아시리아왕으로부터 보호하실 것임에 대한 증거로써 보여주었다. 여기서의 왕이란 교회속의 모든 것을 파괴하려고 악용된 합리성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 징조는 주님에 의해 세워져야 하는 새교회도 의미한다. 하지만 이 징조는 새교회가 세워질 때 아하즈의 시계판으로 암시된 때 보다 훨씬 후의 일임을 동시에 표현한다. 즉, 해 앞에서 아하즈의 계단 아래로 갔었던 그림자를 뒤로 물러나게 한 것은 새교회가 이뤄지게 될 때가 뒤로 밀려남을 의미한다. 아하즈의 계단이란 시간 혹은 때를 의미한다. 여기서 때란 주님이 오실 때이다. 그리고 그림자란 해가 떠서 지는 시간의 경과를 의미한다. 그림자를 열 칸 뒤로 물러나게 함이란 새교회의 때가 아직도 많은 세월이 소요될 것임을 의미한다. 열이란 많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뒤로 물러나게 할 해란 주님의 오심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서는 차후 더 설명할 것이다. 주님의 오심은 유대 교회가 벼랑 끝에 섰을 때, 즉 유대 교회 속에 여하한 선과 진리가 하나도 없을 때에 거행되었다. 존속된 유대교회의 모든 세월이 아하즈의 계단으로 표현된다. 시작은 그 첫 계단, 즉 해가 뜨는 때이다. 그리고 끝은 끝 계단, 즉 해가 지는 때이다. 따라서 이 기적은 해가 지는 때에 해가 뜨는 쪽으로 가도록 ‘그림자를 뒤로 물러나게 함’이었으므로, 히즈키야 왕의 왕국으로 상징된 교회가 더 연장될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아하즈의 계단에서 거행된 이유는 아하즈가 사악한 왕으로서 교회의 거룩한 것을 모독했기 때문이다. 만일 그의 후계자인 히즈키야마저 것처럼 사악했다면, 그 교회의 끝은 더 빨랐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히즈키야는 꽤 선한 왕이어서 왕국은 오래 지속될 수 있었다.

## 질문 정리

- 1) 본문에서 유다의 왕은 누구인가?
- 2) 그 왕의 초기 통치 때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는가?
- 3) 누가 아시리아로부터 유다를 구원해 주었는가?
- 4) 누가 히즈키야왕 시대 때에 예언자였는가?
- 5) 히즈키야가 심히 아프자 이사야는 그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 6) 그래서 히즈키야는 무엇을 했는가?
- 7) 이사야는 주님이 주신 어떤 소식을 왕에게 전달했는가?
- 8) 히즈키야의 병명은 무엇인가?
- 9) 이사야는 히즈키야를 무엇으로 낮게 해주었는가?
- 10) 히즈키야는 어떤 징조를 요구했는가?
- 11) 어떤 나라에서 히즈키야에게 사절단을 보냈는가?
- 12) 히즈키야는 사절단에게 무엇을 보여주었는가?
- 13) 그래서 이사야는 히즈키야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 14) 이스라엘 왕국의 멸망은 유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 15) 아시리아와 바빌론은 각각 무엇을 표현하는가?

## 질문의 답

- 1) 히즈키야
- 2) 아시리아의 포로가 됨
- 3) 주님의 천사
- 4) 이사야
- 5) “너는 곧 죽게 될 것이며...”
- 6) 기도했다
- 7) “내가 너의 수명을 십 오 년 더 연장시켜 주리라...”
- 8) 종기
- 9) 무화과로 만든 고약
- 10) 그림자를 열 칸 뒤로 물러나게 해 주시오
- 11) 바빌론
- 12) 왕국의 모든 보물을 보여 주었다
- 13) 어리석은 짓을 했다
- 14) 북쪽의 방어벽이 사라진 셈이다
- 15) 아시리아 - 세상적이고 자연적인 생각들

## 21

### 시편에 관하여 (2)

#### 머리말

시편은 주님께 대한 우리의 감정과 생각의 표현 또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도록 주님께 의해 영감 된 노래이다.

#### 성 서 본 문: 시편 19편

- 19편: 1. 하늘은 하느님의 영광을 속삭이고  
창공은 그 훌륭한 숨씨를 일러줍니다.
2. 낮은 낮에게 그 말을 전하고  
밤은 밤에게 그 일을 알려줍니다.
3. 그 이야기, 그 말소리  
비록 들리지 않아도
4. 그 소리 구석구석 울려 퍼지고  
은 세상 땅 끝까지 번져 갑니다.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쳐 주시니
5. 해는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이  
신나게 치닫는 용사와 같이
6. 하늘 이 끝에서 나와  
하늘 저 끝으로 돌아가고

그 뜨거움을 벗어날 자 없사옵니다.

7. 야훼의 법은 이지러짐이 없어  
사람에게 생기를 돌려주고  
야훼의 법도는 변함이 없어  
어리석은 자도 깨우쳐 준다.
8. 야훼의 분부는 그릇됨이 없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야훼의 계명은 맑아서  
사람의 눈을 밝혀 준다.
9. 야훼의 말씀은 순수하여  
영원토록 흔들리지 아니하고  
야훼의 법령은 참되어  
옳지 않은 것이 없다.
10. 금보다, 순금덩이보다 더 좋고  
꿀보다, 송이 꿀보다 더욱 달다.
11. 당신 종이 그 말씀으로 깨우침 받고  
그대로 살면 후한 상을 받겠거늘
12. 뉘 있어 제 허물을 다 알리이까?  
모르고 짓는 죄 일랑 말끔히 씻어 주소서.
13. 일부러 범죄 할까, 이 몸 막아 주시고  
그 손아귀에 잡힐까, 날 지켜 주소서.  
그제야 이 몸은 대역죄 씻고  
온전히 깨끗하게 되리이다.
14. 내 바위, 내 구원자이신 야훼여,  
내 생각과 내 말이  
언제나 당신 마음에 들게 하소서.

## 교리 요점

- \* 주님은 선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해 두어야 한다.
- \* 열왕기하와 시편 사이의 성경은 내적 의미가 없다.
- \* 이기심으로부터 우리를 되돌아서게 하는 것은 오로지 주님의 진리뿐이다.
- \* 여호와를 경외(두려워)함이란 벌을 두려워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 \* 우리는 심정뿐만 아니라 지성과 행동도 깨끗이 해 두어야 한다.

### 해설

시편은 성경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지고 사랑 받아 온 책으로 사료된다. 시편 23편의 “주는 나의 목자...”는 주기도문 다음으로 기독교인들에게 널리 암송된다. 그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위로하는 것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실망하거나 시련에 처해 있을 때 도움을 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주님께로 돌아온다. 그분은 우리의 창조자로서 우리의 심정상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이 필요함을 거의 본능적으로 느낀다. 따라서 우리는 주위에서 하느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 않으면서도 막상 위험한 순간에 처하면 그분을 찾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다.

우리는 우리의 보호와 위안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위해서도 주님을 찾아야 한다. 우리는 모든 것이 쉽게 여겨질 때도 주님이 필요하다. 시편 19편에서는 만사가 순조로울 때 우리가 주님을 잊기 쉬우며 “모르고 짓는 죄”와 “일부러 짓는 죄” 쪽으로 우리속의 악이 우리를 피기 쉬움을 알려준다. 우리가 주님이 보시는 가운데 그분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기억하면, 우리는 그분의 끊임없는 고침과 인도를 받게 된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하느님께서 인간을 늘 돌보고 계심을 아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를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하다. 시편은 우리가 늘 주님을 느끼고 생각하며 살아야 할 필요성을 잘 표현하고 있다. 우리가 시편을 반복하여 읽으면



말씀의 진리가 더욱 깊이 우리의 생각과 인생 안으로 들어오게 되며 주님은 시편을 통해 우리에게 더욱 역사하실 수 있게 된다.

우리가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밤과 낮의 질서 정연함을 떠올리거나 우리의 특별한 노력 없이 세상의 질서가 유지되는 것을 보면 창조자가 얼마나 위대하고 지혜로운가를 인식하게 된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주님의 섭리에 맞추며 그분의 섭리를 늘 배워나가기를 원하게 된다. 우리의 모든 고난과 불행은 주님의 인도와 도움 없이 우리 스스로 삶을 꾸릴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서 비롯된다.

### 참고 문헌 -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천국의 신비 제 2826-13항」: “ 모든 예배에는 경외함(두려움)이 있으나, 경외함의 외관이나 조건은 각기 다르다. 그리고 거룩한 두려움도 있는데, 이는 지옥이나 저주에 속한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과 이웃에 반대되는 것, 즉 사랑의 선이나 믿음의 진리에 반대되는 것을 생각하고 행동할 때 있게 되는 두려움이다. 이는 일종의 혐오와 같다. 혐오는 다른 측면에서 볼 때 사랑의 거룩함과 믿음의 거룩함의 경계에 해당된다. 앞서 말한바 대로 혐오감은 지옥이나 저주로 인한 두려움이 아니므로 믿음의 선 안에 있는 이들이 갖는 두려움이다. 그러나 사랑의 선 속에 있는 이들은 믿음의 선 안에 있는 이들 보다 두려움이 훨씬 적다.”

### 질문 정리

- 1) 우리는 성경의 어떤 책을 공부했는가?
- 2) 시편이란 무엇인가?
- 3) 주님은 시편에 관해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 4) 많은 시편은 누구에 의해 쓰였는가?
- 5) 히브리인들은 시편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 6) 시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 7) 시편 19편 1절은 무엇인가?
- 8) 그 첫 절은 무엇을 뜻하는가?
- 9) 시편은 주님의 법에 관해 뭐라고 말하는가?
- 10) 주님을 두려워 함 혹은 경외함이란 무엇을 뜻하는가?
- 11) 19편의 마지막 부분은 무엇에 관한 것인가?
- 12) 그 마지막 부분은 우리를 위해서는 무엇을 뜻하고 있는가?

#### 질문의 답

- 1) 시편서 2) 노래 3) 시편은 주님께 관해 말했다 4) 다윗 5) 찬송
- 6) 주님께 관해 우리가 느낀 것을 표현하는 방법들
- 7) “하늘은 하느님의 영광을 속삭이고...”
- 8) 우리는 창조의 완전함을 알아야 할 것이다
- 9) 이지리짐이 없어 사람에게 생기를 준다
- 10) 주님을 언짢게 하는 것을 하지 않고 싶어 함
- 11) 의를 행함 속에 행복이 있는 상태가 지속되기를 간구해야 한다
- 12) 우리의 결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주님께 도움을 구해야 한다

## 대 예언서에 관하여 (2)

### 머리말

본과를 공부하기에 앞서 대 예언자, 성경에서 이 책들의 위치, 이 책들의 역사적 시기와 예언자들의 직분을 살펴본다. 이와 더불어 예언의 의미와 영감에 따라 예언자가 말했음도 기억하기 바란다.

### 성 서 본 문: 예레미야 1장

1장: 1. 예레미야 일대기. 그는 베냐민 지방 아나돗에 사는 사제 가운데 한 사람이었는데, 그의 아버지는 힐키야라고 하였다. 2. 야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내리기 시작한 것은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유다 왕이 된 지 십 삼 년 되던 때의 일이었다. 3. 야훼의 말씀은 그 후로도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킴이 유다 왕으로 있는 동안, 또 요시야의 또다른 아들 시드키야가 유다 왕이 된 지 십 일 년 되던 해의 오월, 그의 통치가 끝나고 예루살렘 시민이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계속되었다.

4. 내가 받은 야훼의 말씀은 이러하다. 5. “내가 너를 점지해 주기 전에 내가 너를 뽑아 세웠다. 네가 세상에 떨어지기 전에 나는 너를 만방에 내 말을 전할 나의 예언자로 삼았다.” 6. “아! 야훼 나의 주님, 보십시오. 저는 아이라서 말을 잘 못합니다”하고 내가 아뢰었더니, 7. 야훼께서는 나에게 이렇게 이르셨다. “아이라는 소리는 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야 하고, 무슨 말을 시키든지 하여야 한다. 8.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늘 옆에 있어 위험할 때면 건져 주리라. 이는 내 말이라, 어김이 없다.” 9. 그러시고 야훼께서는 손을 내밀어 나의 입에 대시며 이르셨다. “나는 이렇게 나의 말을 너의 입에 담아 둔다. 10. 보아라! 나는 오늘 세계만방을 너의 손에 맡긴다. 뽑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고 헐어 버리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심기도 하여라.” 11. 야훼께서 나에게 말씀을 내리셨다. “예레미야야, 무엇이 보이느냐?” “감복숭아 가지가 보입니다.” 하고 내가 대답하였다

니 12. 야훼께서 이르셨다. “바로 보았다. 나도 내 말이 이루어지는가 이루어지지 않는가를 깨어 지켜보리라.” 13. 야훼께서는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을 내리셨다. “이번에는 무엇이 보이느냐?” “부글부글 끓는 술물이 북쪽에서 쏟아져 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하고 내가 대답하였더니, 14. 야훼께서 이르셨다. “이 나라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북녘에서 재앙이 쏟아져 내리리라. 15. 이제 나는 북녘의 모든 나라들을 불러 오리라. 이는 내 말이니, 잘 들어라. 그 왕들은 몰려 와서 예루살렘성과 유다의 모든 성들을 둘러싸고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서 항복을 받으리라. 16. 나는 나의 백성이 저지를 모든 죄를 이렇게 심판하리라. 나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향을 피워 올리며, 저희 손으로 만든 것들을 섬긴 죄를 이렇게 심판하리라. 17.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나의 백성에게 일러 주리라. 내가 시키는 말을 모두 전하여라. 그러다가 그들 앞에서 오히려 두려워하게 되리라. 18. 유다의 임금이나 고관들, 사제들이나 지방 유지들과 함께 온 나라가 달려들어도 내가 오늘 너를 단단히 방비된 성처럼, 쇠기둥, 못담처럼 세우리니, 19. 아무리 덤벼도 너를 당하지 못하리라. 내가 네 옆에 있어 도와주리라. 이는 내 말이라, 어감이 없다.

### 교리 요점

- \* 주님은 인간을 인도해 줄 충분한 진리도 주지 않고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다.
- \* 예언자란 하느님을 대변하는 사람이다. 모든 말씀은 예언이다.
- \* 우리가 자아의 힘과 지식 대신 주님을 찾는다면 그분은 진리를 말씀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 \* 열매란 진리에 순종하는데 근원한 선을 표현한다.

### 해설

예언서들은 구약의 마지막 17권에 해당된다. 4개의 대 예언서와 12개의 소 예언서가 있는데, 대(Major)와 소(minor)란 각 책의 부피를 뜻한다. 예레미야와 애가서는 예레미야가 쓴 것으로 추정된다. 예언자란 주님을 대변하는 사람이다. 예레미야는 아마

50회 이상 “주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내려왔다”라고 말하고 있다. 주님은 언제나 예언자들을 통하여 인간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들에게 하느님의 진리를 주심으로 그들의 과오를 고치고 천국적인 행복으로 인도되도록 해 주신다. 누가복음 1장 70절에서 즈가리야는 “예로부터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빌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며 노래하고 있다. 모든 예언자들이 전 시대를 망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메시지를 받은 것은 아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그 일을 위해서 선택되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의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보관하도록 섭리하셨다.

네 개의 대 예언서란 이사야, 예레미야, 에제키엘 그리고 다니엘이다. 이들은 모두 유다에서 예언되었다. 앞서 우리는 이사야가 히즈키야왕 시대의 백성들에게 예언을 했음을 배웠다. 예레미야는 유다왕국의 멸망 때부터 약 일세기를 살았다. 그는 유다의 멸망을 예언했고, 예언한 것들이 성취되는 것을 자신의 눈으로 보았던 유일한 예언자이기도 했다. 애가라 불리는 책은 예루살렘과 성전이 파괴된 후 그를 통해 쓰였다. 에제키엘과 다니엘은 바빌론으로 끌려간 포로였는데, 그들은 그곳에 있는 백성들에게 예언했다. 우리는 이 예언서들이 당대의 백성들을 구원하려는 메시지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지도 담고 있음을 주시해야 한다.

#### 참고 문헌 -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천국의 신비」 제 5622-2항: “감복송아란 자연성 속의 내용인 선의 진리에 상응하는 생활의 선을 의미한다. 영적인 의미에서 이 나무 자체는 선으로부터 내면의 진리를 지각함을 의미한다. 그 나무의 꽃은 선으로부터 있는 내면의 진리를, 그 나무의 열매는 내면의 진리에서 파생되는 생활의 선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로 감복송아 나무가 예레미야서에서 말해진다. 가지란 힘을 말하며, 감복송아 가지란 내용물속에 든 진리를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천국의 신비」 제 6000항: “계시는 꿈, 밤중의 환상, 사람과 더불어 표현되는 언어, 사람 없이 보여 지는 천사의 언어 또는 보이지 않은 천사의 언어로 이뤄진다.”

「천국의 신비」 제 8408-3: “부글부글 끓는 술 물이란 거짓에 소유 당한 사람을 말한다. 북쪽이란 인간의 감각적이고 육적인 면을 의미하는데, 이로부터 악이 튀어나

온다. 교회의 끝이 여기서 다뤄지고 있다. 즉, 외적으로 감각적이고 육적인 것으로 치닫게 될 때 교회의 끝이 있다는 것이며 이들과 더불어 악과 거짓이 지배하게 된다. 그 이유는 주님의 교회가 내적인 것에서부터 외적인 것으로 진행된 다음 끝나기 때문이다.”

### 질문 정리

- 1) 예언자들은 메시지를 어디서 구했는가?
- 2) 그들은 무엇을 하도록 부름 받았는가?
- 3) 4개의 대 예언서는 무엇인가?
- 4) 이사야는 어느 시대에 예언했는가?
- 5) 예레미야는 어느 왕의 시대에 예언하기 시작했는가?
- 6) 주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그는 어떻게 대답했는가?
- 7) 주님은 그에게 뭐라고 답변했는가?
- 8) 주님은 무슨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는가?
- 9) 예레미야가 가진 첫 환상은 무엇인가?
- 10) 주님은 그 환상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말씀하셨는가?
- 11) 그의 두 번째 환상은 무엇인가?
- 12) 그 환상의 의미는 무엇인가?
- 13) 예레미야는 어떤 비극을 목격했는가?
- 14) 애가서는 무엇에 관한 것인가?
- 15) 예레미야는 어떤 나라에서 예언의 직무를 수행했는가?
- 16) 그는 나중에 어떤 나라에서 더 예언했는가?
- 17) 그는 어떻게 이집트로 가게 되었는가?
- 18) 에제키엘과 다니엘은 어디에서 예언했는가?
- 19) 그들은 어떻게 바빌론으로 가게 되었는가?

### 질문의 답

- 1) 주님으로부터 온 환상이나 꿈 등을 통해서 2) 사람들에게 그들의 악을 경고하고 선을 행하게 하려고
- 3) 이사야, 예레미야, 예제키엘, 다니엘 4) 히즈키야왕의 시대 5) 요시아왕의 시대
- 6) “저는 아이라서 말을 잘 못합니다” 7) “나는 이렇게 나의 말을 너의 입에 담아 준다” 8) “뿔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고 헐어버리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9) 감복송아 가지 10) “나도 내 말이 이루어지는가 이루어지지 않는가 지켜보리라” 11) 북쪽에서 쏟아져 내리려 하는 부글부글 끓는 술물 12) “북녘에서 재앙이 쏟아져 내리리라” 13) 바빌론의 침공 14) 예루살렘의 몰락을 슬퍼함
- 15) 유다왕국 16) 이집트 17) 그의 의사와는 달리 반역적인 백성들에 의해 끌려감
- 18) 바빌론 19) 포로로 끌려감

## 23

### 에제키엘의 환상

#### 머리말

대 예언서의 배경을 재고하며 공부를 시작한다. 4권의 대 예언서의 이름 정도는 기억해야 할 것이다. 또한 예언자의 직무와 네 권의 책을 대(Major) 예언서라고 이름 한 이유도 알아본다.

#### 성 서 본 문: 에제키엘 1장

1장: 1. 삼십년 되던 사월 오일이었다. 그 때 나는 그밭강 가에서 포로들 속에 끼어 있다가 하늘이 열리며 나타나는 신비스런 광경의 발현을 보게 되었다. 2. 그 달

오일은 바로 여호야긴왕이 사로잡혀 온 지 오년째 되는 날이었다. 3. 그 날 보자의 아들 예제키엘 사제가 바빌론의 그밭강 가에서 야훼의 말씀을 받았다. 거기에서 그는 야훼의 손에 잡혔던 것이다. 4. 그 순간 북쪽에서 폭풍이 불어오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구름이 막 밀려오는데 번갯불이 번쩍이어 사방이 환해졌다. 그 한가운데에는 불이 있고 그 속에서 놋쇠 같은 것이 빛났다. 5. 또 그 한가운데는 짐승 모양이면서 사람의 모습을 갖춘 것이 넷 있었는데 6. 각각 얼굴이 넷이요 날개도 넷이었다. 7. 다리는 곧고 발굽은 소 발굽 같았으며 닦아 놓은 놋쇠처럼 윤이 났다. 8. 네 짐승 옆구리에 달린 네 날개 밑으로 사람의 손이 보였다. 넷이 다 얼굴과 날개가 따로따로 있었다. 9. 날개를 서로서로 맞대고 가는데 돌지 않고 곧장 앞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었다. 10. 그 얼굴 생김새로 말하면, 넷 다 사람 얼굴인데 오른쪽에는 사자 얼굴이 있었고 왼쪽에는 소 얼굴이 있었다. 또 넷 다 독수리 얼굴도 하고 있었다. 11. 날개를 공중으로 펴서 두 날개를 서로 맞대고, 두 날개로는 몸을 가리 우고 12. 돌지 않고 앞으로 날아가는데, 바람 부는 쪽을 향해 곧장 앞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었다. 13. 그 동물들 한가운데 활활 타는 숯불 같은 모양이 보였는데 그것이 마치 햇불처럼 그 동물들 사이를 왔다갔다하고 있었다. 그 불은 번쩍번쩍 빛났고, 그 불에서 번개가 튀어 나왔다. 14. 그 불은 번개처럼 이리 번쩍 저리 번쩍 하였다. 15. 그 짐승들을 바라보자니까, 그 네 짐승 옆 땅바닥에 바퀴가 하나씩 있는 게 보였다. 16. 그 바퀴들은 넷 다 같은 모양으로 감람석처럼 빛났고 바퀴 속에 또 바퀴가 있어서 돌아가듯 되어 있었는데 17. 이렇게 사방 어디로 가든지 떠날 때 돌지 않고 갈 수 있게 되어 있었다. 18. 그 네 바퀴마다 불쑥 솟은 데가 있고 그 들레에는 눈이 하나 가득 박혀 있었다. 19. 그 짐승들이 움직이면 옆에 있던 바퀴도 움직이고 짐승들이 땅에서 떠오르면 바퀴도 떠올랐다. 20. 그 짐승들은 바람 부는 쪽으로 움직였는데 바퀴에는 짐승의 기운이 올라 있어서 바퀴도 함께 떠올랐다. 21. 그 바퀴에는 짐승의 기운이 올라 있어서 짐승들이 움직이면 바퀴들도 움직이고 짐승들이 멈추면, 바퀴들도 멈추었다. 짐승들이 땅에서 떠오르면, 바퀴들도 함께 떠올랐다. 22. 그 짐승들의 머리 위에는 창공 같은 덮개가 수정같이 환히 빛나며 머리 위에 펼쳐져 있었다. 23. 그 창공 밑에서 짐승들은 날개가 서로 맞닿게 두 날개를 펴고 나머지 두 날개로는 몸을 가리 우고 있었다. 24. 짐승들이 나느라고 날개를 치면 그 날개



치는 소리가 큰 물소리 같았고 전능하신 분의 음성 같았으며 싸움터에서 나는 고함소리처럼 요란하였다. 그러다가 멈출 때에는 날개를 접었다. 25. 머리 위에 있는 덮개 위에서 소리가 나면 날개를 접었다. 26. 머리 위 덮개 위에는 청옥 같은 것으로 된 옥좌같이 보이는 것이 있었다. 높이 옥좌 같은 것 위에는 사람 같은 모습이 보였다. 27. 그 모습은 허리 위는 놋쇠 같아 안팎이 불처럼 환했고, 허리 아래는 사방으로 뻗는 불빛처럼 보였다. 28. 사방으로 뻗는 그 불빛은 비 오는 날 구름에 나타나는 무지개처럼 보였다. 마치 야훼의 영광처럼 보였다. 그것을 보고 땅에 엎드리자, 말소리가 들려 왔다.

### 교리 요약

- \* 우리가 진리를 사용할 자세를 갖추지 않으면, 주님은 우리로부터 진리를 감추신다.
- \* 예언자의 환상은 당대 유대인을 위한 메시지였으나 오늘날의 우리들에게도 깊은 의미를 준다.
- \* 우리는 하느님의 섭리의 과정을 합리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 \* 죄란 나쁜 것인 줄 알면서도 행하는 것이다.

### 해설

여러분은 거룩(Cherubim)들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 히브리어에서 [-im]은 복수를 나타낸다. 따라서 cherubim이란 cherubs 이다. 거룩들은 성경에서 수차례 언급되고 있다. 경이롭고 상징적인 에덴의 동산 이야기에서 아담과 이브가 불순종하여 동산 밖으로 쫓겨났을 때 주님은 생명의 나무에 이르는 길의 입구에 불칼을 두시고 거룩들을 놓아 두셨다. 또한 주님은 그분의 명령에 따라 퀘의 윗부분을 덮은 속죄판 위에 두 개의 금으로 된 거룩의 상을 세워 놓도록 분부하셨다. 그러나 거룩들은 우리가 그림으로 그려낸 것과는 다를 것으로 사료된다.

예언자 에제키엘은 유다의 사제였다. 그는 느부갓네살왕이 유다왕국을 정복하고 많은 백성들이 포로가 된 상황에 속해 있었다. 그는 갈대아로 끌려가 그발 강가에서

살았는데, 주님께서 5년 후에 예언자가 되도록 그를 부르셨다. 약 20년이 넘게 지난 후 환상들과 포로 된 백성들에게 전할 예언의 말씀이 그에게 주어졌다. 본문은 그에게 주어진 첫 환상을 기술하고 있다.

본문에서는 단어 거룩들(Cherubim)이 사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제 10장에서 에제키엘은 살아있는 생물에 관한 또 하나의 환상을 갖게 되었고 그 생물들을 거룩들이라고 불렀다. 이리하여 거룩들이란 환상 속에 나타나는 이상한 생물, 즉 4개의 얼굴과 날개 아래에 손을 가졌고 빛나는 놋쇠와 같이 번쩍거리는 발과 그리고 양 옆에 눈(eyes)으로 꼭 찬 큰 바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물질세계에서는 이와 같은 사람 또는 동물이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거룩들은 실제적인 존재가 아니라 주님께서 에제키엘에게 알려주시기 원했던 어떤 것과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는 어떤 것에 대한 상징적 표현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거룩들이란 우리 위에 군림한 하느님의 섭리가 우리의 행동을 보면서 선이 보호될 수 있도록 이 세상의 지극히 작은 것까지도 지키고 수호하는 것과 우리가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지를 스스로 생각하며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배려하시되 매 순간까지도 섭리하시는 모든 작용을 표현한다. 이 환상은 시종일관 전능하신 주님이 얼마나 가깝게 에제키엘에게 계시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에제키엘의 영의 눈앞에서 마치 입체영화의 한 장면처럼 보여 주셨다. 에제키엘은 이러한 장면을 본 뒤 자신의 입에 담아 주는 주님의 말씀을 주저하지 않고 말했다.

#### 참고 문헌 -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계시록 설명」 제 600-1항: “사람과 사자의 얼굴은 오른쪽에서 보였다. 그 이유는 사람이 총명과 빛 안에 있는 신성한 진리를 의미하고 사자가 신성한 진리로부터 나오는 권능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천국이 남쪽에 위치한 천국이다. 소의 얼굴은 왼쪽에서 보였다. 이는 희미한 가운데 있는 선, 즉 진리의 선을 의미한다. 그 이유는 소는 자연적 인간의 선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천국의 북쪽에 사는 이들은 희미한 가운데 있다.

「천국의 신비」 제 3901-5항: “독수리 얼굴이란 용의 주도함을 의미하는데, 이는

주님의 섭리가 용의주도하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에제키엘에서 생물로 표현된 거룩함이 주님의 섭리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주님의 섭리란 인간이 믿음의 신비 속으로 들어오되 자신 혹은 자신의 합리성을 사용하여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시는 섭리를 말한다. 이러한 의미는 사람의 얼굴이라고 서술될 때 볼 수 있는데, 이는 독수리가 내적 의미로 합리성을 뜻하기 때문이다. 독수리가 합리성을 뜻하는 이유는 독수리가 높이 날아올라 지상의 사물들을 폭넓고 정확하게 포착하기 때문이다.

### 질문 정리

- 1) 4명의 대 예언자는 누구인가?
- 2) 이사야와 예레미야는 어디에서 예언했는가?
- 3) 에제키엘과 다니엘은 어디에서 예언했는가?
- 4) 에제키엘은 예언의 직분 외에 어떤 직책을 가졌는가?
- 5) 에제키엘은 포로가 된 후 어디에서 살았는가?
- 6) 주님은 그가 예언자가 되었음을 어떻게 보여주셨는가?
- 7) 그가 본 생물은 몇 이었는가?
- 8) 생물들은 몇 개의 얼굴을 가졌는가?
- 9) 생물들의 얼굴은 어떤 모양이었는가?
- 10) 생물들의 다리(발)는 어떠하였는가?
- 11) 생물들은 날개 밑에 무엇을 가지고 있었는가?
- 12) 생물은 자기 옆 땅바닥에 무엇을 가지고 있었는가?
- 13) 바퀴들은 어떻게 이동했는가?
- 14) 날개 소리는 무엇 같았는가?
- 15) 에제키엘은 생물 위에 무엇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는가?
- 16) 옥좌 위에 누가 계셨는가?
- 17) 에제키엘은 후에 이 생물들을 무엇이라고 불렀는가?
- 18) 거룩들에 관한 구절은 어디에서 볼 수 있는가?
- 19) 거룩들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 질문의 답

1) 이사야, 예레미야, 예제키엘, 다니엘 2) 유다 3) 바빌론 4) 사제 5) 그발 강가에서 6) 환상 7) 넷 8) 사람, 사자, 소, 독수리 10) 다리는 곧고 발굽은 소 발굽 같았으며 닦아 놓은 놋쇠처럼 윤이 났다 11) 사람의 손 12) 바퀴 13) 생물과 더불어 움직였다 14) 큰 물소리 같았고 전능하신 분의 음성 같았으며 싸움터에서 나는 고향소리처럼 요란하였다 15) 옥좌 16) 주님 17) 거룩들 18) 에텐의 동산, 증거궤 19) 거룩한 것이 모독되는 것을 보호하시고자 하는 신성한 섭리

# 24

## 소 예언서에 관하여

### 머리말

본과에서는 예언서를 탐사할 것이다. 대 예언서와 소 예언서의 차이점과 성경에서 예언서들의 위치를 기억하기 바란다. 그리고 예언자란 주님을 대변하는 사람들이라는 것과 예언자들의 메시지의 흐름도 언급한다.

### 성서 본문: 요엘 4장 9-20절 (개역 성경 3:9-21)

4장: 9. “너희는 못 민족을 불러 전쟁을 선포하여라. 장사들을 불러 모으고 군인들을 총동원하여 쳐 올라오너라. 10.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어라. 나약한 자들까지 ‘나는 용사다’라고 외쳐라. 11. 그리고 빨리 오너라. 사방에 있는 민족들은 모두 그리로 모여라.” 야훼여, 당신의 용사들을 보내 주소서. 12. “못 민족은

떨쳐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오너라.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방 모든 민족을 심판하리라. 낮을 대어라. 13. 곡식이 익었다. 와서 밟아라. 포도주 술틀이 찼다. 독이 차 넘친다. 못 민족의 악이 이토록 극에 달하였다.” 14. 타작 수레 골짜기에 사람들이 밀려들었다. 야훼께서 거둥하실 날이 다가 왔다. 15. 해와 달은 어두워지고 별들은 그 빛을 잃었다. 16. 야훼께서 시돈에서 고함치시고, 예루살렘에서 소리치시니, 하늘도 떨고 땅도 떠는구나. 그러나 야훼께서는 당신 백성의 은신처, 이스라엘 백성의 산채가 되시리라. 17. “그제야 너희는 알리라. 내가 야훼 너희 하느님으로서 거룩한 산 시온에 머무는 줄을. 예루살렘은 성소가 되어 다른 나라 사람이 아무나 지나가지 못하리라. 18. 그 날이 오면, 산마다 포도즙이 흐르고 언덕마다 젖이 흥건하리라. 유다의 모든 시내에 물이 넘쳐흐르고 야훼의 성전에서 샘물이 솟아 아카시아 골짜기를 적시리라. 19. 그러나 이집트는 썩밭이 되고 예돔은 허허벌판이 되리라. 억울한 유다 백성의 무고한 피를 쏟고 어찌 벌을 면할 수가 있으랴? 20. 내가 그 피 값을 보상하리니 아무도 그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 교리 요점

- \* 주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택에 따라 스스로를 심판한다.
- \* 성경을 읽으면 누구든지 성경이 하느님의 말씀임을 알게 된다. 또한 주님이 가르치는 바대로 살고자 하면 성경으로부터의 계발을 얻게 된다.
- \* 말씀에서 배운 진리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진정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다.
- \* 이기적인 것들은 들추어내서 자주 점검하지 않으면 더욱 더 이기적인 쪽으로 쏠려 버린다.

### 해설

우리는 산상설교를 통한 주님의 분부에 아주 친밀하다. 그중 하나가 “그러므로 재물을 하늘에 쌓아 두어라. 거기서는 좀먹거나 녹슬어 못쓰게 되는 일도 없고 도둑이

뚫고 들어와 훔쳐가지도 못한다.”라는 것이다(마태복음 6:20). 마가복음에는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라고 설명된다. 새교회에서는 지옥불이란 물질적인 불이 아니라 때로 우리가 피해를 당했을 때 우리에게 있는 것과 같이 어떤 문제로 속이 화끈 달아 오른 상태, 즉 속이 타는 것이 지옥불이라고 알고 있다. 죽지 않는 구더기란 흔한 예로 누군가가 시기심으로 가득하여 뭔가를 한 입에 덩석 챙겨 버리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시기심, 이기적인 탐욕 또는 분노라는 감정은 우리의 친절함, 이타심 또는 행복 등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도 남지 않을 때까지 해충처럼 먹어 치운다. 이러한 것이 예언자 요엘에 의해 “풀무치가 남긴 것은 메뚜기가 갹아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은 우리가 썰어 먹고 우리가 남긴 것은 황충이가 탕쳐 먹었다” (1:4)라고 말해 질 때 주님이 뜻하신 바다.

구약의 마지막 12권인 소 예언서들은 각기 짧지만 우리를 위한 실제적인 교훈으로 가득하다. 우리가 소 예언서들을 읽으면서 그 책이 오래 전 특정 국가나 백성들에게 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임을 인정한다면 그 속에서 주님의 가르침이 넘쳐흐르게 된다.

요엘은 주님의 날인 심판의 날이 우리 각자에게 확실히 있으리라고 경고한다. 그리고 심판의 날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것처럼 먼 훗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과 악 사이에서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를 결정할 때 마다 있어진다는 것이다. 즉, 우리가 일상 안에서 자만, 겸손, 친절, 불친절, 이기심 혹은 이타심 중에서 결정하는 선택이 바로 심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하루하루가 심판의 날로 우리는 영원히 간직하게 될 인격을 조금씩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요엘은 당장 우리속의 적들과 싸우라고 말한다. 그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어라. 나약한 자들까지 ‘나는 용사다’하고 외쳐라.”라고 말한다. 그리고 요엘은 날마다 존재하는 우리속의 모습을 기술하면서 “타작 수레(판결) 골짜기에 사람들이 밀려들었다. 야훼께서 거동하실 날이 다가 왔다.”라고 말한다.

앞서 언급된 구절을 배워 기억하면 매우 유익하리라고 생각된다. 자녀에게 그 구절을 가르치고 그것이 의미하는지 바를 설명해 주자.

### 참고 문헌 -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성경에 관한 교리」 제 57항: “계발은 주님으로부터만 비롯되는데, 이는 진리를 사랑하는 이들에게만 존재한다. 그 이유는 그들이 곧 진리로서 삶을 위해 진리를 선용하기 때문이다. 그 외의 사람들에게는 말씀에 대한 계발이 없다. 계발이 주님으로부터만 비롯된다고 단언한 이유는 말씀의 모든 사항 속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진리를 사랑하고 그것을 삶에 선용한 이들에게만 계발이 존재한다’라고 말한 이유는 그들 안에 주님이 거하시고 주님 안에 그들이 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님은 신성한 진리 그 자체인 분이시다. 그러므로 진리로 삶을 꾸리는 사람은 신성한 진리를 사랑하게 되어 그와 더불어 있게 되는 진리 안에 주님께서 존재하시므로 그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느님을 뵈게 될 것이다.’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말씀을 읽을 때 깨우침을 얻는 것을 의미한다.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진리의 빛을 비추고 말씀의 내용이 투명해져서 그들의 마음이 말씀의 속뜻을 볼 수 있게 되어 그러한 사람들이 하느님을 뵈게 된다는 말씀이다.”

### 질문 정리

- 1) 네 권의 대 예언서의 저자는 누구인가?
- 2) 소 예언서는 몇 권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 3) 왜 소 예언서라고 부르게 되었는가?
- 4) 소 예언서는 성경의 어느 부분에 위치하는가?
- 5) 우리는 그 책들이 영감된 것임을 어떻게 아는가?
- 6) 소 예언서의 첫 번째 책은 무엇인가?
- 7) 소 예언서의 마지막 책은 무엇인가?
- 8) 요엘서는 소 예언서의 몇 번째 책인가?
- 9) 요엘서는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 10) 요엘은 우리의 심정 속의 악들을 어떻게 묘사했는가?
- 11) 그는 마지막 심판을 어떻게 불렀는가?
- 12) “결정의 골짜기, 판결 골짜기, 타작 수레 골짜기”란 무엇을 뜻하는가?

- 13) 주님의 날에 악한 자들을 어디로 가게 되는가?
- 14) 주님의 날에 선한 자들을 어디로 가게 되는가?
- 15) 요엘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질문의 답**

1) 이사야, 예레미야, 예제키엘, 다니엘 2) 열 두 권 3) 각 책의 분량이 적기 때문 4) 구약 성서의 맨 끝부분 5) 각 책 모두 주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기 때문 6) 호세아 7) 말라기 8) 두 번째 9) 3장(공동번역 4장) 10) 해충 11) 주님의 날 12) 우리가 죽을 때 13) 우리의 일상생활 14) 지옥 15) 천국 16) 우리가 스스로 매일 선택하여 영원히 지니게 될 우리의 인격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 25

### 요나와 큰 물고기

**머리말**

먼저 소 예언서들의 배경을 살핀 후 요나서가 지니는 특성을 살펴본다.

**성서본문: 요나서 1, 2장**

1장: 1. 야훼의 말씀이 아미애의 아들 요나에게 내렸다. 2. “어서 저 큰 도시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죄악이 하늘에 사무쳤다고 외쳐라.” 3. 말씀을 받고도 요나는 야훼의



눈앞을 벗어나 다르심으로 도망가려고 길을 떠나 요빠로 내려갔다. 거기서 다르심으로 가는 배를 만나 배 샅을 내고 남들과 함께 배에 탔다. 야훼의 눈앞을 벗어날 셈이었다. 4. 그런데 야훼께서 바람을 일으키셨다. 태풍이 거세게 몰아쳐 배가 깨어질 지경이 되자, 5. 뱃사공들은 겁에 질려 저마다 저희의 신에게 부르짖으며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 안에 있는 짐을 바다에 던지기까지 하였다. 그런데도 요나는 배 밑창에 내려 가 누워 잠들어 있었다. 6. 선장이 와서 보고 야단쳤다. “이런 판국에 잠을 자다니! 너도 일어나 너의 신에게 부르짖어 보아라. 너의 신이 우리를 생각해서 행어나 살려 주실지 아느냐?” 7. 한편 사람들은 서로 의논한 끝에 “누구 때문에 이런 변을 당하는지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제비를 뽑기로 하고, 제비를 뽑아 보니 요나가 나왔다. 8. 사람들이 요나에게 물었다. “네가 무슨 짓을 했기에 우리가 이런 변을 당하느냐? 말하여라. 너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나? 어디에서 왔으며 고향과 국적은 어디냐?” 9. 그가 대답했다.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하늘을 내시고,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하느님 야훼를 공경하는 사람입니다.” 10. 그리고 자기는 야훼의 눈앞을 벗어나 도망치는 몸이라고 말하였다. 그제야 사람들은 곡절을 알고 어찌하여 그런 일을 했느냐며 몹시 두려워했다. 11. 바다는 거칠어져만 갔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다를 잔잔하게 하려면 너를 어떻게 해야 좋겠느냐?” 하고 요나에게 물었다. 12. 요나는 자기를 바다에 집어넣으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그래야 바다가 잔잔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태풍을 만난 것은 내 탓인 줄 압니다.” 13. 바다는 더욱더 기승을 부렸다. 사람들은 물결을 헤치고 육지로 되돌아가려고 애를 써 보았으나 허사였다. 14. 하는 수 없이 사람들은 야훼께 부르짖었다. “야훼님, 이 사람의 목숨을 희생시킨다고 우리를 멸하지는 마십시오. 우리에게 살인죄를 지우지 마십시오. 야훼께서 다 뜻이 있으시어 하시는 일 아니십니까?” 15. 그리고 나서 요나를 바다에 집어 던지자, 성난 바다는 잔잔해졌다. 16. 이것을 보고 사람들은 몹시 두려운 생각이 들어 야훼께 제물을 잡아 바친 후에 다시 서원제물을 드리기로 하였다.

2장: 1. 야훼께서는 큰 물고기를 시켜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 요나는 사흘 밤낮을 고기 뱃속에 있었다. 2.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느님 야훼께 기도를 올리니, 야훼께서는 그 물고기에게 명령하여 요나를 뱃속에서 내게 하셨다. 3. 요나가 입을 열었다.

“그 숨막히는 데서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죽음의 뱃속에서 살려 달라고 외쳤더니, 그 호소를 하느님께서 들어 주셨습니다. 4. 하느님께서 이 몸을 바다 속 깊이 던지셨습니다. 물결은 이 몸을 휩쌌습니다. 밀려 오다 부서지는 하느님의 물결이 제 위에서 넘실거렸습니다. 5. 하느님 계시는 성전 쪽으로는 두 번 다시 눈도 못 돌릴 줄 알았습니다. 6. 물은 목까지 차올랐고 깊은 바다는 이 몸을 휩쌌습니다. 머리는 갈대에 휘감겨 7. 저 땅 밑 뗏부리로 빠져 드는데, 땅은 빗장들을 영영 내려 버렸습니다. 야훼, 나의 하느님, 하느님께서 그 구렁에서 이 몸 살려 내셨습니다. 8. 정신이 가물가물하는데도 야훼님을 잊지 않고 빌었더니 그 기도가 하느님 계시는 거룩한 궁전에, 하느님 귀에 다다랐습니다. 9.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하느님을 저버리지만, 10. 저만은 이 고마움을 아뢰며, 서원한 제물을 드리렵니다. 저를 구해 주실 이 야훼밖에 없습니다.”

### 교리 요점

- \* 우리의 마음이 단혀서 배움을 거절하게 되면, 주님은 우리에게 힘든 일이 오는 것을 허용하신다.
- \* 교리란 말씀을 이해하는 바른 방법의 또 다른 이름이다.
- \* 상대방이 자신과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 해설

요나서는 사람들의 부주의한 말장난으로 인해 그 속에 담긴 경이로운 교훈들이 감춰지기도 한다. 요나는 기적에 의해 구원되었다. “야훼께서는 큰 물고기를 시켜 요나를 삼키게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우리가 하느님이 만물의 창조자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이 새로운 것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지휘하고 통제하실 수 있으심을 확신할 것이다.

요나는 이스라엘 왕국이 아시리아에 의해 점령되기 전 약 75년간 이스라엘 왕국에 있었던 예언자다. 사실 당시 아시리아는 적으로 인식되어 있었다. 주님께서 요나에게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그곳의 사악함을 그 나라 백성들에게 말하라고 명령했을 때 그가 주님께 순종하기를 원치 않았던 것은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우리는 때로 주님의 뜻대로 행하기 원하지만, 주님의 뜻하는 바를 알면서도 행하기를 원치 않을 때가 허다하다. 우리는 요나와 같이 우리의 의무로부터 도피한다. 주님께서 요나의 이야기를 말씀에 놓아두신 이유는 도피만이 최선이 아님을 가르치시기 위함이다. 즉, 우리가 자신의 능력으로 어떤 문제의 해결점을 찾지 못하여 그 문제를 멀리하는 것은 우리에게 좋지 않다는 말이다. 우리는 어떤 것을 주님이 보시지 못하게 감추거나 스스로 보지 못하게 감추어 놓을 수 없다. 우리가 진실로 선한 인격을 가지려면, 우리는 자신 속의 결점을 발견한 후 그것을 제거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결점을 제거해내는데 몸부림치는 시기를 겪게 된다. 이러한 몸부림은 요나가 사흘 밤낮을 고기 뱃속에 있는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다. 요나는 “물은 목까지 차 올랐고 깊은 바다는 이 몸을 휩쌌습니다. 머리는 갈대에 휘감겨..”라고 말한다. 이러한 표현은 마치 우리가 깊은 심정 속의 나쁜 감정과 싸울 때 느끼기도 하는 방법을 묘사했다는 생각이 들게 한다. 그러나 주님은 결국 요나를 사경으로부터 구해주셨다. 그는 곤경으로 인해 자신 속의 결점을 볼 수 있었으므로 곤경에 처한 것까지도 주님께 감사했다. 그리하여 그는 주님이 행하라고 하신 것을 할 수 있었다.

### 참고 문헌 - 스웨덴본의 저서에서

「영의 일기」 제 1391항: “저 세상 삶에서의 표현들이 이 세상에서 실재한다는 것, 더욱이 유사한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실지 지상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이 영적인 것들을 의미할 수밖에 없도록 요나가 고래에 의해 삼켜졌던 것과 같은 일들이 이 세상에서 실지 발생했다. 이집트에서의 기적들 또는 기적이라 불리는 많은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이다. (이 일기는 1748년 3월, 천국의 신비 제 1권이 출판되기 전 해에 쓰여 졌다.)

### 질문 정리

- 1) 우리가 공부하는 소 예언서는 어느 책인가?
- 2) 요나는 언제 어디서 예언했는가?
- 3) 어느 성경책의 구절에서 요나의 신변이 확인되는가?
- 4) 주님은 요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는가?
- 5) 니느웨는 어디에 있는가?
- 6) 왜 요나는 순종하고 싶지 않았는가?
- 7) 그는 어떻게 순종을 피하려고 했는가?
- 8) 그가 탄 배는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 9) 선원들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를 어떻게 알기로 했는가?
- 10) 요나는 선원들에게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 말했는가?
- 11) 그가 바다에 던져지자 어떠했는가?
- 12) 요나는 고기 뱃속에서 며칠간 있었는가?
- 13) 요나의 기도 종류는 무엇인가?
- 14) 그는 기도에서 어떤 약속을 했는가?
- 15) 그는 고기 뱃속에서 내뱉어지자 무엇을 했는가?
- 16)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 17) 주님은 이 이야기가 무엇을 그린다고 말씀하셨는가?

#### 질문의 답

- 1) 요나(다섯 번째 책) 2) 이스라엘 왕국, 여로보암 2세 때 3) 열왕기하 14:25
- 4) 니느웨에 가서 예언하라 5) 아시리아의 수도 6) 너무 거만해서
- 7) 니느웨와 반대 방향으로 가는 배를 탐으로써 8) 폭풍을 만났다 9) 제비를 뽑아서
- 10) 요나를 바다에 던져라 11) 잠잠해졌다 12) 3일 13) 감사기도
- 14) 하느님께 순종하기로 15) 니느웨로 갔다
- 16) 자신의 의무를 회피하지 말 것과 자신에게 닥친 곤경을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말라는 것 17)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 26

# 주님의 세례

### 머리말

성경에 네 복음서가 있음을 강조한다. 그리고 네 복음서는 네 명의 각기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삶에 대한 가르침이라는 사실도 강조한다.

### 성 서 본 문: 마가복음 1장

1장: 1.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시작. 2.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이제 내가 일꾼을 너보다 먼저 보내니 그가 네 갈 길을 미리 닦아 놓으리라” 하였고, 3. 또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들린다. ‘너희는 주의 길을 닦고 그의 길을 고르게 하여라’”고 기록되어 있는대로  
4.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서 나타나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그리하면 죄를 용서받을 것이다” 하고 선포하였다. 5. 그 때 온 유다 지방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그에게 와서 죄를 고백하며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 6.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두르고 메뚜기와 들 꿀을 먹으며 살았다. 7. 그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다. “나보다 더 훌륭한 분이 내 뒤에 오신다. 8.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9. 그 무렵에 예수께서는 갈릴래아 나자렛에서 요르단강으로 요한을 찾아 와 세례를 받으셨다. 10.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며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당신에게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11. 그 때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하는 소리가 들려 왔다. 12. 그 뒤에 곧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보내셨다. 13. 예수께서

는 사십 일 동안 그 곳에 계시면서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그 동안 예수께서는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분의 시중을 들었다.

14.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래아에 오셔서 하느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15. “때가 다 되어 하느님의 나라가 다가 왔다.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어라” 하셨다.  
16. 예수께서 갈릴래아 호숫가를 지나가시다가 호수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어부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를 보시고  
17. “나를 따라 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18.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 갔다. 예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제베대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20. 부르시자 그들은 아버지 제베대오와 샹꾼들을 배에 남겨 둔 채 예수를 따라 나섰다.  
21. 예수의 일행은 가파르나움으로 갔다. 안식일에 예수께서는 회당에 들어 가 가르치는데 22. 사람들은 그 가르치심을 듣고 놀랐다. 그 가르치시는 것이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23. 그 때 더러운 악령 들린 사람 하나가 회당에 있다가 큰 소리로 24. “나자렛 예수님, 어찌하여 우리를 간섭하시려는 것입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당신은 하느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이십니다” 하고 외쳤다. 25. 그래서 예수께서 “입을 다물고 이 사람에게서서 나가거라” 하고 꾸짖으시자 26. 더러운 악령은 그 사람에게 발작을 일으켜 놓고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 갔다. 27. 이것을 보고 모두들 놀라 “이게 어찌 된 일이나? 이것은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그의 명령에는 더러운 악령들도 굴복을 하는구나!” 하며 서로 수군거렸다. 28. 예수의 소문은 삼시간에 온 갈릴래아와 그 근방에 두루 퍼졌다. 29. 얼마 뒤에 예수께서 회당에서 나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아의 집에 들어 가셨다. 30. 때마침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 사정을 예수께 알렸다. 31. 예수께서 그 부인 곁으로 가서 손을 잡아 일으키시자 열이 내리고 부인은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32. 해가 지고 날이 저물었을 때에 사람들이 병자와 마귀 들린 사람들을 모두 예수께 데려 왔으며 33. 온 동네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 들었다. 34. 예수께서는 온갖 병자들을 고쳐 주시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시며 자기 일을 입 밖에 내지 말라고 당부하셨다. 마귀들은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35. 다음 날 새벽 예수께서는 먼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 외딴 곳으로 가시어

기도하고 계셨다. 36. 그 때 시몬의 일행이 예수를 찾아다니다가 37. 만나서 “모두들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38.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 근방 다음 동네에도 가자. 거기에서도 전도해야 한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하고 말씀하셨다. 39. 이렇게 갈릴래아 지방을 두루 찾아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며 마귀를 쫓아내셨다. 40. 나병환자 하나가 예수께 와서 무릎을 꿇고 애원하며 “선생님은 하고자만 하시면 저를 깨끗이 고쳐 주실 수 있습니다” 하고 말씀드렸다. 41. 예수께서는 측은한 마음이 드시어 그에게 손을 갖다 대시며 “그렇게 해 주겠다. 깨끗하게 되어라” 하시자 42. 그는 곧 나병 증세가 사라지면서 깨끗이 나왔다. 43. 예수께서 곧 그를 보내시면서 44.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다만 사제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네가 깨끗해진 것을 그들에게 증명하여라.” 하고 엄하게 이르셨다. 45. 그러나 그는 물러가서 이 일을 널리 선전하며 퍼뜨렸기 때문에 그 때부터 예수께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동네에서 떨어진 외딴 곳에 머물러 계셨다. 그래도 사람들은 사방에서 예수께 모여 들었다.

### 교리 요점

- \* 주님이 유대인들에게 오신 이유는 그들에게 말씀이 있었고 그들이 거룩한 땅에 살았기 때문이다.
- \* 세례자 요한은 말라기서의 예언을 성취시켰고 신, 구약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했다.
- \*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기에 앞서 우리 안에 들어있는 악들을 인식하고 인정하여 그것들을 죄처럼 멀리해야 한다.
- \* 진실로 선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만이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다.

### 해설

총 4년간 공부함을 목적으로 하는 바이블 스터디 노트는 매년마다 신약 성서의 네 복음서 중 하나를 공부하도록 되어있다. 제 2년 째는 마가복음이다. 네 복음서

모두는 주님으로부터 온 영감에 의해 쓰인 것이다. 즉, 주님이 구약시대의 예언자들에게 하셨던 바대로 복음서의 각 저자들에게 주님의 영감이 임해 그들이 받아쓰도록 하신 것이다. 하지만 주님은 무조건적으로 받아쓰게 하신 것이 아니라 복음서의 저자들의 마음 안에 있었던 사실과 말들을 사용하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셨다. 그래서 네 복음서는 각기 다른 견해를 보이면서도 합쳐 놓으면 하나의 완전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마가는 주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 없이 주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공적인 출현으로 시작된다. 네 복음서 모두는 세례자 요한이 구약의 말라기서 예언에서 약속하신 전달자이며 이사야서에서 기록된 주님의 길을 예비하시기 위해 그분 앞에 나선 전달자라고 간증한다. 스웨덴북에 따르면, 세례자 요한이 준비한 주님의 길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도 아주 중요하다고 한다. 영적 의미로 볼 때 주님의 길은 곧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받아드릴 수 있는 올바른 상태로 준비됨을 뜻한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이타적이며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나쁜 것들을 보고 인정하여 그것들을 치워 버리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세례자 요한을 영접하는 백성들이 상징하는 것이며,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 상태를 의미한다. 이렇게 준비된 사람만이 지성과 심정의 문을 열어 주님을 인식하고 환영하게 되는 것이다.

물세례란 주님에게서 온 진리로 자신의 영혼을 정화시키기를 바라는 것을 상징한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물세례를 받으셨고 이로 인해 물세례는 기독교인임을 상징하는 표시가 되었다. 그리고 후에 제자들에게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명하셨다. 세례란 어른의 경우 주님의 진정한 추종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어린이나 유아 세례의 경우는 이들이 장차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양육하기를 바란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따를 것을 바라고 이에 대한 의지를 당당하게 드러낼 때 우리의 심정과 지성의 문이 열려 그분이 들어오실 준비가 되는 것이다.

#### 참고 문헌 -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천국의 신비」 제 10559-3항 : “태고시대로부터 가나안 땅에 교회가 있어서 왔다. 그래서 말씀은 그 땅 외의 지역에서는 이뤄질 수 없었던 것이다. 교회는 말씀이 존재하는 곳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 말씀이 그 외의 지역에서 이뤄질 수 없었던 이유는 가나안 땅 전체, 즉 그 곳의 산, 계곡, 평야, 강과 숲 등이 천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표현했기 때문이다.”

「진정한 기독교」 제 144항: 비둘기가 내려오에 관해서: “이는 세례가 거듭남과 순수해짐을 의미하기 때문에 거행되었다. 비둘기가 성령이 아니라고 할 자가 누가 있을까? 그리고 누가 성령이 비둘기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 비둘기는 천국에서도 종종 나타난다. 그리고 비둘기가 나타날 때면, 천사들은 언제나 비둘기가 그들 가까이 에 있는 누군가의 거듭남과 순수해짐에 관련된 애착과 생각에 상응함을 알고 있다.”

### 질문 정리

- 1) 구약성서의 전체 이야기는 무엇에 관한 것인가?
- 2) 신약성서의 시작은 어떤 사건으로 특정 지워 구분되는가?
- 3) 왜 유대인들이 바빌론으로 귀환하도록 허용되었는가?
- 4) 어떤 세 명의 예언자가 귀환 후 예언했는가?
- 5) 예언 중 마지막 예언의 책은 무엇인가?
- 6) 말라기의 예언 후 주님이 탄생하실 때까지는 몇 년이 지났는가?
- 7) 그 기간 동안의 이야기는 왜 말씀에 기록되지 않았는가?
- 8) 복음서는 몇 권인가?
- 9) 주님은 왜 그분의 생애에 관한 사건을 몇 권에 걸쳐 우리에게 주셨는가?
- 10) 마르코는 에 대해 아는 것을 말해보자.
- 11) 마르코는 주님의 생애 중 어느 시절부터 기록했는가?
- 12) 세례자 요한은 어떤 예언자의 예언을 성취시켰는가?
- 13) 그는 어디서 살았는가?
- 14) 그는 무슨 옷을 입고 있었는가?
- 15) 그의 음식은 무엇이었는가?

- 16) 그의 메시지는 무엇이었는가?
- 17) 세례는 무엇을 표현하는가?
- 18) 누가 나자렛으로부터 세례 받으러 왔는가?
- 19) 주님이 세례 받으시자마자 어떤 징조가 있었는가?
- 20) 하늘로부터의 소리는 무엇이었는가?
- 21) 주님이 제자라고 부른 첫 네 사람은 누구인가?

#### 질문의 답

- 1) 이스라엘의 역사 2)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3) 가나안에 유대주의의 재건설
- 4) 하깨, 즈가리야, 말라기 5) 말라기 6) 약 사 백년 7) 예언이 없었기 때문
- 8) 네 권 9) 상호 보충해 주기 때문 10) 히브리 이름은 요한이며 그의 어머니는 기독교인이었음, 베드로와 함께 여행했음 11) 주님의 세례 12) 말라기의 예언
- 13) 광야 14) 낙타 털옷, 가죽 허리띠 15) 메뚜기와 들꿀 16) 회개하라
- 17) 주님의 진리로 삶을 깨끗하게 살아냄 18) 예수 19)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옴
- 20)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21) 시므온 베드로, 안드레아, 야고보, 요한

# 새 포도주

## 머리말

본장을 공부하기에 앞서 마가복음 1장의 내용을 상기해 본다. 기적들에 관한 것과 주님의 공생애는 설교와 가르치심 그리고 병 고치심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재 언급한다. 그리고 신체적인 병을 고치는 것은 인간의 영혼을 치료하시기 위한 그분의 능력의 표시임을 설명한다.

## 성 서 본 문: 마가복음 2장

2장: 1. 며칠 뒤에 예수께서는 다시 가파르나움으로 가셨다. 예수께서 집에 계시다는 말이 퍼지자 2. 많은 사람이 모여 들어 마침내 문 앞에까지 빈틈없이 들어섰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셨다. 3. 그 때 어떤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들고 왔다. 4. 그러나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께 가까이 데려 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예수가 계신 바로 위의 지붕을 벗겨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를 요에 얹힌 채 예수 앞에 달아내려 보냈다. 5.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하고 말씀하셨다. 6. 거기 앉아 있던 율법학자 몇 사람이 속으로 7. “이 사람이 어떻게 감히 이런 말을 하여 하느님을 모독하는가? 하느님 말고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하며 중얼거렸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알아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느냐? 9. 중풍병자에게 ‘너는 죄를 용서 받았다’하는 것과 ‘일어나 네 요를 걷어 가지고 걸어 가거라’ 하는 것과 어느 편이 더 쉽겠느냐? 10. 이제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이 사람의 아들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 주겠다.” 그리고 나서 중풍병자에게 11. “내가 말하는 대로 하여라. 일어나 요를 걷어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하고 말씀하셨다. 12. 중풍병자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벌떡 일어나 곧 요를 걷어 가지고 나갔다. 그러자 모두들 몹시 놀라서 “이런 일은 정말 처음 보는 일이다”하며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13. 예수께

서 다시 호숫가로 나가셨다. 13. 군중도 모두 따라 왔으므로 예수께서는 그들을 가르치셨다. 14. 그리고 그 후에 길을 가시다가 알패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라 오너라”하고 부르셨다. 그러자 레위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 나셨다. 15. 어느 날 예수께서는 레위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게 되었다.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 중에는 세리와 죄인들도 많았는데 그 중 여럿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16. 바리사이파의 율법학자들은 예수께서 죄인이며 세리들과 한 자리에서 음식을 나누시는 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저 사람이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 같이 음식을 나누고 있으니 어찌된 노릇이요?”하고 물었다. 17.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성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자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하고 대답하셨다. 18.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단식을 하고 있던 어느 날,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사이파 사람의 제자들은 단식을 하는데 선생님의 제자들은 왜 단식을 하지 않습니까?”하고 물었다. 19.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잔칫집에 온 신랑 친구들이 신랑이 함께 있는 동안에야 어떻게 단식을 할 수 있겠느냐? 신랑이 함께 있는 동안에는 그럴 수 없다. 20. 그러나 이제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온다. 그 때에 가서는 그들도 단식을 하게 될 것이다.” 21. “낡은 옷에 새 천조각을 대고 깎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낡은 옷이 새 천조각에 썩겨 더 찢어지게 된다. 22. 또 낡은 가죽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는 사람도 없다.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도 부대도 다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23. 어느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를 지나 가시게 되었다. 그 때 함께 가던 제자들이 밀이삭을 자르기 시작하자 24.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예수께 “보십시오, 왜 저 사람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습니까?”하고 물었다. 25. 예수께서는 이렇게 반문하셨다. “너희는 다윗의 일행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렸을 때에 다윗이 한 일을 읽어 본 적이 없느냐? 26. 에비아달 대사제 때에 다윗은 하느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단에 차려 놓은 빵을 먹고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도 주었다. 그 빵은 사제들밖에는 아무도 먹을 수 없는 빵이 아니었더냐?” 27. 예수께서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28. 따라서 사람의 아들은 또한 안식일의

주인이다.”

### 교리 요점

- \* 주님은 영적인 교훈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기적들을 행하셨다.
- \* 주님은 율법에 대한 유대인들의 자기중심적 해석에 대해서만 파격을 보이셨다.
- \* 인간이 기적으로 고쳐지려면 믿음이 먼저 있어야 한다. (Faith had to be present if a man was to be healed by a miracle)
- \* 안식일에 선을 행함은 옳은 일이다.

### 해설

주님의 공생에는 세 가지로 구성된다. 즉, 설교와 가르침 그리고 병을 치유하심이다. 주님은 회당을 비롯한 많은 장소들에서 설교하셨는데, 특별히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는 한적하고 조용한 장소에서 하셨다. 그리고 주님은 가시는 곳마다 온갖 종류의 병들을 고치셨다. 아마도 당대 유대 백성들에게는 병을 치유하시는 능력이 그분의 일중 가장 중요하고 큰 것으로 여겨졌을 것이다. 이는 우리가 육체를 가장 중요하게 여길 때와도 비슷하다. 그러나 주님의 이러한 기적들은 내적으로는 우리를 위하여 더 중요한 것, 즉 우리의 영혼을 아프게 하는 잘못된 사고와 이기적인 욕망을 제거하는 일을 행하심을 의미한다. 그래서 본문의 중풍병자란 의를 행할 마음은 있으나 의를 행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에 놓인 상태를 표현한다. 주님께서 기적의 이야기 속에서 보여 주시는 것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우리가 자신의 악함과 과오들을 보고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우리가 그것들을 용서받기를 진심으로 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바른 길로 걸어가기 위한 노력을 삶을 통해서 전심전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바리사이파사람과 율법학자들은 주님께 의하여 위선자들과 불렀다. 그 이유는 그들이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고 따르는 척했으나 그들의 속은 자만과 남을 경멸하는 마음 그리고 이기적인 것으로 가득했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새 포도주란

남을 진심으로 섬기는 이타적인 사랑을 담은 새로운 진리를 의미한다. 이 새로운 진리는 바리사이파인과 율법 학자들이 백성들에게 지워놓은 짐, 즉 그들의 이기심으로 만들어진 복잡하고 쓸데없는 규정들안에는 담아질 수 없었다. 그러므로 그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주님이 계명을 어긴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새로운 진리를 받아들이는데 방해되는 인간들의 이기심이 만들어낸 규칙들을 주님께서 버리신 것이다. 주님은 율법을 지킬 것을 강조하셨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하느님께서 만든 것이라고 선포하셨다. 안식일은 6일 동안 생계를 위해 치열하게 살던 세상의 삶을 잠시 한쪽으로 치워놓고 영원히 간직하게 될 진정으로 중요한 일들을 곰곰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의 날이다. 우리의 몸이 휴식을 필요로 하듯이, 우리의 영혼도 주님 안에서의 휴식을 필요로 한다. 우리의 영혼은 육체가 물질의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영적 양식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안식일은 우리가 6일 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미뤄 놓았던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의 때이기도 하다. 그래서 주일은 7일 중에 가장 복되고 보람된 날이어야 한다. 그 이유는 우리의 영혼이 주일에 주님께 더 가까워질 수 있어서 그분으로부터만 있게 되는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 참고 문헌 -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천국의 신비」 제 9182-10항: “잔칫집에 온 신랑의 친구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야 어떻게 단식을 할 수 있겠느냐?” 이는 친구들이 즐겁고 행복한 상태에 있음을 뜻하여 주님과 함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다르게 표현하자면 그들이 선과 결합된 진리 안에 있을 때를 뜻한다. “그러나 이제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온다. 그 때에 가서는 그들도 단식을 할 것이다.” 이는 친구들이 불행한 상태에 있을 것, 즉 선이 더 이상 진리와 결합되지 않을 때를 나타내는 것이다.”

「계시록 설명」 제 376-28항: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부대에 관하여]  
 “위의 비교도 말씀의 모든 부분과 같이 상응으로부터 있다. 포도주란 진리를, 묵은 포도주란 이전의 진리 또는 유대교회의 진리를 의미한다. 가죽부대란 뭔가를 담는 것을 의미하며, 낡은 가죽부대란 유대 교회속의 규정이나 전통을 의미한다. 그리고 새 가죽부대란 주님의 계명과 가르침을 말한다. 유대교회의 규정이나 전통이 특히

제물이나 표현적인 예배와 관련되어 있어서 기독교회의 진리와 일치하지 않음은 마태복음 9장 17절의 ‘낡은 가죽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는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둘 다 보존된다.’라는 말씀의 의미이다.”

### 질문 정리

- 1) 누가 주님의 길을 예비했는가?
- 2) 주님이 세례 받으시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 3) 첫 네 제자들은 누구누구인가?
- 4) 주님의 공생애는 어떻게 셋으로 구분될 수 있는가?
- 5) 주님은 어디서 설교하셨는가?
- 6) 주님의 시대 때에 거룩한 땅은 어떤 세 구역으로 구분되었는가?
- 7) 그 구역 중 주님은 어디서 태어나셨는가?
- 8) 주님의 공생애의 대부분은 어느 구역에서 있었는가?
- 9) 공생애 동안 주님은 어디서 사셨는가?
- 10) 본문에서는 어떤 기적이 기술되고 있는가?
- 11) 중풍 병자는 어떻게 주님 앞에 오게 되었는가?
- 12) 주님은 그를 위해 먼저 무엇을 하셨는가?
- 13) 본문에서 주님은 제자 중 누구를 부르셨는가?
- 14) 그 제자의 직업은 무엇인가?
- 15) 바리사이파인과 율법학자란 어떤 이들인가?
- 16) 사람들은 왜 세리를 멸시했는가?
- 17) 본문에서 주님에 대한 첫 불평은 무엇이었는가?
- 18) 두 번째 불평은 무엇이었는가?
- 19) 주님은 새 옷과 새 포도주에 관해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 20) 세 번째 불평은 무엇이었는가?
- 21) 주님은 안식일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22) 안식일은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가?

**질문의 답**

- 1) 세례자 요한 2) 비둘기가 나타났다 3) 베드로, 안드레아, 야고보, 요한
- 4) 전도, 가르침, 병 고치심 5) 회당 외 많은 곳에서 6) 갈릴래아, 사마리아, 유대 7) 유대 8) 갈릴래아 9) 가파르나움(갈릴래아 해변가) 10) 중풍병자를 고치심 11) 요에 뉘여서 들고 왔다 12) 그의 죄를 용서하심 13) 레위(마태오)
- 14) 세금을 거두는 자 15) 바리사이파인 - 율법주의자, 율법학자 - 성경을 베끼는 이들 16) 로마를 위해 세금을 거두었기 때문임 17) 세리들과 식사하셨기 때문임
- 18) 제자들이 단식하지 않았기 때문임 19) 공존해야 할 필요성 20) 안식일을 주님이 깨트렸다고 해서 (밀 이삭을 잘랐다고 해서) 21)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서이다”
- 22) 예배드리고 주님에 관해 배우며 선을 행하는 것에 사용되어야 한다



# 열 두 사도

## 머리말

27장에서 공부한 안식일에 관한 것을 상기하면서 본장을 시작한다. 안식일에 관한 주님의 말씀과 안식일의 진정한 목적을 재고한 뒤 본문 서두의 기적을 그 예로 언급한다.

## 성 서 본 문: 마가복음 3장

3장: 1. 안식일이 되어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 가셨는데 마침 거기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2. 그리고 예수께서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 주시기만 하면 고발하려고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 3. 예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는 “일어나서 이 앞으로 나오너라”하시고 4. 사람들을 향하여는 “안식일에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하고 물으셨다. 그들은 말문이 막혔다. 5. 예수께서는 그들의 마음이 완고한 것을 탄식하시며 노기 띤 얼굴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손을 펴라”하고 말씀하셨다. 그가 손을 펴자 그 손은 이전처럼 성하게 되었다. 6. 그러나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나가서 즉시 헤로데 당원들과 만나 예수를 없애 버릴 방도를 모의하였다.

7.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호숫가로 물러가셨을 때에 갈릴래아에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 왔다. 또 유다와 8. 예루살렘과 에돔과 요르단강 건너편에 사는 사람들이며 띠로와 시돈 근방에 사는 사람들까지도 예수께서 하시는 일을 전해 듣고 많이 몰려 왔다. 9. 예수께서는 밀어닥치는 군중을 피하시려고 제자들에게 거룻배 한 척을 준비 하라고 이르셨다. 10. 예수께서 많은 사람을 고쳐 주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앞을 다투어 예수를 만지려고 밀려들었던 것이다. 11. 또 더러운 악령들은 예수를 보기만 하면 그 앞에 엎드려 “당신은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하고 소리 질렀다.

12.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당신을 남에게 알리지 말라고 엄하게 명령하셨다. 13. 예수께서 산에 올라 가 마음에 두셨던 사람들을 부르셨다. 그들이 예수께 가까이 왔을 때에 14. 예수께서는 열둘을 뽑아 사도로 삼으시고 당신 곁에 있게 하셨다. 이것은 그들을 보내어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15. 마귀를 쫓아내는 권한을 주시려는 것이었다. 16. 이렇게 뽑으신 열 두 사도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여 주신 시몬과 17. 천둥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둘 다 보아네르게스라고 이름을 붙여 주신 제베대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18. 그리고 안드레아, 필립보, 바르톨로메오, 마태오, 토마,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 타대오, 혁명당원 시몬, 19. 그리고 예수를 팔아 넘긴 가리옷 사람 유다이다. 20. 예수께서 집에 돌아오시자 군중이 다시 모여 들어서 예수의 일행은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었다. 21. 이 소식을 들은 예수의 친척들은 예수를 붙들러 나섰다.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기 때문이다. 22. 예루살렘에서 내려 온 율법학자들도 예수가 베엘제불에게 사로잡혔다느니 또는 마귀 두목의 힘을 빌어 마귀를 쫓아낸다느니 하고 떠들었다. 23.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불러다 놓고 비유로 말씀하셨다.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겠느냐? 24. 한 나라가 갈라져 서로 싸우면 그 나라는 제대로 설 수 없다. 25. 또 한 가정이 갈라져 서로 싸우면 그 가정도 버티어 나갈 수 없다. 26. 만일 사탄의 나라가 내분으로 갈라진다면 그 나라는 지탱하지 못하고 망하게 될 것이다. 27. 또 누가 힘센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털어 가려면 그는 먼저 그 힘센 사람을 묶어 놓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야 그 집을 털 수 있을 것이다. 28. 나는 분명히 말한다.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짓든 입으로 어떤 욕설을 하든 그것은 다 용서받을 수 있으나 29.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것이며 그 죄는 영원히 벗어날 길이 없을 것이다.” 30.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사람들이 예수를 더러운 악령에 사로잡혔다고 비방했기 때문이다. 31. 그 때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 와 서서 예수를 불러 달라고 사람을 들여 보냈다. 32. 둘러 앉았던 군중이 예수께 “선생님, 선생님의 어머님과 형제분들이 밖에서 찾으십니다”하고 말하였다. 33. 예수께서는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들이냐?”하고 반문하시고 34. 둘러 앉은 사람들을 돌아 보시며 말씀하셨다. “바로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들이다. 35.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 교리 요점

- \* 우리가 배운 것에 따라 살려고 노력하면, 주님은 구원에 필요한 진리를 충분히 예비해두신다.
- \* 말씀이 교회를 만드는 것이지 교회가 말씀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
- \* 믿음은 이해성 또는 생각적인 평면에 속한다.
- \* 선행은 심정 또는 의지적인 평면에 속한다.
- \* 심정 속에 든 이기적인 욕망들은 외적인 선행이 크다고 하더라도 결국 (내적) 선행을 파괴시킨다.

## 해설

당시 사람들이 주님의 출현과 그분의 가르침에 보였던 반응을 살펴보는 것으로 본장을 시작하고자 한다. 우리는 주님이 지상에 계셨을 때 그 곳에 살고 있었다라면 우리 역시 그분을 사랑하며 따랐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우리가 과연 그랬을까 하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본다면 흔쾌히 대답하기 쉽지 않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파인들은 주님께 상당히 분개하여서 주님의 권능이 악마로부터 왔다는 소문을 냈다. 하지만 그들이 실제로 원한 것은 그들의 정치적인 로마의 앞잡이 헤로데 당원들과 함께 그분을 없애려는 것이었다. 그래서 주님의 가족들마저 예수가 미쳤다고 생각하여 그분을 붙잡기 위해 나섰다. 그리고 대부분의 군중들은 주님의 가르침 보다 병을 치료하심에 관심을 두어서 주님은 때로 그들로부터 떨어지시려고 배를 준비하셔서 바다로 나가셨다. 많은 군중들 중 극소수만이 주님의 진리를 배우기 위해 그분을 따랐던 것이다. 이러한 두 부류의 집단들 중에 자신이 어디에 속하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자. 이에 대한 답은 스스로에게 현실에서 어느 집단에 가까운지를 정직하고 솔직하게 묻는다면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우리가 보다 더 친절하며 신실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우리는 바리사이파인이나 율법학자들에 가까운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

이 너무 비현실적이어서 그대로 살기에 문제가 많다고 여긴다면, 우리는 주님의 진리에 대해서 인간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다. 또한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는 것이 스스로에게 이득이 되어 그분을 따른다면, 우리는 우리의 이기심을 위해서 그분을 이용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과연 바른 신앙의 태도인가? 우리가 항상 마음의 첫 자리에 주님을 모셔놓고 우리의 삶을 그분의 삶에 적용하면서 그분이 원하시는 바를 배우기 위해서 힘쓴다면, 우리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들에 가깝게 될 것이다. 주님은 이러한 제자들로부터 사도가 되도록 열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이 떠나신 후 그들로 하여금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기독교회의 기초를 놓도록 하셨다.

#### 참고 문헌 -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요한 계시록 설명」 제 820-2항: “베드로는 사도들 중에서 첫 번째가 되었는데, 이는 선으로부터의 진리가 교회의 첫 번째이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서의 인간은 천국과 지옥에 관한 어떤 것, 사후 삶 그리고 하느님에 관한 것까지도 알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세상이나 자아에 관련된 것 외에는 이 세상의 것들로부터 알아지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세상이나 자아 속에 빠져 있는 한, 인간은 지옥 속에 있는 것이 된다. 따라서 인간이 세상과 자아로부터 빠져 나와 천국으로 인도되려면 반드시 진리를 배워야 한다. 이 진리는 하느님의 존재, 천국과 지옥 곧 사후에도 삶이 있다는 것 그리고 천국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 준다. 진리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밝혀 주므로, 진리를 배우는 것이 가장 우선이며 이를 통해 인간이 마음에 교회를 갖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진리는 반드시 선으로부터 있는 진리여야 한다. 그 이유는 선이 없는 진리는 단지 어떤 사물이 이러이러하다는 사실적 지식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사실적 지식이란 지상의 삶을 배제하면 결국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다. 삶 속에서 진리는 선과 결합된다. 그러면 인간은 교회로 입문된다. 더욱이 진리는 인간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관하여 가르친다. 사람이 진리 자체로 그것을 사모하고 그 사모함을 행동 선상에 놓을 때 진리에 따른 삶을 사랑하게 된다. 그러면 그는 주님의 인도를 받게 되어 천국과 결합하여 결국 영적인 사람이 되어 사후 천국으로 들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결과를 만드는 진정한 요인은 진리가 아니다.

진정한 요인은 선이며, 선은 주님으로부터 존재하여 진리를 수단으로 실재하게 된다. 선으로부터의 진리는 주님으로부터 있는 고로 교회의 첫 번째 것이며, 이런 이유로 베드로가 첫 번째 사도라고 불린 것이다.”

### 질문 정리

- 1) 주님은 중풍으로 앓는 이를 위해 무엇을 먼저 해 주셨는가?
- 2) 우리는 무엇을 스스로 행해야만 하는가?
- 3) 본문에서 어떤 제자들이 부름을 받는가?
- 4) 바리사이파인이나 서기관들은 어떤 결점을 주님께에서 발견했는가?
- 5) 주님은 새 포도주에 관해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 6) 주님은 안식일에 관하여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 7) 5번 질문에서 주님이 의미하신 바는 무엇인가 ?
- 8) 본문에서 병 고치는 기적은 무엇인가?
- 9)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주님의 병 고치심에 불만족했는가?
- 10) 그들은 누구와 더불어 주님에 대한 음모를 꾸몄는가?
- 11) 주님은 군중을 어디로 데리고 가서 말씀하셨는가?
- 12) 주님은 제자들을 어디서 가르치셨는가?
- 13) 주님은 몇 명의 사도를 선택하셨는가?
- 14) 주님은 그들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는가?
- 15) 사도들의 이름을 기억나는 대로 나열해 보자.
- 16)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해 그분의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 17) 서기관들은 주님의 능력이 어디서 왔다고 말했는가?
- 18) 용서받지 못할 죄란 무엇인가?
- 19) 왜 용서받지 못하는가?
- 20) 주님의 가족들이 그분을 찾는다고 전해 들었을 때 그분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21) 왜 주님은 가족들과 관계없는 것처럼 보이셨는가?

## 질문의 답

- 1) 죄를 용서하심 2) 일어나서 요를 걷어 걸어감 3) 마태오(레위)
- 4) 죄인과 함께 음식을 드신 것, 제자들이 단식하지 않는 것, 안식일을 깨트린 것
- 5) 새 그릇이 필요하다 6) 옛 사상과 새 진리는 공존할 수 없다.
- 7)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것이다 8) 오그라진 손을 펴주심
- 9) 안식일, 자기들의 권위가 도전 받았다 10) 헤로데 당원 11) 바닷가 12) 산
- 13) 열 둘 14) 말씀 전하고 마귀를 쫓아냄 15) 본문 참조
- 16) 그가 미쳤다고 생각했음 17) 악마(베엘제불)
- 18) 우리의 악을 질책하는 진리를 거절함
- 19) 주님이 우리를 도울 수 없게 만들기 때문
- 20)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 21) 주님은 그들이 온 이유를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 비유로 가르치신 주님

### 머리말

지금까지 공부한 말씀 전체가 비유임을 설명한다. 그리고 주님께서 직접 본문의 첫 비유를 풀이하셨음을 강조한다.

### 성 서 본 문: 마가복음 4장

4장: 1. 예수께서 다시 호숫가에서 가르치셨다. 군중이 너무나 많이 모여 들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배를 타고 그 안에 앉으신 다음 배를 물에 띄웠다. 그리고 군중은 모두 호숫가에 그대로 서 있었다. 2. 예수께서는 비유로 여러 가지를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3. “자, 들어 보아라.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4.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은 길바닥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쪼아 먹고 5. 어떤 것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다.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은 곧 나왔지만 6. 해가 뜨자 뿌리도 내리지 못한 채 말라 버렸다. 7. 또 어떤 것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다. 가시나무들이 자라자 숨이 막혀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8. 그러나 어떤 것은 좋은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잘 자라 열매를 맺었는데, 열매가 삼십 배가 된 것도 있고 육십 배가 된 것도 있고 백배가 된 것도 있었다.” 9. 예수께서는 이어서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어라”하고 말씀하셨다 10. 예수께서 혼자 계실 때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열 두 제자와 함께 와서 비유의 뜻을 물었다. 11.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알게 해 주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들려 준다. 12. 그것은 그들이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고 듣고 또 들어도 알아듣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들이 알아보고 알아듣기만 한다면 나에게 돌아 와 용서를 받게 될 것이다.’”

13. 예수께서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비유도 알아듣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비유들을 알아듣겠느냐? 14. 씨 뿌리는 사람이 뿌린 씨는 하늘나라에 관한 말씀이다. 15. 길바닥에 떨어졌다는 것은 마음속에 뿌려지는 그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날쌔게 달려드는 사탄에게 그것을 빼앗겨 버리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16. 씨가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기꺼이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17. 그 마음속에 뿌리가 내리지 않아 오래 가지 못하고 그 후에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를 당하게 되면 곧 넘어지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18. 그리고 씨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19.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과 그 밖의 여러 가지 욕심이 들어 와서 그 말씀을 가로막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20. 그러나 씨가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잘 받아들여 삼십 배, 육십 배, 백배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21. 예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등불을 가져다가 뒷박 아래나 침상 밑에 두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누구나 등경 위에 얹어 놓지 않느냐? 22. 감추어 둔 것은 드러나게 마련이고 비밀은 알려지게 마련이다. 23.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 어라.” 24. 또 말씀하셨다. “내 말을 마음에 새겨들어라. 너희가 남에게 달아 주면 달아 주는 만큼 받을 뿐만 아니라 덩까지 얻어 받을 것이다. 25. 누구든지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며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26.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하느님 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앗을 뿌려 놓았다. 27. 하루하루 자고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씨앗은 싹이 트고 자라나지만 그 사람은 그것이 어떻게 자라는지 모른다. 28.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인데 처음에는 싹이 돋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 패고 마침내 이삭에 알찬 낱알이 맺힌다. 29. 곡식이 익으면 그 사람은 추수 때가 된 줄을 알고 곧 낫을 낸다.”

30.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하느님 나라를 무엇에 견주며 무엇으로 비유할 수 있을까? 31. 그것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땅에 심을 때에는 세상의 어떤 씨앗보다도 더욱 작은 것이지만 32. 심어 놓으면 어떤 푸성귀보다도 더 크게 자라고 큰 가지가 뻗어서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된다.” 33. 예수께서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비유로써 말씀을 전하셨다. 34. 그들에게는 이렇게 비유로만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에게는 따로 일일이 그 뜻을 풀이해 주셨다.



35. 그 날 저녁이 되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셨다.  
 36. 그래서 그들이 군중을 남겨 둔 채 예수께서 타고 계신 배를 저어 가자 다른 배들도 함께 따라 갔다. 37. 그런데 마침 거센 바람이 일더니 물결이 배 안으로 들이쳐서 물이 배에 거의 가득 차게 되었다. 38. 그런데도 예수께서는 뱃고물을 베개삼아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선생님, 저희가 죽게 되었는데도 돌보시지 않습니까?”하고 부르짖었다. 39.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를 향하여 “고요하고 잠잠해져라!”하고 호령하시자 바람은 그치고 바다는 아주 잔잔해졌다. 40. 그렇게 하시고 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왜 그렇게들 겁이 많으나?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하고 책망하셨다. 41.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도대체 이분이 누구인데 바람과 바다까지 복종할까?”하며 서로 수군거렸다.

### 교리 요점

- \* 모든 말씀은 비유이다.
- \* 더 나은 삶 곧 선한 삶을 위해서 진리를 원하는 자들만이 주님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 \* 지상의 삶이 끝난 후 가게 되는 영원한 고향은 지상에 사는 동안 우리의 심정이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과 자아 사랑 중 어느 쪽이 주도했는가에 따라서 결정된다.

### 해설

사람들은 흔히 “주님은 왜 비유로 말하셨을까?” 또는 “주님은 왜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옳다고 직접적으로 말씀해주시지 않았을까?”하고 질문하기도 한다. 여러분이 이러한 질문을 갖게 되어 주님께서 모든 것을 명백하게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셨다고 가정해 보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살 수 있을까? 주님은 인간이 어쩔 수 없이 악에 가깝게 태어나 죄를 범하게 된다고 말씀하신다. 그래서 주님은 악과 죄로부터 인류를 자유롭게 해주시는 구원자이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인류를 저주하시거나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주님은 우리가 이해하고 납득하여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만큼의 진리만을 허용하시며 점진적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며 이끌어 주고 계신다.

우선 본문의 씨 뿌리는 사람에 대한 것을 읽어 보고 그에 대한 주님의 설명을 읽어보자. 하느님의 말씀은 온 누리에 뿌려지는 씨와 같다.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말씀을 읽지만 기독교인의 경우 하느님의 말씀을 읽어보았거나 말씀에서 비롯된 진리들을 들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는 말씀의 구절들이 바로 진리의 씨이다. 그러나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을 때만 땅에 뿌리를 내고 자라서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좋은 땅이란 선하게 되기를 진실로 원하는 우리의 마음이다. 비유란 아주 간단한 이야기로서 이해하기 쉽고 기억하기도 편하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의 비유들은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필요성에 이르기 전에는 그냥 좋은 이야기로써 우리의 마음속에 머물러 있게 된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가르침이 필요함을 절실히 인정하게 되면 비유들 중 하나가 불현듯 우리의 마음에 떠오르면서 상황에 적절한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게 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섭리이다.

씨란 하느님의 말씀을 의미함을 기억하면서 본문을 다시 읽어 보도록 하자. 우리는 말씀 속에 있는 진리가 등잔 위의 불과 같아서 우리의 심정과 지성 속의 어두운 구석구석을 잘 볼 수 있도록 해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천국의 신비」 제 2449-2항: “저 세상에 오는 사람들은 먼저 그들이 육체를 가졌던 때인 지상에서의 삶과 유사한 삶 안에 다시 놓인다. 그 다음 선한 삶을 산 이들은 그들 안에 있던 악과 거짓이 그들로부터 분리되어 그들이 가진 선과 진리를 수단으로 하여 주님께 의해 그들이 가진 선과 일치하는 천국으로 오른다. 하지만 악한 삶을 산 자들은 남아있던 선과 진리가 그들로부터 분리 되어서 그들이 가진 악과 거짓에 일치하는 지옥으로 내려가게 된다.”

## 질문 정리

- 1) 비유란 무엇인가?
- 2) 말씀에는 얼마나 많은 비유가 있는가?
- 3) 주님은 왜 비유로 우리를 가르치시는가?
- 4) 본문의 비유 중 셋은 무엇에 관한 것인가?
- 5) 씨란 무엇인가?
- 6) 각기 다른 종류의 땅이란 무엇인가?
- 7) 주님은 등불에 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8) 빛은 무엇과 상응하는가?
- 9) 우리는 진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 10) 우리가 진리를 사용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 11) 곡식은 어떤 단계로 성장하는가?
- 12) 누가 곡식을 자라도록 해 주는가?
- 13) 주님은 겨자씨에 관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14) 그 씨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는가?
- 15) 이 씨와 연관 지어 볼 때 우리가 말씀에서 배운 진리는 어떻게 되어가는가?

## 질문의 답

- 1) 감추어진 의미를 가진 이야기 2) 구약성서에 48개, 신약성서에 40개 3) 처음에는 진리가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을 것같이 보이나 나중에는 진리를 더 확실히 볼 수 있기 때문이다 4) 씨 5) 하느님의 말씀에서 온 진리 6) 각기 다른 마음 7) 등불은 등경 위에 놓여져야 한다 8) 계발시켜 주는 진리 9) 자신의 결점을 보는데 도움이 되도록 10) 사용 안 된 것은 빼앗긴다 또는 등불이 꺼진다 11) “처음에는 싹이 돋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 패고 마침내 이삭에 알찬 낱알이 찬다.” 12) 하느님 13) “어떤 씨앗보다도 더욱 작은 것이지만...” 14) “어떤 푸성귀보다도 더 크게 자라고 큰 가지가 뻗어서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 들일 만큼 된다.” 15) 어떤

진리는 처음에 우리에게 하찮은 진리로 여겨진다. 하지만 우리가 차차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면 우리에게 큰 기둥이 된다.

## 30

### 기적을 베푸신 주님

#### 머리말

본장의 핵심은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자고 있다”는 구절이다. 주님께서서는 우리의 생명이 그분으로부터 근원되었고 그것은 우리의 육체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계신다. 그리고 이 사실은 죽음을 인식하는 남녀노소 모두에게 깊은 감동을 주게 된다. 우리는 본문의 기적을 공부할 때 기적이 베풀어진 사람들은 치료를 위한 충분한 믿음이 이미 그들에게 있어서 주님의 권능이 베풀어졌음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주님에 대한 믿음은 외적인 환경과 무관하다는 것과 믿음을 만드는 것이 기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 성 서 본 문: 마가복음 5장

5장: 1. 그들은 호수 건너편 게라사 지방에 이르렀다. 2.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셨을 때에 더러운 악령들린 사람 하나가 무덤 사이에서 나오다가 예수를 만나게 되었다. 3. 그는 무덤에서 살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매어 둘 수가 없었다. 쇠사슬도 소용이 없었다. 4. 여러 번 쇠고랑을 채우고 쇠사슬로 묶어 두었지만 그는 번번이 쇠사슬을 끊고 쇠고랑도 부수어 버려 아무도 그를 휘어잡지 못하였다. 5. 그리고 그는 밤이나 낮이나 항상 묘지와 산을 돌아다니면서 소리를 지르고 돌로 제 몸을 짓찧곤 하였다. 6. 그는 멀찍이서 예수를 보자 곧 달려 가 그 앞에 엎드려 7.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 왜 저를 간섭하십니까? 제발 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하고 큰 소리로 외쳤다. 8. 그것은 예수께서 악령을 보시기만 하면 “더러운 악령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너라.”하고 명령하시기 때문이었다. 9. 예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하고 물으시사 그는 “군대라고 합니다. 수효가 많아서 그렇습니다.”하고 대답하였다. 10. 그리고 자기들을 그 지방에서 쫓아내지 말아 달라고 애걸하였다. 11. 마침 그 곳 산기슭에는 놓아기르는 돼지 떼가 우글거리고 있었는데 12. 악령들은 예수께 “저희를 저 돼지들에게 보내어 그 속에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하고 간청하였다. 13. 예수께서 허락하시자 더러운 악령들은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거의 이천 마리나 되는 돼지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을 내리달려 물속에 빠져 죽고 말았다. 14. 돼지 치던 사람들은 읍내와 촌락으로 달려가서 이 일을 알렸다. 동네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러 나왔다가 15. 예수께서 계신 곳에 이르러 군대라는 마귀가 들렸던 사람이 옷을 바로 입고 멀쩡한 정신으로 앉아 있는 것을 보고는 그만 겁이 났다. 16. 이 일을 지켜 본 사람들이 마귀 들렸던 사람이 어떻게 해서 나왔으며 돼지 떼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동네 사람들에게 들려주자 17. 그들은 예수께 그 지방을 떠나 달라고 간청하였다. 18.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마귀 들렸던 사람이 예수를 따라다니게 해 달라고 애원하였지만 19. 예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주께서 자비를 베풀어 너에게 얼마나 큰일을 해 주셨는지 집에 가서 가족에게 알려라”하고 이르셨다.

20. 그는 물러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해 주신 일을 데카폴리스 지방에 두루 알렸다. 이 말을 듣는 사람마다 모두 놀랐다. 21. 예수께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다시 가시자 많은 사람들이 또 모여 들었다. 예수께서 호숫가에 계셨을 때에 22. 야이로라 하는 한 회당장이 와서 예수를 뵈고 그 발 앞에 엎드려 23. “제 어린 딸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제 집에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병을 고쳐 살려 주십시오”하고 애원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를 따라 나서시었다. 24. 그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둘러싸고 밀어 대며 따라 갔다. 25. 그런데 군중 속에는 열 두 해 동안이나 하혈증으로 앓고 있던 여자가 있었다. 26. 그 여자는 여러 의사에게 보이느라고 고생만 하고 가산마저 탕진했는데도 아무 효험도 없이 오히려 병은 점점 더 심해졌다. 27. 그러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군중 속에 끼어 따라 가다가 뒤에서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 28. 그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병이 나으리라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29. 손을 대자마자 그 여자는 과연 출혈이 그치고 병이 나은 것을 스스로 알 수 있었다. 30. 예수께서는 곧 자기에게서 기적의 힘이 나간 것을 아시고 돌아 서서 군중을 둘러보시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하고 물으셨다. 31. 제자들은 “누가 손을 대다니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군중이 사방에서 밀어 대고 있지 않습니까?”하고 반문하였다. 32. 그러나 예수께서는 둘러보시며 옷에 손을 댄 여자를 찾으셨다. 33. 그 여자는 자기 몸에 일어난 일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 떨며 예수 앞에 엎드려 사실대로 말씀드렸다. 34. 예수께서는 그 여자에게 “여인아, 네 믿음이 너를 살렸다. 병이 완전히 나았으니 안심하고 가거라.”하고 말씀하셨다. 35. 예수의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따님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저 선생님께 더 폐를 끼쳐드릴 필요가 있겠습니까?”하고 말하였다. 36. 예수께서는 이 말을 들은 체도 아니하시고 회당장에게 “걱정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하고 말씀하셨다. 37.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 오지 못하게 하시고 38. 회당장의 집으로 가셨다. 예수께서는 거기서 사람들이 울며불며 떠드는 것을 보시고 39. 집 안으로 들어 가셔서 그들에게 “왜 떠들며 울고 있느냐?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자고 있다”하고 말씀하셨다. 40. 그들은 코웃음만 쳤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다 내보내신 다음에 아이의 부모와 세 제자만 데리시고 아이가 누워 있는 방으로 들어 가셨다. 41.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고 “탈리다 쿨”하고 말씀하셨다. 이 말은 “소녀야, 어서 일어나거라”라는 뜻이다. 42. 그러자 소녀는 곧 일어나서 걸어 다녔다. 소녀의 나이는 열 두 살이었다.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은 놀라 마지않았다. 43.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엄하게 이르시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다.

### 교리 요약

- \*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다.
- \* 이제 우리는 자신이 원하지 않으면 악령에게 사로잡히지 않는다.

## 해설

여러분은 한번쯤 “내가 무엇에 썩었나봐. 그런 행동을 하다니..”라고 말하며 자신의 행동이나 말을 후회해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몹시 화나거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게 되면 마치 다른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극한 언행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한다. 사실 우리는 순간적으로 우리를 폭력적이거나 잔인하게 만드는 정체를 인식하고 있다. 그것은 악마 또는 악한 영이다. 여기서 악마란 개인적인 인격체처럼 존재하는 지옥을 다스리는 악신이 아닌 우리의 심정과 지성에 대한 악의 영향력을 일컫는다.

우리가 영계라고 부르는 곳은 사실 멀리 떨어진 곳에 있지 않다. 영계는 바로 우리의 영혼이 있는 곳이다. 돌아가신 부모님을 꿈에서 만나거나 먼저 타계한 배우자를 늘 가까이 존재하는 것처럼 느끼며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사실 특별하게 여겨지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 영들에 대한 체험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은 이유는 영들이 사는 곳인 영계는 우리 주위에 언제나 있으며 우리의 심정과 지성에 아주 가까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영계에는 지상 세계와 마찬가지로 선한 영들과 악한 영들이 공존한다. 여기서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은 스웨덴봄에 따르면 영계란 영어로는 world of spirits로서 천사 또는 지옥의 악마들이 되기 이전 단계의 영혼들을 말한다는 것이다. 스웨덴봄의 저서에서는 천사와 영 그리고 악마가 뚜렷하게 구분된다. 영계의 두 부류, 즉 선한 영들과 악령들은 모두 우리의 영혼에 영향을 주려고 애쓰고 있다. 하지만 주님의 섭리로 인해 우리에게 우리의 영적 친구들을 선택할 자유가 주어졌다. 이러한 영적인 선택의 자유는 지상에서 친구들을 선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유로우며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이들만이 우리의 친구가 된다. 주님은 이러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심을 통해서 지옥을 정복하셨고, 지옥의 권세를 그분의 발아래 두어 영계의 질서를 바로잡아 놓으셨다. 따라서 우리가 악의 영향력에 저항하고자 하면, 주님은 우리가 저항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의 시험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자유와 영원한 행복이다. 그러나 주님이 세상에 오시는 때만해도 악령이 사람의 의지에 반하여서도 그 사람을 강점할 수 있었다. 우리는 본문의 서두에서 이러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읽게 된다.

나머지 본문도 두 가지 다른 기적들에 관하여 말하고 있다. 하나는 주님의 겔옷을 만짐으로 인해 병이 나은 여인에 관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유대인의 회당장의 딸을 죽음에서 일으키신 사건이다. 주님은 생명 자체이시다. 따라서 모든 생명과 건강 역시 주님으로부터 근원된다. 주님은 어린 소녀에 대해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자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주님은 그 아이를 깨우셨다. 이 이야기의 의미는 우리가 때가 되어서 영원한 잠에 들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저 세상에서 깨우신다는 것이다.

#### 참고 문헌 -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성경에 관한 교리」 제 17항: “모든 주님의 기적에는 그분의 신성이 담겨있는데, 이는 기적이 주님께서 새로이 설계하시는 교회에 있게 될 사람들의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소경이 빛을 보는 것은 진리에 무지했던 이들이 총명을 받음을 의미하며 귀머거리가 듣게 된 것은 주님과 말씀에 관해 전혀 듣지 못했던 이들이 일깨워져 순종하게 됨을 의미한다. 그리고 죽은 자가 일어남이란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이들이 생명을 얻게 됨을 의미한다. 말씀과 관련된 모든 기적들은 그 자체에 주님과 천국 그리고 교회에 관한 것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기적들은 주님의 신성을 담고 있어서 그렇지 않은 다른 기적들과 구별된다.”

#### 질문 정리

- 1) 기적은 무엇인가?
- 2) 지금까지 마가복음에서 공부한 기적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 3) 본문에는 몇 개의 기적이 있는가?
- 4) 첫 기적은 어디서 수행되었는가?
- 5) 첫 기적 속의 사람은 어떠했는가?
- 6) 그 사람은 자신의 믿음을 주님께 어떻게 보였는가?



- 7) 악마는 자신의 이름을 뭐라고 했는가?
- 8) 그 이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9) 악마는 어떻게 해달라고 요구했는가?
- 10) 돼지 떼에 무슨 일이 생겼는가?
- 11) 주님은 갈릴래아로 되돌아 가셨는데, 누가 도움을 청했는가?
- 12) 야이로는 무엇을 원했는가?
- 13) 야이로의 전달자는 무슨 말을 했는가?
- 14)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도중 어떤 기적이 수행되었는가?
- 15) 그 여인은 어떻게 치료되었는가?
- 16) 주님은 야이로의 집에서 슬피 우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17) 주님은 어떻게 소녀를 고치셨는가?
- 18) 주님은 부모에게 그녀를 위해 무엇을 해주라고 하셨는가?
- 19) 주님은 왜 기적을 수행하셨는가?

#### 질문의 답

- 1)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을 가르치시고자 수행하신 경이로운 일들 2) 중풍병자, 오그라진 손을 펴심 3) 3 4) 요르단 건너 지역 5) 악마에 사로잡혀 있었다.
- 6) 달려와 주님께 경배했다 7) 군대 8) 시험은 결코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 9) 돼지 떼 속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10) 바다를 향하여 비탈을 내리달려 물 속에 빠져 죽었다 11) 야이로 12) 거의 죽게 된 자기 딸을 살려 달라고 13) 그녀는 이미 죽었다고 14) 가난한 여인을 치료해 주셨다 15)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댄으로서 16) 그녀는 잠을 자고 있다 17) 손을 잡고 일어나라하고 말씀하셨다
- 18)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심
- 19)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위해 하실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이다

#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 머리말

주님을 만났던 군중, 제자들, 바리사이파인 그리고 서기관들에 대해서 정리해 본다. 그리고 헤로데와 나자렛 마을 사람들과 헤로디아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 성서 본문: 마가복음 6장

6장: 1. 예수께서 그 곳을 떠나 제자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 가셨다. 2.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자 많은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놀라며 “저 사람이 어떤 지혜를 받았기에 저런 기적들을 행하는 것일까? 그런 모든 것이 어디서 생겨났을까? 3. 저 사람은 그 목수가 아닌가? 그 어머니는 마리아요,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이 아닌가? 그의 누이들도 다 우리와 같이 여기 살고 있지 않은가?”하면서 좀처럼 예수를 믿으려 하지 않았다. 4.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디서나 존경을 받는 예언자라도 자기 고향과 친척과 집안에서만은 존경을 받지 못한다.” 5. 예수께서는 거기서 병자 몇 사람에게만 손을 얹어 고쳐 주셨을 뿐, 다른 기적은 행할 수 없었다. 6. 그리고 그들에게 믿음이 없는 것을 보시고 이상하게 여기셨다. 그 뒤에 예수께서는 여러 촌락으로 두루 다니시며 7. 열 두 제자를 불러 더러운 악령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들씩 짝지어 파견하셨다. 8. 그리고 여행하는 데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지니지 말라고 하시며 먹을 것이나 자루도 가지지 말고 전대에 돈도 지니지 말며 9. 신발은 신고 있는 것을 그대로 신고 속옷은 두 벌씩 끼입지 말라고 분부하셨다. 10.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디서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지 그 고장을 떠나기까지 그 집에 머물러 있어라. 11. 그러나 너희를 환영하지 않거나 너희의 말을 듣지 않는 고장이 있거든 그곳을 떠나면서 그들을 경고하는 표시로 너희의 발에서 먼지를 털어 버려라.” 12. 이 말씀을 듣고 열 두 제자는 나가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가르치며 13. 마귀들을 많이 쫓아내고 수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병을 고쳐 주었다. 14. 예수의 이름이 널리 알려져 마침내 그 소문이 헤로데왕의 귀에 들어갔다. 어떤 사람들은 “그에게서 그런 기적의 힘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죽은 세례자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 틀림없다”고 말하는가 하면 15.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 더러는 옛 예언자들과 같은 예언자라고도 하였다. 16. 그러나 예수의 소문을 들은 헤로데왕은 “바로 요한이다. 내가 목을 벤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다”하고 말하였다. 17. 이 헤로데는 일찌기 사람을 시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둔 일이 있었다. 그것은 헤로데가 동생 필립보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하였다고 해서 18. 요한이 헤로데에게 “동생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하고 누차 간하였기 때문이었다. 19. 그래서 헤로디아는 요한에게 원한을 품고 그를 죽이려고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20. 그것은 헤로데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여 보호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간할 때마다 속으로는 몹시 괴로와하면서도 그것을 기꺼이 들어 왔기 때문이다. 21. 그런데 마침 헤로디아에게 좋은 기회가 왔다. 헤로데왕이 생일을 맞아 고관들과 무관들과 갈릴래아의 요인들을 청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22. 그 자리에 헤로디아의 딸이 나와서 춤을 추어 헤로데와 그의 손님들을 매우 기쁘게 해 주었다. 그러자 왕은 그 소녀에게 “네 소원을 말해 보아라. 무엇이든지 들어 주마”하고는 23. “네가 청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주겠다. 내 왕국의 반이라도 주겠다.”하고 맹세하였던 것이다. 24. 소녀가 나가서 제 어미에게 “무엇을 청할까요?”하고 의논하자 그 어미는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하여라.”하고 시켰다. 25. 그러자 소녀는 급히 왕에게 돌아 와 “지금 곧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가져다 주십시오.”하고 청하였다. 26. 왕은 마음이 몹시 괴로웠지만 이미 맹세한 바도 있고 손님들이 보는 앞이어서 그 청을 거절할 수가 없었다. 27. 그래서 왕은 곧 경비병 하나를 보내며 요한의 목을 베어 오라고 명령하였다. 경비병이 감옥으로 가서 요한의 목을 베어 28. 쟁반에 담아가 소녀에게 건네자 소녀는 다시 그것을 제 어미에게 갖다 주었다. 29. 그 뒤 소식을 들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그 시체를 거두어다가 장사를 지냈다. 30. 사도들이 돌아 와서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것을 예수께 낱낱이 보고하였다. 31.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함께 좀 쉬자”고 말씀하셨다. 찾아 오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들은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던 것이다. 32. 예수의 일행은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을 찾아 떠났다. 33. 그런데 사람들은 그 일행이 떠나는 것을 보고 그들이 예수의 일행이라는 것을 알고는 여러 동네에서 모두 달려 나와 육로로 해서 그들을 앞질러 그 곳에 갔다.

34.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 군중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들을 측은히 여기시어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셨다. 35. 저녁때가 되자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여기는 외딴 곳이고 시간도 이미 늦었습니다. 36. 그러나 군중들을 해쳐 제각기 음식을 사 먹도록 농가나 근처 마을로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하고 말하였다. 37. 예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하고 이르시자 제자들은 “그러면 저희가 가서 빵 이백 데나리온어치나 사다가 먹이라는 말씀입니까?”하고 물었다. 38. 그러자 예수께서는 “지금 가지고 있는 빵이 몇 개나 되는가 가서 알아보아라.”하셨다. 그들이 알아보고 돌아와서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습니다”하자 39.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군중을 풀밭에 떼지어 앉게 하라고 이르셨다. 40. 군중은 백 명씩 또는 오십 명씩 모여 앉았다. 41. 예수께서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손에 드시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군중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셨다. 그리고 물고기 두 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 42.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43. 그리고 남은 빵조각과 물고기를 주워 모으니 열 두 광주리에 가득 찼으며 44. 먹은 사람은 남자만도 오천 명이나 되었다. 45. 그 뒤에 곧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태워 건너편 베싸이다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 동안에 혼자서 군중을 돌려 보내셨다. 46. 그들을 보내시고 나서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올라 가셨다. 47. 날이 저물었을 때에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고 예수께서는 혼자 육지에 계셨다. 48. 제자들은 마침 역풍을 만나 배를 젓느라고 몹시 애를 쓰고 있었다. 이것을 보신 예수께서는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 쪽으로 오시다가 그들 곁을 지나쳐 가시려고 하였다. 그것은 새벽 네시쯤이었다. 49. 제자들은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유령인 줄 알고 비명을 질렀다. 50. 그를 보고 모두 겁에 질렸던 것이다. 그러자 예수께서 곧 제자들을 향하여 “나다. 겁내지 말고 안심하여라.”하시며 51. 그들이 탄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그쳤다. 제자들은 너무나 놀라 어찌할 바를 몰랐다. 52. 그들은 마음이 무디어서 군중에게 빵을 먹이신 기적도 아직 깨닫지 못하였던 것이다.

53. 그들은 바다를 건너 겐네사렛 땅에 배를 대었다. 54. 그들이 배에서 내리자 사람들은 곧 예수를 알아보고 55. 그 근처 온 지방을 뛰어 다니면서 병자들을 요에 눕혀 가지고 예수가 계시다는 곳을 찾아 그리로 데려왔다. 56. 마을이나 도시나 농촌이나 어디든지 예수께서 가시기만 하면 사람들은 병자들을 장터에 데려다 놓고 그 옷자락만이라도 만지게 해 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손을 댄 사람은 모두 나았다.

### 교리 요점

- \* 주님의 능력은 자연계의 법칙을 초월하신다.
- \* 진정한 일용할 양식은 말씀에서만 발견된다.
- \* 완고한 마음은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한다.
- \* 말씀은 선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진리를 함유하고 있다.

### 해설

주님이 세상에 계셨을 때 그분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느님의 권능을 보여 주셨다. 그분은 병자를 치료하셨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으며 악령들을 쫓아내셨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등 아주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다. 이러한 모든 기적들은 상응의 의미로 보면 인간의 영혼의 치료를 위해 주님이 도와주시고자 하신 것들을 의미한다. 하지만 영혼의 치료는 몸을 치료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직접 해주실 수가 없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스스로의 약함이나 죄들을 극복하게 하시고 진리를 보게 하시며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악한 생각들이나 느낌들을 몰아낼 수 있도록 해주신다. 이렇게 우리 영혼의 치료가 이뤄지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하며, 이는 곧 물질적인 것만을 아는 죽은 상태에서부터 깨어나서 영적인 것을 알며 익히고 발전해 천국적인 상태로 되어가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걱정, 근심, 두려움 그리고 삶을 위한 투쟁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참된 평화를 발견하게 된다.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들이 주님을 찾는 때는 고난에 처해 있거나 살아갈 기력을 잃었을 때이다. 그리고 주님에게서 치료와 위로를 얻는 것은 그 옛날 많은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주님을 찾아와서 만족해했던 것과 같은 것이다.

본문의 군중들은 신체적 질병의 치료를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행복하고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 모인 것이었다. 그래서 본문 34절에서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들을 측은히 여기시어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셨다”라고 기술되고 있다. 그리고 다음 날 저녁 사람들에게 먹일 음식을 사러 보내는 대신 주님은 새로운 방법으로 그분의 능력을 보여 주셨다. 주님은 군중을 풀밭에 무리지어 앉게 하시고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나눠주었다. 이 후 남자만 오천 명이 되는 군중이 배불리 먹고 남은 것만 해도 열 두 광주리에 가득 차는 기적이 일어났다. 이 기적 역시 비유에 속한다. 주님은 자연의 법칙을 초월한 능력을 갖고 계신다. 그 이유는 주님이 바로 태초에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창조주이신 주님께서 특별히 만드신 존재들이다. 따라서 우리는 육을 위한 자연적 양식뿐만 아니라 영을 위한 영적 양식도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양식을 주님께 구해야만 그분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 그래서 주님은 “옳은 일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만족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 중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부분도 있다. 우리가 하루에 세 끼의 음식을 먹는 것은 육체를 위한 것일 뿐이다. 우리는 육을 위해서 하루에 세 끼를 꼬박 꼬박 챙겨먹듯이 마음의 강건함을 위해서 영적인 양식도 챙겨 먹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에 있는 일용할 양식의 진정한 의미이다. 이 양식은 하느님의 말씀 가운데서만 발견된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읽는다하더라도 실제로 우리가 수확할 수 있는 영적 양식은 아주 조금밖에 안 되는 분량, 즉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정도밖에 안 되는 적은 양일뿐이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이 적은 양의 수확을 여여뻘 여기시며 이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필요한 양식을 넘치게 주실 수 있음을 본문의 기적을 통해서 약속하고 계신다.

#### 참고 문헌 -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천국의 신비」 제 5291항: “주님이 다른 성경 부분에서 숫자를 언급하신 의미나

다음과 같은 역사적인 사실, 즉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을 먹이신 것, 오십 명씩 백 명씩 무리 지어 앉게 명령하신 것, 그들이 먹고 난 뒤 남은 것이 열 두 광주리나 모은 사실 등에서 언급되는 숫자의 의미도 마찬가지이다. 위의 이야기가 역사적이기 때문에 그 사실 속에 든 숫자에 의미가 있다는 것은 믿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각 숫자에는 깊은 의미가 존재한다. 그 이유는 성경속의 모든 세부사항이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진 것이고 신성한 이런저런 사항들이 그 속에서 표현되도록 하기 위해서 있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 질문 정리

- 1) 왜 주님은 나사렛에서 많은 기적을 수행하지 않으셨는가?
- 2) 주님은 사도들을 파견할 때 어떤 교훈을 그들에게 주셨는가?
- 3) 헤로데 왕은 주님을 누구라고 생각했는가?
- 4) 헤로데는 세례자 요한을 어떻게 처리했는가?
- 5) 요한을 실제로 죽게 한 자는 누구인가?
- 6) 우리 속에서 헤로데와 헤로디아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 7) 제자들은 군중이 배고팠을 때 그들을 어떻게 먹이자고 제안했는가?
- 8) 주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가?
- 9) 그들은 어떤 음식을 손에 들고 있었는가?
- 10) 주님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가?
- 11) 주님은 물고기와 빵으로 무엇을 하셨는가?
- 12) 몇 명의 사람들이 먹게 되었는가?
- 13) 먹고 남은 음식은 얼마나 되었는가?
- 14) 그 후 주님은 제자들을 어디로 보냈는가?
- 15) 제자들은 어떤 곤란을 당했는가?
- 16) 주님은 어떻게 제자들에게 와서 도와주셨는가?
- 17) 우리는 육신의 양식 외에 어떤 양식이 더 필요한가?
- 18) 우리의 영적 양식은 어떻게 불어나는가?

## 질문의 답

- 1) 그곳에는 주님께 대한 믿음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
- 2) 어떤 여분도 취하지 말라
- 3) 세례자 요한
- 4) 그의 목을 베었다
- 5) 헤로디아
- 6) 사리사욕, 자아사랑의 지배
- 7) 제각기 양식을 구하러 보냈시다
- 8)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 9)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 10) 오십 명 백 명씩 떼 지어 앉히셨다
- 11) 축사하시고 떼었다
- 12) 오천 명
- 13) 열 두 광주리
- 14) 베싸이다
- 15) 역풍을 만났다
- 16) 물 위로 걸어 오셨다
- 17) 영혼을 위한 양식, 즉 사랑과 지혜
- 18) 흘트려진 생각을 질서대로 놓고 우리의 재질을 선용하면서 지식과 강함을 주님께게서 찾는다



# 어린이를 축복하신 주님

## 머리말

본 장은 역사적 사건으로 볼 때 종려주일과 연관 지어 공부할 수 있다. 본문은 예수님의 지상생활의 마지막 시기의 초기에 연유되고 있다. 성서 지도에서 거룩한 땅의 세 구역 그리고 주님과 사도들이 요르단강 건너편과 여리고를 지나간 경로를 확인해 본다. 누가복음에서도 이와 관련된 내용을 공부할 수 있을 것이다.

## 성서본문: 마가복음 10장

10장: 1.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유다 지방과 요르단강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사람들이 또 많이 모여 들었으므로 늘 하시던 대로 그들을 가르치셨다. 2. 그 때에 바리사이와 사람들이 와서 예수의 속을 떠보려고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좋습니까?”하고 물었다. 3. 예수께서는 “모세는 어떻게 하라고 일렀느냐?”하고 반문하셨다. 4. “이혼장을 써 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 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5.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모세는 너희의 마음이 굳을 대로 굳어져서 이 법을 제정해 준 것이다. 6. 그런데 천지 창조 때부터 하느님께서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7. 그러므로 사람은 그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8.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9.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10. 집에 돌아 와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물으니 11. 예수께서는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면 그 여자와 간음을 하는 것이며 12. 또 아내가 자기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해도 간음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 13.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손을 얹어 축복해 주시기를 청하자 제자들이 그들을 나무랐다. 14. 그러나 예수께서는 화를 내시며 “어린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고 그대로 두어라. 하느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15. 나는 분명히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순진한 마음으로 하느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코 거기 들어 가지 못할 것이다”하고 말씀하셨다. 16. “그리고 어린이들을 안으시고 머리 위에 손을 얹어 축복해 주셨다. 17. 예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어떤 사람이 달려 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선하신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하고 물었다. 18.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하신 분은 오직 하느님뿐이시다. 19.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거짓증언 하지 말라’ ‘남을 속이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고 한 계명들을 너는 알고 있을 것이다.” 20. 그 사람이 “선생님, 그 모든 것을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 왔습니다.”하고 대답하였다. 21. 예수께서는 그를 유심히 바라보시고 대견해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 내가 시키는 대로 하고 나서 나를 따라 오너라.” 22. 그러나 그 사람은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울상이 되어 근심하며 떠나갔다. 23.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둘러보시며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른다.”하고 말씀하셨다. 24.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놀랐다. 그러나 예수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다. 25.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 25.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낙타가 바늘귀로 빠져 나가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26. 제자들은 깜짝 놀라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하며 서로 수군거렸다. 27.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똑바로 보시며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느님은 하실 수 있는 일이다. 하느님께서서 무슨 일이나 다 하실 수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28. 그 때 베드로가 나서서 “보시다시피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하고 말하였다. 29.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와 아버지나 자녀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30. 현세에서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토지의 축복도 백배나 받을 것이며 내세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31. 그런데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32. 예수의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다. 그 때 예수께서는 앞장서서 가셨고 그것을

본 제자들은 어리둥절하였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 가는 사람들은 불안에 싸여 있었다. 예수께서 다시 열 두 제자를 가까이 불러 장차 당하실 일들을 일러 주셨다. 33“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다. 거기에서 사람의 아들은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의 손에 넘어 가 사형선고를 받고 이방인의 손에 넘어 갈 것이다. 34. 그러면 그들은 사람의 아들을 조롱하고 침 뱉고 채찍질하고 마침내 죽일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35. 제베대오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가까이 와서 “선생님, 소원이 있습니다. 꼭 들어 주십시오”하고 말하였다. 36.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나?”하고 물으시자 37. 그들은 “선생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때 저희를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하고 부탁하였다. 38. 그래서 예수께서는 “너희가 청하는 것이 무엇인지나 알고 있느냐? 내가 마시게 될 잔을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을 고난의 세례를 받을 수 있단 말이나?”하고 물으셨다. 39. 그들이 “예, 할 수 있습니다.”하고 대답하자 예수께서는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도 내가 마실 잔을 마시고 내가 받을 고난의 세례를 받기는 할 것이다. 40. 그러나 네 오른편이나 왼편 자리에 앉는 특권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다. 그 자리에 앉을 사람들은 하느님께서 미리 정해 놓으셨다.” 41. 이 대화를 듣고 있던 다른 열 제자가 야고보와 요한을 보고 화를 냈다. 42.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가까이 불러 놓고 “너희도 알다시피 이방인들의 통치자로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을 강제로 지배하고 또 높은 사람들은 백성을 권력으로 내리누른다.

43.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 안 된다. 너희 사이에서 누구든지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44.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45.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 몸값을 치르러 온 것이다” 하셨다. 46. 예수와 제자들이 예리고에 들렀다가 다시 길을 떠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 가고 있었다. 그 때 티매오의 아들 바르티매오라는 앞 못 보는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47. 나자렛 예수라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하고 외쳤다. 48. 여러 사람이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으나 그는 더욱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하고 소리 질렀다.

49.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 오너라” 하셨다. 그들이 소경을 부르며 “용기를 내어 일어서라. 그분이 너를 부르신다.”하고 일러 주자 50. 소경은 걸옷을 벗어 버리고 벌떡 일어나 예수께 다가 왔다. 51. 예수께서 “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하고 물으시자 그는 “선생님, 제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하였다. 52. “가라. 네 믿음이 너를 살렸다.” 예수의 말씀이 떨어지자 곧 소경은 눈을 뜨고 예수를 따라 나갔다.

### 교리 요점

- \* 우리는 삶의 모든 면에서 주님을 찾고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으로 인도되어야 한다.
- \* 순진함이란 자신을 신뢰하거나 자신의 길만을 고집하는데서 주님이 인도하시도록 자신의 교만과 고집을 내려놓는 것이다.
- \* 재물에 의지함이란 자신의 선함과 지혜만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한다.

### 해설

오늘날에는 이혼율의 급증과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으로 인해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의 교육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 두 악들이 사실 같은 근원을 가지며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눈치 채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실정이다. 본문은 우리에게 이 악들의 근원과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한 마음으로 하느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그 답이 있다. 하느님의 나라란 우리의 심정과 지성이 실질적으로 주님의 통치 하에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하느님의 나라는 사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도 있는 것이다. 어린아이는 의심 없이 부모들로부터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 즉, 자신을 보살피 주는 부모를 신뢰하며 부모의 지혜를 믿는 것이다. 주님은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시며 모든 지혜와 권능을 소유하신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분의 자녀이다. 따라서 주님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을 의지함이 어린 아이가 부모를 대하듯이 해야 함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다.

주님께서서는 본문에서 우리가 늘 명심하고 믿어야 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이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1) 그분은 우리가 결혼을 깨뜨려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다. 만일 우리가 결혼을 거룩한 계약으로 인식한다면, 다시 말해서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혹은 서로를 위해서 이타적인 사랑을 증진시켜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어 주님을 섬김이 가능해지는 거룩한 계약임을 인식한다면 우리의 결혼은 축복 받아 행복과 평화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2) 어린이는 축복 받기 위해서 주님께 데리고 와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이는 우리가 자녀들을 주님과 그분의 법도 안에서 양육시켜 그들이 진정한 하늘나라의 시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3) 우리가 계명에 순종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따르는 것이 세상에서의 어떤 지위나 소유물보다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신다. 4) 주님 스스로 타인에게 유용한 자가 되어야 진정으로 “큰 자”임을 보여 주심을 말씀하고 계신다. 우리가 부자, 가난한 자, 학식이 풍부한 자 혹은 무식한 자일지라도 유용해질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되면, 우리는 진정으로 위대한 자가 될 수 있다. 우리의 결혼생활과 자녀교육 그리고 유용한 삶을 영위하는 인생 여정 위에 버티고 서 있는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이기심이라는 악이다. 우리가 자기중심과 자기 본위 그리고 자신만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버리고 어린아이가 부모를 따르듯이 주님에게서 길과 힘을 찾고 의지한다면, 우리는 하늘나라를 받는 행복한 자가 될 것이다.

#### 참고 문헌 -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천국과 지옥』 제 277항: “어린 시절 또는 어린이에게 있는 순진은 진정한 순진이 아니다. 그 이유는 어린이의 순진은 내적 속성이 없는 외적인 형태만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린아이들로부터 순진이 무엇인가를 배워야 한다. 그 이유는 순진성이 어린이의 얼굴이나 그들의 일부 행동 또는 그들의 첫 언어들에서 드러나고 이러한 것들이 그들 주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어린이들의 순진에 내적 속성이 없는 이유는 어린이들이 선과 악 그리고 진리와

거짓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선과 악 그리고 진리와 거짓으로 단련되는 가운데 순진의 내적 속성을 키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어린이들은 그들 자신의 것으로부터 신중성이나 목적 또는 사려 분별이 없어 악을 찾아내려는 목적도 없다. 그리고 그들은 자아나 세상을 사랑함으로 얻어지는 어떤 것도 가지지 못한다. 또한 그들은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이 부모로부터 받은 것임을 인정하고 어떤 것도 자신에게서 비롯되었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은 하찮은 선이 그들에게 허락되더라도 그것에 만족한다. 그리고 그 선을 가지고 기쁨을 발견한다. 그들은 먹을 것이나 입을 것에 대해 근심하지 않는다. 장래에 관해서는 더더욱 그러하다. 그들은 세상을 쳐다보지 않으며 세상에 있는 많은 것을 탐내지 않는다. 그들은 자기들의 부모나 형제 그리고 같이 노는 친구들을 사랑한다. 그들은 자신들이 부모나 다른 어른들에 의해서 인도되는 것을 허용한다. 그들은 청중하며 순종한다.”

『천국과 지옥』 제 278항: “지혜의 순진은 내적이기 때문에 진정한 순진이다. 왜냐하면 이 순진은 마음 자체에 속해 있는 바, 의지 자체와 의지로부터 이해성에까지 속해 있다. 이 영역에 순진이 존재하는 고로 지혜도 있게 된다. 그 이유는 지혜가 의지와 이해성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순진은 선한 것 중 어느 하나도 자신에게 돌리지 않고 모든 선을 주님께 돌려드린다. 그 이유는 순진이 주님에 의해 인도되기를 사랑하며 모든 선한 진리를 받는 근원이기 때문이다. 이 근원으로부터 지혜가 온다. 이런 이유로 인간은 어린 시절 동안 자연적인 순진이 있어 지도록 창조되었고, 나이를 들면서 영적인 순진이 있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자연적인 순진을 수단으로 영적인 순진에 도달되고 영적인 순진은 다시 자연적인 순진으로 표출된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인간이 늙어 가면 그의 육신은 줄어들어 다시 어린이들같이 되는데, 이 어린이가 슬기로운 어린이요 이것이 천사인 것이다. 왜냐하면 슬기로운 어린이는 가장 높은 천국의 천사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말씀가운데서 ‘작은 어린이’는 순진한 인격을 의미하고 ‘노인’은 순진을 가진 슬기로운 인격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다.”

## 질문 정리

- 1) 본문이 있게 된 지역은 어디인가?
- 2) 바리사이파인들은 주님께 무엇을 질문했는가?
- 3) 주님은 왜 모세가 이혼을 허락했다고 말씀하셨는가?
- 4) 주님은 하느님 나라를 어떻게 받아야만 한다고 말씀하셨는가?
- 6) 순진이란 무엇인가?
- 7) 부자 청년은 주님께 무엇을 물었는가?
- 8) 주님은 그에게 먼저 무엇을 하라고 하셨는가?
- 9) 그 다음 주님은 그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셨는가?
- 10) 부자 청년은 왜 되돌아갔는가?
- 11) 주님은 부자에 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 12) 재물을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13) 야고보와 요한은 무엇을 요청했는가?
- 14) 주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하셨는가?
- 15) 주님께서 그분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무엇이라고 하셨는가?

#### 질문의 답

- 1) 유다지방 2) 예루살렘 3) 이혼하는 것이 합법입니까? 4) 너희들의 심정이 완악하기 때문이다 5) 어린이같이 6) 글자대로 보면 해치지 않음, 영적으로 보면 주님께 의해 인도되기를 바램 7)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이까?”
- 8) 계명에 순종하라 9)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 10) 그는 부자였기 때문이다 11) 재물은 천국으로 가는 것을 어렵게 한다 12) 자신의 선함과 지혜를 신뢰함 13) 왕국에서 영광의 자리
- 14) 자리에 앉게 하는 특권은 나의 것이 아니다
- 15) 섬김과 그분의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다

#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

## 머리말

본장은 성탄절 다음으로 중요한 종려주일에 관한 것으로서, 성탄절에 공부한 주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도 연관하여 이해해야 할 것이다.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 곧 기름 부어진 자의 의미를 언급한다. 기름이란 주님의 이타적인 사랑을 상징하며, 주님이 메시아로서 세상에 오신 것은 인류에 대한 순수한 사랑 때문이다.

## 성 서 본 문: 마가복음 11장

11장: 1.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올리브산 근처 벧파게와 베다니아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는 두 제자를 보내시며 2. 이렇게 이르셨다. “맞은편 마을로 가 보아라. 거기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 보지 않은 새끼 나귀 한 마리가 매어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3. 만일 누가 왜 그러느냐고 묻거든 주님이 쓰신다 하고 곧 돌려보내실 것이라고 말하여라.” 4. 그들이 가보니 과연 어린 나귀가 길가로 난 문 앞에 매어 있었다. 그래서 그것을 푸는데 5. 거기 서 있던 사람들이 “왜 나귀를 풀어 가오?”하고 물었다. 6. 제자들이 예수께서 일러 주신 대로 말하자 그들은 막지 않았다.

7. 제자들은 새끼 나귀를 끌고 예수께 와서 자기들의 겹옷을 그 위에 얹어 놓았다. 예수께서 거기에 올라앉으시자 8. 수많은 사람들이 겹옷을 벗어 길 위에 퍼 놓았다. 또 어떤 사람들은 들에서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았다. 9. 그리고 앞서 가는 사람들과 뒤에 따라 오는 사람들이 모두 환성을 올렸다.

10.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가 온다. 만세! 높은 하늘에서도 호산나!” 11. 이윽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 가셨다. 거기서 이것저것 모두 둘러보시고 나니 날이 이미 저물었다. 그래서 열 두 제자와 함께 베다니아로 가셨다.



12.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올 때에 예수께서는 시장하시던 참에 13. 멀리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시 그 나무에 열매가 있나 하여 가까이 가 보셨으  
 나 잎사귀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무화과 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14. 예수께서는  
 그 나무를 향하여 “이제부터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여 아무도 너에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할 것이다”하고 저주하셨다. 제자들도 이 말씀을 들었다. 15.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뒤, 예수께서는 성전 뜰 안으로 들어 가 거기에서 사고팔고 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시며 환전상들의 탁자와 비둘기 장수들의 의자를 둘러 앉으셨다.  
 16. 또 물건들을 나르느라고 성전 뜰을 질러 다니는 것도 금하셨다. 17.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시며 “성서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리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  
 냐? 그런데 너희는 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구나!”하고 나무라셨다. 18.  
 이 말씀을 듣고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를 없애 버리자고  
 모의하였다. 그들은 모든 군중이 예수의 가르치심에 감탄하는 것을 보고 예수를  
 두려워하였던 것이다. 19. 저녁때가 되자 예수와 제자들은 성 밖으로 나갔다. 20.  
 이른 아침, 예수의 일행은 그 무화과나무 곁을 지나다가 그 나무가 뿌리째 말라  
 있는 것을 보았다. 21. 베드로가 문득 생각이 나서 “선생님. 저것 좀 보십시오! 선생님  
 께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라 버렸습니다”하고 말하였다.

22.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느님을 믿어라 23. 나는 분명히 말한다. 누구든지  
 마음에 의심을 품지 않고 자기가 말한 대로 되리라 믿기만 하면 이 산더러 ‘번쩍  
 들려서 저 바다에 빠져라’ 하더라도 그대로 될 것이다. 24. 그러므로 내 말을 잘  
 들어 두어라. 너희가 기도하며 구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이미 받았다고 믿기만  
 하면 그대로 다 될 것이다. 25. 너희가 일어서서 기도할 때에 어떤 사람과 서로 등진  
 일이 생각나거든 그를 용서하여라. 그래야만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께서도 너희  
 의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27. 그들은 또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 갔다. 예수께서  
 성전 뜰을 거닐고 계실 때에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과 원로들이 와서 28.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들을 합니까? 누가 권한을 주어서 이런 일들을 합니까?”하고  
 물었다. 29. 예수께서 “나도 한 가지 물어 보겠다. 너희가 대답하면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들을 하는지 말하겠다. 30. 요한이 세례를 베푼 것은 하늘에서 권한을 받아  
 한 것이냐? 사람에게서 받아 한 것이냐? 어디 대답해 보아라” 하고 반문하시자,

그들은 자기들끼리 “하늘에서 받았다고 하면 어째서 요한을 믿지 않았느냐고 할 터이니 32. 사람에게서 받았다고 할까?”하고 의논했으나 군중이 모두 요한을 참예언자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군중이 무서워서 33. “모르겠습니다”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는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들을 하는지 말하지 않겠다.”하고 말씀하셨다.

### 교리 요점

- \* 이기심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자연적인 이성조차도 조절하지 못하도록 한다.
- \*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성전을 이기적인 목적으로 종교를 이용하려는 경향들로 부터 깨끗하게 보전해야 한다.
- \* 우리의 믿음이 움직일 수 있는 “산”이란 우리의 영적 진보를 위해 나아가는 길가에 버티고 있는 장애물들을 말한다.

### 해설

본장은 종려주일로 널리 알려진 주님의 지상 생활 중의 마지막 주간인 성주간이 시작되는 날을 기념한다. 이 주간은 원래 유대인의 과월절 주간이었기 때문에 주님께 서도 제자들과 함께 이를 기념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셨다. 그리고 주님은 과월절 주간이 시작되는 날에 과거 유대인들의 왕이나 판관들이 그랬듯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다. 주님은 길가에서 종려나무가지와 자기들의 겂옷을 길에 깔아주는 군중의 환영과 환호를 받으며 그들의 왕, 즉 구세주로서 박수갈채를 받으셨다. 이 후 주님은 첫 이틀 동안 성전에서 가르치시면서 성전 뜰 안에까지 들어와 장사를 하던 환전상과 비둘기 장수들을 쫓아 내셨다. 그리고 밤에는 베다니야로 가서서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죽음에서 일으켜 준 나사로의 집에서 묵으셨다. 셋째 날에 그분은 성 안으로 가지지 않았는데, 이는 사람들이 그분에게서 등을 돌리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란 로마의 권력을 깨뜨리고 지상에 그들을 위한 영원한 왕국을 다시 세우실 분이였다. 이는 군중들이 종려주일에

주님을 대대적으로 환영했던 이유이다. 그러나 주님이 오신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 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죄로부터 해방되도록 하기 위함이였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이 지상적인 적들이 아닌 영적인 적들로부터의 해방임을 알자,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분을 거절했다.

넷째 날 저녁 주님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제자들과 과월절 음식을 드셨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최후의 만찬”이다. 주님은 이 때 거룩한 친교인 “주님의 성찬”을 제정하셨는데, 오늘날의 교회들에서도 과월절 대신 기념하고 있다. 저녁 식사 후 유다가 주님을 배반할 것을 아신 주님은 계제마니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다. 그리고 거기서 주님은 적들에게 붙잡혀 재판에 회부되신 후 다섯째 날(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리고 그분의 시신은 무덤에 놓여 졌고 그 무덤은 큰 돌로 입구가 봉인되어졌다.

이상이 성주간에 관한 간략한 줄거리이다. 우리는 주님의 오심이 세상과 우리에게 의미하는 모든 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는 가운데 주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주간으로서 이 일주일의 지나야 할 것이다. 그리고 주님을 그들의 왕으로 환영한지 오 일 만에 구분을 십자가에 못 박는 당시의 유대인들과 지금의 우리가 얼마나 다른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도 때로 그 무리들에 속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자신이 원하는 길과 그분이 말씀하시는 길이 다를 때 그분을 우리 속에서 끄집어내어 버리는 일이 없는지 스스로를 성찰해 보아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천국의 신비」 제 9212-6항: “제자들이 나귀위에 그들의 겹옷을 엮은 모습은 모든 진리들이 가장 높은 관관이나 왕으로서의 주님께 복종되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교회 속의 진리와 선이란 측면에서 주님의 교회를 표현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의 겹옷이란 진리들 자체를 표현하고, 군중이 그들의 겹옷을 길에 퍼놓은 것과 나무 가지도 이와 같은 의미이다”

「천국의 신비」 제 885항: “무화과나무는 특별한 측면에서 유대 교회를 의미한다.

그 교회 안에는 자연적인 선에 관한 어떤 것도 더 이상 있지 않았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있었던 종교적인 가르침이나 그 가르침 안에 보존되어 왔던 진리가 “무화과 나무 잎”이다. 이는 황폐해진 교회란 그 교회가 진리를 알고는 있으나 그것을 기꺼이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서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의 모습과 같이 되기 때문이다. 진리를 안다고 하는 이들 또는 믿음에 관하여 안다고 떠드는 이들이 남을 사랑하는 선의 삶이라는 열매를 전혀 맺지 않을 때 그들이 바로 위의 무화과나무이다.”

### 질문 정리

- 1) 주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셨는가?
- 2) 그분은 어디에서 성장하셨는가?
- 3) 주님의 길을 예비하도록 누가 미리 보내셨는가?
- 4) 주님의 공생애는 대략 몇 년인가?
- 5) 본과에서 다루지는 부분은 교회에서 특별히 무슨 주일이라고 부르는가?
- 6) 이날 주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 7) 주님은 무슨 동물을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는가?
- 8) 제자들은 어디에서 나귀를 발견했는가?
- 9) 왜 우리는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가?
- 10) 주님은 어디에서 밤을 보내셨는가?
- 11) 주님은 성전에서 무엇을 하셨는가?
- 12) 주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어떻게 하셨는가?
- 13) 주님은 믿음을 가지면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가?
- 14) 본문에는 주기도문의 어느 부분이 언급되고 있는가?
- 15) 대사제와 율법학자들은 어떤 질문을 했는가?
- 16) 주님은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셨는가?
- 17) 우리는 종려주일로 시작되는 한 주간을 어떻게 부르는가?
- 18) 이 주간의 목요일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 19) 금요일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 20) 아직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를 주님이 타신 모습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 21) 무화과나무의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22) 종려주일 다음 일요일은 무슨 절기인가?

**질문의 답**

- 1) 베들레헴 2) 나자렛 3) 세례자 요한 4) 3년 5) 종려주일 6) 왕으로서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다 7) 나귀 8) 길가로 난 문 앞에서 9)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었기 때문(요한복음 12:13) 10) 베다니아 11) 환전상과 비둘기 장수를 쫓아 내셨다 12) 말라버림 13) 산을 움직인다 14)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자를 용서하듯이 15)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16) 요한이 세례를 베푼 근원을 물으심 17) 성주간 18) 마지막 만찬 후 체포되심 19) 십자가에 달리심 20) 그분의 자연적인 이성을 완전히 지배하셨음 21) 선한 일이 없다면 영적인 생명도 없다 22) 부활절

# 34

## 성 만찬

### 머리말

본과를 소개하는 측면에서 종려주일에 관련된 사건들을 재조명 한다. 즉,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은 죽음을 당하시기 위한 것이며 이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으나 그들이 그분의 말씀을 이해하거나 기억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주님의 지상 생활의 마지막 주간 동안 그분이 베다니아에서 밤을 보내셨음도 기억해 두기 바란다.

### 성 서 본 문: 마가복음 14장

14장: 1. 과월절 이틀 전 곧 무교절 이틀 전이었다.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하면 몰래 예수를 잡아 죽일까 하고 궁리하였다. 2. 그러면서도 “백성들이 소동을 일으킬지 모르니 축제 기간만은 피하자”고 하였다. 3. 예수께서 베다니아에 있는 나병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의 일이다. 마침 예수께서 음식을 잡수시고 계셨는데 어떤 여자가 매우 값진 순 나르드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깨뜨리고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4. 그러자 거기 같이 있던 몇 사람이 매우 분개하여 “왜 향유를 이렇게 낭비하는가? 5. 이것을 팔면 삼백 데나리온도 더 받을 것이고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을 터인데!”하고 투덜거리면서 그 여자를 나무랐다. 6. 그러자 예수께서는 “참견하지 말아라. 이 여자는 나에게 가룩한 일을 했는데 왜 괴롭히느냐? 7. 가난한 사람은 언제나 너희 곁에 있으니 도우려고만 하면 언제든지 도울 수가 있다. 그러나 나는 언제까지나 너희와 함께 있지는 않을 것이다. 8. 이 여자는 내 장례를 위하여 미리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이니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 것이다. 9. 나는 분명히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알려져서 사람들이 기억하게 될 것이다”하고 말씀하셨다.

10. 그 때에 열 두 제자의 하나인 가리옷 사람 유다가 대사제들을 찾아가서 예수를 넘겨주겠다고 하였다. 11. 그들은 유다의 말을 듣고 기뻐하며 그에게 돈을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를 넘겨 줄 기회만을 엿보고 있었다.

12. 무교절 첫 날에는 과월절 양을 잡는 관습이 있었는데 그 날 제자들이 예수께 “선생님께서 드실 과월절 음식을 저희가 어디 가서 차렸으면 좋겠습니까?”하고 물었다. 13. 예수께서는 제자 두 사람을 보내시며 “성 안에 들어가면 물동이에 물을 길어 가는 사람을 만날 터이니 그를 따라가거라.

14. 그리고 그 사람이 들어가는 집의 주인에게 ‘우리 선생님이 제자들과 함께 과월절 음식을 나눌 방이 어디 있느냐고 하십니다.’하고 말하여라. 15. 그러면 그가 이미 자리가 다 마련된 큰 이층 방을 보여 줄 터이니 거기에서 준비해 놓아라”하고 말씀하셨다. 16. 제자들이 떠나 성안으로 들어 가 보니 과연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였다. 그래서 거기에서 과월절 음식을 준비하였다. 17. 날이 저물자 예수께서 열 두 제자를 데리고 그 집으로 가셨다. 18. 그들이 자리에 앉아 음식을 나누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나는 분명히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터인데 그 사람도 지금 나와 함께 먹고 있다”하고 말씀하셨다. 19. 이 말씀에 제자들은 근심하며 저마다 “저는 아니겠지요?”하고 물었다.

20. 예수께서는 “그 사람은 너희 열 둘 중의 하나인데 지금 나와 한 그릇에 빵을 적시는 사람이다. 21. 사람의 아들은 성서에 기록된 대로 죽을 터이지만 사람의 아들을 배반한 그 사람은 참으로 불행하구나. 그는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을 뻔했다”하고 말씀하셨다. 22.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 나눠 주시며 “받아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하고 말씀하셨다. 23. 그리고 잔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올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건네시자 그들은 잔을 돌려 가며 마셨다. 24. 그 때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나의 피다.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계약의 피다. 25. 잘 들어 두어라. 하느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실 그 날까지 나는 결코 포도로 빚은 것을 마시지 않겠다.”

26. 그들은 찬미의 노래를 부르고 올리브산으로 올라갔다. 27.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칼을 들어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고 기록되어 있는 대로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28. 그러나 나는 다시 살아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래아로

갈 것이다”하고 말씀하셨다. 29.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비록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하고 말하였다. 30.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 말을 잘 들어라. 오늘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너는 세 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하셨다. 31. 그러자 베드로는 더욱 힘주어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결코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하고 장담하였다. 다른 제자들도 다 같은 말을 하였다. 32. 그들은 계제마니라는 곳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하는 동안 여기 앉아 있어라”하시고 33.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따로 데리고 가셨다. 그리고 공포와 번민에 싸여서 34. “내 마음이 피로와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여기 남아서 깨어 있어라”하시고는 35. 조금 앞으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기도하셨다. 할 수만 있으면 수난의 시간을 겪지 않게 해 달라고 하시며 36. “아버지, 나의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무엇이든 다 하실 수 있으시니 이 잔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하고 말씀하셨다. 37. 이렇게 기도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돌아 와 보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시몬아, 자고 있느냐? 단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단 말이냐? 38.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간절하나 몸이 말을 듣지 않는구나!”하시고 39. 다시 가서서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40. 그리고 다시 돌아 와 보시니 그들은 여전히 자고 있었다. 그들은 너무나 졸려 눈을 뜨고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들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41. 예수께서는 세 번째 다녀오셔서 “아직도 자고 있느냐? 아직도 쉬고 있느냐? 그만하면 넉넉하다. 자, 때가 왔다. 사람의 아들이 죄인들 손에 넘어 가게 되었다.

42. 일어나 가자. 나를 넘겨 줄 자가 가까이 와 있다”하고 말씀하셨다. 43. 예수의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열 두 제자의 하나인 유다가 나타났다. 그와 함께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과 원로들이 보낸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떼 지어 왔다. 44. 그런데 배반자는 그들과 미리 암호를 짜고 “내가 입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붙잡아서 놓치지 말고 끌고 가라”고 일러두었던 것이다. 45. 그가 예수께 다가와서 “선생님!” 하고 인사하면서 입을 맞추자 46. 무리가 달려들어 예수를 붙잡았다.

47. 그 때 예수와 함께 서 있던 사람 하나가 칼을 빼어 대사제의 종의 귀를 쳐서 잘라 버렸다.



48. 그것을 보시고 예수께서는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49. “칼과 몽둥이를 들고 잡으러 왔으니 내가 강도란 말이나? 49. 너희는 내가 전에 날마다 성전에서 같이 있으면서 가르칠 때에는 나를 잡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된 것은 성서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한 것이다.” 50. 그 때 제자들은 예수를 버리고 모두 달아났다. 51. 몸에 고운 삼베만을 두른 젊은이가 예수를 따라 가다가 사람들에게 붙들리게 되었다. 52. 그러자 그는 삼베를 버리고 알몸으로 달아났다. 53. 그들이 예수를 대사제에게 끌고 갔는데 다른 대사제들과 원로들과 율법학자들도 모여 들었다. 54. 베드로는 떨쩍이 떨어져서 예수의 뒤를 따라 대사제의 관저 안뜰까지 들어 가서 경비원들 틈에 끼어 불을 쬐고 있었다.

55. 대사제들과 온 의회는 예수를 사형에 처할 만한 증거를 찾고 있었으나 하나도 얻지 못하였다. 56. 많은 사람이 거짓 증언을 하였지만 그들의 증언은 서로 일치하지 않았던 것이다. 57. 그러자 몇 사람이 일어서서 이렇게 거짓 증언을 했다. 58. “우리는 이 사람이 ‘나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헐어 버리고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새 성전을 사흘 안에 세우겠다’하고 큰소리치는 것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59. 그러나 이 증언을 하는 데도 그들의 말은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

60. 그 때에 대사제가 한가운데 나서서 예수께 “이 사람들이 그대에게 이토록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 그대는 할 말이 없는가?”하고 물었다. 61. 그러자 예수께서는 입을 다문 채 한 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대사제는 다시 “그대가 과연 찬양을 받으실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인가?”하고 물었다. 62. 예수께서는 “그렇다. 너희는 사람의 아들이 전능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하고 대답하셨다. 63. 이 말을 듣고 대사제는 자기 옷을 찢으며 “이 이상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겠소? 64. 여러분은 방금 이 모독하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까? 자, 어떻게 했으면 좋겠소?”하고 묻자 사람들은 일제히 예수는 사형감이라고 단정하였다. 65. 어떤 자들은 예수께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면서 “자, 누가 때렸는지 알아 맞추어 보아라.”하며 조롱하였다. 경비원들도 예수께 손찌검을 하였다. 66. 그 동안 베드로는 뜰 아래쪽에 있었는데 대사제의 여종 하나가 오더니 67.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는 것을 보고 그의 얼굴을 유심히 들여다보며 “당신도 저 나자렛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군요?”하고 말하였다. 68. 그러자 베드로는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나는 도무지 알 수가 없소”하고 부인하였다. 그리고 베드로가 대문가로 나가자 69. 그 여중이 그를 보고 곁에 있던 사람들에게 다시 “저 사람은 예수와 한 패입니다”하고 말하였다. 70. 그러나 베드로는 이 말을 또 부인하였다. 얼마 뒤에 옆에 서 있던 사람들이 다시 “당신은 갈릴래아 사람이니 틀림없이 예수와 한 패일 거요”하고 말하였다. 71. 이 말을 듣고 베드로는 거짓말이라면 천벌을 받겠다고 맹세하면서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람은 알지도 못하오.”하고 잡아떼었다. 72. 바로 그때에 닭이 두 번째 울었다. 베드로는 예수께서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하신 말씀이 머리에 떠올랐다. 그는 땅에 쓰러져 슬피 울었다.

### 교리 요점

- \* 성만찬은 우리의 삶 안으로 주님을 환영하는 수단이다.
- \* 우리 마음에 있게 되는 “이층방”은 주님과 친국적인 것을 곰곰이 생각하는 우리의 능력인데, 우리는 이 방을 주님을 위해 예비하고 설비해 두어야 한다.
- \* 성만찬은 악의 권세에서 우리를 되찾으신 주님, 즉 대속하신 주님을 기념한다.

### 해설

단한 번도 주님의 성찬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이 세상에 많다는 사실은 매우 애석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는 특별히 “들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도 나와 함께 먹게 될 것이다 (계시록 3장 20절)”라고 외치시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일생을 그분과 아무런 상관없이 사는 사람은 영적으로 매우 굶주리고 목마른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이다.

일생동안 하느님에 관해 한 번도 들어보지조차 못한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을 들어서 아는 것, 즉 이 지식이 바로 각자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인 것이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 우리를 강제하시지는 않으신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주님이 들어오시도록 하든지 또는 그분을 우리의 마음 밖에 계시도록 하는지는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에 달린 것이다. 만약 우리가 자신의 길과 자신만을 위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들어오시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삶의 빛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마음 밖에 둔 채 문을 잠가 버린다면 우리의 마음은 빛이 없는 어둠 안에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삶은 뒤죽박죽이 되어 비틀거리게 되고 심지어는 자신과 남을 해치게 되어 원하는 것을 모두 얻었다고 하더라도 삶에 결코 만족이 없게 된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계명에 순종해야 함을 인식하는 것이다. 그런 다음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이 원하시는 마음의 자세와 해야 할 것들에 대한 것을 배우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배우고 노력하는 동안 우리는 자신을 희생해야 할 때를 맞게 되고 그동안의 습관들을 바꿔야 함을 깨닫게 된다. 이렇게 노력하며 주님께 다가가는 삶을 살다보면 우리는 어느 순간 누구보다도 환영받는 손님으로 빛 가운데 놓여 있는 스스로를 발견하게 된다. 그리하여 우리는 빛 가운데 걷게 되어 어려움 없이 길을 걷게 되고 우리의 삶은 날마다 새로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주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 주님은 참 생명이 되는 그분의 선함과 진리를 우리가 받을 수만 있다면 모두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성만찬의 빵과 포도주로 그려지고 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길을 포기하고 그분의 진정한 제자가 된다면, 우리는 그분과 함께 식탁에 앉게 되며 그분의 기쁨을 나누어 갖게 될 것이다. 예언자 호세아의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알자, 힘써 주님을 찾아 나서자. 그분의 나오심은 새벽빛 같이 일정하니(호세아 6:3).”라는 예언을 되새겨 보기 바란다.

#### 참고 문헌 -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진정한 기독 종교」 제 726항: “영원한 생명과 구원은 주님과의 결합 없이는 불가능하다. 영적으로 주님과 결합한 자만이 성찬을 진정으로 가치 있게 참여한다. 그리고 거듭나고 있는 이들은 주님과 영적으로 결합해 가는 것이다. 주님께 이웃에 선을 베푼다고 고백하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이 고백과 베푼이 이웃에 대한 사랑과 주님께

대한 믿음으로부터 행해지지 않으면 그들은 거듭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세상적으로 자신에게 무언가 득이 되어 이웃에게 선을 베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일은 단지 자연적수준일 뿐이어서 그들 속에는 어떤 영적인 것도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입과 입술로만 주님을 고백할 뿐 주님과 이웃 사랑으로부터 그들의 심정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웃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 믿음은 주님으로부터 오며, 이 둘 모두는 인간이 자유의지로 선택하여서 진리를 합리적으로 믿으며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그분께 의지할 때만 주어지게 된다. 그 다음 주님은 그 사람 속에 믿음과 선행을 심어 주시고 그 둘을 모두 영적으로 만들어 주신다. 이리하여 주님은 스스로 인간과 결합하고 인간은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그분과 결합하게 된다. 그 이유는 결합이 상호적이지 않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 질문 정리

- 1) 주님은 작은 어린이에 관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2) 부자 청년은 무엇을 물어보았는가?
- 3) 주님은 그 청년에게 첫 번째 필요한 일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4) 그 청년이 기꺼이 하지 못한 일은 무엇인가?
- 5) 주님은 재물(에 의지함)에 관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6) 야고보와 요한은 무엇을 원했는가?
- 7) 진정한 위대함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8) 베다니아에 주님이 계실 때 한 여인이 그분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 9) 제자들은 그 여인의 행동을 어떻게 평가했는가?
- 10) 주님의 평가는 어떠했는가?
- 11) 주님은 두 제자에게 과월절을 기념할 장소를 어떻게 찾으라고 하셨는가?
- 12) 과월절을 준비한 방은 몇 층에 있었는가?
- 13) 과월절은 무엇을 기념하는 날인가?
- 14)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자 그들은 각기 뭐라고 물었는가?

- 15) 주님은 빵과 포도주로 무엇을 하셨는가?
- 16) 기독교의 성례식 중에서 이날 시작된 예식은 무엇인가?
- 17) 빵과 포도주는 무엇을 표현하는가?
- 18) 주님은 저녁 식사 후에 어디로 가셨는가?
- 19) 거기서의 주님의 기도는 무엇이었는가?
- 20) 누가 주님을 배반했는가?
- 21) 그는 어떻게 주님을 배반했는가?
- 22) 주님은 어디서 심문을 받으셨는가?
- 23) 대사제는 주님께 대해 어떤 죄명을 만들었는가?
- 24) 베드로가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한 일은 무엇인가?
- 25) 우리는 성찬에서 무엇을 기념하는가?

#### 질문의 답

- 1) 하늘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2)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 3) 계명에 순종하라 4) 너의 재산을 포기하라 5) 재물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어렵게 한다 6) 영예의 자리 7) 모든 이를 섬김 8) 주님께 기름 부었다
- 9) 쓸데없이 낭비했다 10) 그 여인은 아름다운 일을 했다 11) 물동이에 물을 길어 가는 사람을 따라가라 12) 이층방 13) 이집트인의 노예가 된 상태에서 해방됨
- 14) “주님 저는 아니겠지요?” 15) 감사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주었다
- 16) 성찬 17) 신성한 선함과 진리 18) 계썰마니 19) “...이 잔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소서...” 20) 가리옷 사람 유다 21) 입마춤 22) 대사제 앞에서
- 23) 신성모독, 그리스도라는 주장 24) 주님을 모른다고 세 번 부인하리라
- 25) 악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심

##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 머리말

성만찬이 제정된 것과 유다가 주님을 배반하는 장면까지를 연결하여 이해하도록 한다. 우리가 명확히 해야 할 사항은 주님을 비난하고 공격한 자는 빌라도가 아니라 대사제들이었다는 점이다.

### 성 서 본 문: 마가복음 15장

15장: 1. 날이 밝자 곧 대사제들은 원로들과 율법학자들을 비롯하여 온 의회를 소집하고 의논한 끝에 예수를 결박하여 빌라도에게 끌고 가 넘기었다. 2. 빌라도는 예수께 “네가 유대인의 왕인가?”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그것은 네 말이다”하고 대답하셨다. 3. 대사제들이 여러 가지로 예수를 고발하자 3. 빌라도는 예수께 “보라. 사람들이 저렇게 여러 가지 죄목을 들어 고발하고 있는데 너는 할 말이 하나도 없느냐?”하고 다시 물었다. 5. 그러나 예수께서는 빌라도가 이상하게 여길 정도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6. 명절 때마다 총독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죄수 하나를 놓아 주는 관례가 있었다. 7. 마침 그 때에 반란을 일으키다가 사람을 죽이고 감옥에 갇혀 있던 폭도들 가운데 바라빠라는 사람이 있었다. 8. 군중은 빌라도에게 물려가서 전례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 달라고 요구하였다. 9. 빌라도가 그들에게 “유대인의 왕을 놓아 달라는 것이냐?”하고 물었다. 10. 빌라도는 대사제들이 예수를 시기한 나머지 자기에게까지 끌고 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11. 빌라도의 말을 들은 대사제들은 군중을 선동하여 차라리 바라빠를 놓아 달라고 청하게 하였다. 12. 빌라도는 다시 군중에게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하고 물었다. 13. 그러자 군중은 “십자가에 못박으시오!”하고 소리질렀다. 14.

빌라도가 “도대체 이 사람의 잘못은 무엇이나?”하고 외쳤다. 15. 그래서 빌라도는 군중을 만족시키려고 바라빠를 놓아 주고 예수를 채찍질하게 한 다음 십자가형에 처하라고 내어 주었다.

16. 병사들은 예수를 총독관저 뜰 안으로 끌고 들어가서 전 부대원을 불러 들었다. 17. 그리고 예수께 자주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머리에 씌운 다음 18. “유다인의 왕 만세!”하고 외치면서 경례하였다. 19. 또 갈대로 예수의 머리를 치고 침을 뱉으며 무릎을 꿇고 경배하였다. 20. 이렇게 희롱한 뒤에 그 자주색 옷을 벗기고 예수의 옷을 도로 입혀서 십자가에 못박으러 끌고 나갔다. 21. 그 때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시몬이라는 키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올라오다가 그 곳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병사들은 그를 붙들어 억지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 22. 그들은 예수를 끌고 골고타라는 곳으로 갔다. 골고타는 해골산이라는 뜻이다. 23. 그들은 포도주에 몰약을 타서 예수께 주었으나 예수께서는 드시지 않았다. 24. 마침내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주사위를 던져 각자의 몫을 정하여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때는 아침 아홉 시였다. 26. 예수의 죄목을 적은 명패에는 “유다인의 왕”이라고 씌여 있었다. 27. 예수와 함께 강도 두 사람도 십자가형을 받았는데 하나는 그의 오른 손 편에 다른 하나는 왼편에 달렸다. 29. 지나가던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하하, 너는 성전을 헐고 사흘 안에 다시 짓는다더니 30. 십자가에서 내려와 네 목숨이나 건져 보아라”하며 모욕하였다. 31. 같은 모양으로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도 조롱하며 “남을 살리면서 자기는 살리지 못하는구나! 32. 어디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나 보자. 그렇게만 한다면 우리들 안 믿을 수 있겠느냐?”하고 서로 지껄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자들까지도 예수를 모욕하였다. 33. 낮 열 두 시가 되자 온 땅이 어둠에 덮여 오후 세 시까지 계속되었다. 34. 세 시에 예수께서는 큰 소리로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타니?”하고 부르짖으셨다. 이 말씀은 “나의 하느님, 하느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는 뜻이다. 35. 거기에 서 있던 사람들 몇이 이 말을 듣고 “저것 봐!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르는구나” 하였다. 36. 어떤 사람은 달려오더니 해면을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 끝에 꽂아 예수의 입에 대면서 “어디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 주나 봅시다.”하고 말하였다. 37. 예수께서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다. 38. 그 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쪽으로 찢어졌다. 39. 예수를 지켜보고 서 있던 백인대장이 예수께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숨을 거두시는 광경을 보고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느님의 아들이었구나!”하고 말하였다. 40. 또 여자들도 먼 데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에는 막달라 여자 마리아,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있었다. 41. 그들은 예수께서 갈릴래아에 계실 때에 따라 다니며 예수께서 시종들던 여자들이다. 그 밖에도 예수를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 온 여자들이 거기에 많이 있었다. 42. 날이 이미 저물었다. 그 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었기 때문에 43. 아리마태아 사람 요셉이 용기를 내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내어 달라고 청하였다. 그는 명망 있는 의회 의원이었고 하느님 나라를 열심히 대망하고 있는 사람이었다. 44. 이 말을 듣고 빌라도는 예수가 벌써 죽었을까 하고 백인대장을 불러 그가 죽은 지 오래 되었는가 물어 보았다. 45. 그리고 백인대장에게서 예수가 분명히 죽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는 시체를 요셉에게 내어 주었다. 46. 요셉은 시체를 내려다가 미리 사 가지고 온 고운 베에 싸서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에 모신 다음 큰 돌을 굴러 무덤 입구를 막아 놓았다. 47. 막달라 여자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를 모신 곳을 지켜보고 있었다.

### 교리 요점

- \* 십자가의 고난은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직면하신 시험들 중 마지막에 해당된다.
- \* 설사 악을 이기기 위해서 주님을 찾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악을 허용하지 않으면 악은 우리를 조종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질 수 없다.

### 해설

우리는 사람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장면을 영화나 그림으로 보면서 그 잔혹함과 처참함에 경악하고 두려움을 느낀다. 그런 다음 우리는 그 사건이 자신과 상관없음에 안도감을 느낄지도 모른다. 이는 우리가 이미 기독교를 세계적인 종교로 인정하는



세상에서 살며 설사 사형수라 하더라도 그렇게 신체적인 고통을 주는 것은 잔인한 행위라고 배우고 인정하는 시대에 살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님의 시대는 지금과는 아주 달랐다. 당시 사람들은 잔인한 처벌을 당연하게 여기며 받아들였는데, 이는 십자가형이 로마 제국 고유의 사형 방법들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사제들은 주님을 십자가형에 처하는 데에 아무런 거부감도 느끼지 못했다. 그들에게 주님은 그저 유대 민중의 마음을 뒤흔들고 대사제들의 권위를 위협하는 나사렛 출신의 사람일 뿐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야기를 읽을 때 너무 감정적으로 된다가나 그들이 저지른 잔인한 행위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잔인한 짓을 하도록 했는가를 중심으로 살피고, 그러한 마음을 품고 있지 않는가에 대해서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도 원하신다면 스스로를 능히 구해낼 권능을 가지고 계셨다. 그리고 그분은 많은 기적들을 수행하시며 그러한 권능이 있음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 놓지는 못했다. 우리는 이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지 못함을 명심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진정한 행복에 가까운 것을 느끼게 되는 때가 있다면, 그 때는 바로 스스로의 의지로 사랑을 실현할 때 일 것이다. 주님은 사랑이시므로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자유롭게 두신다. 이는 자유가 없이는 참다운 행복도 없기 때문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삶의 모든 길을 보여 주시기 위해 오셨는데, 이는 우리 삶의 마지막인 죽음까지도 포함해서 이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육체를 죽이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죽인 후에 그들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이 교훈을 배우고 그분의 본보기를 따르려고 항상 노력한다면, 악은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도 줄 수 없을 것이다. 이리하여 우리는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것인 하늘나라의 진정한 상속자로서 세파를 헤치고 굳건히 설 수 있게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천국의 신비」 제 1690항: “모든 시험은 인간 속에 든 사랑을 공격한다. 그리고 그 공격은 그 사람이 가진 사랑과 같은 수준에서 있어진다. 즉, 사랑이 공격받지 않는다면 시험도 없는 것이다. 누군가의 사랑이 파괴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참 생명이 파괴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랑이 생명이기 때문이다. 주님의 생명은 전 인류를 향한 사랑이었다. 그 사랑은 실로 위대해서 순수한 사랑이라고 밖에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다. 주님은 이처럼 그분의 생명에 상반되어서 오는 지속적인 시험들을 어린 시절에서부터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순간까지 받아 들이셨다. 그분은 세상적인 사랑과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에 대항해서 싸우셨다. 그분은 자아사랑과 그에 속한 모든 것들과도 싸우셨다. 그리고 주님의 이러한 사랑은 인간에 속한 것이 아닌 신성이었기 때문에, 이 신성은 가장 위대한 사랑인 것이며 그분은 가장 높은 수준의 시험들과 싸우셔야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싸움이 얼마나 치열하고 고통스러웠는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것이다.”

### 질문 정리

- 1) 주님의 지상 생활 마지막 주간에 그분은 어떤 축제를 기념하셨는가?
- 2) 이 축제는 무엇을 기념하는가?
- 3) 이 때 주님이 새로 설립하신 축제는 무엇인가?
- 4) 기독교의 축제는 무엇을 기념하는가?
- 5) 누가 주님을 배반했는가?
- 6) 예수님은 누구 앞에서 맨 먼저 심문을 당하셨는가?
- 7) 대사제는 어떤 명목으로 주님께 죄가 있다고 했는가?
- 8) 그 다음 주님은 실형에 처하도록 누구에게 보내 지셨는가?
- 9) 빌라도는 주님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 10) 왜 그는 주님을 석방하지 않았는가?
- 11) 주님 대신 빌라도는 누구를 석방했는가?
- 12) 빌라도의 병사들은 주님에게 어떤 짓을 했는가?
- 13) 주님은 어디서 십자가형을 당하셨는가?

- 14) 골고다로 가는 그분의 십자가를 누가 운반해 주었는가?
- 15) 병사들은 주님의 겹옷을 어떻게 처리했는가?
- 16) 누가 주님과 더불어 십자가형을 당했는가?
- 17) 주님의 적들은 무엇을 해보라고 유혹했는가?
- 18) 주님이 죽으실 때 성전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 19) 백인대장은 뭐라고 말했는가?
- 20) 누가 주님의 시신을 내어 달라고 빌라도에게 요구했는가?
- 21) 그는 주님의 시신을 어떻게 했는가?
- 22) 주님의 시신이 무덤에 놓일 때까지 어느 여인들이 그분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있었는가?
- 23) 왜 주님은 자신이 죽음에 처하도록 허용하셨는가?
- 24) 주님의 겹옷을 나눠 가짐은 무엇을 그리는가?

#### 질문의 답

- 1) 과월절 2) 이집트인의 속박에서 해방되었음을 기념함 3) 성찬
- 4) 악의 노예에서 구속됨을 기념함 5) 가리옷 유다
- 6) 대사제 7) 신에 대한 모독 8) 본디오 빌라도
- 9) 주님에게서 어떤 결함을 발견하지 못했다.
- 10) 군중을 만족시키기를 원했다 11) 바라빠 12) 주님을 희롱했다 13) 골고타
- 14) 키레네 사람 시몬 15) 제비뽑아 나누었다 16) 두 강도
- 17)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18) 성전 휘장이 두 폭으로 찢어졌다
- 19) “이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느님의 아들이었구나!”
- 20) 아리마태아 사람 요셉 21) 바위를 파서 만든 새 무덤에 모셨다 22) 두 마리아
- 23) 악은 실지로 선을 파괴할 힘이 없음을 보여 주시기 위해서였음
- 24) 자신의 주장을 타인이 믿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의 문단을 발췌함

## 36

# 부활하신 예수

### 머리말

부활절이 의미하는 바를 각자 정리하면서 본장의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자.

### 성 서 본 문: 마가복음 16장

16장: 1. 안식일이 지나자 막달라 여자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무덤에 가서 예수의 몸에 발라 드리려고 향료를 샀다. 2. 그리고 안식일 다음날 이른 아침 해가 뜨자 그들은 무덤으로 가면서 3. “그 무덤 입구를 막은 돌을 굴러 내 줄 사람이 있을까요?”하고 말을 주고받았다. 4. 가서 보니 그렇게도 커다란 돌이 이미 굴러져 있었다. 5. 그들이 무덤 안으로 들어갔더니 웬 젊은이가 흰 옷을 입고 오른쪽에 앉아 있었다. 그들이 보고 질겁을 하자 6. 젊은이는 그들에게 “겁내지 말라. 너희는 십자가에 달리셨던 나자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지만 예수는 다시 살아 나셨고 여기에는 계시지 않다. 보라. 여기가 예수의 시체를 모셨던 곳이다. 7. 자,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예수께서는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들보다 먼저 갈릴래야로 가실 것이니 거기서 그분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전하라” 하였다. 8. 여자들은 겁에 질려 덜덜 떨면서 무덤 밖으로 나와 도망쳐 버렸다. 그리고 너무도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말을 못하였다. 9. 일요일 이른 아침, 예수께서는 부활하신 뒤 막달라 여자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셨는데 그는 예수께서 일찍이 일곱 마귀를 쫓아내어 주셨던 여자였다. 10. 마리아는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곳으로 찾아 가 이 소식을 전해 주었다. 11. 그러나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 계시다는 것과 그 여자에게 나타나셨다는 말을 듣고도 믿으려 하지 않았다.

12. 그 뒤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시골로 가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13. 그 두 사람도 돌아 와서 다른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으나 그들은 그 말도 믿지 않았다. 14. 그 뒤 열 한 제자가 음식을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마음이 완고하여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는 그들을 꾸짖으셨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신 것을 분명히 본 사람들의 말도 믿지 않았던 것이다. 15.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며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선포하여라. 16.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단죄를 받을 것이다. 17. 믿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따르게 될 것인데 내 이름으로 마귀도 쫓아 내고 여러 가지 기이한 언어로 말도 하고 18. 뱀을 쥐거나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을 것이며 또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19. 주님이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다 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느님 오른편에 앉으셨다. 20. 제자들은 사방으로 나가 이 복음을 전하였다. 그리고 주께서는 그들과 함께 일하셨으며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게 하심으로써 그들이 전한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증명해 주셨다. 21. 그 여자들은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에게 가서 그들이 들은 모든 것을 간추려 이야기해 주었다. 22. 그 뒤 예수께서는 친히 제자들을 해가 뜨는 곳에서 해가 지는 곳까지 보내시어 영원한 구원을 선포하는 거룩한 불멸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 아멘.

### 교리 요약

- \*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자연적인 경향성, 즉 보고 만져야만 믿을 수 있는 우리의 한계를 극복하도록 한다.
- \* 이 세상에서의 삶은 우리의 진정한 삶의 시작에 불과하다.
- \*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은 진정한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 언제나 영적 성취가 있다는 것이다.

### 해설

부활절은 주님이 죽음에서 일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다. 본문을 읽어보면 제자들이 주님으로부터 이미 장차 일어날 일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살아나셨음을 확신하는 데 무척이나 힘들어 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서 본문 14절에서는 “...마음이 완고하여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는 그들을 꾸짖으셨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신 것을 분명히 본 사람들의 말도 믿지 않았던 것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제자들의 더딘 믿음은 우리들의 모습일지도 모른다. 우리는 사복음들에 기록된 주님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읽어서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이야기들을 그대로 믿는 것을 주저하거나 머뭇거리기도 한다. 이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물질적인 세계여서 죽음이 모든 것의 끝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물질적인 것들을 얻는데 모든 시간과 노력을 들이며 육체의 건강만을 최우선으로 여기기도 한다. 하지만 주님의 섭리는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사랑이신 주님은 우리의 영혼이 고갈되어가고 병들어 가는 것을 두고 보시지 않기 때문이다.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연 역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 준다. 가을이 되면 정원의 꽃들은 시들어 죽어 가고 들판은 텅 비게 된다. 그리고 겨울이 되면서 대지는 마치 죽은 듯 꿈뚱 얼어 버린다. 그러나 봄이 되면 새 생명이 따스한 햇살에 녹아가는 대지를 뚫고 올라온다. 그리고 나뭇가지들에는 파릇파릇한 새싹들이 솟아나고, 땅은 다시 생명과 아름다움으로 흘러넘치게 된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분의 지상생활 마지막 주간 초에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정말 잘 들어 두어라.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아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아끼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목숨을 보존하며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다. 봄은 부활을 그려주는 계절이다. 그리고 주님께에서 비롯되는 생명은 영원하며 영혼은 결코 죽지 않는다.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이 날에 주어진 이름인 Easter는 봄과 관련이 있다. Easter는 튜돈족의 봄의 여신인 Eastre의 철자만 바꾼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절기에 아이들에게 부활절 계란이나 작은 토끼 인형 또는 복슬복슬한 병아리를 주기도 한다. 이러한 상징적인 물건을 주는 것에도 특별한 이유가 있다. 우리는 이 물건들을 아이들

에게 건네주면서 그것들이 생명의 연속성을 상징함을 가르쳐 주며 죽음이 끝이 아니라  
는 것과 천국에서의 삶에 대해서 설명한다.

진정한 기독교인이라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또는 자신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서는 안 될 것이다. 선하고 바른 삶을 산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영원한  
삶의 면류관이며 한정되고 실망과 투쟁뿐인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저 건너에  
있는 삶, 즉 끝없는 진보와 자유 그리고 아름다움이 가득한 삶으로 옮겨 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께서서는 부활 첫날 죽음을 이기고 일어나심으로 우리에게 이를 증명  
해 주신 것이다.

#### 참고 문헌 -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요한계시록 설명」 제 400-14항: “ ‘천사가 무덤 입구에서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다’는 것은 그분에게 접근해서 가로막고 있던 모든 거짓을 제거 하시고 신성한  
진리를 여섯음을 의미한다. ‘돌’이란 유대인들이 그들의 전통으로 인해 거짓화한  
신성한 진리를 의미한다.”

#### 질문 정리

- 1) 우리는 이 주일을 무슨 날이라고 부르는가?
- 2) 우리는 부활절에 무엇을 기념하는가?
- 3) 지난 주일은 무슨 날이었는가?
- 4) 왜 지난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가?
- 5) 왜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나귀를 타셨는가?
- 6) 왜 군중은 주님을 환영했는가?
- 7) 왜 군중은 며칠도 채 지나지 않아 주님께에서 돌아섰는가?
- 8) 그 주일 목요일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 9) 금요일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 10) 일요일 아침 무덤에 누가 왔었는가?

- 11) 그들은 왜 왔었는가?
- 12) 그들은 오면서 무엇을 의문스러워했는가?
- 13) 그들이 와서 무엇을 발견했는가?
- 14) 천사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 15) 주님은 누구에게 맨 처음 나타나셨는가?
- 16) 그들이 주님을 뵈었다고 말했다고 때 제자들은 믿었는가?
- 17) 주님은 모두에게 나타나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18) 주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는가?
- 19) 주님은 믿는 이들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는가?
- 20) 주님은 그들을 어떻게 떠나셨는가?
- 21) 무덤을 막은 돌이란 무엇을 그리는가?
- 22) 주님이 일어나신 후 왜 여인들이 처음 그분을 뵈게 되었는가?

#### 질문의 답

- 1) 부활절 2) 죽음에서 예수가 일어나셨음을 기념 3) 종려주일 4) 군중이 주님 가시는 길에 종려나무 가지를 뿌렸기 때문에 5) 왕의 표시 6) 그분이 세상의 통치자라고 생각했기 때문 7) 그분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님을 발견해서이다 8) 마지막 성찬 9) 십자가에 달리심 10) 두 마리아 11) 시신에 향을 바르려고 12) 자기들을 위해 누가 돌을 굴러 내줄까? 13) 돌은 굴러졌고, 주님은 가셨고, 흰옷을 입은 젊은이가 앉아 있었다 14) 그분은 일어나셨다 15) 막달라 마리아 16) 아니다 17) 마음이 완고하여 도무지 믿지 않으려는 그들을 꾸짖으셨다 18) 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세례를 주라 19) 구원 받을 것이다 20) 승천하셨다 21) 물질주의적인 생각 22) 그녀들은 신성한 속성에 대한 우리의 애정을 표현하기 때문



## 옥좌를 본 요한의 환상

### 머리말

이 계시록이 주어질 당시의 사도 요한에 대한 것과 당시의 주변 환경을 간략히 언급한다.

### 성 서 본 문: 요한계시록 4장

4장: 1. 그 뒤에 나는 하늘에 문이 하나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내가 들었던 음성, 곧 나에게 말씀하시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나에게 “이리로 올라오너라. 이후에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보여 주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2. 그러자 곧 나는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보니 하늘에는 한 옥좌가 있고 그 옥좌에는 어떤 분이 한 분 앉아 계셨습니다. 3. 그분의 모습은 벽옥과 홍옥 같았으며 그 옥좌 둘레에는 비취와 같은 무지개가 걸려 있었습니다.

4. 옥좌 둘레에는 또 높은 좌석이 스물네 개 있었으며, 거기에는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쓴 원로 스물 네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5. 그 옥좌에서는 번개가 번쩍였고 요란한 소리와 천둥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옥좌 앞에서는 일곱 횃불이 훤훤 따고 있었습니다. 그 일곱 횃불은 하느님의 일곱 영신이십니다. 6. 옥좌 앞은 유리바다 같았고 수정처럼 맑았습니다. 그리고 옥좌 한가운데와 그 둘레에는 앞뒤에 눈이 가득 박힌 생물이 네 마리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7. 첫째 생물은 사자와 같았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와 같았으며 세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의 얼굴과 같았고 네째 생물은 날아다니는 독수리와 같았습니다. 8. 그 네 생물은 각각 날개를 여섯 개씩 가졌고, 그 몸에는 앞뒤에 눈이 가득 박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전능하신 주 하느님

전에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시로다!”하고 외쳤다. 9. 옥좌에 앉으시고 영원무궁토록 살아 계신 그분에게 그 생물들이 영광과 영예와 감사를 드리고 있을 때 10. 스물 네 원로는 옥좌에 앉아 계신 그분 앞에 엎드려 영원무궁토록 살아 계신 그분에게 경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금관을 벗어서 옥좌 앞에 내놓으며, “주님이신 우리 하느님 하느님은 영광과 영예와 권능을 누리실 만한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만물이 주님의 뜻에 의해서 생겨났고 또 존재합니다.”하고 찬양했습니다.

### 교리 요약

- \*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우리의 마음에서 있게 되는 영적인 전투는 계속 된다.
- \* 하느님의 섭리는 말씀으로부터의 진리를 수단으로 하여 선한 사람을 보호하시며 그들을 악으로부터 분리시킨다.
- \* 주님만이 선과 악에 대한 유일한 재판관이시다.

### 해설

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책이다. 이 책은 묵시록이라고도 불리는데, 묵시록이란 단어는 그리스어로 계시록이라는 뜻이다. 이 책은 사도 요한이 90살이 거의 다 되어서 주어진 길고도 경이로운 환상에 대한 기록이다. 그리고 그때 가리옷 유다를 제외한 다른 제자들은 이미 모두 순교를 당했다. 그 이유는 로마제국이나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기독교의 전파를 매우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사도 요한은 제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순교를 당하지 않고 살아남은 인물이었다. 그는 죽음에 직면하지는 않았지만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 소아시아의 해안에서 조금 떨어진 파트모스라는 섬에 유배되어 있었다.

단어 계시란 “베일을 벗김, 비밀 따위를 밝힘”이라는 의미이다. 이 환상이 주어질

때 요한은 “성령이 그와 함께” 하셨다고 말했다. 그리고 주님은 그에게 “네가 본 것, 그리고 지금 있는 그대로, 또 장차 있게 될 것”을 쓰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 책은 인간의 심정과 지성 안에 존재하는 상태들, 즉 영적인 조건에 대한 모든 것을 기술해 놓은 최초의 책에 해당된다. 또한 이 책은 이러한 심정상태가 초래하게 될 것들에 관한 예언이기도 하다.

계시록은 사람들의 상상력을 사로잡는 기이한 힘이 있어서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의 내용들을 설명하려고 했고 많은 예술가들이 이 책에 있는 이미지들을 구체화했다. 특별히 세상에 큰 전쟁이나 전투가 있을 때면 사람들은 그것을 이 책의 내용과 비교하여 세상의 종말이 온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계시록의 내용은 우리가 일생동안 계속하게 되는 영적인 전투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으로, 우리의 심정 속에서 있게 되는 선과 악 사이의 싸움 그리고 우리의 지성 속에서 있게 되는 진리와 거짓 사이의 싸움에 대한 그림이라고 스웨덴북은 강조한다. 또한 이 책은 악과 거짓을 선택함에 따라오는 피할 수 없는 결과와 선과 진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영적인 심판에 대한 그림이기도 하다. 본문은 이러한 전투를 위해서 놓이는 무대에 해당된다. 그 이유는 천국이 주님께서 통치하는 곳이며 그 안의 모든 것들은 그분만을 사랑하며 예배하기 때문이다.

#### 참고 문헌 -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요한 계시록 밝힘 제 231항」: “말씀에서 돌이란 삶의 행동 속에 담겨 있는 진리를 의미하고, ‘귀한 돌, 보석’은 선으로부터 비쳐 보이는 진리를 의미한다. 영계에서 기본이 되는 두 가지 색깔은 흰색과 빨간 색이다. 흰색은 천국에 있는 태양의 불, 즉 불꽃같은 천적인 빛에 근원하고 있다. 이것이 말씀 속에서 보석이 지혜의 진리 또는 사랑의 선과 같은 것을 의미하는 이유이다. 그래서 ‘백옥’은 하얗게 빛나기 때문에 지혜의 진리 속에 있는 것을, 홍옥은 붉기 때문에 사랑의 선속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

「요한 계시록 밝힘 제 232항」: “영계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무지개가 지상에서의

무지개와 같이 다양한 색깔로 나타난다. 그리고 때로는 한 가지 색깔로도 나타난다. 여기서 한 가지 색 이라 함은 ‘에메랄드 같다’라고 말해지기 때문이다. 주님을 둘러싸고 있는 신성한 기운은 그분의 신성한 사랑으로부터와 그분의 신성한 지혜로부터 근원된다. 이 기운은 천국에서 표현되어 질 때 천적인 천국에서는 루비같이 붉게 나타나고 영적인 천국에서는 청금석 같이 푸르게 나타나며 자연적인 천국에서는 에메랄드 같이 녹색으로 나타난다. 그 빛남과 광채는 어느 곳에서나 인간의 언어로는 형용할 수 없다.”

『요한 계시록 밝힘 제 238항』: “‘옥좌 앞은 유리바다 같았고 수정처럼 맑았습니다.’란 말씀의 글자의 의미로부터 얻은 일반적인 진리로 살았던 기독교인들로부터 이뤄지는 새 천국을 의미한다. 영계에는 이 세상에서와 비슷한 대기와 물이 나타난다. 가장 높은 천국에 거하는 천사들의 대기는 마치 에테르 같고, 중간 천국에 거하는 천사들의 대기는 공기 같고, 가장 낮은 천국에 거하는 천사들의 대기는 물과 같다. 마지막으로 천국의 가장자리에 바다같이 나타난다. 그곳에는 말씀의 글자로부터 온 일반적인 진리 안에 있는 이들이 있다. 이 가장자리가 ‘유리바다 같았고 수정처럼 맑았다’라고 불려진다. 이들은 주님으로부터 진행되어 나오는 신성한 진리의 맑음으로부터 있는 이들이다.”

### 질문 정리

- 1) 성서의 어떤 책이 기독교회의 시작에 관해 말해주는가?
- 2) 우리는 왜 이 책을 다루지 않는가?
- 3) 우리는 본과에서 어떤 책을 공부하고 있는가?
- 4) 이 책의 다른 이름은 무엇인가?
- 5) 이 책은 무엇에 관한 것인가?
- 6) 누구에게 환상이 주어졌는가?
- 7) 요한은 어디에 있었으며, 왜 그곳에 있어야 했는가?
- 8) 요한은 처음에 무엇을 보았는가?
- 9) 그에게 어떤 메시지가 주어졌는가?

- 10) 본문에서 그는 무엇을 보았는가?
- 11) 옥좌에 관해 기술해 보자.
- 12) 몇 명의 원로들이 거기에 있었는가?
- 13) 얼마나 많은 생물이 거기에 있었는가?
- 14) 생물들은 어떤 얼굴을 가지고 있었는가?
- 15) 성경의 어느 부분에서 이 생물을 공부했는가?
- 16) 이 생물은 다른 이름으로 어떻게 불리는가?
- 17) 그들은 주님 앞에서 뭐라고 외치고 있었는가?
- 18) 어디서 이 말들을 들었는가?
- 19) 옥좌는 무엇을 표현 하는가?
- 20) 네 생물은 무엇을 표현 하는가?

#### 질문의 답

- 1) 사도행전, 서간서 2) 속뜻이 없기 때문 3) 계시록 4) 묵시록 5) 환상들
- 6) 사도 요한 7) 파트모스섬, 유배되었다 8) 부활하신 주님 9) 일곱 교회에 대한 편지 10) 옥좌 11) 제 2-5절 참조 12) 24 13) 4 14)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15) 예제키엘 1장 16) 거룩들 17)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18) 예베시간의 답창 순서에서 19) 심판 20) 신성한 섭리의 보호하시는 권능으로 사자는 선을 위한 권능을, 송아지는 자연적인 애착을, 사람은 지혜를 그리고 독수리는 이해성을 표현 한다.

## 봉인된 책

### 머리말

37장의 내용이 본과의 서론이 되므로 연결하여 공부하도록 한다.

### 성 서 본 문: 요한계시록 5장

5장: 1. 나는 또 옥좌에 앉으신 분이 오른손에 두루마리 하나를 들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안팎에 글이 기록돼 있는 그 두루마리는 일곱 인을 찍어 봉하여 놓은 것이었습니다.

2. 그리고 나는 힘센 천사 하나가 큰 소리로 “이 봉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펼 자격이 있는 자가 누구인가?”하고 외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3. 그러나 그 두루마리를 펴고 그것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자는 하늘에도 없고 땅에도 없고 또 땅 아래에도 없었습니다.

4. 그 두루마리를 펴고 그것을 들여다 볼 자격이 있는 자가 하나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슬피 울었습니다. 5. 그러나 원로들 가운데 하나가 “울지 마시오.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승리하였으니 그분이 이 일곱 봉인을 떼시고 두루마리를 펼 수 있습니다”하고 말했습니다.

6. 나는 또 그 옥좌와 네 생물과 원로들 가운데 어린 양 하나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어린 양은 이미 죽임을 당한 것 같았으며 일곱 뿔과 일곱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하느님께서 온 땅에 보내신 일곱 영신입니다. 7. 그 어린 양이 나와 옥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서 그 두루마리를 받아 들었습니다. 8. 그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받아 들자 네 생물과 스물 네 원로는 각각 거문고와 향이 가득 담긴 금대접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향은 곧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9. 그리고 그들은

다음과 같은 새로운 노래를 불렀습니다. “당신은 두루마리를 받으실 자격이 있고 봉인을 떼실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죽임을 당하셨고 당신의 피로 값을 치러 모든 민족과 언어와 백성과 나라로부터 사람들을 구해 내셔서 하느님께 바치셨습니다. 당신은 그들로 하여금 우리 하느님을 위하여 한 왕국을 이루게 하였고 사제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들은 땅 위에서 왕노릇할 것입니다.” 11. 나는 또 그 옥좌를 둘러선 많은 천사들과 생물들과 원로들을 보았고 그들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그들의 수효는 수천 수만이었습니다. 12. 그들은 큰 소리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권능과 부귀와 지혜와 힘과 영예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자격이 있으십니다”하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13. 그리고 나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 곧 온 우주 안에 있는 만물이, “옥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서 찬양과 영예와 영광과 권능을 영원무궁토록 받으소서!” 하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14. 그러자 네 생물은 “아멘”하고 화답했으며 원로들은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 교리 요점

- \* 새 교회는 열린 말씀에 기초를 두고 있다.
- \* 주님은 말씀의 내적인 의미들을 스웨덴봄에게 밝히심으로써 말씀의 봉인을 Ep셨다.

### 해설

요한의 환상에서 주님의 손에 들려진 책은 바로 우리가 공부하는 책인 하느님의 말씀이다. 주님께서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신 예언들을 성취시키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지금과 같은 성경 공부와 말씀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질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새교회도 존재할 리 만무할 것이다.

새교회는 주님께서 주신 열려진 말씀에 기초하고 있다. 요한이 환상을 보기 600여 년 전에 주님은 예언자 다니엘에게 “너 다니엘아, 이 말씀을 비밀에 붙여 마지막 그 때가 오기까지 이 책을 봉해 두어라. 많은 사람들이 읽고 깨쳐 잘 알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러나 갈팡질팡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12:4).”라고 명하셨다.

그리고 주님은 세상에 계셨을 때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많은 것을 이미 말해 주었으나 너희들은 지금 그것들을 증언할 수 없으니.”라고 말씀하셨다. 요한 이후로 수많은 세월이 지나 사람들의 지식과 지성이 주님의 말씀의 참뜻을 이해하기에 충분할 만큼 향상 된 시기가 왔다. 그러자 주님은 봉인된 책을 열어서 그 안에 감춰진 참된 의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게 되었는데, 이는 1700년 대 후반에 일어났다.

본문에서 요한의 예언적 환상에서는 일곱 봉인들이 하나씩 떼어지게 되었고 그 때마다 경이롭고 엄청난 일이 발생한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예를 통해서 말씀으로부터 온 진리가 우리와 함께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살펴보자. 말씀 속의 진리 중에는 “흠치지 말라”하는 진리가 있다. 우리 모두는 이 진리를 아주 어릴 적에 배웠다. 하지만 그 때의 우리는 이 진리를 그저 어른들이 하는 말 정도로만 느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나이 들어감에 따라 이 진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임을 알게 된다. 즉, 내 소유가 아닌 것들을 탐내게 되면 벌이 따른다는 것이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을 각자의 마음에 담아서 기억하고 그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세월이 더 흐르게 되면서 타인을 험담 하는 것 역시 흠치는 것에 해당됨을 느끼게 된다. 왜냐하면 험담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명예를 깎아 내리는 것으로 상대방의 명예를 흠치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타인에 대해 잡담 하는 도중 불현듯 있게 되는 험담에 대한 시험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이 후 다른 사람의 선한 업적을 자신의 명예를 위해 덤석 삼키려는 시험에 봉착하게 되는 순간이 오기도 한다. 우리가 이 순간 그것을 덤석 삼키면, 우리는 남의 것을 훔쳐 내 자신의 집에 가져온 것이 되고 만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주님만이 선과 지혜이시며 우리의 선과 지혜의 근원이 그분이심을 주목해야 한다. 우리는 어느 순간에 자신에게 있는 지식이나 선함을 마치 스스로의 것인 양 느끼며 그것들을 이기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여 주님의 것을 훔치기도 한다. 이 마지막 단계의 시험은 우리 모두에게 가장 어려운 투쟁이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영이 성장함에 따라 “도적질 하지 말라”하는 말씀의 진리를 막고 있던 봉인들이 풀어져 나감을 경험하게 된다. 봉인이 하나씩 떼어질 때마다 말씀 속의 진리가 우리에게 깊이를 더해가며, 그것이 열릴 때마다 우리의 영에는 더 심각한 시험과 더 큰 충동이 있게 된다. 승리와



더불어 더 큰 보상이 뒤따르게 된다.

### 참고 문헌 -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요한 계시록 밝힘 제 276항」: “그들이 거문고를 들고 있었다”는 것은 영적인 진리들로부터 주님이 신성한 인간이심을 고백함을 의미한다. 여호와에 대한 고백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노래로 이루어졌다. 동시에 그 고백에 상응되는 악기를 가지고도 표현했다. 이 악기들은 주로 트럼펫, 탬버린, 수금이나 하프들이다. 트럼펫과 탬버린은 천적인 선과 진리에 상응된다. 수금이나 하프(거문고)는 영적인 선이나 진리에 상응되는 바, 상응은 그 악기들의 소리와 더불어 있게 된다.”

「요한 계시록 밝힘 제 277항」: “향이 가득 담긴 금대접이란 영적인 선으로 주님의 신성한 인간을 고백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이유는 향이 영적인 선으로 드리는 예배를 의미하고, 이 구절의 경우 이와 같은 선으로 고백함을 의미하게 되는 것은 유대교회나 이스라엘 교회에서의 중요한 예배는 제물과 향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예배 장소에는 제물을 바치는 제단과 향을 피우는 제단이 있었다. 향을 피우는 제단은 성막 내에 있었고, 금제단이라고 불려졌다. 반면 제물을 바치는 제단은 성막 밖에 놓여 있으면서 번제단이라고 불려졌다. 이는 두 종류의 선이 있고 그것으로 모든 예배가 존재되기 때문이다. 두 가지의 선이란 천적인 선과 영적인 선을 말한다. 천적인 선은 주님을 사랑함에서 있어진 선이며, 영적인 선은 이웃을 향한 사랑에서 있어지는 선이다. 제물에 의한 예배는 천적인 선으로부터 예배함이고, 향을 피우는 예배는 영적인 선으로부터 예배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2장 11절에서도 이와 같은 것이 등장한다. “동방박사들은 보물상자를 열어 막 태어난 주님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다.” 그들이 위의 세 가지 보물을 드린 이유는 금이 천적인 선을, 유향이 영적인 선을 그리고 몰약이 자연적인 선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선들로 모든 예배가 만들어진다.”

### 질문 정리

- 1) 하늘에서 문이 열리자 요한은 무엇을 보았는가?
- 2) 옥좌에는 누가 앉아 계셨는가?
- 3) 몇 명의 원로가 그곳에 있었는가?
- 4) 얼마나 많은 생물이 그곳에 있었는가?
- 5) 그 생물들은 어떤 얼굴을 가졌는가?
- 6) 그 생물의 또 다른 이름은 무엇인가?
- 7) 그 생물은 주님께 예배할 때 뭐라고 말했는가?
- 8) 본문에서 주님은 그분의 오른 손에 무엇을 가지고 계셨는가?
- 9) 왜 요한은 울었는가?
- 10) 누가 그 책을 열었는가?
- 11) 요한이 본 어린 양에 관하여 설명해 보자.
- 12) 원로들과 생물들은 손에 무엇을 들고 있었는가?
- 13) 얼마나 많은 천사들이 노래했는가?
- 14) 그들이 부른 새 노래는 어떤 것인가?
- 15) 노래 부른 뒤 네 생물은 뭐라고 말했는가?
- 16) 아멘은 무슨 뜻인가?
- 17) 이 책의 나머지에 있는 요한의 환상은 무엇에 관한 것인가?
- 18) 새교회에서는 봉인이 떼어짐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 질문의 답

- 1) 옥좌 2) 주님 3) 24 4) 4 5)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6) 거룩들 7)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8) 두루마리 또는 책 9) 봉인을 뿔 자가 없어서 10)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11) 이미 죽임을 당한 것 같고, 일곱 뿔, 일곱 눈 12) 거문고나 향이 담긴 금대접 13) 수천수만 14)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찬양을 받으실 자격이 있으십니다” 15) 아멘 16) 그렇게 되어 지리다 17) 모든 것의 심판 18) 주님이 그 책을 여셨다는 것, 내적인 의미를 알 수 있게 됨

## 39

# 심판과 기록한 성

### 머리말

성경이 생명의 책이라고 불리는 이유를 알아야 할 것이다. 이를 알기 위해서 창세기 1장 1절 그리고 계시록 21장 1절과 6절을 읽어 보자. 또한 계시록 21장 2절도 주목한다.

### 성 서 본 문: 요한계시록 20장 11-15절, 21장 1-7절

20장: 11. 나는 또 크고 흰 옥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습니다.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사라지고 그 흔적조차 찾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12. 나는 또 죽은 자들이 인물의 대소를 막론하고 모두 그 옥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많은 책들이 펼쳐져 있고 또 다른 책 한 권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책이었습니다. 죽은 자들은 그 많은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들의 행적을 따라 심판을 받았습니다. 13. 바다는 자기 안에 있는 자들을 토해 냈고 죽음과 지옥도 자기들 속에 있는 죽은 자들을 토해 놓았습니다. 그들은 각각 자기 행적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14. 그리고 죽음과 지옥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이 불바다가 둘째 죽음입니다. 15. 이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올라 있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21장: 1. 그 뒤에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2.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신랑을 맞을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차리고 하느님께서 계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3. 그 때 나는 옥좌로부터 울려 나오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제 하느님의 집은 사람들이 사는 곳에 있다. 하느님은 사람들과 함께 계시고 사람들은 하느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느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하느님이 되셔서 4.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이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5. 그 때 옥좌에 앉으신 분이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하고 말씀하신 뒤 다시금 “기록하여라, 이 말은 확실하고 참된 말이다”하고 말씀하셨습니다. 6. 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다 이루어졌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곧 처음과 마지막이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생명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7. 승리하는 자는 이것들을 차지하게 될 것이며 나는 그의 하느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 교리 요점

- \* 우리는 날마다 스스로가 하는 도덕적 또는 영적인 선택들로 자신의 “생명의 책”을 집필한다.
- \* “생명의 책”은 “인격의 책”이라고도 부를 수 있으며, 이 책에 기록된 바에 따라 우리의 영원한 상태가 결정되는 것이다.
- \* 천국적인 교리로 읽게 되는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삶의 길과 목적에 관련된 무한한 진리의 근원이 된다.

### 해설

본문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것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이루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제 20장의 끝 부분에 있는 심판에 대한 모습은 요한의 다른 환상과 마찬가지로 상징적인 것이다. 우리는 죽은 후 요한의 환상에서와 같은 옥좌 앞에 실제로 서게 되지는 않는다. 다만 우리가 죽은 후 있게 되는 우리 삶에 대한 전반적인

재조명이 상징적으로 표현된 것 뿐이다. 하지만 심판이라는 것은 실재한다. 스웨덴북에 의하면, 우리가 죽은 후 임하게 될 심판은 주님이나 천사들이 관관으로 있는 심판이 아니라 지상에서 있었던 우리의 삶에 따라 스스로가 마지막으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한다. 즉, 최후의 심판은 곧 최후의 선택인 것이다. 최후의 선택은 지상에서처럼 몸과 마음이 따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순간에 우리가 이룩한 인격적이고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이뤄지게 된다.

본문에 나오는 열려진 책들이란 지상에서의 삶 동안 선택에 의하여 형성된 우리의 인격을 상징하며, 우리는 이 책을 날마다 쓰고 있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우리는 스스로의 진실 된 감정과 생각들을 타인들로부터 감출 수 있다. 그러나 그것들은 저 세상에서 모두 명백하게 드러나게 된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의 삶 동안 이타적인 삶을 살기 위해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고 실천하지 못하면, 우리는 저 세상에서 행복하며 이타적인 천국으로부터 등을 돌려 버리고 자신의 욕망과 이기심과 비슷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곳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본문의 불 못(바다) 역시 상징적인 것으로 이기적인 열정이 불타고 있는 것을 뜻하며 그것이 바로 지옥을 만든다.

제 20장에서는 주님께서 선한 자들부터 창조한 새 하늘에 대하여 알려 주고 있다. 선한 자들이란 그들의 심정이 하느님의 말씀의 핵심이 이타적인 사랑임을 발견한 자들이다. 하느님께서 계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이란 열려진 말씀을 기초로 하는 지상의 새교회이다. 약 이백 오십 년 전 말씀이 열려졌을 때 발견된 진리에 기초를 둔 교회가 바로 우리가 속한 새교회이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는 공식적으로 “새 예루살렘교 (Church of the New Jerusalem)”라는 이름을 지니게 된 것이다. 우리는 매일 말씀을 읽으면서 가르침을 받는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축복을 발견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수의 샘”이 되며 우리 삶의 진정한 목적을 이해하도록 해주고, 어떠한 어려운 고난이 닥치더라도 우리의 영적 발달과 진보를 가능케 해주는 기회로 만들어 주는 마르지 않는 샘 곧 무한한 진리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 참고 문헌 -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요한 계시록 밝힘」 제 876항: ‘그리고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라고 함은 새 천국이 주님에 의해 기독교인들로부터 형성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때부터 새 천국은 기독교의 천국이라고 불린다. 거기에는 주님을 예배해 온 이들, 말씀 속의 계명에 따라 살았던 이들, 자기 속에 선행과 믿음이 있는 이들 그리고 그 천국 안에는 기독교인들의 가정에 태어났던 모든 유아들의 영혼들도 있다. ‘새 하늘과 새 땅’이란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자연계의 하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인간이 거주하는 자연계의 땅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이는 영적인 하늘을 의미하며 거기서의 땅은 영적인 하늘에 속해 있다. 그 곳은 천사들이 사는 곳으로 기독교의 천국이라고 불린다. 그 이유는 그곳이 고대인의 천국과 구별되어 있기 때문이다. 고대인의 천국은 주님이 오시기 전 교회에 속한 사람들로부터 존재했다. 그리고 고대인의 천국은 기독교인의 천국 위에 있다. 그 이유는 천국에서도 넓은 창공 같이 보이는 공간이 있고 천국 위에 다른 천국이 있기 때문이다. 개별적인 천국 역시 이와 똑같다. 왜냐하면 각 천국을 자체로 볼 때 세 천국으로 구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가장 깊은(세 켜) 천국과 중간 천국 그리고 가장 낮은(첫 켜) 천국으로 구별된다.

「요한 계시록 밝힘」 제 879항: ‘나 요한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느님께서 계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란 이전 교회의 마지막 때에 주님에 의하여 건설될 새 교회와 그 교회가 삶과 교리에서 신성한 진리 안에 있는 새 천국과 연합될 것을 의미한다. ‘하느님께서 계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옴’이라고 말해졌다. 그 이유는 새 기독교 천국을 통해서 주님께서 내려오시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지상의 교회는 주님에 의해 천국을 통하여 형성되며 그분 앞에서 그들이 하나이기 때문이다.

「요한 계시록 밝힘」 881항: ‘신랑을 맞은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차려 입고’란 교회가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결합되어짐을 의미한다. ‘차려 입고’란 그 여자가 약혼을 위해 옷을 입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교회가 말씀으로 약혼을 위해 잘 차려입은 것이란 결합 또는 결혼을 위해 말씀으로 잘 단장한 것을 의미한다. 말씀이 결합이나 결혼의 유일한 수단인 이유는 말씀이 주님으로부터 존재하며 그분에 관한 말씀이 주님이시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언약’이라고 불리며, 언약은 영적 결합을 의미한다. 또한 말씀은 이를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 ‘남편(신랑)’이 주님을 의미함은 본문

의 9-10절로부터 명백해지는데, 이 구절에서의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아내인 신부'라고 불리고 있다.

### 질문 정리

- 1) 요한이 본 주님의 오른손에 들린 책은 무슨 책인가?
- 2) 그 책은 얼마나 많은 봉인이 찍혀서 봉해져 있었는가?
- 3) 누가 그 책을 열었는가?
- 4) 본문에서 옥좌 앞에는 누가 서 있었는가?
- 5) 열려있는 책이란 무엇인가?
- 6) 죽은 자들은 어떻게 심판되는가?
- 7)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올라 있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가?
- 8) 제 21장 첫 절에서 요한은 무엇을 보았는가?
- 9) 여러분은 성경의 어느 부분에서 하늘과 땅에 관하여 처음 접해보았는가?
- 10) 요한은 하느님께서 계시는 하늘로부터 무엇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가?
- 11) 이 도성의 이름은 무엇인가?
- 12) 이 이름이 우리에게 친숙한 까닭은 무엇인가?
- 13) 이 도성에서 축복 받는 이들은 무엇을 발견하게 되는가?
- 14) 주님은 스스로를 무엇이라고 부르셨는가?
- 15) 알파와 오메가는 무엇인가?
- 16) 주님은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 17) 주님은 어떤 종류의 목마름에 관하여 말씀하셨는가?
- 18) 생명의 샘물은 무엇인가?
- 19) 하느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질문의 답

- 1) 말씀 2) 일곱 3) 주님 4) 죽은 자들 5) 개개인의 인격 6)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정도에 따라서 7) 불 못에 던져지다 8) 새 하늘과 새 땅 9) 창세기 1장 1절 10) 거룩한 성 11) 새 예루살렘  
12) 우리 교회의 이름이므로 13) 눈물, 죽음, 슬픔, 울부짖음 그리고 고통이 없다  
14) 알파와 오메가 15) 그리스 알파벳의 처음과 마지막 글자 16) 생명의 샘물  
17) 진리에 목마름 18) 말씀 속의 신성한 진리 19) 하느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인격이 발달함

## 40

### 새 교회 날

#### 머리말

주님의 재림은 이미 이루어 졌다는 것과 인류를 위해 말씀의 진리를 밝혀 주심이 재림임을 강조한다. 주님은 인간이 언제나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도록 그분 자신과 그분의 뜻에 관한 지식을 충분히 알려 주셨다. 오늘날 우리의 선택에 대한 기회는 예전의 어느 때보다 훨씬 많으나 그분을 거절하는 대가 역시 같은 비중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 성 서 본 문: 요한계시록 22장 13-21절

22장: 13. 나는 알파와 오메가, 곧 처음과 마지막이며 시작과 끝이다. 14. 생명의 나무를 차지할 권세를 얻고 성문으로 그 도성에 들어가려고 자기 두루마기를 깨끗이 빠는 사람은 행복하다. 15. 개들과 마술장이들과 음란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 자들과 거짓을 사랑하고 일삼는 자들은 다 문 밖에 남아 있게 될 것이다.  
16.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모든 교회에 이 모든 것을 증언하게 하였다. 나는



다윗의 뿌리에서 돋은 그의 자손이며 빛나는 샅별이다.” 17. 성령과 신부가 “오소서!”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도 “오소서!”하고 외치십시오. 목마른 사람도 오십시오. 생명의 물을 원하는 사람은 거저 마시십시오.

18. 나는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분명히 말해 둡니다. 누구든지 여기에 무엇을 덧붙이면 하느님께서 그 사람을 벌하실 때에 이 책에 기록된 재난도 덧붙여서 주실 것입니다. 19. 또 누구든지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에서 무엇을 떼어 버리면 이 책에 기록된 생명의 나무와 그 거룩한 도성에 대한 그의 몫을 하느님께서 떼어 버리실 것입니다. 20. 이 모든 계시를 보증해 주시는 분이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오소서, 주 예수여! 21. 주 예수의 품위가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빕니다.

### 교리 요점

- \* 주님의 두 번째 오심은 성경을 열어 주심으로써 성취되었다.
- \* 이 밝히심은 인류에게 있게 되는 가장 큰 밝히심으로 마지막 계시이다.

### 해설

여러분은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아름다운 성에 관하여 읽었을 것이다. 이 성은 사도 요한이 하느님께서 계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환상 속에서 보았던 것이며, 이 성의 이름으로부터 우리 교회의 이름이 유래된 것이다. 우리는 성경이 “한 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어 내셨다”라는 구절로 시작하여 거룩한 성이 내려오는 것으로 끝맺고 있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인식해야 한다. 본문의 첫 절에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 곧 처음과 마지막이며 시작과 끝이다”라고 예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신 것도 이와 같은 의미이다. 알파와 오메가란 그리스어 알파벳의 첫 번째와 마지막 글자이다. 사실 성경의 모든 가르침은 이 짧은 구절 안에 함축되어 있다. 새교회에서는 매년 6월 19일을 “새교회 날”로 기념한다. 그 이유는 스웨덴북이 그의 마지막 저서인 「진정한 기독교 종교(True Christian Religion)」 제 7911항에서

“이 책이 마무리 된 후 주님은 세상에서 그분을 따라 다녔던 열 두 제자들을 부르셨다. 그 다음날 그분은 그들을 전 영계로 두루 보내어 주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신다. 이 왕국만이 세세토록 존재할 것이다 하는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이 일은 1770년 6월 19일에 거행되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이들이 “우리는 새 시대야”라고 말하곤 한다. 이렇게 말하는 이들은 새 시대라는 것과 더불어 자동차, 비행기, 컴퓨터 또는 우주여행과 같은 과학적 기술적인 발전을 고려한다. 우리가 물리적인 세계에 관하여 많은 것을 발견하고 알아내며 배워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어떤 새로운 것을 창조해가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사실은 물질세계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사용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사실 물리적 지식의 발전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새로운 문제들을 야기하기도 한다.

요한계시록 21장 첫 절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는 “그 뒤에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이다. 새 시대적이며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드는 이는 인간이 아닌 오직 주님이시다. 성경의 이야기는 인간이 그들의 중심에 주님에 의해 심어진 생명나무가 존재했던 에덴의 동산에서의 순진함과 행복함으로 가득했던 상태에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어떻게 선택해 가느냐에 관한 것으로 요약된다. 다시 말해서, 주님을 믿고 순종하던 상태에서 스스로의 생각과 의지로 삶의 방향을 결정하려하고 결국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대신 스스로의 생각과 판단을 신뢰함으로써 모든 것을 잃어가는 이야기가 바로 주님이 오시는 시기까지의 성경의 이야기이다.

주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인간에게 주신 말씀 속의 내적인 의미에 관한 지식은 그분께서 인류를 위해 밝히시는 마지막 계시이다. 말씀의 내적인 의미에 바탕을 둔 새교회는 세세토록 지속된다. 그 이유는 그 지식에 드리우는 빛이 지금 주님을 인식하고 그분의 뜻을 알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새로운 진리는 새로운 시대의 “학식이 있다는”이들에 의해 대두되는 논쟁의 어떤 것도 관계치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이 새로운 진리를 배우고 익힘으로써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자아 대신 주님을 선택하게 된다.

## 참고 문헌 -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진정한 기독교」 제 791항: “이 일이 끝난 후 주님은 세상에서 그분을 따랐던 열 두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다. 그리고 다음날 그분은 그들을 영계에 두루 파견하여 주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신다는 복음과 그분의 왕국만이 다니엘서 (7:13-14)와 요한계시록(11:15)에서 예언하신 바에 따라 세세토록 있게 될 것임을 선포하게 하셨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초대 받은 사람은 행복하다 (계시록 19:9)’는 것은 1770년 6월 19일에 거행되었다.”

## 질문 정리

- 1) 본과에서 우리는 어떤 특별한 날을 기념하고 있는가?
- 2) 우리는 그날을 왜 그렇게 부르는가?
- 3) 본문에서 주님이 자신에 관해 말씀하신 첫 번째 사항은 무엇인가?
- 4) 알파와 오메가란 무엇인가?
- 5) 우리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어떻게 아는가?
- 6) 우리는 본문의 마지막절은 어디서 자주 접했는가?
- 7) 왜 주님은 그분의 재림을 만드셔야 했는가?
- 8) 왜 주님은 우리가 올바른 것을 뜻하든지 혹은 그렇지 않든지 언제나 자유롭게 내버려 두시는가?
- 9) 우리가 어리다하더라도 위의 사항(8항)을 기억해 두어야 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 10) 왜 많은 이들이 새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하는가?
- 11) 10항과 같은 잘못된 결말로 인해 어떤 결과가 빚어지는가?
- 12) 어떤 법이 결코 변할 수 없는가?
- 13) 주님은 우리의 새 시대에 부응되도록 무엇을 해주셨는가?
- 14) 주님의 이 은택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질문의 답

- 1) 새교회의 날 2) 진정한 기독 종교 제 791항 참조 3) 나는 알파와 오메가...
- 4) 그리스 알파벳의 처음과 마지막 글자 5) 요한이 그분을 인정했으므로
- 6) 예배의 축복기도에서 7) 인간이 신성한 진리를 통찰할 필요성 때문
- 8) 주님께 대한 사랑과 선한 것을 사랑함은 강요될 수 없기 때문
- 9) 천국을 우리가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 10) 굉장한 과학 발전
- 11) 성경의 법은 시대에 뒤진다는 생각 12) 주님의 법
- 13) 말씀의 내적인 예배를 여셨다
- 14) 새 진리에 따라 말씀을 공부하고 그대로 살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야 한다.

“Well done, good and faithful servant”

Matthew 25:21